

KOREAN ARCHITECT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 4월호 통권312호



月刊 建築士 1995년 4월호 통권 312호(매월 5일 발행) 편집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23일 등록번호 · (서)라 - 26 1985년 12월31일 제3종우편물(-)급인가

April
4

의원작품

리츠칼튼 서울 / 류준수

한국산업은행 전자계산소 / 이영희+민병훈+이석문

한솔제지 임목육종연구소 / 김창수+박승+한상복

에덴병원 / 류연장

여수성광교회 / 임금주

동래국민학교 / (주)일신설계

작품노트

빛이 있는 공간, 성도교회 / 최동규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이희태(2)/양승숙

건축기행

충남미 문화기행(1) / 김언철

연구

도시 환경과 건축문화(4) / 황용주

기고

일조권과 건축 / 주명록

구조물 발파해체공법 / 전태수

해외건축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2) / 박효순

현상설계경기

4. 19 기념도서관

입고는 즉시 출고는 38초

삼성셔틀파킹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에 대로 준비되므로
입출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팔레트 동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옮겨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에 대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리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범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셔틀파킹의 한 유니트(Unit)는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반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니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대비 설비
가동효율과 주차공간 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채택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밸런스를 깨냅니다.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삼성 주차설비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수직순환방식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
시키면서 입출고하는 시스템.

엘리베이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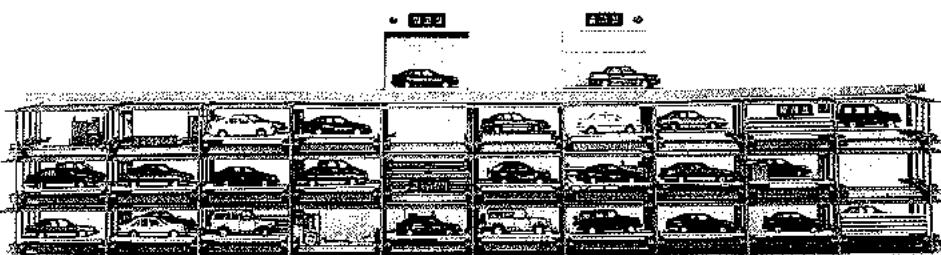
엘리베이터에 차를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다층순환방식

편베이어 원리를 이용 팔레트를
상, 하층으로 이동시키면서 입출고
하는 시스템.

수평순환방식

주차공간에 팔레트를 평면으로
배열하고 간단히 평면 이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세계 1등 품질에 도전한다



삼성중공업



(주) 중앙창호

본사·공장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40
 본사·사업부 (032) 571-7771 Fax 575-6655
 건기구사업부 (032) 582-7771 Fax 571-7744
 시스템창호사업부 (032) 583-7771 Fax 571-7744
 서울전시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0-9
 기린건축자재백화점 102호
 (02) 548-8033 Fax 549-9234

창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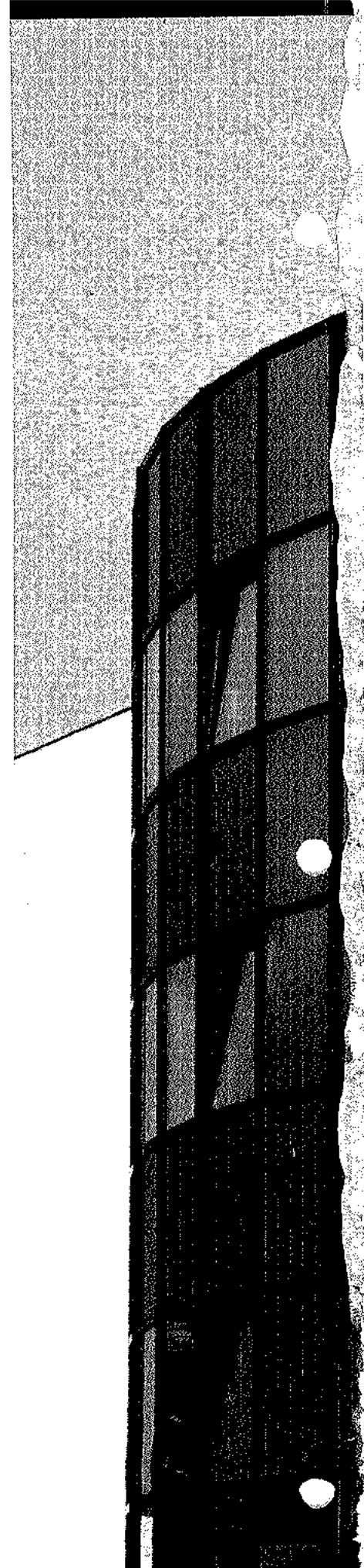
독일 HARTMANN 社의 정통시스템 창호 — 중앙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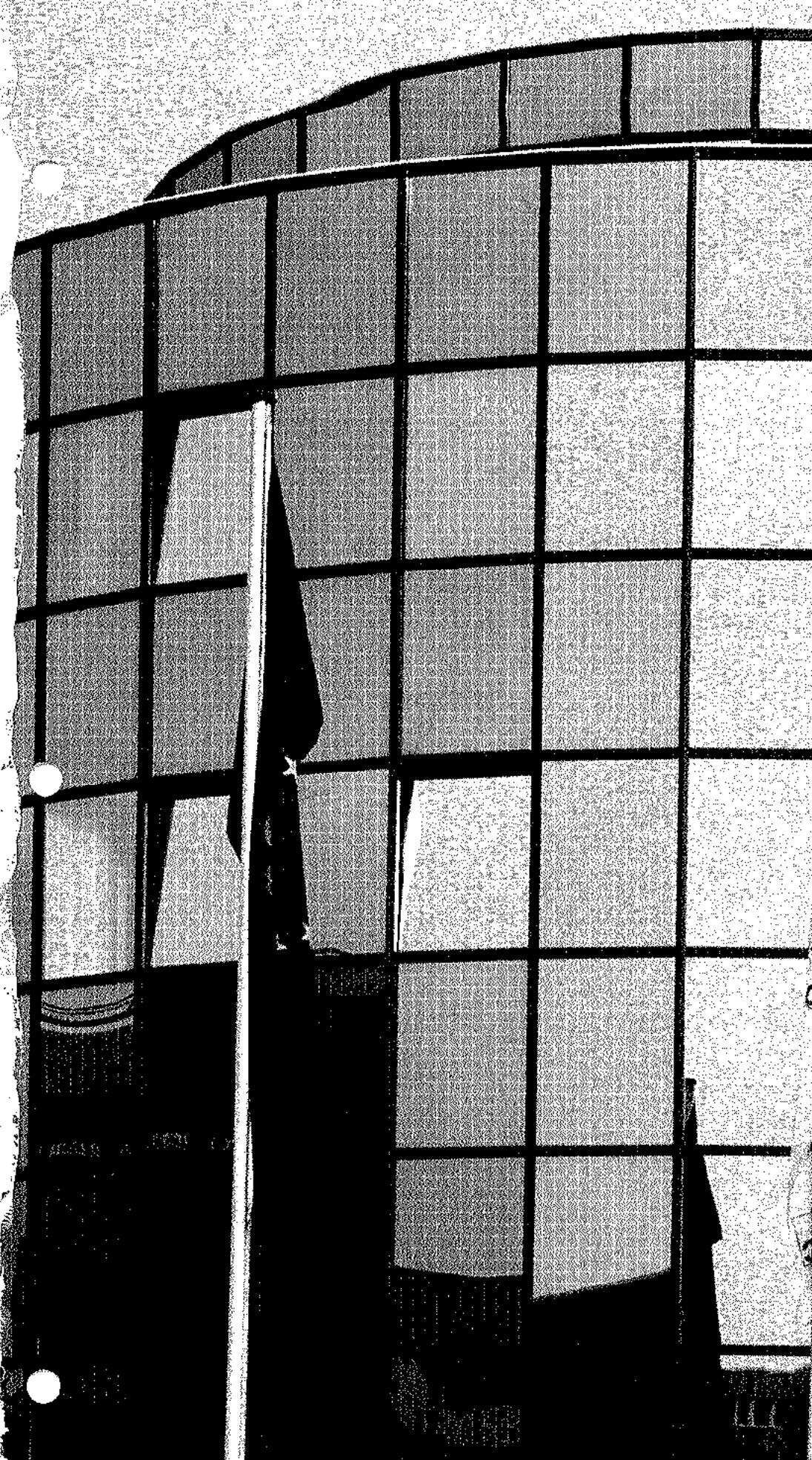
고급 특수목 가공으로 명품의 창호, 건구, 가구를 제작 시공해온
 독일의 명문 중앙창호가 독일 하트만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만나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중앙창호의 모든 커튼월과 시스템창호는 엄격하기로 이름난
 독일 DIN 규정의 폴리아미드 단열바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방음효과, 탁월한 단열효과, 완벽한 결로방지,
 다양한 개폐방식 등 . . .
 독일의 합리성과 견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하트만사의 수백가지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은
 건축가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인의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는 고급특수목의 건구,
 가구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는
 중앙창호와 상의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신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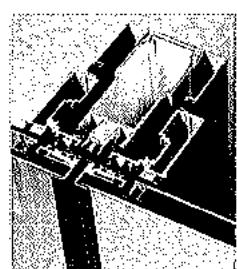
신고간

신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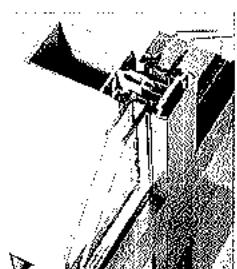
기술이 다를면

가치도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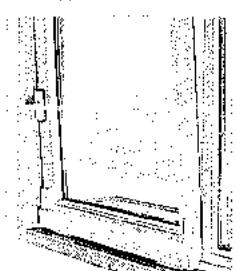
S-5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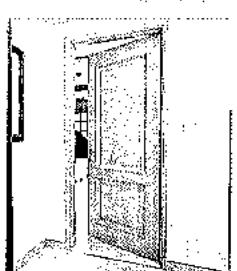
S-4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S-3000
단열창호T/T
(안료이뇨+다역비 Tilt Turn)



알루우드PST (Parallel Sliding & tilt) 알루미늄 + 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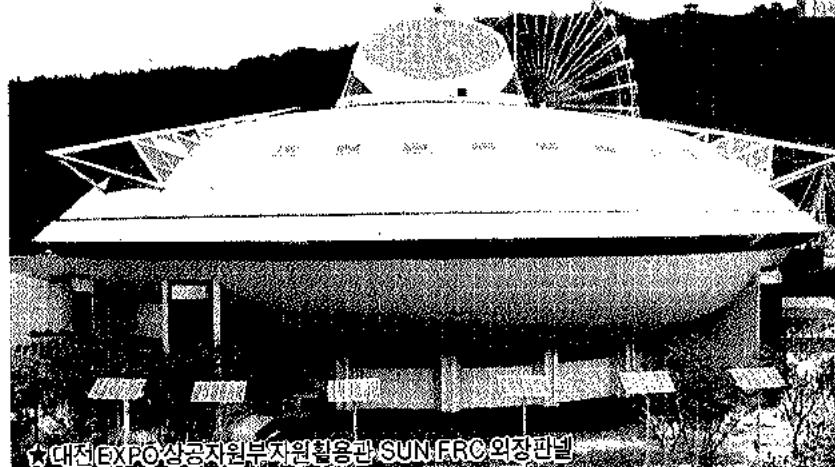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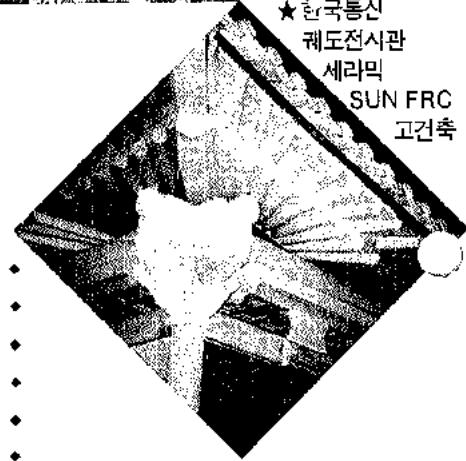
하이테크 첨단 파인세라믹스 SUN FRC

SUN F.R.C 장기시험

기술적 특성	
내연성(a A 법)	불연성
인장강도 (kg/cm ²)	254
압축강도 (kg/cm ²)	663
휨강도 (kg/cm ²)	407
충격강도 (kg cm/cm, Charpy)	9.0
밀도 (g/cm ³)	1.762
흡수율 (%)	0.01
경도 (Durometer, H _D)	93
내열성 (100°C, 2hr)	이상없음
내 약 품 성	a. 10% 황산 이상없음
	a. 10% 염산 이상없음
	a. 10% 질산 이상없음
	a. 10% 수산화나트륨 이상없음
	95% 메틸 알콜 이상없음



★ 한국통신
궤도전시관
세라믹
SUN FRC
고건축



1. SUN F.R.C 기술설명서

1. SUN FRC는 조형성이 뛰어나고 어떤 곡면이나 크기 형태(디자인)의 제작이 자유로우며 1m/m~200m/m 두께로 제작이 가능한 파인 세라믹스입니다.

2. SUN FRC는 콘크리트에 비해 낮은 물의 계수에서 인장강도와 휨강도가 10배나 높습니다. 경화는 낮은 온도에서도 뛰어난 유연성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인장강도 시험결과 오랜 시간에도 일정성을 유지하고 100년에 준하는 가속실험 결과 외부노출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용력도가 뛰어나 어떤 형태의 변화에도 다양성있게 사용할 수 있고 고볍고 강도가 높아 300m/m~300m/m~3m/m의 평균무게가 450g 정도이어서 대략 FRP와 비슷합니다.

3. 온도 팽창계수는 강철과 비슷하게 낮은 F에서 inch당 7~10⁻⁶입니다. 충격에 강하며 하중에 의한 손상은 그 부분뿐이고 균열이 없어 보수가 용이합니다. 일반아모에는 물론 연마기에 의한 기계적 마모에도 저항성이 강하고 필요에 따라 페인트 등을 표면에 처리할 수 있고 판넬자체에 원하는 색상을 넣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4. SUN FRC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완전 불연성이며 시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이 없는 고신장력을 갖고 있는 무공해 첨단 신소재인 것입니다. 또한 현장 접합 시공이 전기용접, 볼트 등으로 작업이 용이하고 보온, 방수, 방음, 방사선 차폐, 낙뢰부진도 등에 효과가 커서 일반 건물내외 장재와 고건축 문화재 복원 등 조형물제작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 : 물가자료 75쪽 참조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제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 37180호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절대안전·인천성·편의성
등 시민족 시기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 셔터 설치업체

- 미도파 상계점
- 한대백화점 암구점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등점
- 경방밀 프리자
- 부산 리버파크 쇼핑
- 명동 SS 패션매장
- 대현투자신탁사옥
- 세일은행 구본점
- 하이트 호텔
- 조선호텔
- 위커힐호텔
- 속초아름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 구청사
- 아주대 부속병원
- 치주증양병원
- 보령제약시목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창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시제품 전시회 출품

- '93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產業株式會社

본사 :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6洞 98-6

TEL : 838-4545 (代)

FAX : 838-0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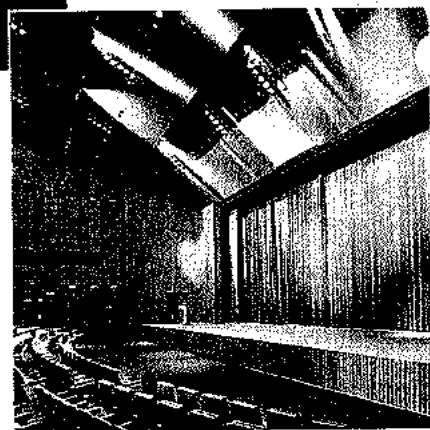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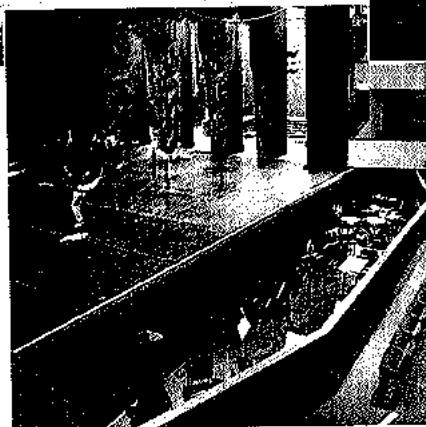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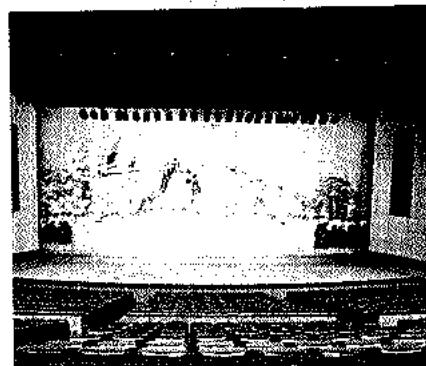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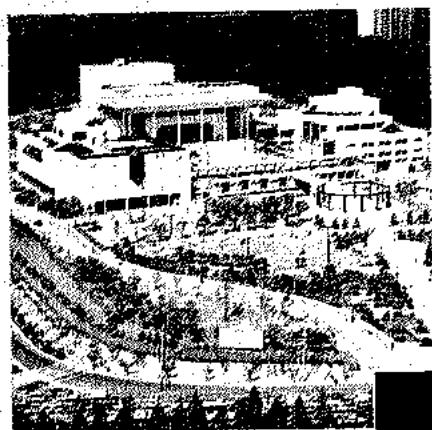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B/L

제조원 : 아 주 셔 터 공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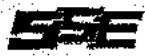
무
대
기
계

무
대
조
명

영
상
설
비



기획 · 설계 · 시공



(주) 성스테이지엔지니어링

SUNG STAGE ENGINEERING CO., LTD.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8

(시화동단 2나 209)

TEL:(02)855-5373,(0345)499-8100~4

FAX:(0345)499-8105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안전과 경제성을 추구합니다.

無支保 逆打設 (N.S.T.D) 工法



무지보 역타설공법 전설세미나 (대한건설협회주최)

건축 지하구조물의 설계, 감리, 시공은 안전제일주의 무지보 역타설 공법

건축기술인과 함께하는 기업

(주) 정답

TEL: (02) 594-8100/9
FAX: (02) 533-9187

무지보 역타설 (N.S.T.D) 공법은

가설 H형강 토류벽을 이용하여 건축 지하구조물을 역타설 축조하므로서

1.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원가상승없는 구조보강으로 안전성 증대
2. HANGING 장치에 의한 거푸집으로 상, 하향 자유자재로 이동설치하여 콘크리트타설 양생 중에도 그 하부 지하굴도 작업의 연속성 보장으로 획기적인 공기단축

종래 개착식 굴토후 구조물 축조공법과 비교하면

30%의 공기단축과 15%의 공사비절감

1. 동바리 사용 불필요
2. 중장비 작업대기 불필요
3. 거푸집 설치, 해체에 따른 소운반 불필요
4. 지하충수 증가할 수록 원가절감 효과 상승

무지보 역타설공법 안전진단결과

1. 흙막이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결과 각 부재의 흡전단, 압축에 대한 작용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나타나 모두 안전함
2. 인접건물 기초 침하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 전체 침하와 부등침하 모두 허용치 이내이므로 안전함
3. 임반층이 높은 도심지 현장에는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면에서 매우 유리함

- 한국 건설 안전 기술협회 -
- 대한 산업 안전 협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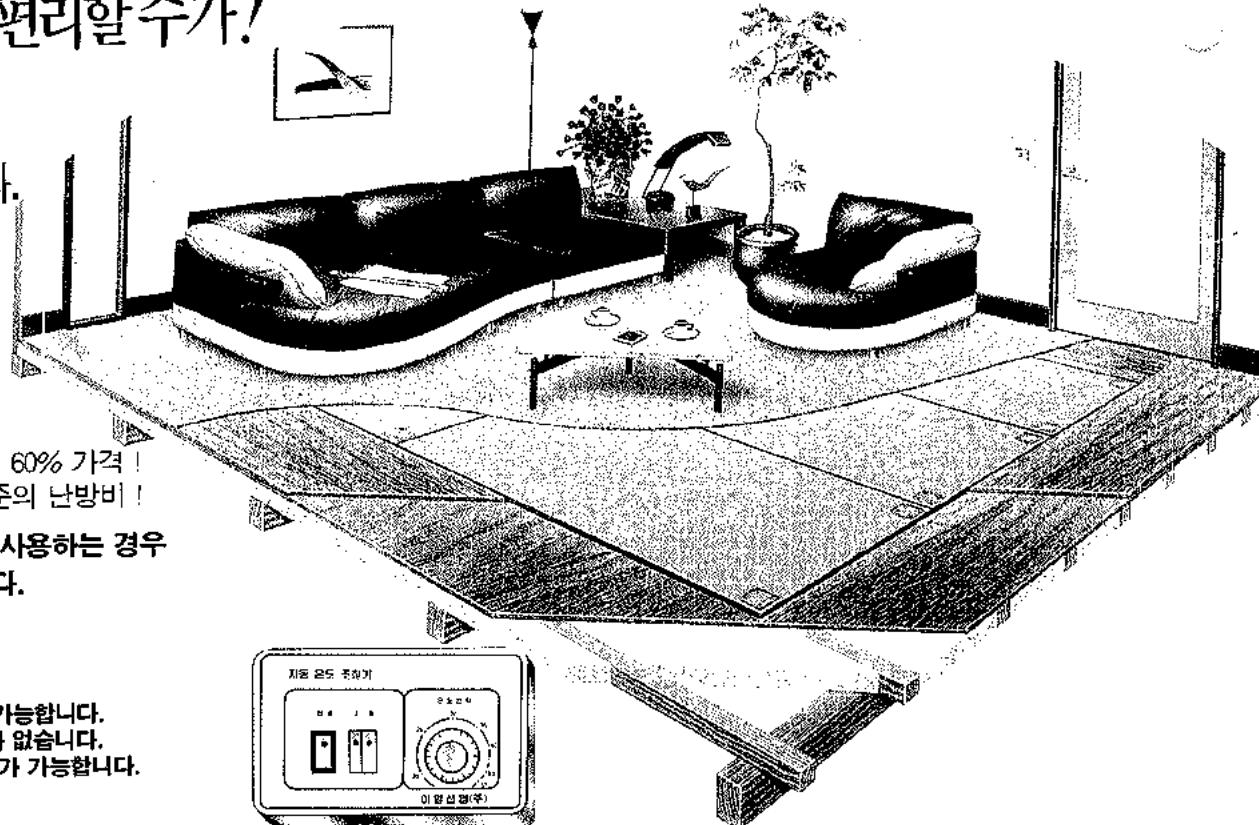
무지보 역타설 (N.S.T.D) 공법은

공사비, 공사기간절감과, 지하굴토공사 주변피해 민원을 억제하는 안전제일주의 공법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며, 건축기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일 전기 온돌판넬

이렇게 따뜻하고 편리할 수가!

당일시공, 당일난방,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시공비는 가스, 기름보일러의 60% 가격!
가스, 기름값보다 저렴한 수준의 난방비!

상업용 전기나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연료보다도 경제적입니다.

1. 시공이 간편합니다.
2. 경제적입니다.
3.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4. 깨끗한 공간, 소음, 연기, 냄새가 없습니다.
5.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장소

일반 주택은 물론 별장, 여관, 기도원, 절,
놀이방, 현장숙소, 빌딩대기실, 휴게실,
콘테이너 하우스 등의 난방, 특히 음식점,
독서실, 유아원, 공장 기숙사의 온돌 난방에
이주 좋습니다.

■ 설치프랜 예

LP1			LP2
			LP4

공진청 협식승인 ② 3-7-4527
실용신안권출원 제91-11674호
실용신안권 출원 제92-18466호
의장권 출원 제91-10816호

* 본 제품은 1억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방 면적 10.2m²/난방면적 7.5m²/부실율 73.5%
- 소요 자재
 - 온돌판넬 LP1(220V/240W) × 4장
 - 온돌판넬 LP2(220V/140W) × 1장
 - 온돌판넬 LP4(220V/180W) × 1장
 - 온도조절기(종형) × 1대
- 전기용량 소요 1.28kw
- 전기 요금 예상
 - 1.28kw × 10hr/일 × 0.7 × 52원/kwh = 466원/일
 - 466원 × 30일/월 = 13,980원/월
 - * 1일 10시간 사용, 통전율 70%, 전기요금(일본)
전기) 단기 52원/kwh의 일간 전기 요금임.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9-4(덕암빌딩 402호)
TEL. 521-9417~8 FAX. 521-9419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94블럭 14롯트
TEL. (032)813-5407 812-8798

지방지역 총판

대전 : (042)628-2845 강원 : (039)33-0917
부산 : (051)248-8933 광주 : (062)225-0064
대구 : (053)753-4848 제주 : (064)44-4520

“직산업무 전산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체설계

조달청, 충무처(시설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시자하철공사,

서울시자하철건설본부, 체신부조달사업부, 법무부, 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육군본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수협중앙회 데이콤 현대건설(주), 공영토건(주), (주)기산, (주)대명건설,

신동아종합건설(주), (주)대동주택, (주)우양건설, (주)삼환기업, (주)삼환까뮤, 성일건설(주), 경향건설(주) 동국산업(주)

신화건설(주), 라이프종합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주)대륙건설, 그랜드종합건설(주), 한주개발(주), (주)씨엠기업, (주)한솔건설

삼안기술공사(주), 동보건설(주), (주)한국종합건축, 승도종합건축, 한강종합건축, 서울주택개발(주), 미주실업(주), (주)범한

거양개발(주), 부성건설(주), 진로건설(주), 두산건설(주), 삼경건설(주), (주)창조종합건축, (주)신한, 서울건축(주)

임야건축(주), 유일종합건축(주), (주)세마종합건축, 토당건축, 보람종합건축, 한국조형건축, 진화건축

(주)이공건축, 미래건축(주), 동명기술공단(주), 가전종합건축, 도화종합기술공사(주)

한양적산연구소, (주)세원엔지니어링, (주)한국산업경영연구소, 성진건축

삼안건설기술공사(주), 서인적산연구소, 외 500개 업체.

고객비가 설계비의 5%도 안된다고 신경을 못쓰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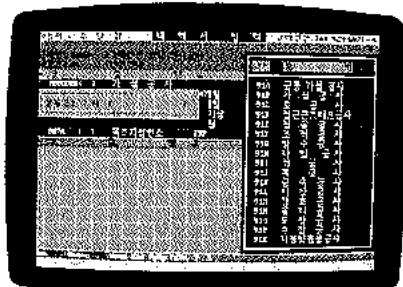
시장개방을 맞아 며지않아 기획에서 설계, 견적, 시공에 이르는 전문 분야를 연계하는
CIC구축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젠 직산업무를 외주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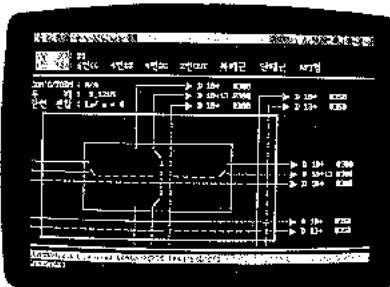
고려전산의 견적관리 프로그램이 **설계사무소** **관공서** **시공회사** 에서 많이
사용하고, 평가가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고, 설계예산 내역서에서부터 발주처 시공회사까지 DATA가 연계처리
되며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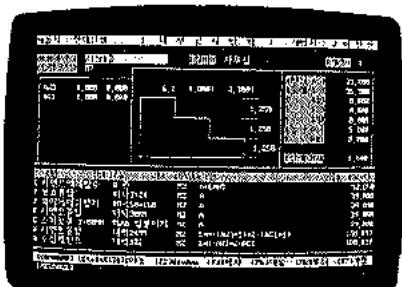
EMS-I(내역관리)



R.C(골조물량산출)



K-FIN(마감물량산출)



효과: ① 외주비 절감 ② 신뢰도 증가 ③ 다양한 분석 및 기술축적

S/W 목록

- EMS-I 내 역 관 리 SYSTEM
- EMS-II 전기내역관리 SYSTEM
- EMS-III 설비내역관리 SYSTEM
- EMS-IV 토 목 내 역 SYSTEM
- R.C 골조물량산출 SYSTEM
- K-FINISH 마감물량산출 SYSTEM
- M.M.S 자 재 관 리 SYSTEM
- P.M.S 공 사 관 리 SYSTEM
- A.M.S 건설회계관리 SYSTEM
- P-PMS 인사/급여관리 SYSTEM

특징: ① 사용하기 편리하다(도움말/화면메뉴/팝업메뉴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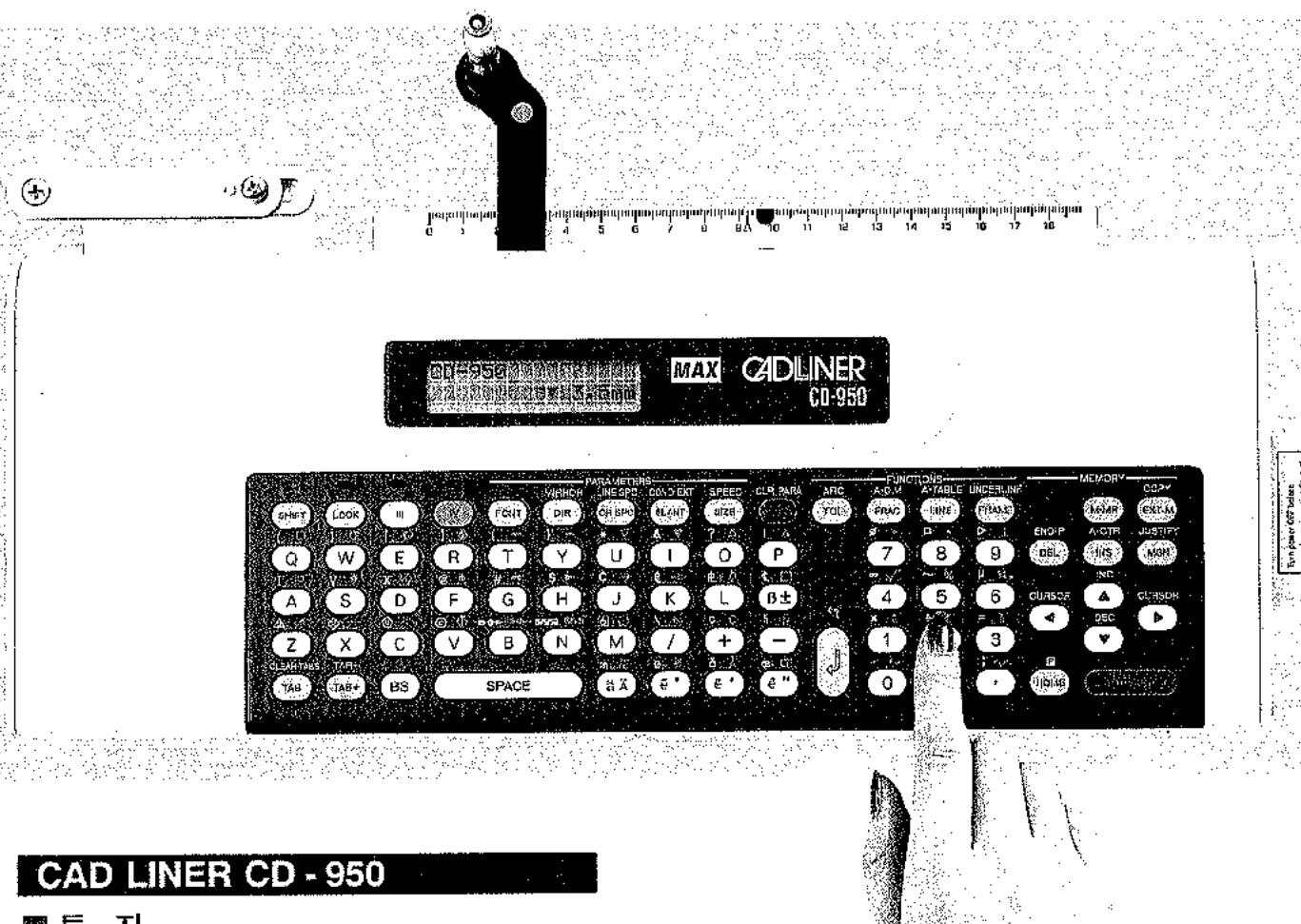
- ② 최소의 입력으로 최대의 출력과 집계분석
- ③ 물량산출시 내역으로 자동연결됨
- ④ 자재코드, 일위대가 제공
- ⑤ 설계변경/기성내역 작성이 용이하다.
- ⑥ 관공서(발주처) 전산내역 입찰과 연결
- ⑦ 통신을 이용한 완벽한 아프터 서비스

“깨끗한 도면, 살아있는 글자체”(한글·영문)

세계최초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

아직도 글씨를 손으로 쓰고 계십니까?

설계도면 및 레터링 작업시 빠르고 깨끗하게 쓸수있는 레터링 프로터.
자, 이제는 맡기십시오!



CAD LINER CD - 950

■ 특 징

- 세계최초로 개발된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로 정전시에나 현장등 어느곳에서나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7가지 영문체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도면 사양에도 적합합니다.
- 더욱 깨끗하고 새로워진 한글체도 기본으로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 기존제품 보다 훨씬 다양해진 기능과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진 컴퓨터식 보턴.

■ 용 도

- 기계 도면 제도, 건축 도면 제도, 전기 도면 제도, 전자 도면 제도, 토목 도면 제도, 측량 도면 제도, 설비 도면 제도, 연구 논문 작성, OHP 필름작성, CAD 원도작성, 기타 서류 작성 등.
- 각종 설계도면의 내용 표기, 글자, 기호등 표기.
- 정확하고 깨끗한 글씨는 설계도면의 품위와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

CAD LINER
CD-950

MAX

수입원 : 유미교역
서울 중구 북창동 93-3
(삼옥빌딩 603호)
TEL (02) 776-2252
FAX (02) 776-2253
H. P. 011-272-1929



건축설계의 토탈솔루션제공

.... 무한 경쟁시대의 동반자 선언 !

최첨단의 하드웨어와 전문화된 소프트웨어로 건축설계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젊고 창의적인 캐드전문업체인 청우시스템 —
청우가 여는 새로운 세계 — 다이나시리즈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Dyna CAD — AutoCAD 3rd Party SW

설계 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건축설계지원 프로그램.

- 한글 도움말
- 풍부한 심볼 제공
- 사용자 심볼 등록 기능
- 편리한 좌도와 편집기능
- 한글 변환
- 철저한 교육지원



QE-Quick Estimate

건축물의 물질물량인 콘크리트, 거푸집, 철근의 소요량을
내장된 수식과 사용자 정의 수식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물량을 산출하여주는 새로운 차원의 물질물량 신출 프로그램.



QUE 3

입찰경쟁에서 도급, 설계변경, 실행, 기성청구, 정산에 이르기까지
처리하여주는 공사내역작성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역서라도
작성할 수 있는 융통성과 모든 메뉴에 대한 도움말 기능,
보고서 출력형식의 변경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Dyna P5 / Dyna 486

3차원 및 그래픽 작업이 요구되는 설계업무에 적합한
Dyna P5 시스템과 최상의 효율과 경제성을 지닌
Dyna 486 시스템

모델명 : Dyna P560 / P566, Dyna 433 / 450 / 466V

Young Fellows System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29
TEL : (02) 587-5168 / 9
FAX : (02) 588-4156



587-5168/9

건축사·기사를 위한 소액대출 안내

1. 대출금액 및 구분

구 分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무보증인	3,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보증인	-	~3,000만원	(2군부터는 보증인을 선정하여 3,000만원까지 가능)			
건축사 (A직업군)	연간소득 3,000만원 이상 근무경력 3년 이상 재산세 5만원 이상	건축사로 개업한 자				
건축기사 (C직업군)				(4군) 연봉 1,500만원 근무경력 5년 이상		
상장회사 (B직업군)			(3군) 연봉 2,000만원 근무경력 5년 이상			

〈개인신용 평점에 따른 적용〉

*군분류

점수	120점 이상	110~119	85~99	84~70	69~50	49~10
심사등급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신용평점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및 배 점					
연간소득금액	구분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배점	75	70	60	50	35	10
직 업 군	구분	A직업군	B직업군	C직업군	D직업군	개별해당직업군은 전화문의요망	
	배점	30	20	10	0		
근무·사업년수	구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배점	20	15	10	5	0	
재 산 세 액	구분	20만원	10만원	5만원	1만원		
	배점	25	20	15	10		

2. 대출신청후 2일내 지급 : 맞보증 가능

3. 보증보험료 : 500만원당 46,640원(1년 기준)

4. 대출금의 12% 연납 보험료 적립(상해적금보험)

5. 구비서류

대 출 인		보 증 인 자 격	공 통 사 항
개인사업자	직 장 인		
• 자격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소득금액 증명원	• 재직증명서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 • 자격증	• 등등한 자격증소지자 • 공무원 • 일반재산세 납부자	도장 주민등록증

*취급품목 : 신용대출·담보대출·자동차신고·보상안내·화재보험·상해보험·적금보험·자동차보험



삼성화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부출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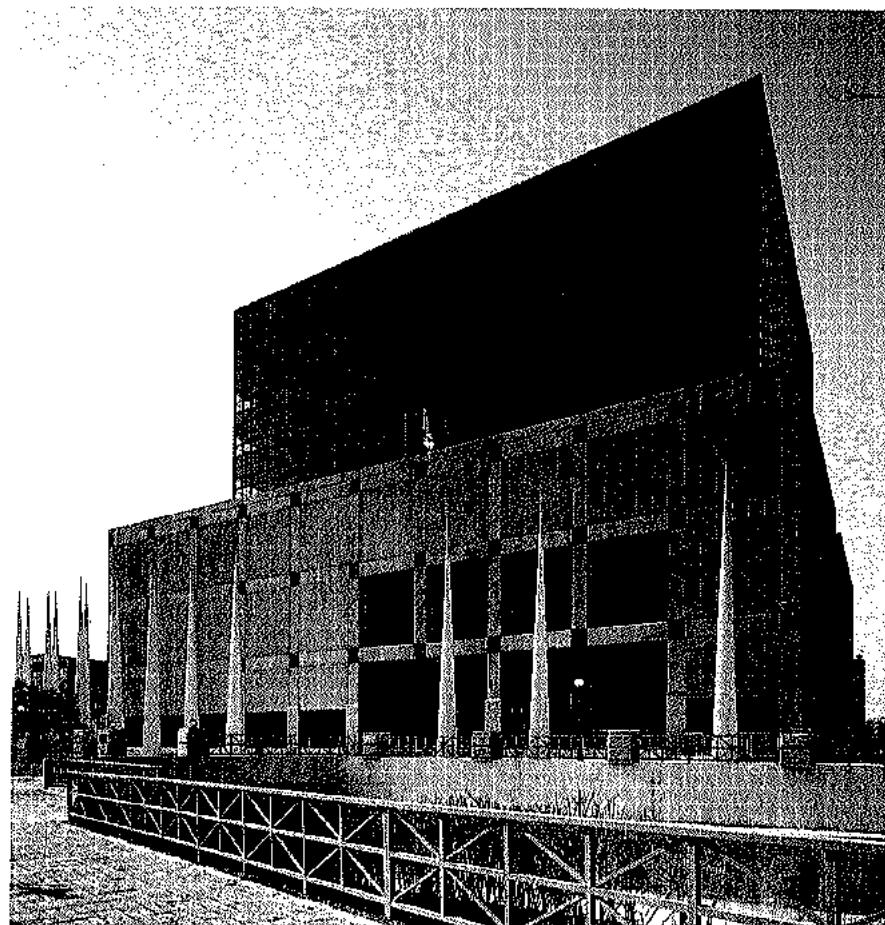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88-8호 3층

☎382-4894~6 FAX: 382-4896

*상기 내용은 당사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걸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던 것들이 새삼 우리네 기슴을 내려앉게 했던 몇 차례 일들을 기억합니다. 보아지 않는 부분을 소홀히 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건 파사드 시스템은 능숙한 시공 솜씨를 지닌 만큼 일에서도 철저한 공정을 지킵니다. 공정에서의 진지함은 언제나 결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건 Facade FW50으로 시공된 제2기 지하철 종합사령실

많은 시공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몇년에 걸쳐 지은 대형 건물이 결로수나 누수 방지 기능이 완벽하지 못한 커튼월 사용으로 수명이 단축되거나 다시 짓게 되는 일이 생길다면 그야말로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파사드 시스템은 폴리 앤드 게팅의 단열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낭·난방효율도 높아 사용자나 건축업자에게 이익을 보장하며, 시공전 완벽한 모크업 테스트와 컴퓨터 처리에 의한 구조 계산으로 완성되므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실합니다. 이건 파사드 시스템은 색상 및 소재가 다양하며, 유리의 이음부에 외부의 프레임이 노출되지 않아 외관에 독특한 청결함이 돋보입니다. 더욱이 여러가지 색상의 반사유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만드는데도 손색이 없습니다.

시공상의 모든 난점들 앞에서 대부분의 설계자나 건축업자들이 내린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건창호의 이건 파사드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FACADE

이건창호는 항상 고객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전시장에 오시면 창호에 관한 모든 기술적인 상담과 시스템 선정, 설계서비스 그리고 건적서비스를 자세히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사영업부, 삼성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9
전화 563-2071 팩스 563-5528

논현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 540-2071 팩스 540-2080

부산전시장
부산시 동래구 온천 2동 1434-10 서봉빌딩 2층
전화 051-557-2071 팩스 051-557-2077

대구전시장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61-2
전화 053-553-0916 팩스 053-553-0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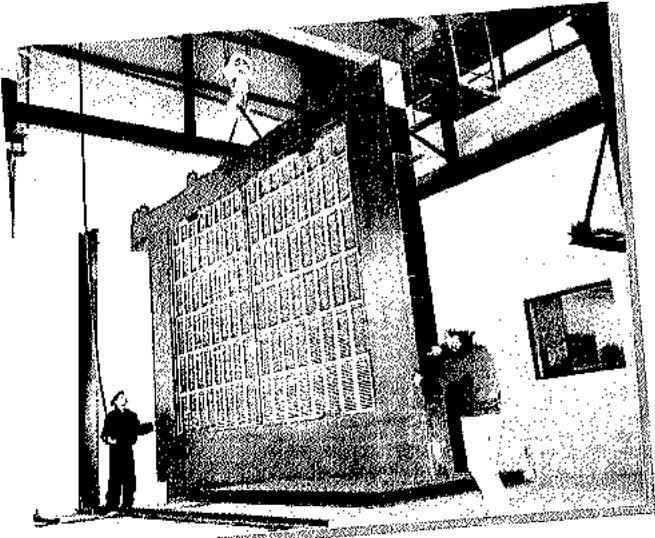
창원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팔송동 18-2
영남 건축자재 백화점내
전화 0551-88-1197 팩스 0551-89-1192

제주전시장
제주시 노형동 928-8 골드 건축자재 백화점 2층
전화 064-41-4301 팩스 064-42-3486

“쓰면 쓸수록 좋은 창호, 이건창호”

이건창호

건축부자재에 대한 차음성능시험을 하여 드립니다.



건축 재료에 대한 내화시험, 난연성시험 등
화재관련시험을 주로 수행하여 오던
우리 연구소는 건축환경 공해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이제 음향시험을 시발로
환경분야의 시험업무도 적극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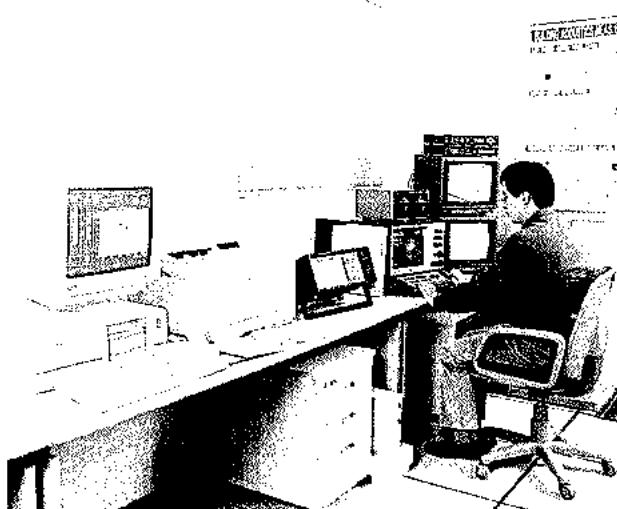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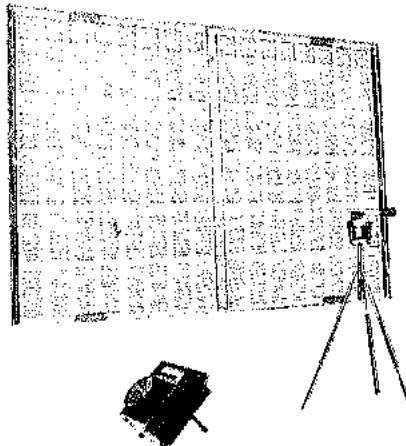
시험 분야

- 각종 건축부자재의 흡음을, 차음성능 측정
- 바닥부재 및 천정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 각종 실내 공조 및 급배수 등 건축설비의 가동 소음력 측정
- 각종 가전제품 등 소음원의 실내 소음력 측정
- 실내 음향 특성 및 소음 방지 대책 연구

시험 대상 품목

- 건축자재: 벽판넬, 석고판, 지붕판, PC콘크리트, 천정재, 바닥판, 방음창호, 판유리, 방음벽, 암면, 유리면, 흡음타일, 뿐칠흡음재 등
- 건축 설비: 공조설비, 덱트, 사이렌서, 냉동기, 송풍기, 콤프레서, 펌프 등
- 가전기기류: 냉장고, 세탁기, 전공청소기, 선풍기, 에어컨 등 가동 소음원

국내 최초로 시험체 카트리지 및
공기튜브 차폐방식 등 시험이 용이한
시스템을 갖추고 ISO 및 KS, ASTM,
JIS 등의 규격에 따라 음향시험을
신속·정확하게 실시하여 드립니다.



- ① 시험체 카트리지(사진은 알루미늄 재질의 건축용 방음벽판)를 조립
- ② 임향실 내에 시험체를 고정시킨다.(공기튜브 음차폐 방식)
- ③ 임향실내 설치된 회전 마이크로폰 및 계측장치로 각종 음향시험을 실시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

(우) 469-880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69-1
전화 : (0337) 84-8101~2, FAX:(0337) 82-3527

스테인리스 생활용품 전시장

STAINLESS STEEL LIVING ART ROOM

국내 스테인리스 소재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삼미종합특수강(주)은 그동안 개발해온 다양한 스테인리스 강판 소재를 활용하여 차세대 감각의 새로운 생활 분위기 창출을 시도한 “스테인리스 생활용품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호(WINDOW)

(STS 304 MR, Flat 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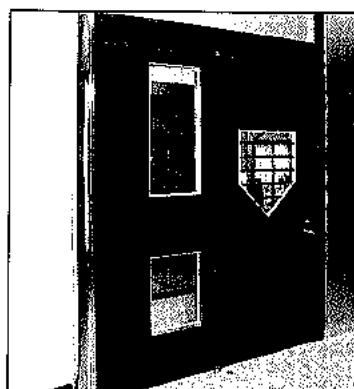
벽체(CURTAIN WALL)

(STS 304 MR, Dull Fin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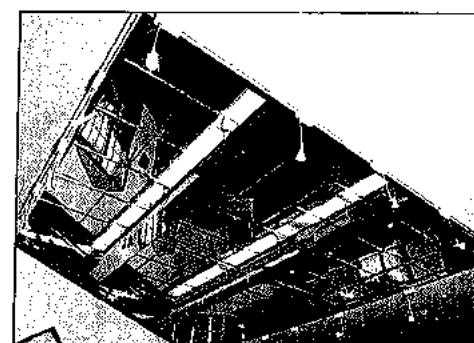
현관문(DOOR)

(STS 304 MR Black, Flat Bar)



천정(CEILING)

(STS 304 MR, MR Etching)



삼미종합특수강 주식회사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4

TEL : (02) 222-4114 FAX : (02) 563-1291~2

TLX : K26273 KISCO

서울 영업소 : TEL : (02) 222-4620

부산 영업소 :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7-6

TEL : (051) 644-6911 FAX : (051) 644-6916

경원 영업소 : 경남 창원시 산촌동 66

TEL : (0551) 68-4114 FAX : (0551) 64-2616

기술서비스센터

: TECHNICAL SERVIC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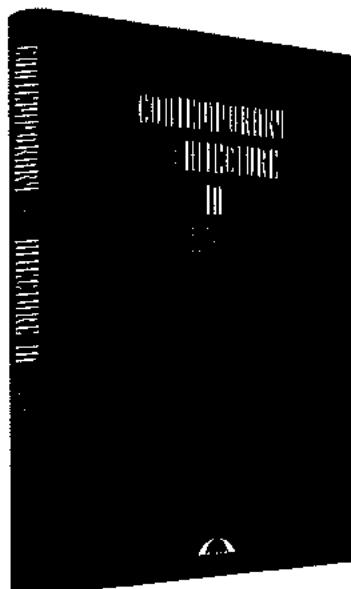
TEL : (02) 222-4496~7 FAX : (02) 563-1291(서울, 경인지역)

TEL : (0551) 68-4298 FAX : (0551) 64-2618(경남, 창원지역)

TEL : (02) 222-4740(스테인리스 생활용품상설전시장)

발언은 조형예술 전반에 관한 새책을 만들니다.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ASIA



발언에서 전세계 건축인들에게 아시아건축을 알린다.

- 영문본
- 대한건축사협회 지음
- Size : 235×310m/m 양장본
- 아시아 15개국의 83개 작품 수록
- 풍부한 화보, 도면, 해설(비평)
- 전세계 출판사 및 서점망을 통해 배포
- 가격 : 35,000원

아시아 15개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의 빼어난 걸작 83개 작품에 대한 사진, 도면과 비평이 실려 있는 책이다.

이번 단행본에는 주로 아직 건축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의 건축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그들 특유의 재료와 디자인으로 계획된 이색적인 것들이 눈에 띈다.

해설 또한 단순한 건물의 형상이나 디테일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어쩌면 어렵기도 한 주제를 쉽게 서술한 점이 이책의 특징이다.

아시아 건축의 현재 모습을 파노라마로 보면서 오늘날 우리 건축의 질적 수준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필독서이다.

이책에는 한국건축으로 김종성, 김석철, 김원, 등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저자:ARCASIA
가격:35,000원

콘크리트 보다 3배 단단한 시멘트 압출판넬

보이지 않는 곳의 충실함, 보이는 곳의 아름다움 - 서일에이스판넬

P

서일에이스판넬의 용도

- 고층빌딩, 아파트의 외벽재 및 바닥재
- 산업프랜트 및 공장의 내·외벽재
- 조립식 농촌주택의 내·외벽재
- 도로 및 철도변의 방음벽
- 주차타워의 외벽재, 지하이중벽

■ 서일에이스판넬의 특장점

- **얇고 단단하다.**
中空구조이므로 경량이며 방음, 단열효과가 뛰어납니다.
벽의 두께가 1/3로 줄어 보다 넓은 실내공간이 확보됩니다.
- **아름다운 모양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다양한 표면무늬의 연출이 가능하여 건축주의 취향을
100% 만족시킵니다.
- **빠르게, 경제적으로 시공한다.**
전식공법이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시공 할 수
있습니다.

서일에이스판넬

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8 선릉B/D (代)552-0945
공장: 충북 음성군 대소면 부울리 252-3 (0446)877-2916

전화문의 : (代)552-0945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4월호 통권312호

發 行 人 : 金圭泰
 編 輯 企 劃 : 編纂委員會
 委 員 長 : 李俊憲
 委 員 : 吳龍夫, 李柱勳, 梁海潤,
 崔泰容, 李 酣, 金宗植
 編輯・取材 : 弘報部/梁元錫, 鄭宰相,
 趙漢國, 李善模
 發 行 處 : 大韓建築士協會
 (協會創立日: 1965년 10월 23일)
 住 所 :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 便 番 號 : 137-070
 電 話 : 代表 (02)581-5711,
 581-5712~4
 鮑 事 密 列 : (02)586-8823
 登 錄 番 號 : 서울 라-26(月刊)
 登 錄 : 1967年 3月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 刷 人 : 李鳳秀/正文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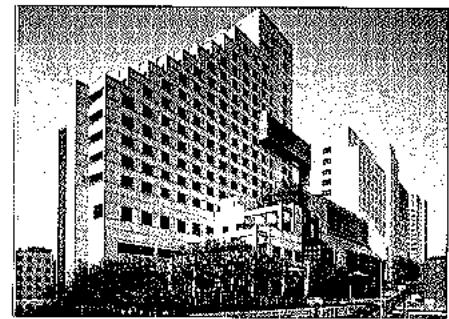
Publisher : Kim Gyu-Ta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eon
 Member : Oh Yong-Boo/Lee Joo-Hoon/
 Yang Hae-Yeon/Choi Tae-Yong
 Lee Bok/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월간 "건축사"는 한국인성을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
 는 금합니다.

차례

1995년 4월호 통권 312호

95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회사 / 金圭泰	22
치사 / 吳明	24
특별기고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을 위한 건축가의 역할과 제도개선(2) / 黃鏞周	26
획일작품	
리츠칼튼 서울 / 柳春秀	29
한국산업은행 전자계산소 / 李永熙+閔丙勳+李錫文	38
한솔제지 임목육종연구소 / 金昌壽+朴 昇+韓相默	44
에덴병원 / 柳然昌	50
여수성광교회 / 林級周	54
동래국민학교 / (주)일신설계	58
개획작품	
마당깊은 집 / 閔賢植	62
작품노트	
빛이 있는 공간, 성도교회 / 崔東奎	64
획일설계	
꽃(45×65) / 韓昌鎮	70
포구 1995 / 安日成	71
일상의 생각하며	
새로운 건축을 생각한다 / 李寬植	72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 이희태 (2) / 梁勝宿	74
건축기행	
중남미 문화기행 (1) / 金仁喆	84
연구	
도시환경과 건축문화 (4) / 黃鏞周	90
기고	
일조권과 건축 / 朱命錄	96
구조물 발파해체공법 / 全泰秀	98
해외건축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 (2) / 朴孝洵	106
현상설계경기	
4·19 기념도서관	118
통계	
1995년도 2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124
협회소식	
	126



표지사진 / 리츠칼튼 서울 (설계: 류춘수)

CONTENTS

VOL 312 APRIL 1995

'95 THE 1ST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S	
Opening Address / Kim Gyu-Tae	22
Appreciate Address / Oh Myung	24
SPECIAL FEATURE	
Architect Role and Public Function-A New Urban Amenity	
Creation Movement / Hwang Yong-Ju	26
WORKS	
The Ritz Carlton Seoul / Ryu Choon-Soo	29
Electronic Computation Center of The Korea Industrial Bank / Lee Young-Hee, Min Byeong-Hun & Lee Seok-Mun	38
Hanso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Kim Chang-Su, Park Seung & Han Sang-Muk	44
E·Den Medical Center / Ryu Yeon-Chang	50
Yeosu Seongkwang Church / Lim Keup-Ju	54
Tongrae Primary School / Ilshin Architect & Engineers	58
PROCESS WORK	
A Housing with Deep Space / Min Hyun-Sik	62
WORK NOTE	
Sunny Space, Seongdo Church / Choi Dong-Kyu	64
GALLERY	
Flower(45×65) / Han Chang-Jin	70
Port 1995 / An Il-Seong	71
ESSAY	
New Architecture in Globalization / Lee Kwan-Jick	72
SERIAL	
Korean Architect, Lee Hui-Tae / Yang Sung-Suk	74
ARCHITECTURE TRAVEL	
Cultural Travels of the Central · South America / Kim In-Cheol	84
REPORT	
Urban Environment & Architectural Culture / Hwang Yong-Ju	90
FEATURE	
Right to the Sunshine and Architecture / Chu Myeong-Rok	96
Building Blasting Demolition System / Chon Tae-Su	98
OVERSEAS ARCHITECTURE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 / Park Hyo-Soon	106
COMPETITION	
Memorial Library of The 4·19	118
STATISTICS	124
KIRA NEWS	12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분회/33-6411 · 관악분회/882-6744 · 도봉분회/903-3425 · 영등포분회/632-2143 · 강동분회/484-6840 · 강서분회/604-7166 · 성동분회/446-5244 · 동대문분회/923-0158 · 종로분회/735-0905 · 미포분회/333-5251 · 송파분회/423-9158 · 중구분회/279-1415 · 용산분회/717-6607 · 서초분회/552-8468 · 은평분회/388-1486 · 동작분회/815-3026 · 강남분회/517-3071 · 노원분회/933-8076 · 양천분회/653-2852 · 종로분회/437-7356 · 성북분회/922-5117 · 구로분회/852-2275

■부산광역시건축사회/(061)634-4973~80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69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256-9350~4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직할분회/(031)43-6662 · 민양분회/(0343)49-2698 · 부천분회/(032)664-1554 · 성남분회/(0342)755-5445 · 의정부분회/(0351)876-0458 · 송탄분회/(0333)666-6153 · 고양분회/(0344)63-8902 · 구리분회/(0346)63-2337 · 미천분회/(0336)635-0545 · 광명분회/(02)884-5645 · 인천분회/(0345)80-9130 · 시흥분회/(032)694-4121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원주분회/(0371)43-7290 · 강릉분회/(0391)41-7371 · 속초분회/(0392)33-5081 · 삼척분회/(0394)31-8708 · 영월분회/(0373)374-2659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 · 53-7342
충주분회/(0441)847-3082 · 청천분회/(0443)43-6253 · 익천분회/(0475)83-350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분회/(0417)551-4551 · 충성분회/(0541)32-2755 · 부여분회/(0463)835-2217 · 대천분회/(0452)34-0367 · 서산/(0455)64-8500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이리분회/(0653)52-3796 · 군산분회/(0654)43-3816 · 남원분회/(0671)32-5000

■전라남도건축사회/(062)346-7567 · 33-9944
목포분회/(0631)72-3349 · 순천분회/(0661)743-2457 · 여수분회/(0662)32-5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2-8317~8
포항분회/(0562)144-6029 · 경주분회/(0561)2-4710 · 구미분회/(0546)51-1537~8 · 안동분회/(0571)64-5703 · 김천분회/(0547)434-2541 · 영주분회/(0572)34-5560 · 청송분회/(0581)53-6677 · 상주분회/(0582)32-5868 · 경산분회/(053)812-6721 · 달성분회/(053)634-6336 · 영천분회/(0536)34-8256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울산분회/(0522)74-8836 · 전주분회/(0591)745-6403 · 충무분회/(0557)645-7420 · 김해분회/(0525)35-5662 · 일양분회/(0527)355-4848 · 거창분회/(0583)43-6090 · 양산분회/(0523)84-3050 · 거제분회/(0558)635-3432 · 삼천포분회/(0583)33-9779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분회/(064)62-2233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모두의 모습으로 ...

We are born again...

金圭泰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im Gyu-Tae

본 협회 95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유상열 건설교통부 차관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과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협회가 있기까지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본협회를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할뿐 아니라, 건축사법에 의한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고, 또한 건축개혁을 이룩하려는 뜻깊은 해입니다.

역사의 발전이 과거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듯이 지난 3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볼 때, 그야말로 불모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건축사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혼신을 다해 피와 땀을 쏟으며 조국건설에 이바지해 온 결과, 오늘에 이르러 세계화를 지향하는 막강한 국력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동안 성장위주의 건설과정에서 양적 생산에 훨씬 나머지, 오늘날 다소의 역기능 현상으로 그간의 공적이 빛을 잃고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 건축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양질의 설계와 엄정한 공사감리로 국가건설과 건축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기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건축계는 밖으로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선진 여러나라들과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고, 안으로는 또다시 세계화를 빙자한 건설업체들의 설계업진출 기도의 거센바람을 막아야하며, 더욱이 도서신고제도 개편 등 국내외적으로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조속히 최선의 대응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될 가혹한 시련에 봉착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같은 시련의 원인은 우리가 기존의 보호망 속에서 편안히 안주하려는 생각으로, 미래에 닥쳐올 상황변화에 미리미리 대비하는데 소홀해 왔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는 냉철한 반성과 가일층 미래대비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 나라 건축계의 목소리는 하나이어야 함에도 건축 3단체의 얇힌 위상관계로 각 단체의 상이한 목소리에다, 특히 우리 내부 개개인의 이기적인 다양한 목소리에 휩싸여 협회는 마치 회원을 괴롭히는 집단으로 낙인찍혀, 회원을 대변하고 아픔을 함께 해야 할 협회가 대외적으로 전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웃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분명 반성의 거울이라 하겠으나 그것이 미래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전열을 가다듬어 더이상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으로 갈등과 혼란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의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같은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여 협회는 회원을 대변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거듭나는 협회로 나아가기 위해, 본인은 나를 버리는 작업을 마다않고 작년 12월 27일을 기해 40여명의 각계각층 회원들로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동안에 걸쳐 건축전반의 문제에 대한 개혁작업의 대장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건축의 장래를 걱정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길을 찾기 위해 개혁추진위원들이 개인적인 사업을 뒤로하고 오직 세계화 속에 우리 건축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작업을 마무리한 건축개혁안을 오늘 대의원 여러분 앞에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개혁추진위원회와 임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무작업에 임하여 주신 소위원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하며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축개혁은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우리 건축계의 온갖 문제점을 찾아 청산하고, 모든 건축인이 화합하는 가운데 우리 힘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한국건축의 새역사를 창조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다음 두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 건축계에 산재한 구시

대적 발전모델을 미래지향적으로 뜯어고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급변하는 세계화의 조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전진시키는 일입니다. 개혁과 전진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바로 이 작업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 한국건축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개혁안은 그동안 개혁작업 과정에서 많은 의견과 견해들의 열띤 토론끝에 이루어진 것이나 다양화된 오늘날의 현실사회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공통점을 도출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므로 개인적으로 다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소아”를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역사적 개혁대열에 우리 모두 흔쾌히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내부적 힘의 결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천여명에 달하는 전회원의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으는 협력체제의 구축이라 하겠습니다. 견실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의 개혁은 미래가 약속된 건강한 뿌리를 내리고, 세계화를 향한 한국건축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협회와 본인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대열의 맨앞줄에서 세계화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협회와 함께 한국건축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새로이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한국건축의 세계화로 향한 새 역사 를 창조해 나갑시다.

끝으로, 대의원 여러분의 성원속에 오늘의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95. 3. 29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임시총회를 맞아 김규태 회장님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치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건축문화창달의 중추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신 전국의 건축사 여러분과 협회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건축계의 개혁추진노력을 환영하며 ...

Pull out all the Stops...

吳 明 / 건설교통부장관
by Oh Myung

세계는 지금 엄청난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국경없는 경제전쟁, 기술전쟁이 가속화되고 어떤 국가나 기업이든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의 물부림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축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결의를 다지는 이 자리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우리 건설업계는 정부의 성장 위주 개발 정책에 편승하여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고 질적 발전을 등한시한 결과, 각종 부실사고가 빈발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봐야 하겠습니다.

건축사 여러분!

저는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가 김규태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모색하고자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 온 일련의 건축개혁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처럼 이제 우리는 정말 달려져야 합니다. 구습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개혁은 결코 화려한 정책의 제시나 우렁찬 구호만으로 달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몇몇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 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뼈저린 자성과 실천적 의지 그리고 회원 모두의 진정한 참여가 함께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우리 건축설계업계는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선진국의 기업과도 장차 치열한 경쟁을 벌 이게 될 것이나,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나 건축사만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보호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시장이 개방된 여건하에서 국민들도 더 이상 부실시공이나 부실설계, 부실감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사 여러분의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지은 건축물이 민족문화유산으로 길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건축문화적 특성을 살려 나가는데 더욱 진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축사 한사람, 한사람이 역사적, 문화적 책임감을 느낄 때 민족사에 빛나는 새로운 건축문화가 창출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건축계의 개혁과 변화의 열기가 더 높아지고 나아가 우리 건설업계 전반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자율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건축사 여러분이 창의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작년도에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개정한데 이어 현재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며 일선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관행도 국민 편의 위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구비하고 가장 어려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민과 사회로부터 얼마만큼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독창적 문화활동을 보장하고 지성인다운 자긍심을 복돋우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되찾는 제도가 되도록 여러분과 정부가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

건축 문화 창달에 함께 매진합시다.

끝으로,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이 모이신 이 자리가 건축계의 발전을 위한 격의없는 토론과 새로운 도약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995. 3. 29

건축과 도시문화의 상관성

도시는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정주환경이고,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 미래에는 인간의 생활이 거의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21세기에 건축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이자 가장 큰 시장은 "도시 건축"이다.

도시와 도시화를 논의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이른바 "도시화율"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국의 도시화 정도를 재는 척도로서, 한국의 도시화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1960년도에는 35.8%, 1970년도에는 49.8%, 1980년도에는 66.4%, 1990년도에는 79.6%로 나

타났으나 196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인구의 약 1/3, 1970년도에는 약 1/2, 1980년도에는 약 2/3, 1990년도에는 약 4/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화가 일어난 지역은 어떤 한정된 지역에 많은 인구가 집중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집중한다 함은 결국 땅의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가 산다는 현상이니 인구밀도가 매우 높아짐을 뜻한다. 그러므로 도시화된 환경은 자연적 요소가 소멸되고 인공적 요소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도시화된 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인공환경(人工環境)이라고 한다.

현대 도시는 도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구조물의 양이 매우 많고 종류도 다양하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기반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것들 한편 서구사회에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산업화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도시 건축의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자유방임(Laissez-Faire)사상으로서 원래 경제적 사상이었으나 점차 사회의 보편적 사상으로 변모한 것이다. 즉 이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경쟁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가 또는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각 개인이 자유 경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사회적 이익 또는 공익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곧 개인의 무한 경쟁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 구성원 중에서 소외당하거나 이익을 침해당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는 법과 제도의 강화이다. 전근대사회 또는 비민주 사회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잡는 규범을 제정하고 유지하는 역할은 신의 위임을 받은 왕이나 교회가 담당하였으나, 민주사회에서는 그 역할을 "법"과 "제도"가 담당하게 되었다.

셋째는 행정과 경영이 발달한 것이었다. 즉 절대권력을 지닌 왕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을 위한 건축가의 역할과 제도개선(2)

Architect Role and Public Function
-A New Urban Amenity Creation Movement

黃鏞周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교수
by Hwang Yong-Ju

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지던 국정이 법과 제도에 의해 공정과 효율을 기하려는 정치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고도로 전문화된 행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료조직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또 민간부문에서는 생산 수단을 장악한 자본가들이 생산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하여 경영이라는 기법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넷째는 소외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종전의 계급사회에서도 소외집단이 있었지만 그들은 안정된 계급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체제가 전면적으로 해체되고 재조직되는 과정에서 처진 낙오자들은 새로운 소외집단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들의 불만은 새로운 사회체제를 위협할 만큼 커지게 된 것이다.

한편 새로운 체제 속에서 성공한 집단-자본가, 관료, 사무직, 지식인 등은 이런 현상을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이라는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사회변동은 도시화와 더불어 가속화되니, 도시라는 것은 어떤 힘의 구심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로서 도시에 인구가 한꺼번에 많이 집중하고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주어질 직장은 오히려 많고 다양했을지 몰라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거주할 주택은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민간 부문의 시장경제에 따른 주택 공급은 심각한 양적 부족과 질적 저하로 귀咎될 수 밖에 없었고, 여기에 대응하여 집단주택 공급(Mass Housing)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그것은 가장 손 쉬운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이른바 아파트 단지 건설이었다. 이것은 건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자 건축의 새로운 수요이었다.

또 저악한 공장시설과 공해, 주택문제 등의 결과로서 도시의 환경위생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쓰레기 다량 발생 등과 같은 고질적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여기에 대응하여 환경위생 개선(Sanitary Improvement)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산업혁명의 선진국에서는 공중위생운동(Sanitary Movement)라는 형식으로 대대적인 환경 위생 정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주로 이루어진 사업들은 상수 공급, 하수 처리 등과 같은 공급처리시설을

체계화하고 과학화하는 것들이었다.

이와 같은 서구 선진국의 도시화 과정과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대두된 도시 건축의 변화 양상은 서구화를 모델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서구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한국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 보고, 그것이 도시 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계획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도시건축의 관점에서 도시계획의 문제점 내지 한계가 다음과 같이 지적 될 수 있는 바,

첫째, 도시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이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거시적 개발을 제어하고, 그 반대쪽 끝에서는 개별 대지를 대상으로 삼는 건축 행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느 가로변이나 가구, 또는 단지 등과 같은 도시의 한부분을 이루는 비교적 큰 환경단위에 대해서는 그 집합적 양상을 제어할 방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도시계획의 지역지구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지역지구는 아무리 세분화되어도 그 단위가 상당히 커서 어느 특정한 지점에 대한 특별한 제어가 불가능한 데다가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도시의 규모에 따른 차별화를 기할 수가 없다. 이 점은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도시계획법의 지역지구제나 건축법의 건축규제나 공히 최소 수준의 환경을 유지하려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 건축 행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그 이상의 환경수준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넷째, 도시건축을 수용하는 단위인 필지를 설정하는 도시계획 내지 도시개발 수법이 주로 토지구획정리방식에 의존하는데, 이것은 그 필지에 들어갈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형태 등을 미리 상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개발양상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택지개발 방식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므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의 형태는 매우 진부하다.

다섯째,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관점에서 개인의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그 규제는 법률에 의거하여야 하고, 또 규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손실의 보상 또는 인센티브 등의 장치가 매우 불비하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의 한계 내지 문제점은 도시설계를 필요로 하는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건축물의 효용은 괴체(Mass) 형성에 있지 않고 공간 형성에 있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이때 공간은 주로 건축물 내부의 공간을 가리킨다.

그러나 건축물이 토지에 정착한다고 함은 건축물이 그 토지, 즉 대지라는 공간에 괴체의 형식으로서 자리잡는 것이므로 대지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이 차지한 건폐지와 여전히 비어있는 비건폐지로 공간이 나누어진다. 즉 건물은 괴체로서, 비건폐지는 공간으로서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을 건축물의 입장에서 보면 외벽을 경계로 하여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나누어진다. 즉 건물과 대지는 여전히 공간으로서 나타난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대체로 건축물의 내부공간을 “적극적 공간(Positive Space)”로, 외부공간, 즉 대지내의 비건폐지를 “소극적 공간(Negative Space)”로 설정한다. 여기에서 적극적 공간이라고 함은 인간의 활동을 수용하는 효용이 뚜렷하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성한 공간이라는 뜻이다. 소극적 공간이라고 함은 이와 반대로 그 효용이 뚜렷하지 않고 거의 방치한다는 뜻이 강한 공간이다.

이와 같은 공간관은 건축설계도면, 특히 배치도면에서 잘 드러난다. 내부공간의 평면은 매우 정교하게 그려진 반면에 외부공간의 평면은 공기 상태로 두거나, 대충 설계를 하고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시건축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이와 반대의 관계이다. 즉 건축물의 내부공간은 건축주와 건축가의 의지에 맡기므로 오히려 소극적 공간이 되지만, 외부 공간, 즉 대지 내의 비건폐지는 공공영역의 질을 위해 갖가지 제약을 가하므로 오히려 적극적 공간이 된다.

이와 같은 역전된 공간관이 오늘날 도시건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원인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도시건축의 본질이 도시적 맥락에 적응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건축가들

은 대지내의 건폐공간 뿐 아니라, 비건폐공간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지내에 비건폐지를 반드시 두어야 함은 공공환경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건축물 내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다. 이 점을 납득한다면, 그리고 그 건축물이 허공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거칠 것이 없는 황야에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대지밖에 존재하고 작용하는 공공환경과 원활하게 접속하기 위해서 대지 내의 비건폐지는 건축물 내부의 공간에 못지 않게 중요함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시 건축을 이해하고, 훌륭한 도시건축을 설계하고 시공하자면 이 대지내 비건폐지의 효용과 구성원리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대지내의 건폐지와 비건폐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다. 즉 하나는 건축물을 짓고 난 다음에 남은 빈땅을 건폐지로 하여 그안에 건축물의 괴체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고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다.

오늘날 건축의 관행으로 본다면 전자의 접근이 일반적이고 후자는 예외이다. 그러나 우리 건축의 문화적 전통은 오히려 후자에 있었고, 현대 도시의 삶과 삶터의 조직 원리 역시 후자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발상의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그림이 성립해야만 바탕이 존재하고, 바탕이 형성되어야만 그림 또한 존재한다는 그림과 바탕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이 두 공간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모두 중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시건축은 대지 안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을 적극적 공간으로 볼으로써 도시적 맥락에 적응할 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도시는 인간의 가장 대표적 정주환경이고,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 미래에는 인간의 생활이 거의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21세기에 건축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인 동시에 건축이 혁명하게 대처해야 할 과제가 “도시 건축”이다.

도시 안에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이 도시 건축은 결코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반도시적(反都市的)”, “비도시적(非都市的)” 입장을 취하기도 하는

데, 이는 도시 건축이 필연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도시공간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거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건축가 자신들이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 공무원, 다른 분야 전문가들은 도시 환경의 질을 선도해야 하는 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 인식을 토대로 하여 도시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울러 불합리한 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발언을 강화하는 것이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 건축가들의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본다.

도시문화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무릇 모든 法, 制度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 체계, 방식 등은 그 法 등을 시행하는 사회현상을 집약 한다. 따라서 현실을 규제하는 그 법과 제도 등은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그때 그때의 사회현상을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 시대에 인간들이 살고 간 아름다운 문화와 양식을 포괄하는 도시공간과 환경형성에 관한 법과 제도는 한시대를 표상하는 건축문화와 도시문화를 특징짓는 것이라야 한다.

해방 후 혼란한 사회현상으로 점철되어온 우리나라의 20세기 말 반세기의 도시는 [도시]라고 이름하기에도 부끄러운 생존집단의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현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로 규명할 수 있겠으나, 일차적으로 다른 나라의 법과 제도, 특히 일본의 그것들을 복사하여 우리 사회와 도시환경에 억지로 맞춰왔던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중간자치단체의 구분과 각 단체의 주요기능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있을뿐 아니라 지방행정 계층 간의 권한과 책임한계 또한 명확하여 우리와 같이 도시개발, 관리기능의 중앙집권화로 인한 개발의 비효율성, 비능률, 획일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발은 오늘에 딛고 있으면서도 미래에 사는 건축가]들의 사고와 행동반경을 규제, 억제하는 형태가 일상화 되는 것으로 전이되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우리의 도시건축환경에 관한 법과 제도는 한국적 건축문화의 창달과 그를 위한 건축가들의 자율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알맞는 법과 제도의 개편대안은,

첫째, 현행도시개발, 관리체제를 지방적 도시개발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도시 기본계획을 비롯한 제반기본계획 결정권은 국토계획의 통일적인 시행을 위해 현행대로 중앙에서 행사하되, 도시재정비와 세부사업계획 및 시행에 관한 결정권이나 승인권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토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도시계획 전담부서(가칭 : 도시국)를 설치하여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제반사항을 통합하게 하고, 중앙 각부처의 소관사항은 시, 도단위 관련부서에서 관할토록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보강하여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담당케한다면, 현행 중앙집권적 계획결정절차가 추구하는 국토계획의 통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의 현지성, 통일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둘째, 거시적으로는 도시건축관련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셋째, 미시적으로는 건축관련 기본법의 독소조항, 부적합 조항들을 개정하고 건축행정을 현대화하여 고급 건축직을 대폭 증원하고 도시 계획을 실제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건축행정 제도로 개편하여야 한다.

넷째, 현행 설계용역 및 건설업제도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되, 설계분야의 전문성은 불가침의 영역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에는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전문부서가 전혀 없다. 특히 단위도시의 발전정책을 마련하고 여러가지 사업들의 투자계획과 유지관리 등 주택을 비롯한 시민생활의 기초시설인 物的시설을(Physical entity) 책임지고 실제 계획하는 작업을 전담 집행하는 전문인력을 자체 확보하여야 한다. 현행제도는 전문 용역사를 통하여 재정비 계획을 매 5년마다 세우고 있으며 확정된 계획을 관계공무원이 기계적으로 집행하고 있어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여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리츠칼튼 서울

The Ritz Carlton Seoul

柳春秀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Designed by Ryu Choon-Soo



남측전경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대지면적 / 10,362.5m²

건축면적 / 4,141.46m²

연면적 / 61,957.45m²(기준설계변경 15,570.60m²/증축 46,986.85m²)

건폐율 / 39.6%

용적률 / 297.38%

규모 / 지하 7층, 지상 1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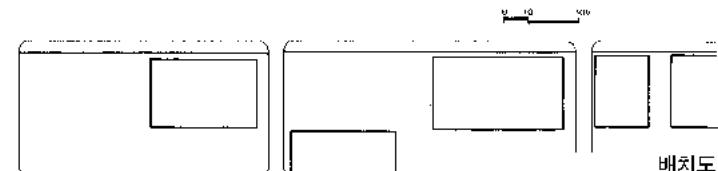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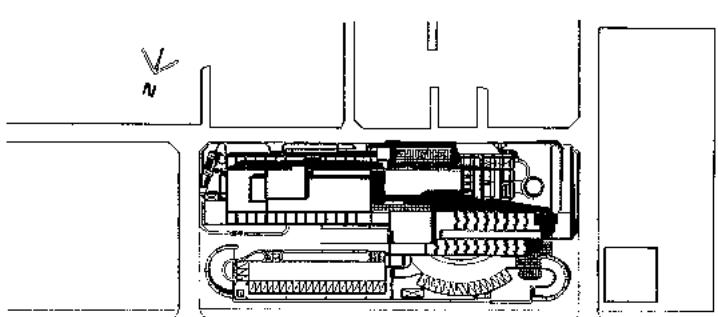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 화강석(문경석+화북석판석)+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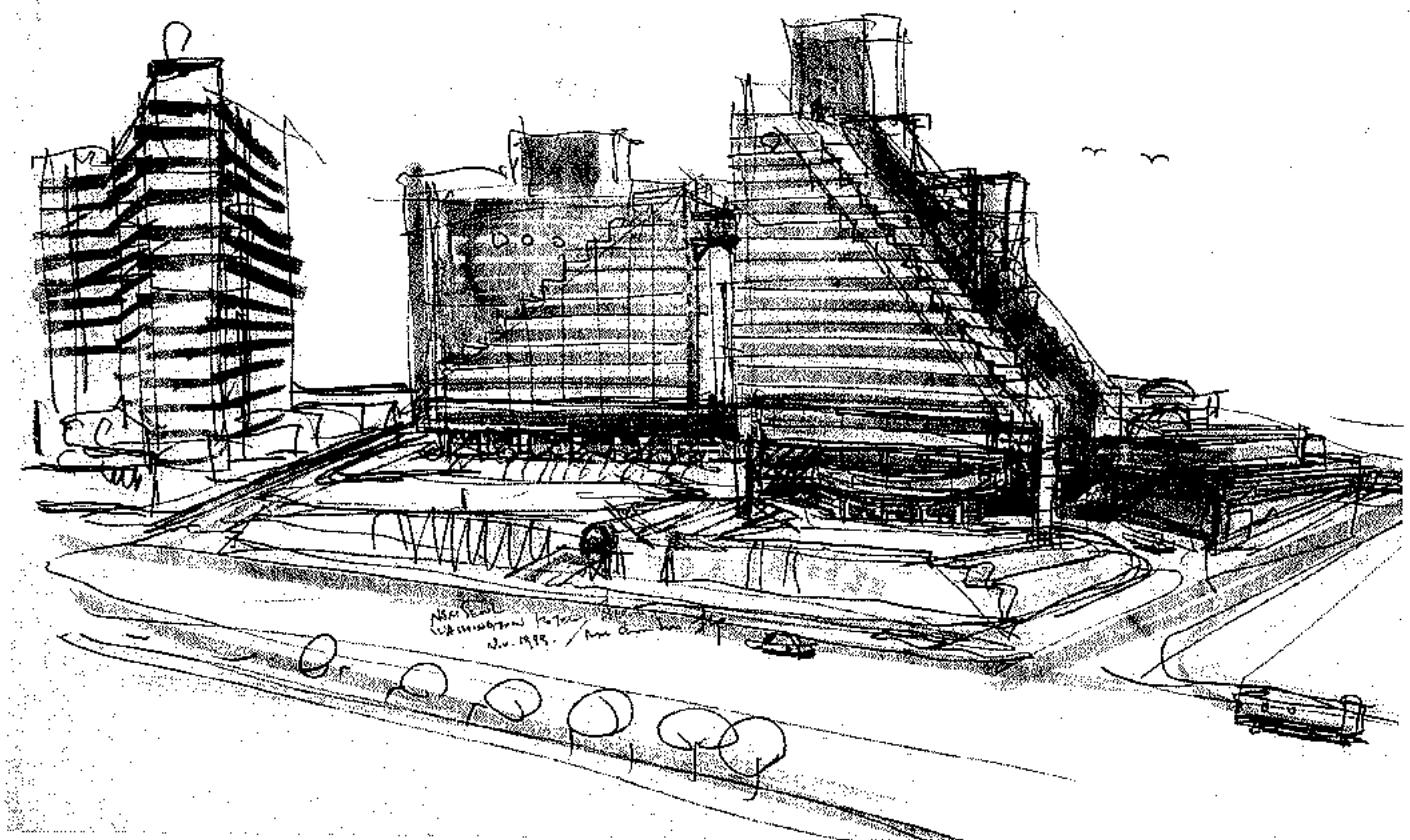
설계기간 / 1989~1990

공사기간 / 1990~1995

설계담당 / 이관직



배치도



이미지 스캐치 1



주출입구 전경

Location / Yeoksam-dong, Gangnam-gu, Seoul

Site Area / 10,362.5m²

Bldg. Area / 4,141.46m²

Gross Floor Area / 61,557.45m²

Bldg. Coverage Ratio / 39.66%

Gross Floor Ratio / 297.38%

Bldg. Scale / 7 Stories Below Ground, 17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Steel,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Granite+Double Grazing

Design term / 1989~1990

Construction term / 1990~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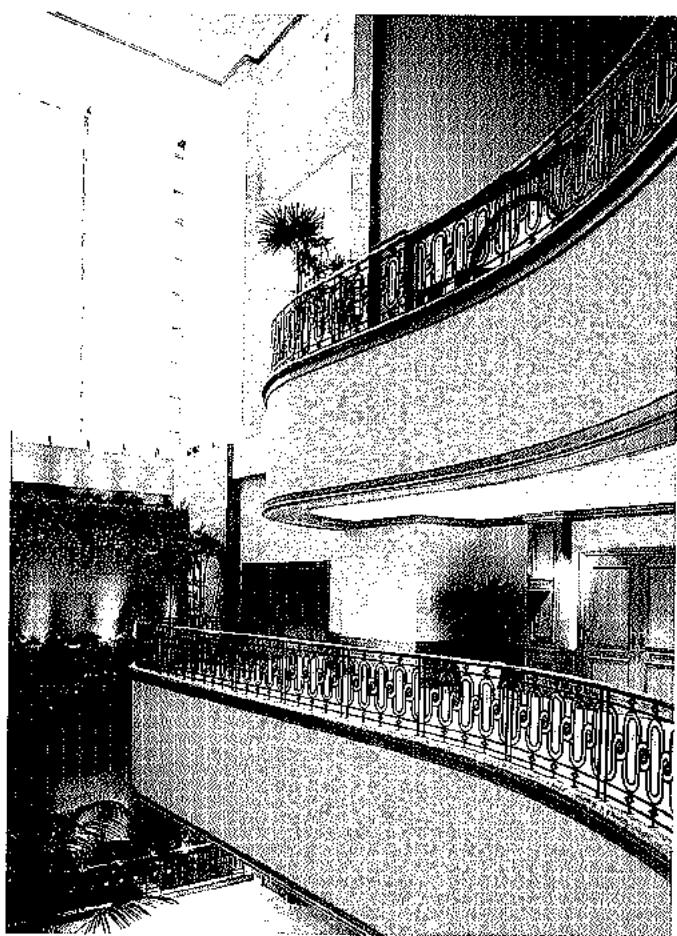
Designer / Lee Kwan-J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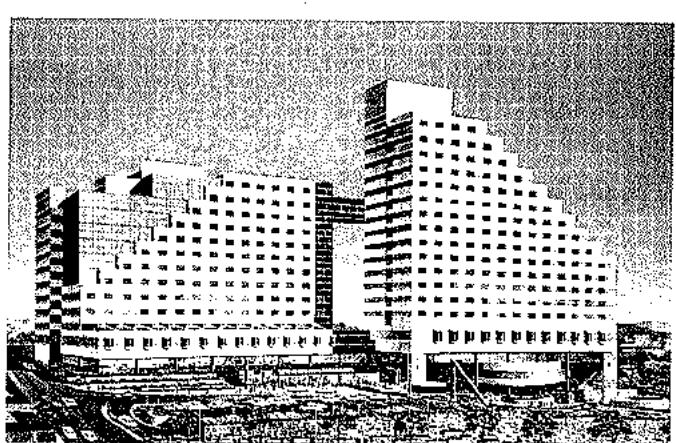
대연회장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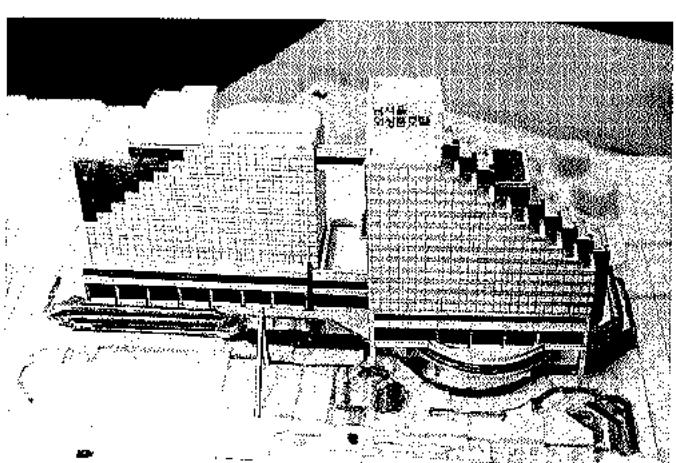
서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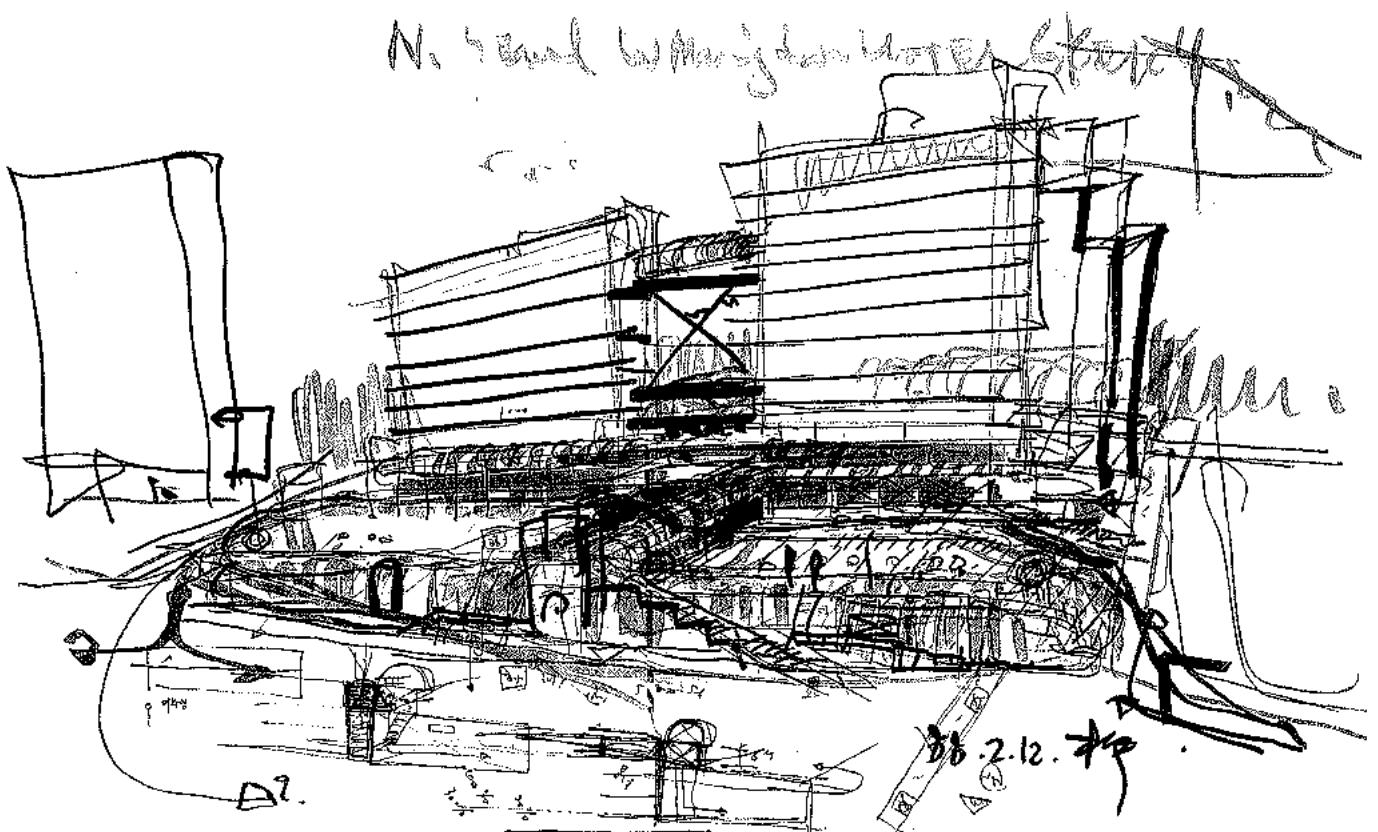
2층에서 본 Void된 로비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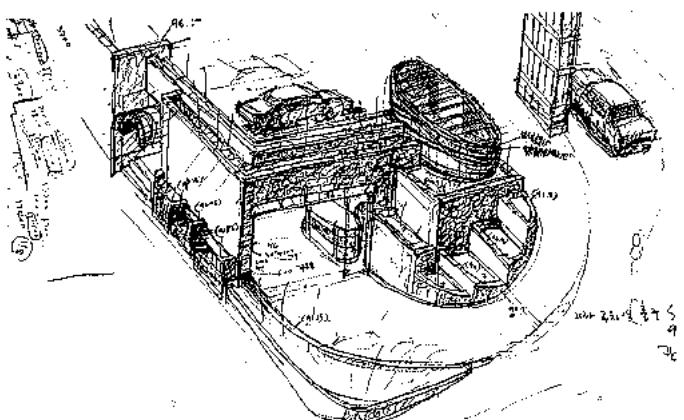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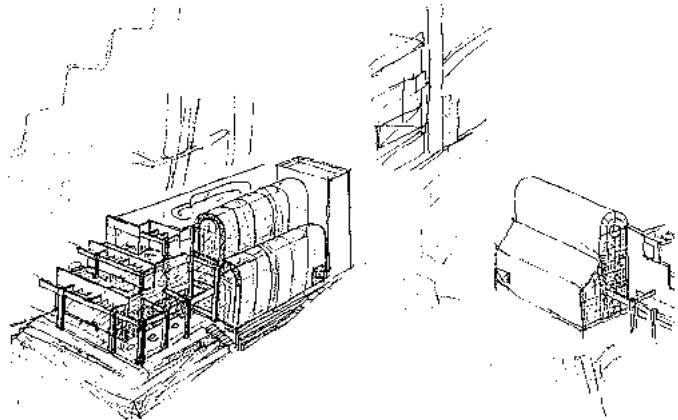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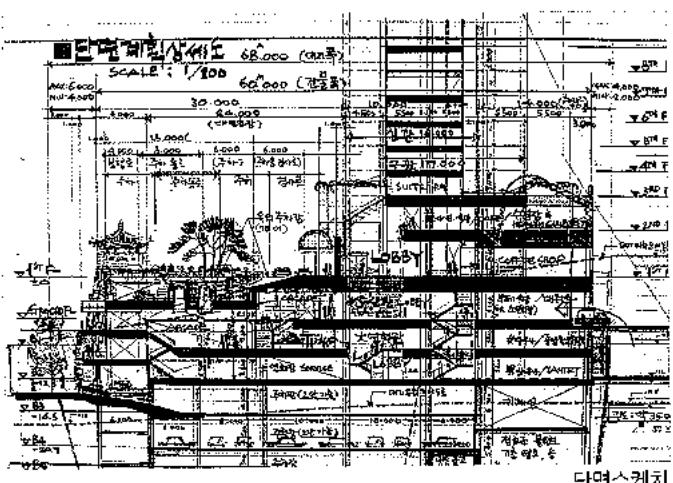
이미지스케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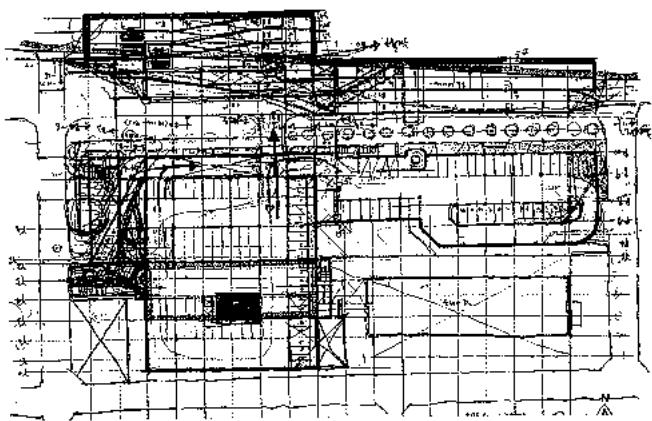
이미지스케치 3



이미지스케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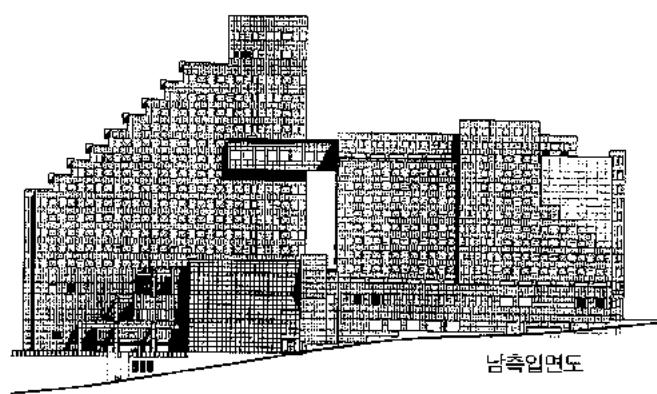
단면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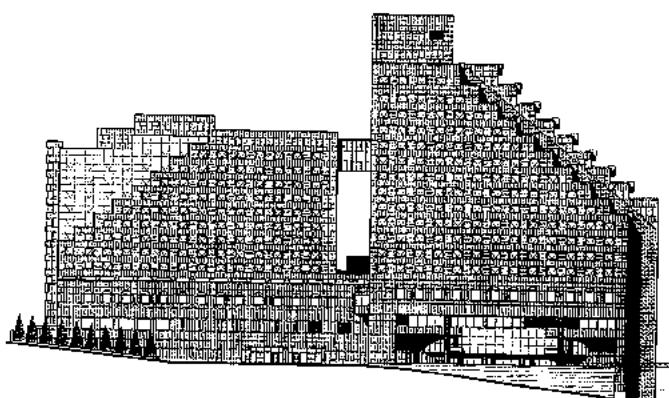
평면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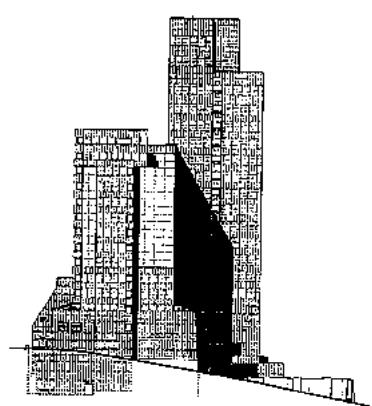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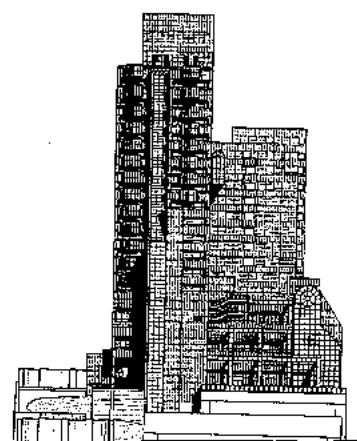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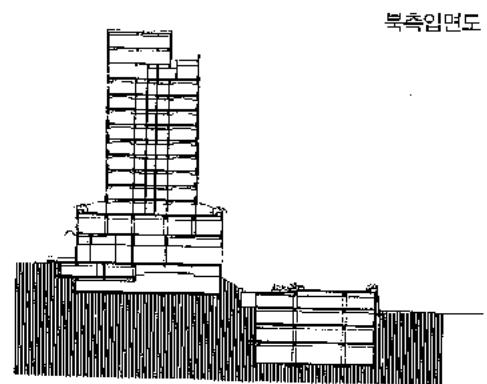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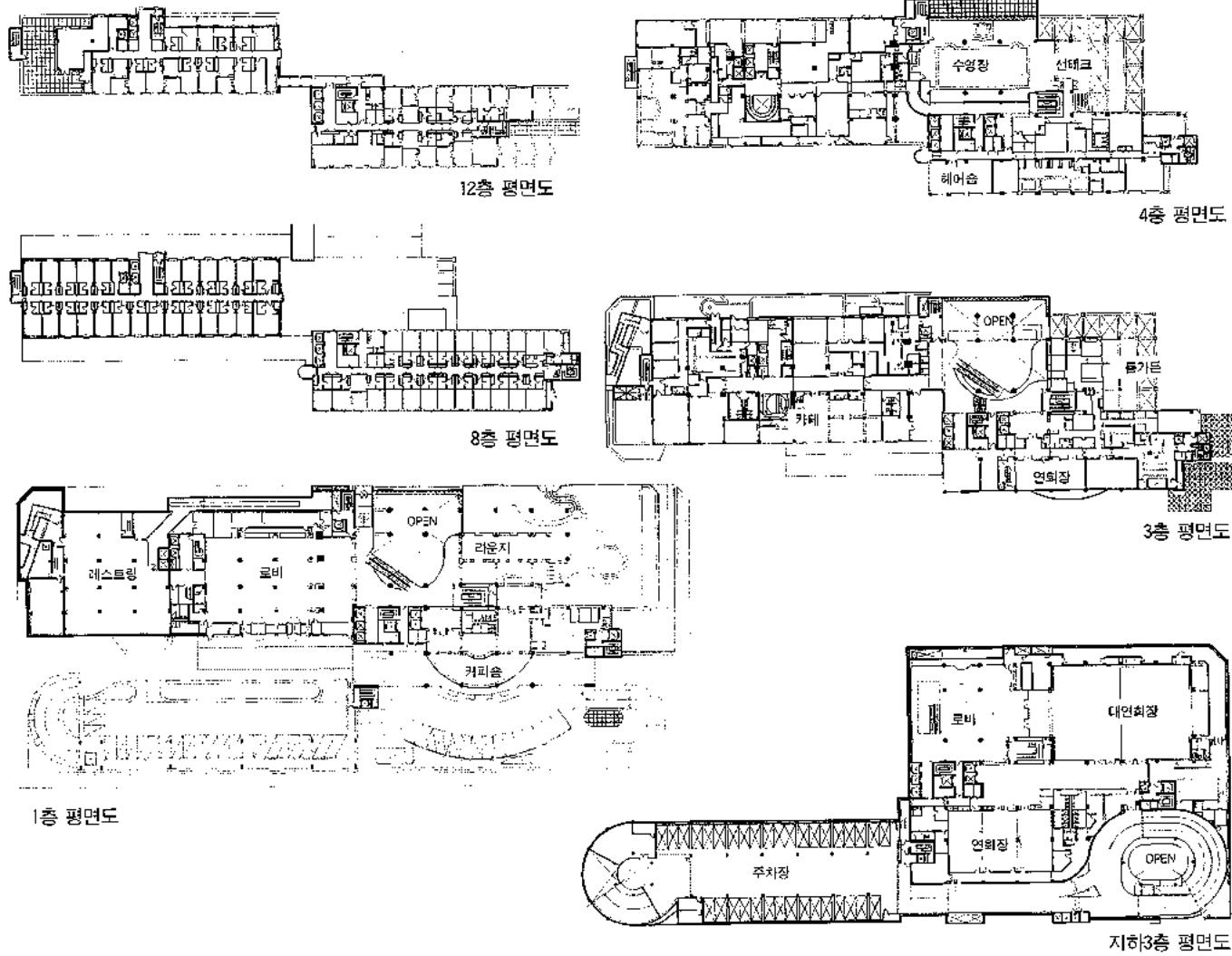
동측입면도



서측입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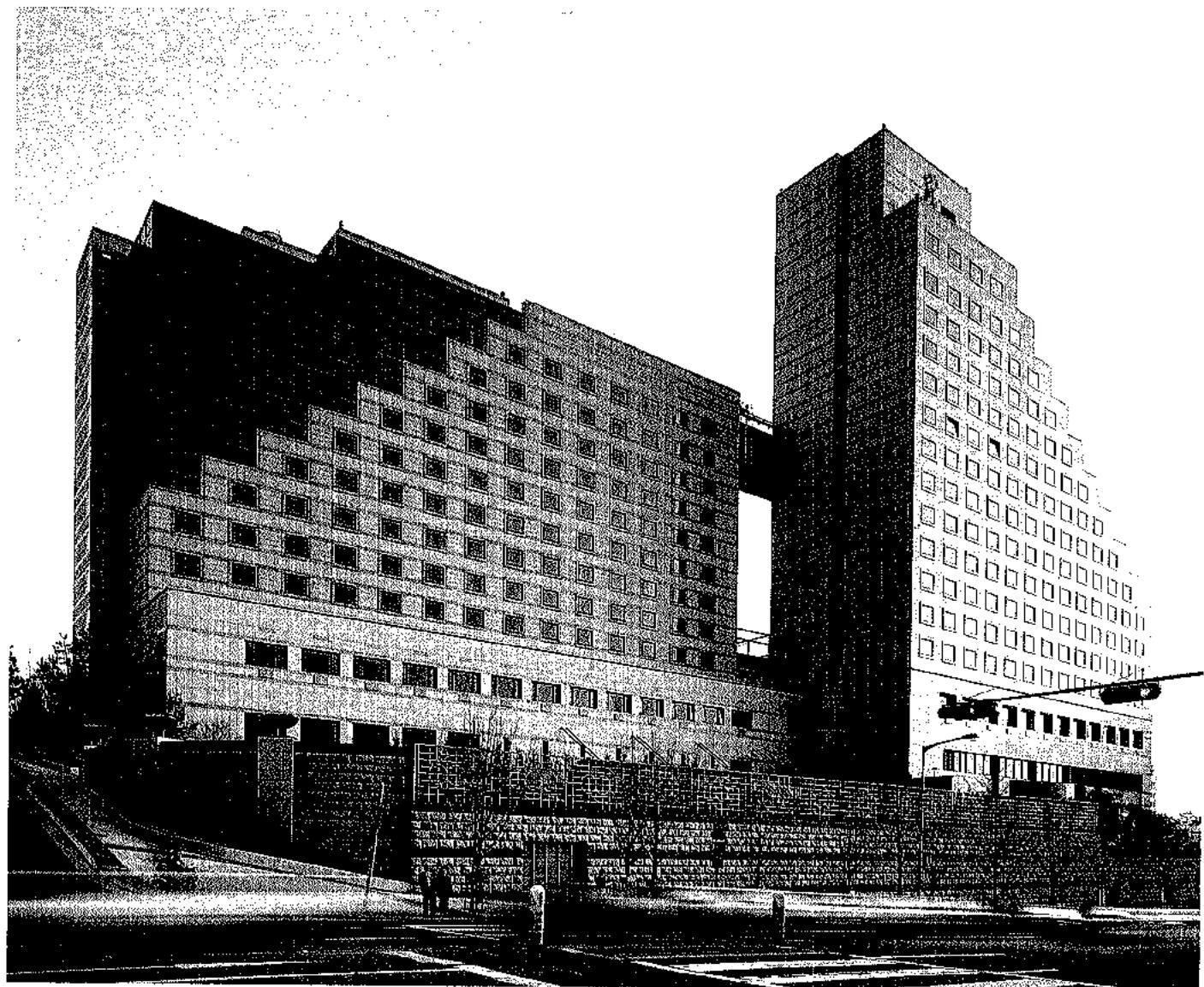
남서울 호텔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이 리츠칼튼서울 호텔 증축 프로젝트는 설계에서 오픈까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객실 200실이 채 되지 않았던 남서울 호텔은 현재의 증축에 대한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도 서너차례 증축을 통하여 별도의 사우나동과 객실의 일부를 증축하였다. 87년 당시 이 호텔을 인수한 건축주는 대대적인 증축을 구성하였다. 기존 건물의 서측에 대우건설에서 관여하였던 지하 이십여 미터가 굽토된 채 공사가 중단된 오피스텔 부지와 일부 주택이 블럭의 남은 부분을 형성하고 있었다. 건축주는 이 블럭의 남은 땅을 사서 증축을 위한 설계안을 지명현상설계로 공모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안은 채택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설계를 하게 됐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 프로젝트는 일년 후에 건축주의 요청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우리는 먼저 설계사무소

의 동의를 조건으로 설계를 시작하였다.

초기 우리의 안을 기본으로 해서 엄밀한 대지분석과 기능해석을 다시했다. 호텔의 대지에는 몇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우선 대지 조건에 있어서는 삼십여 미터나 되는 봉은사로와 나란한 방향으로의 대지고저차가 그 첫째였고, 둘째는 대지로부터 기존의 건물 일층까지의 심미터에 달하는 높이 차이였다. 심각한 조건은 때로 좋은 디자인의 기회가 된다. 기존 건물의 전면을 육미터를 걷어내면서 도로에서의 접근로의 경사문제를 해결하고 서측에서 진입하는 변화 많고 긴 액세스(Access)가 가능해졌다. 육미터를 절토한 후 기존 기계실이 이제는 400여평 규모의 특급호텔의 메인 로비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신 구관의 주진입 레벨이 같아지고 이곳에 메인 로비, 후론트 데스크가 위치하고 신관부분에는 남측의 옥외가든으로 나갈 수 있는 커피숍과 그릴이 위치한다. 또한

대지 종횡의 많은 고저 차를 이용하여 법규에 의한 기중평균에 의한 가상지표면 개념 적용으로 대지 서측의 커피숍 옥외가든 하부를 지하 층화 하므로서 천여 명의 수용능력의 지하 2, 3층에 대연회장과 지하2층에 3개의 연회장 및 고급 전문상가로서 아케이드, 대주방, 지하 4, 5, 6층에 대형 지하주차장, 종업원관계시설 및 창고, 지하 7층에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 정화조 등의 많은 시설 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상업 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의 300%밖에 안되는 용적률 또한 지하층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이용하도록 유도한 제한 조건이었다.

기능과 볼륨의 해결이 아마 호텔건축의 핵심일 것이다. 제일 우선되는 문제는 천여명 수용의 대형 공간인 대연회장을 어디에 위치 시키느냐였다. 이것은 기둥간격이 8미터 내외로 제한된 신관의 주 속박부분의 방향과 위치와도 관계된 문제였다.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되었



북측전경

다. 신관의 지상 객실을 구관과 직각으로 놓고 그 밖의 서측 지하에 위치시키는 것과 지상 객실을 구관과 나란하게 길이로 위치시키고 연회장을 북측에 놓는 방법과 지상 객실 등을 구관과 평행하게 북측으로 하고 남쪽 지하를 대형 공간으로 지하를 쓰는 경우의 세가지가 최종 검토되었다. 결국 지금의 경우처럼 22미터 대형 스펜의 대연회장이 남쪽 지하에 위치하고 조금 북쪽에 구관과 평행하게 신관 객실부가 위치한다. 객실 하부 피로티에는 스페인후레임의 입체 스크린 형상의 대지 진입 캐노피가 위치하고 진입차량은 S자형으로 유연하게 휘어진 도로를 따라 그 밑으로 호텔을 접근하게 된다.

기능 해결의 원칙은 동선의 완벽한 분리였다. 신 구관의 복잡한 구성, 분산된 입구, 다양한 레벨 등 심각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직접 서비스를 하는 영업장을 제외하고 손님동선과 종업원동선을 만나게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완

벽하게 지켰다.

조형에 있어서는 인위적인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구조와 기능을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북측에 정면을 가진 건물이 가지는 건물은 그 정면에 그림자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형태에 의한 조형효과가 반감된다. 그 대신 정면은 신관의 계단형의 다이나믹한 형태를 구관의 외벽에 돌과 유리의 대비를 통하여 일면상 상응하도록 하였고, 남측 후면은 형태에 의한 음영효과를 고려해서 저층부를 테리스 타입으로 구성하여 골프 연습장, 선텐 데크, 일식당 정원, 커피숍 정원 등으로 활용한다.

객실부분의 신구관 동선 연결은 기본적으로 분리하였다. 다만 12층 레벨 신구관 양측에 Executive Lounge를 두고 브릿지로 연결했다. 기능적인 동선의 연결은 물론 구관에 설치된 클링 타워와의 배관 연결도 이 브릿지를 이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감리를 우리가 직접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특히 조경 개념에 있어서 봉은사로 측의 전면 옹벽이 보행인에게 불거리로 제공될 폭포가 있고 수원성과 같은 거친돌 다듬어 쌓기로 되어 있던 것이 반영되지 못한 점과 외관상 유리가 인테리어에서의 요구로 탁한 브론즈로 변경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호텔건축에 대한 높은 안목과 설계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재정적 투자 등이 지금의 비교적 좋은 결과를 가져온 이유일 것이다. <이관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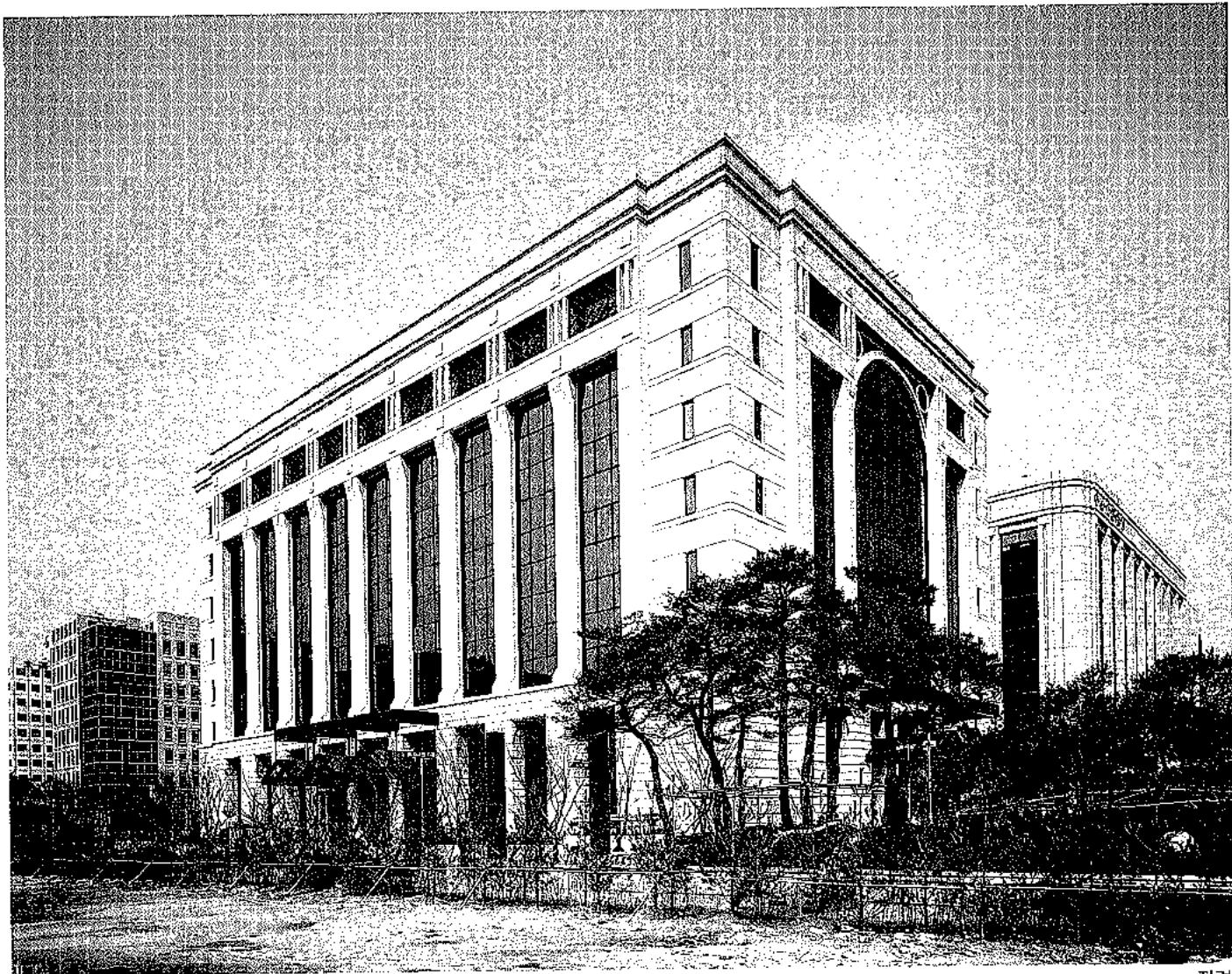
미원작품

한국산업은행 전자계산소

Electronic Computation Center of the Korea Industrial Bank

李永熙 + 閔丙勳 + 李錫文 / (주)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Min Byeong-Hun & Lee Seok-Mun



전경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번지

대지면적 / 9,210.0m²

건축면적 / 2,856.1m²

건폐율 / 31.01%

용적률 / 229.60%

규모 / 지하 3층, 지상 8층, 옥탑 1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회강석버너 및 촉두기 마감 + THK24 패스텔복층유리

설계담당 / 서대석, 혁종길(설계), 김준덕, 박봉기, 유상현, 홍환의(감리)

Location / 16, Yeoui-dong, Yeongdeungpo-gu, Seoul

Site Area / 9,210.0m²

Bldg. Area / 2,856.1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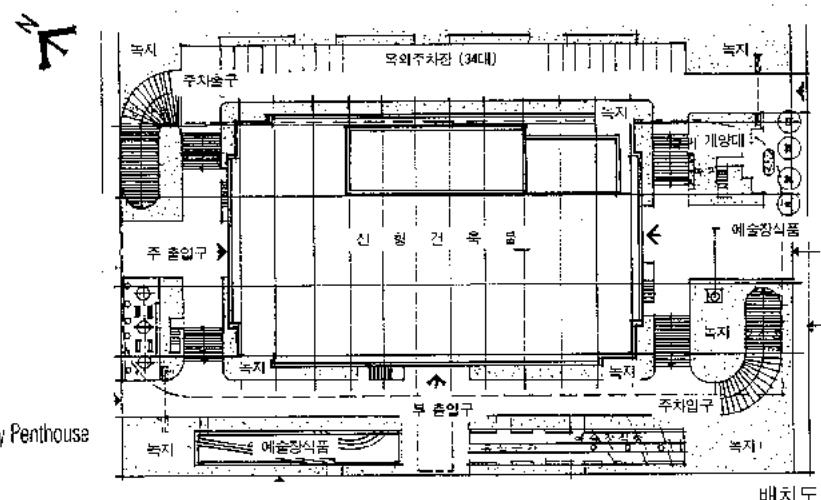
Bldg. Coverage Ratio / 31.01%

Gross Floor Ratio / 229.60%

Bldg. Scale / 3 Story Below Ground, 8 Stories Above Ground, 1 Story Pent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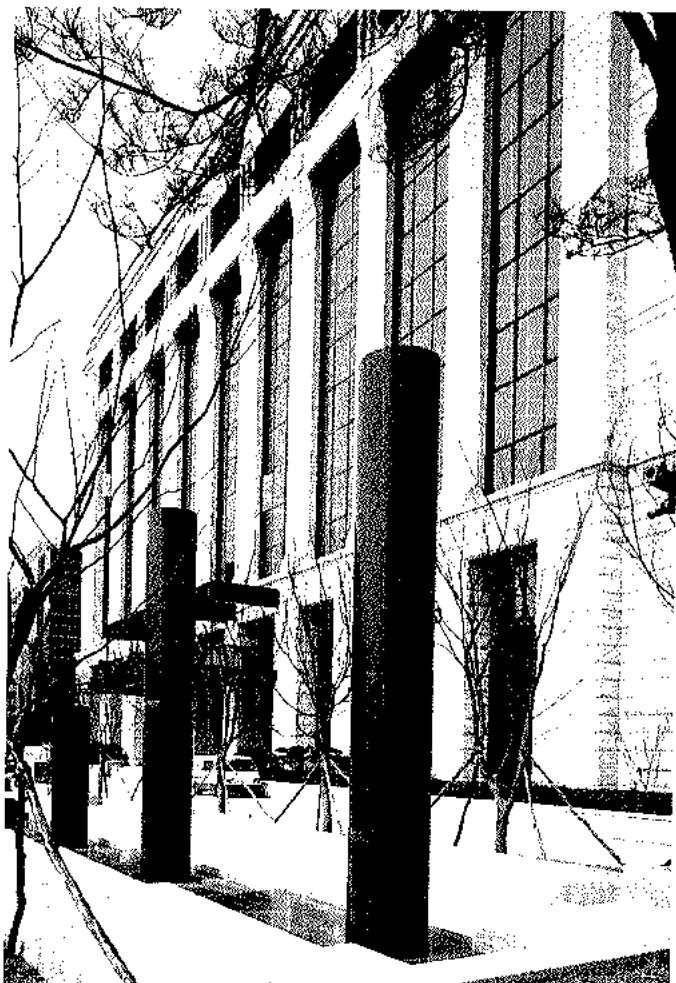
Project Team / Design-Seo Tae-Seok, Ch'oe Chong-Kil

Supervision-Kim Chun-Tok, Paek Pong-Ki, Yu Sang-Hon, Hong Hwan-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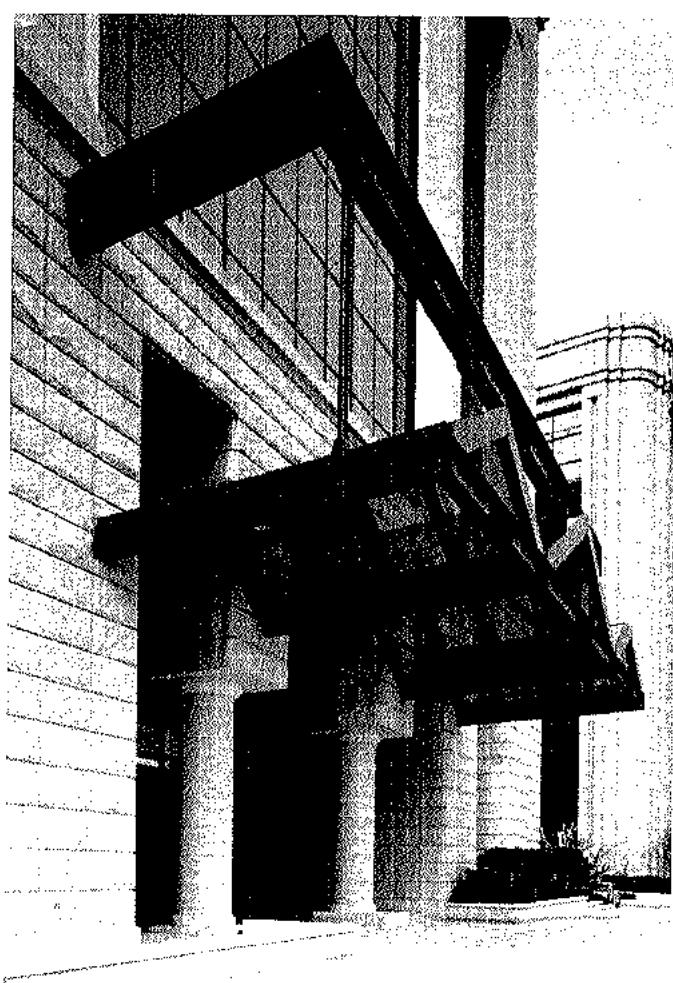




2층에서 본 로비(중앙: 백남준 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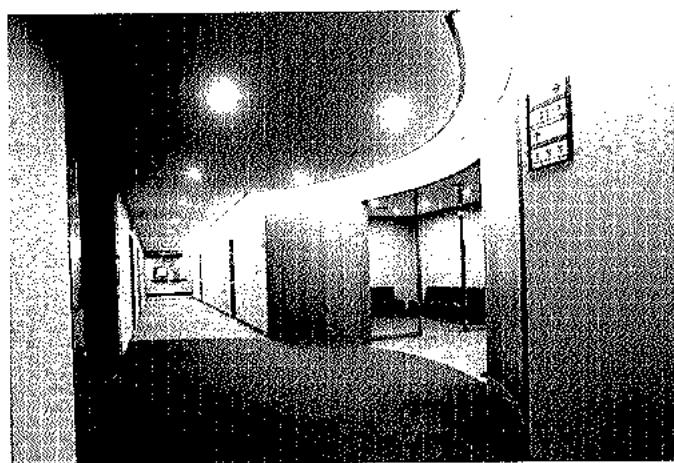
동측 환경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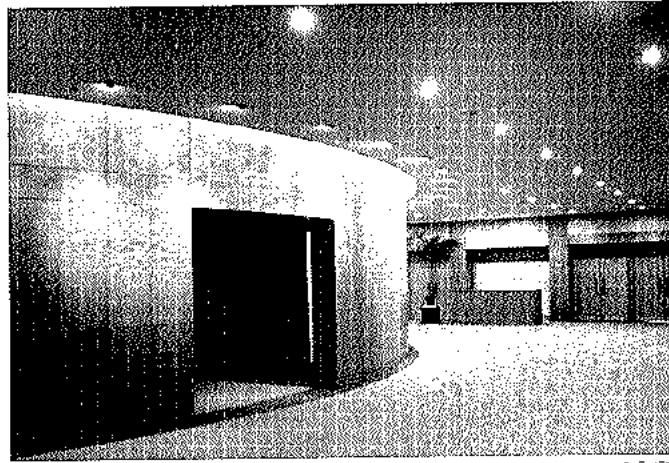
주출입구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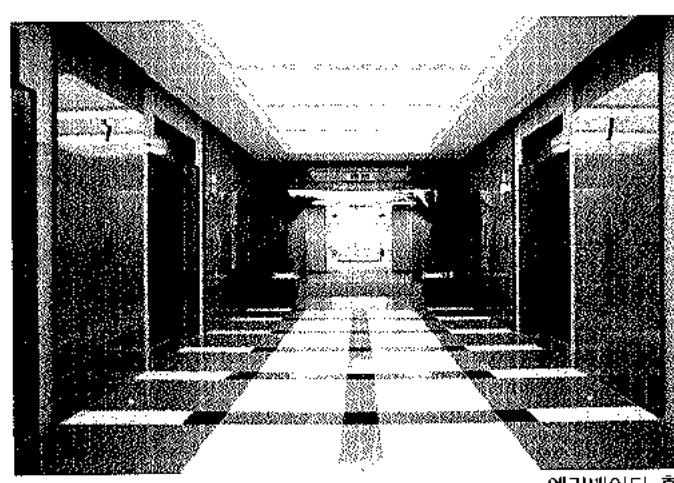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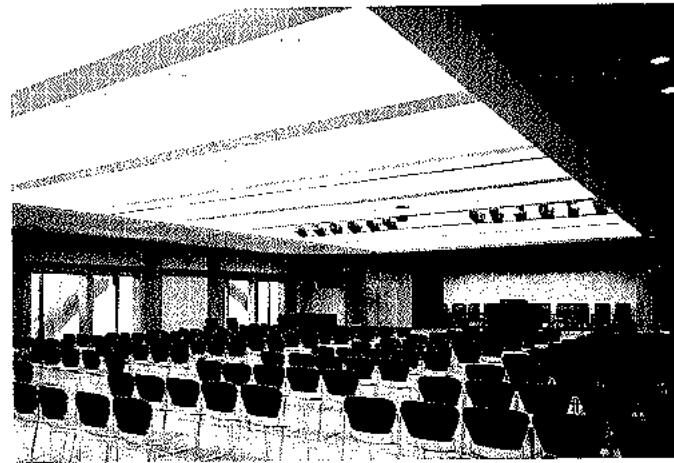
기준층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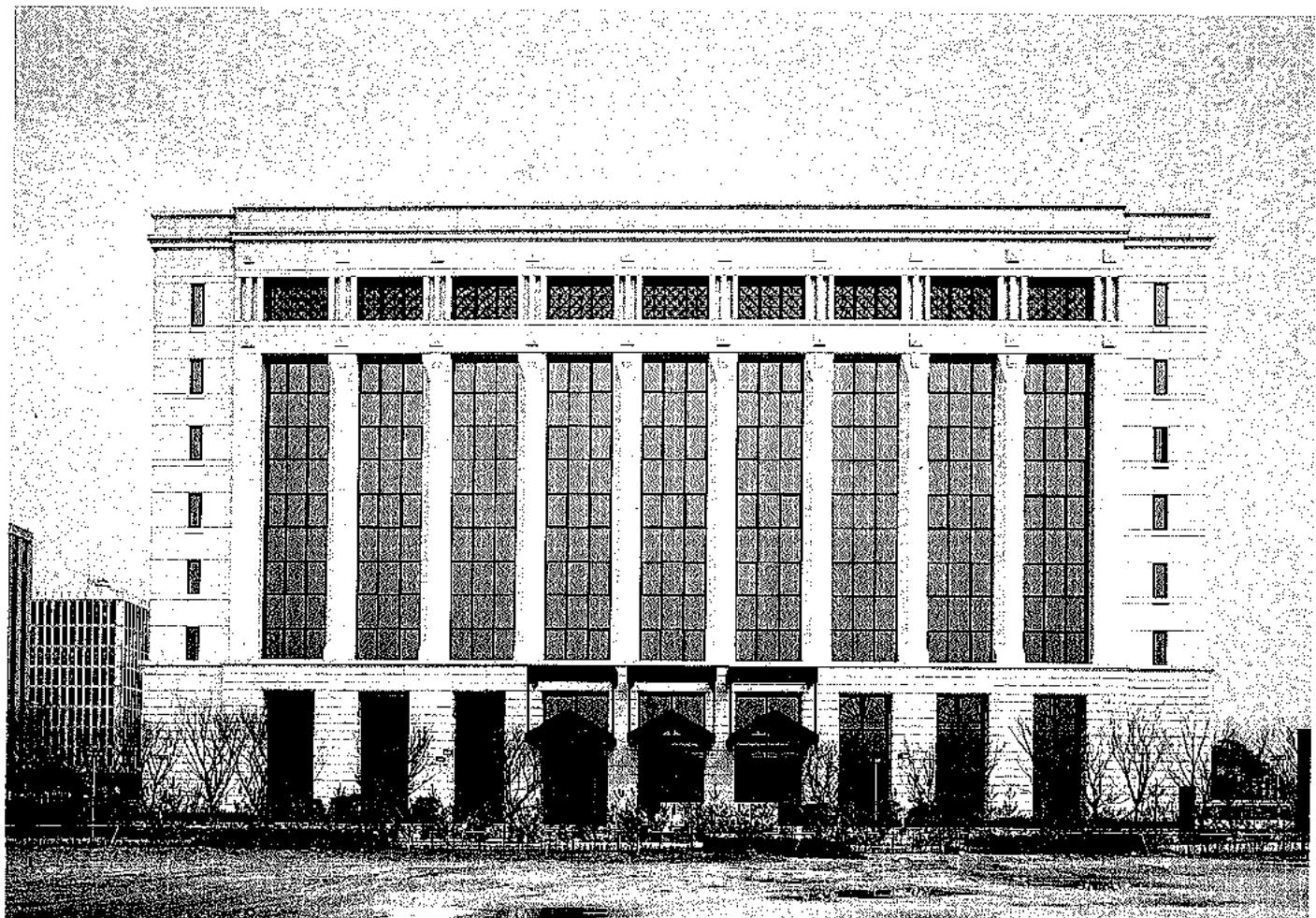
8층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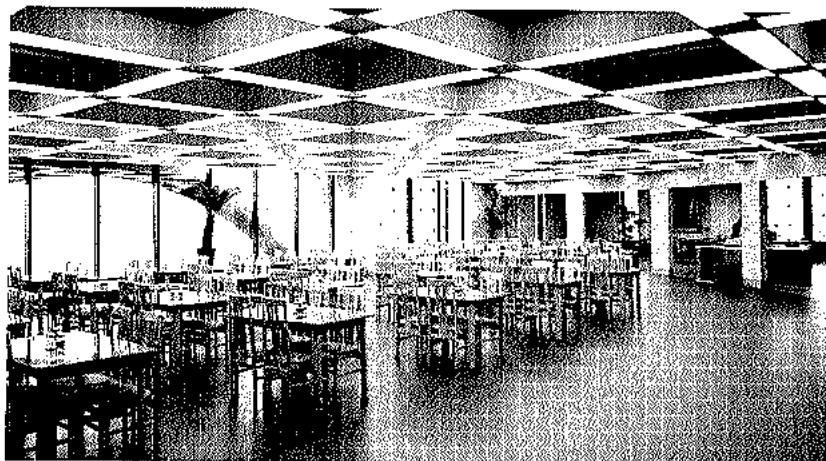
엘리베이터 홀



대강당



남측전경



8층 식당



정면 출입구

이 건축물은 여의도 금융타운에 세워진 산업은행 전자계산소로서 전자계산소라는 특수한 목적과 기능 및 은행지점으로서의 일반업무기능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건축물이며 그 특징을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은행의 이미지 및 도심속의 랜드마크적 역할이 되도록 고전적인 입면을 도입하였으며 주변 건물군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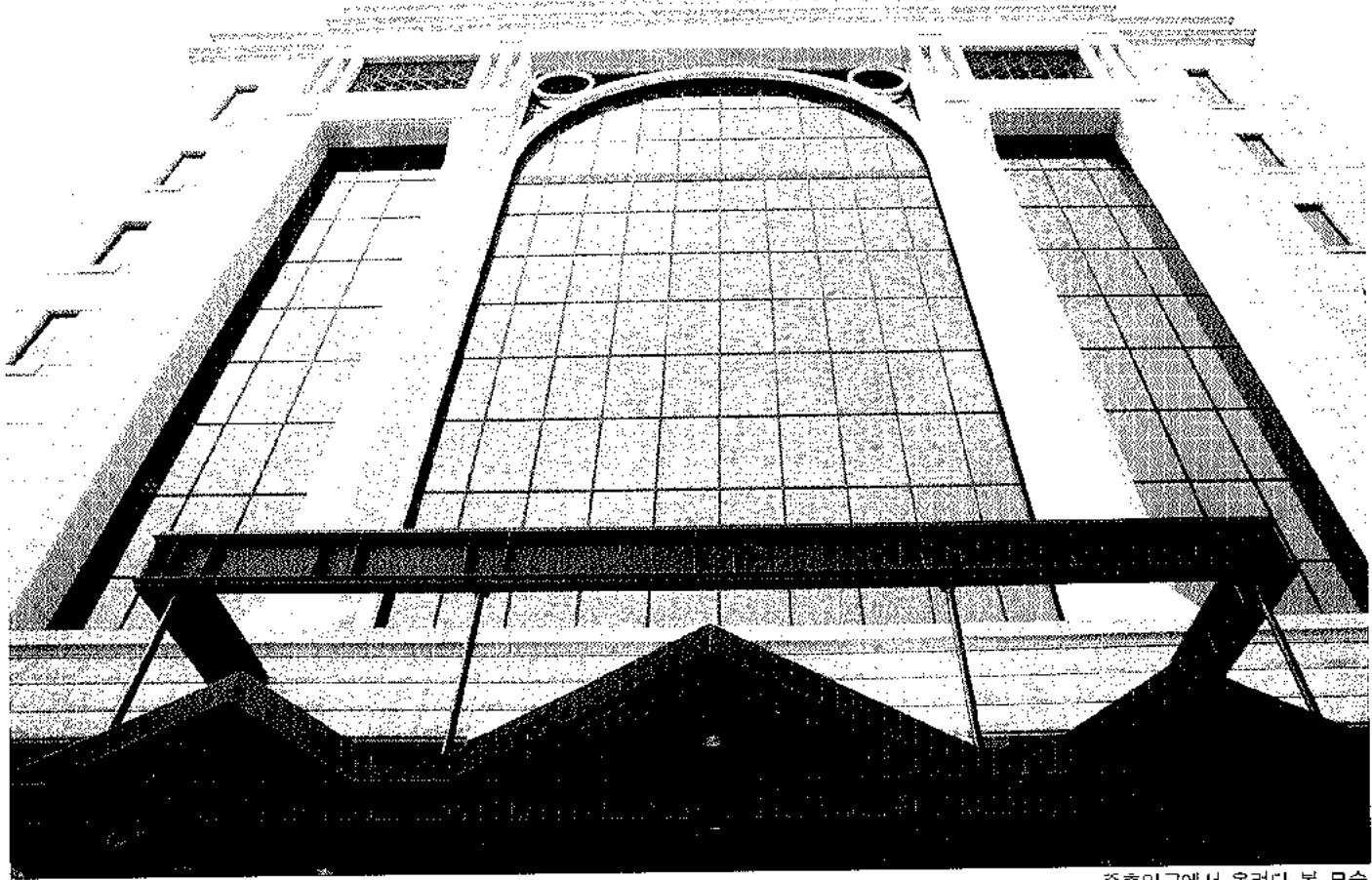
둘째: 직원 및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출입구를 3면에 설치하였으며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여 각각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옥외공간을 시민들의 휴식과 환경조각물을 감상 및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녹지 공간과 휴식공간이 배치계획에 고려 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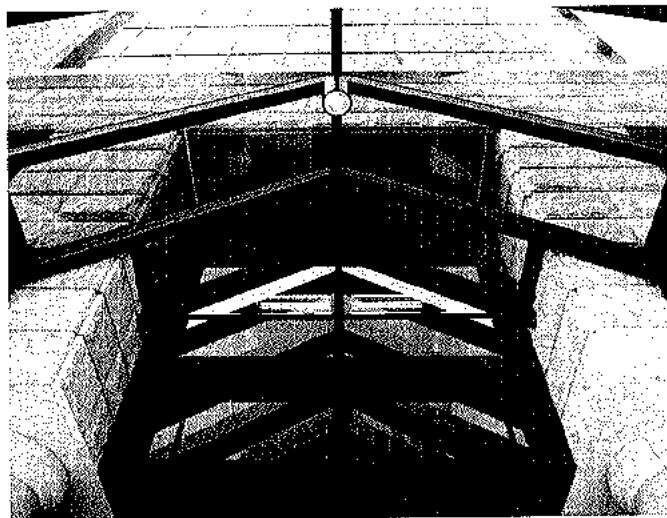
넷째: 전자계산소로서의 특수한 기능에 맞추어 사무자동화와 전자, 전산 통신망 및 건물자동화 문서발송설비 기능인 intelligent building system을 도입하여 능률적인 업무환경이 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좌측 대지에 건설예정인 본점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고려하여 지하 2개층에 미리 space를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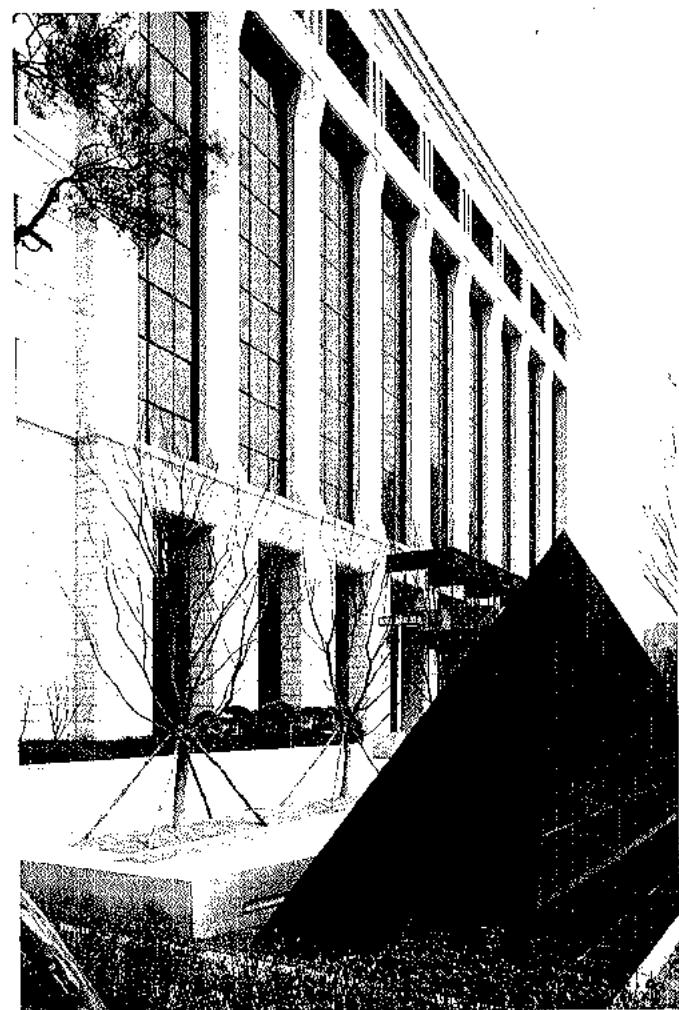
앞으로 이 건축물이 도시환경의 한 조형물로서 그 몫을 다하리라 기대한다.



주출입구에서 올려다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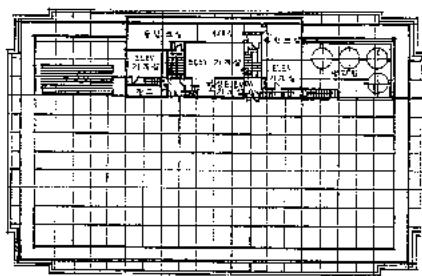
주출입구 캐노피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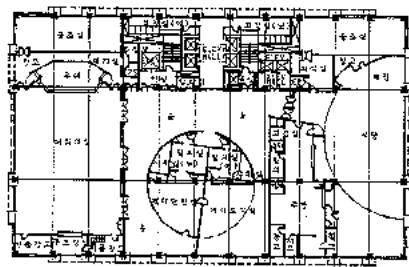
남측 환경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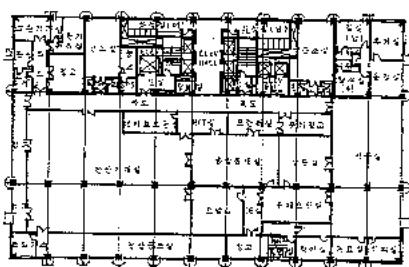
1층에서 본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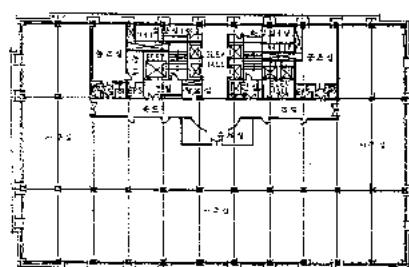
옥탑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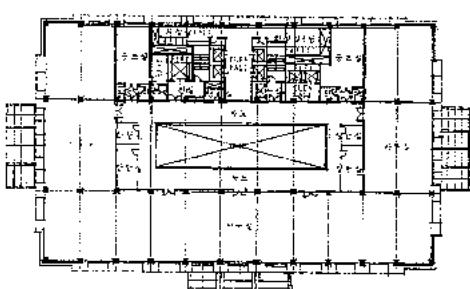
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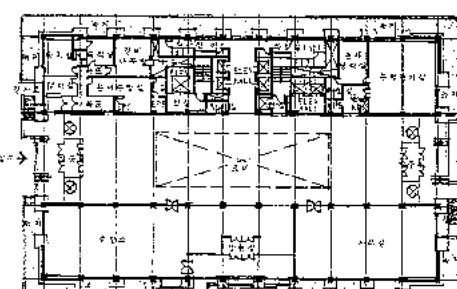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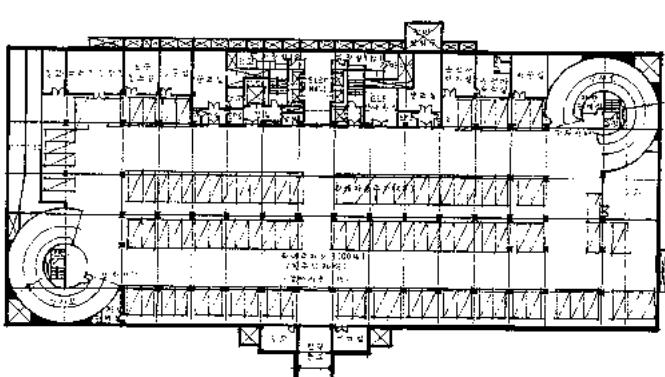
3·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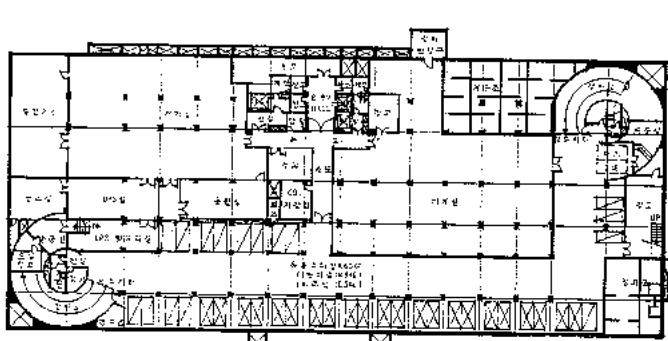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지하3층 평면도

한솔제지 임목육종연구소

Hanso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金昌壽+朴昇+韓相默 / (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Chang-Su, Park Seung & Han Sang-Muk



북측 전경

위치 /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외방리 산 56-1

지역 / 도시계획지역

대지면적 / 9,898m²

건축면적 / 2,525.85m²

연면적 / 9,077.81m²

건폐율 / 25.52%

용적률 / 64.48%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감마감 / 적벽돌 치장쌓기, 샌드스톤

설계담당 / 건축 이영두, 임형남

설비 한재우

구조 김석경

전기 김순락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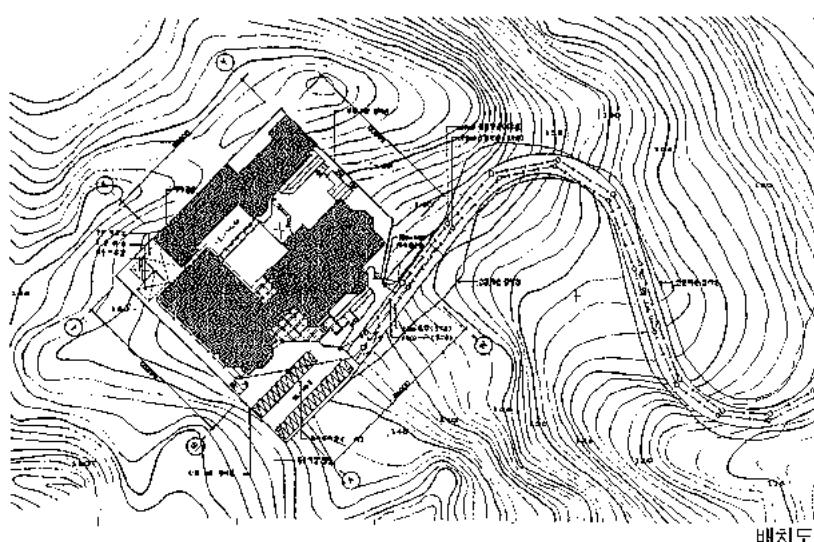
Exterior Finish / Fair-Faced Brickwork, Sandstone

Project Team / Architecture: Lee Young-Du, Im Hyeng-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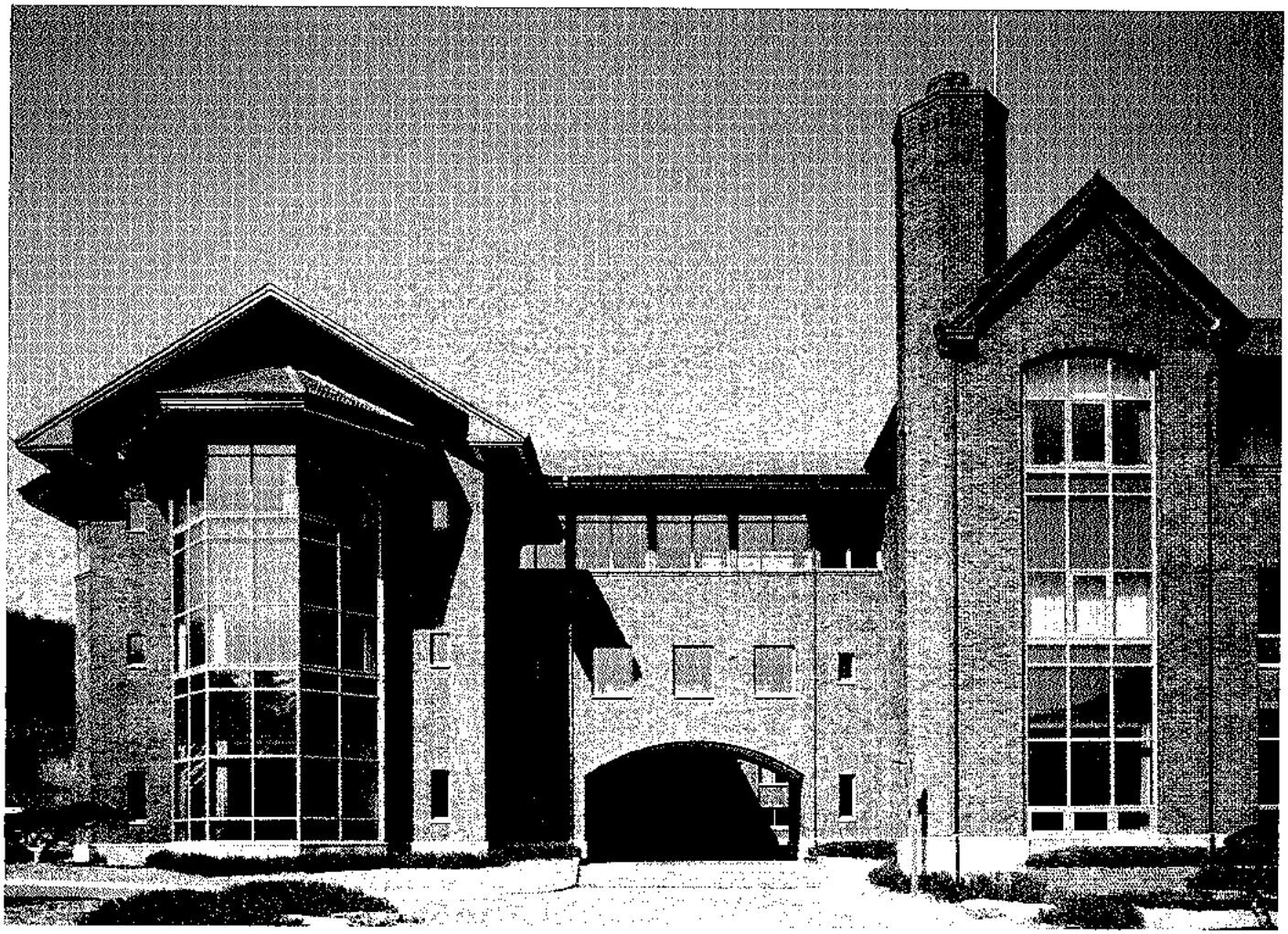
Facilities: Han Chae-Wu

Framework: Kim Seok-K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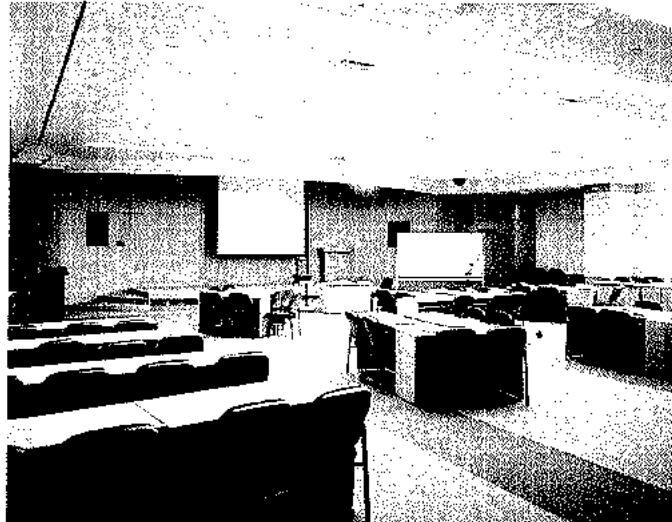
Electricity: Kim Sun-Rak



배치도



주출입구 전경



1층 강당



전시홀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외방리 산 56-1 번지 는 전북 부안의 개암사를 닮아 있었다. 경춘 국 도를 한참 달리다 천마산을 지나 축령산쪽 마 석을 향해 가다보면 호젓한 2차선 지방국도를 지나고 다시 시멘트로 포장된 농로를 따라 들 어가면 조그만 하천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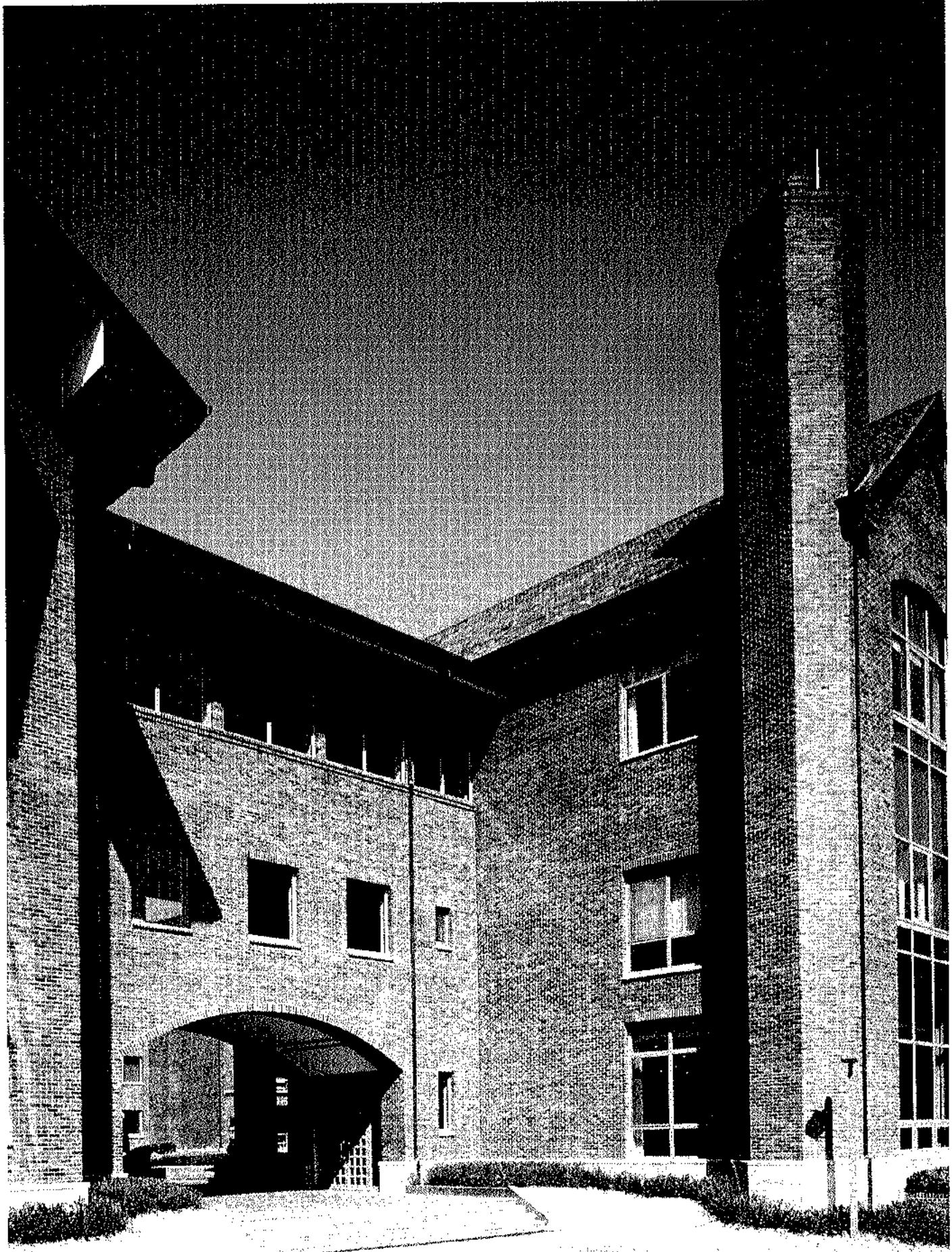
하천을 건너 S자로 구부러진 진입로를 한참 돌아들고서야 비로소 Site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Site는 산으로 둘러싸인 그릇과

같이 생긴 땅으로, 햇살을 가득담고 있었다. 우리는 그 그릇속에 또 다시 그릇을 하나 앉히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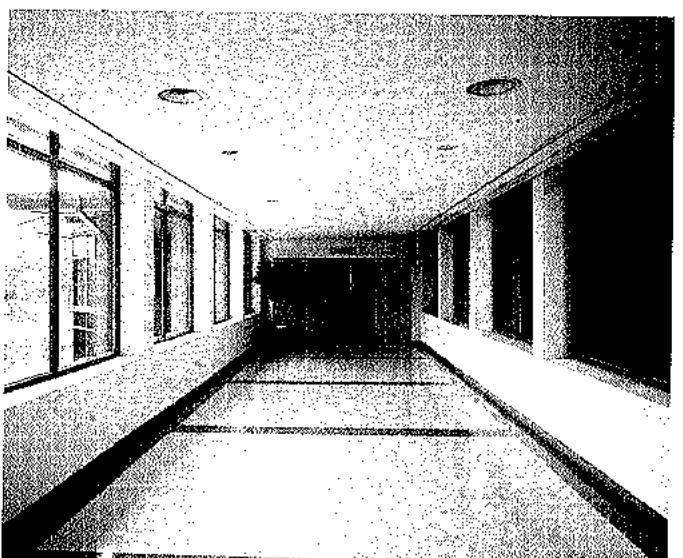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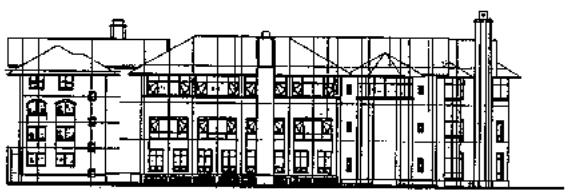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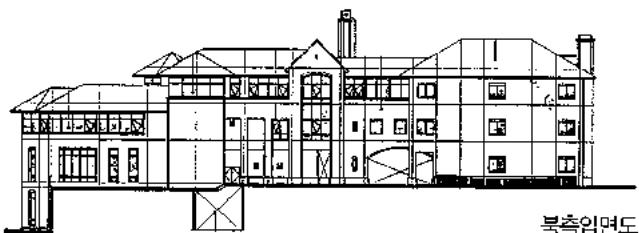
진입축과 평행한 Mass가 앉고 그곳에 주기능 인 연구실들이 배치된다. 직교하는 Mass가 불어 일부 연구기능과 연구지원 기능이 배치되고 2개의 Mass를 연결하는 브리지하부의 야치형 개구부는 외부로부터의 진입축과 직교하며 중 정으로 시선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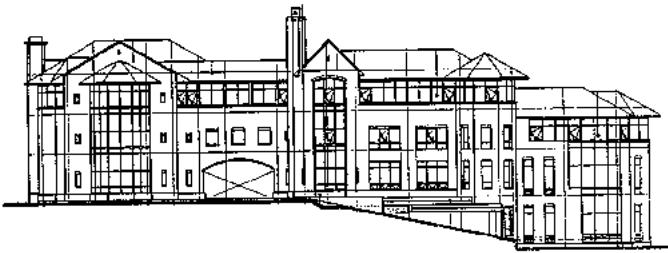
중정은 전면의 건물과 뒷편 연구원 숙소로 구획된 네모난 열린 공간이며 동쪽으로 열려있고, 산으로 둘러싸인 부지의 모방이다.

둘러싼 산의 적당한 높낮이와 햇살을 담고 있는 부지처럼 연구동과 숙소동의 높낮이, 그것들의 적당한 간격 그리고 동쪽으로의 개방과 사람들로 채워질 중정은 긴 진행의 마지막 점이며 따뜻한 햇살을 담고있는 그릇이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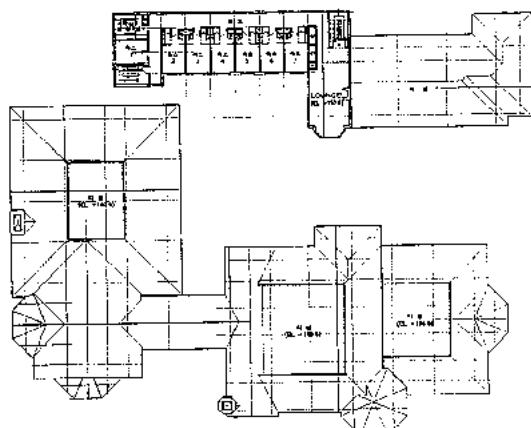


주출입구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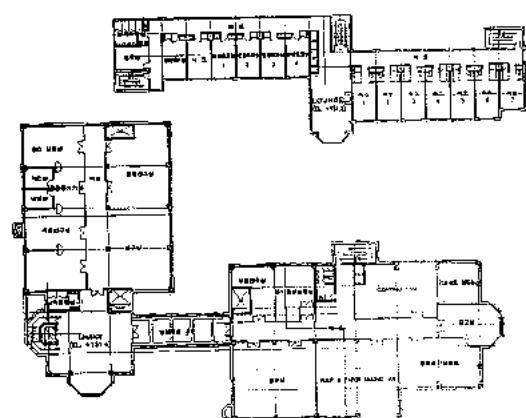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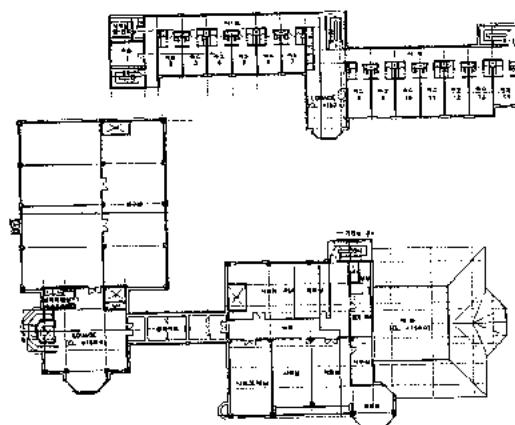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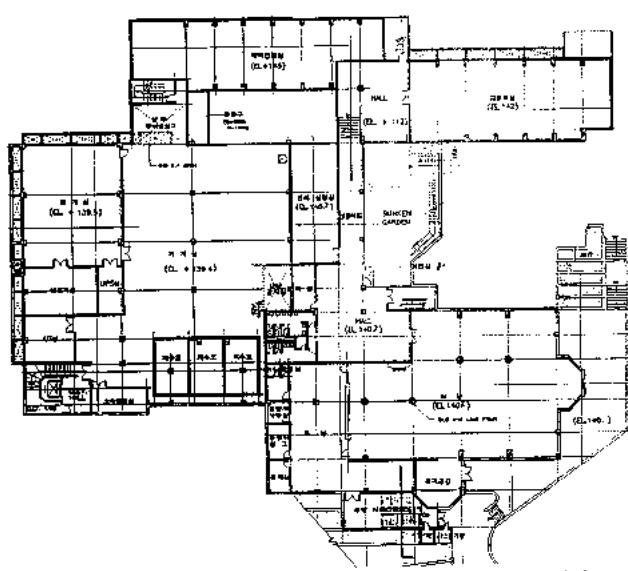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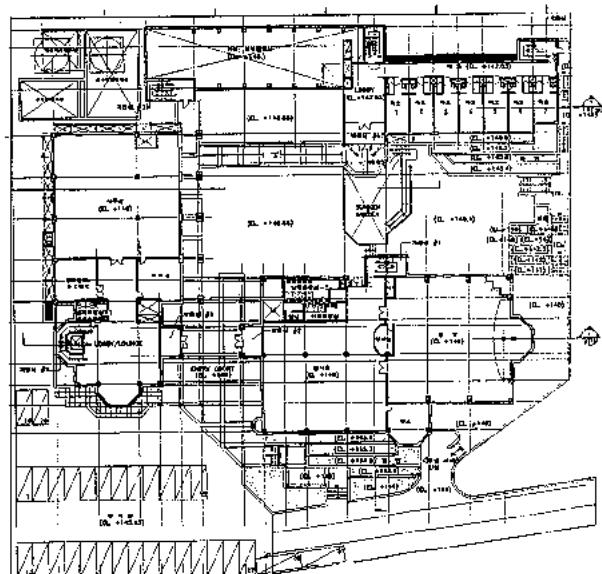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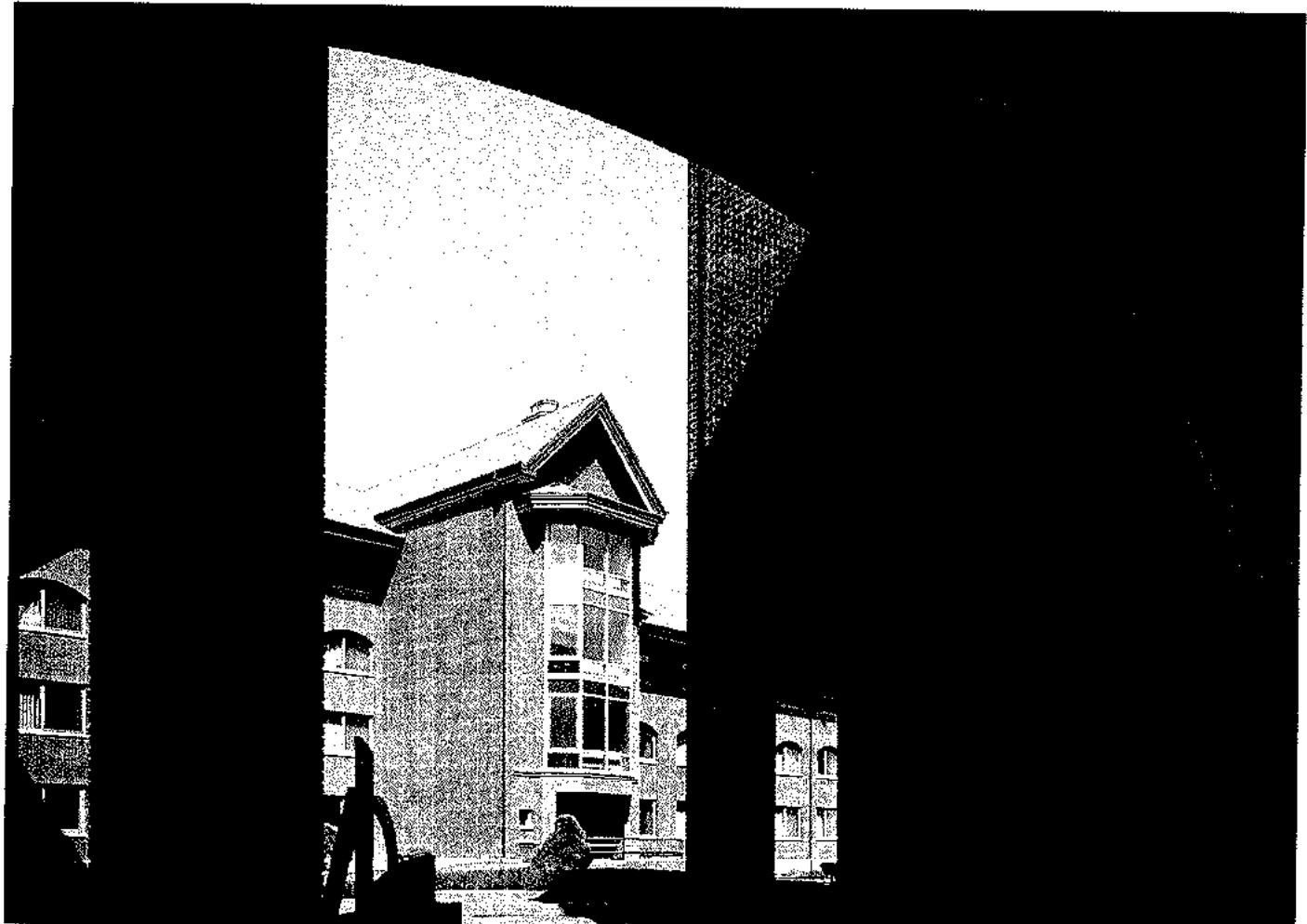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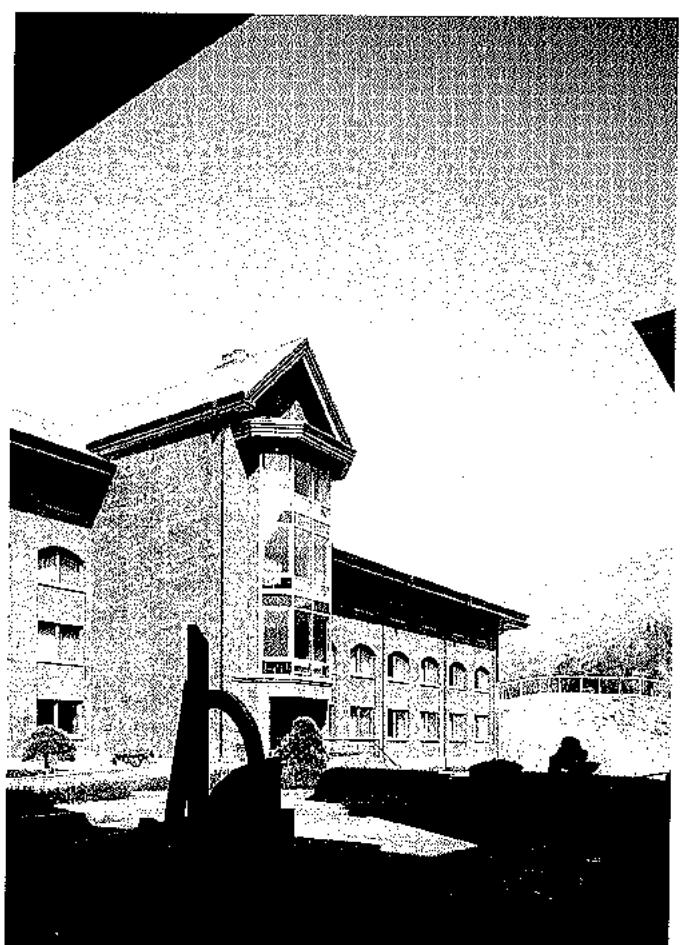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주출입구에서 본 숙소동



남서측에서 본 강당벽면 및 숙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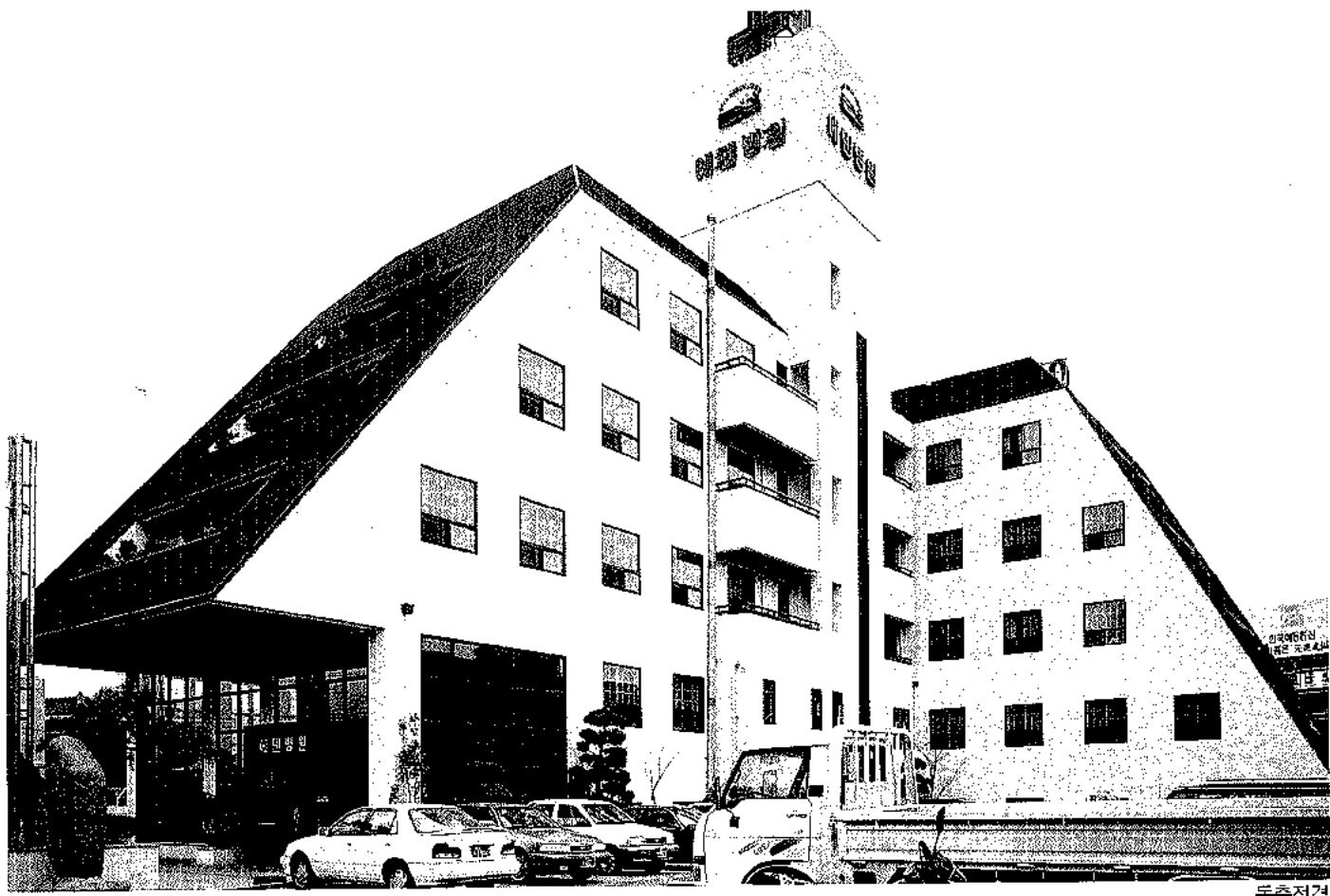


중정에서 본 숙소동 선큰가든

에덴병원

E · Den Medical Center

柳然昌 / (주)중합건축사사무소 류 건축
Designed by Lyoo Yun-Chang



동측전경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622-12번지

지역 / 앨빈주거지역

대지면적 / 1,721.10m²

건축면적 / 703.23m²

연면적 / 3,768.37m²

규모 / 지하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외장 / 아스팔트 쌍글았기

T16 칼라 복층유리

Location / 622-12, Duam-dong, Puk-gu,

Kwanju-shi

District / House

Site Area / 1,721.10m²

Bldg. Area / 703.23m²

Gross Floor Area / 3,768.37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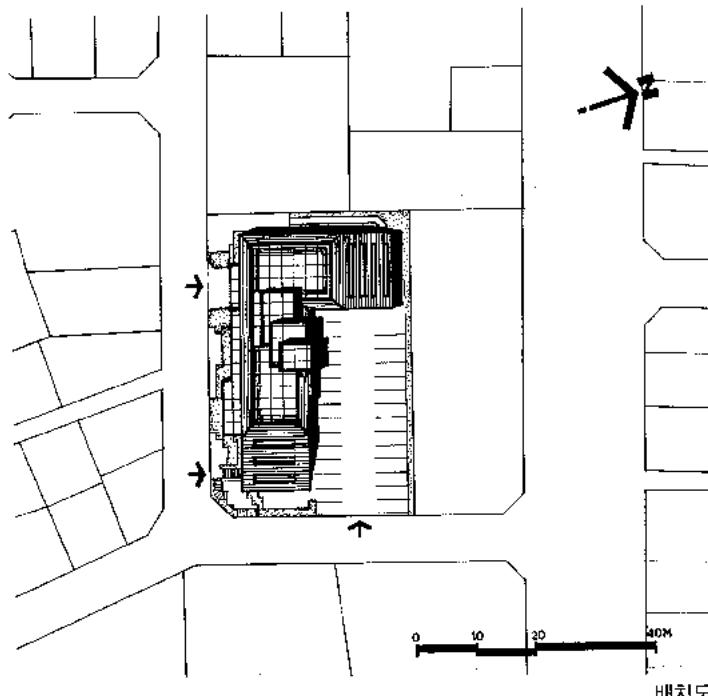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5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Asphalt Shingle,

T16 Color Double Grazing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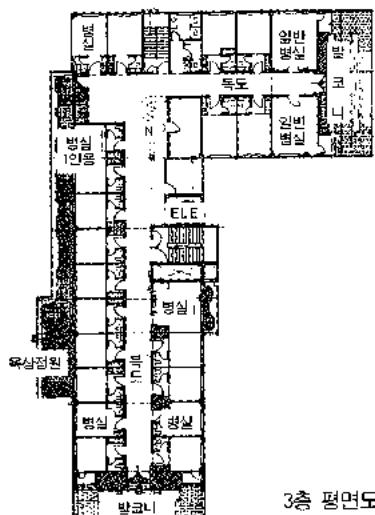
2층로비에서 본 1층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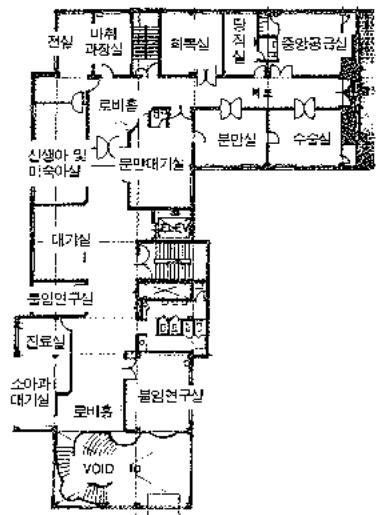
선관가든에서 본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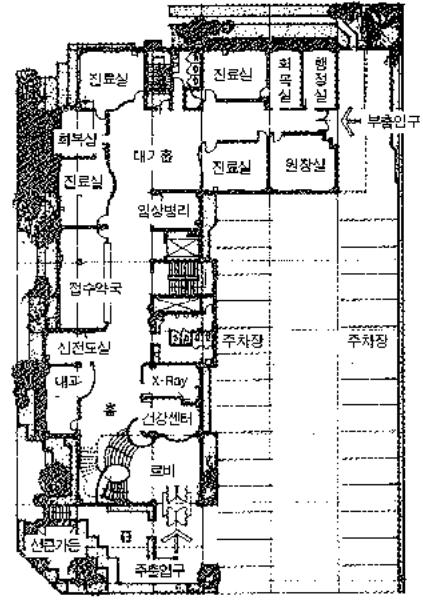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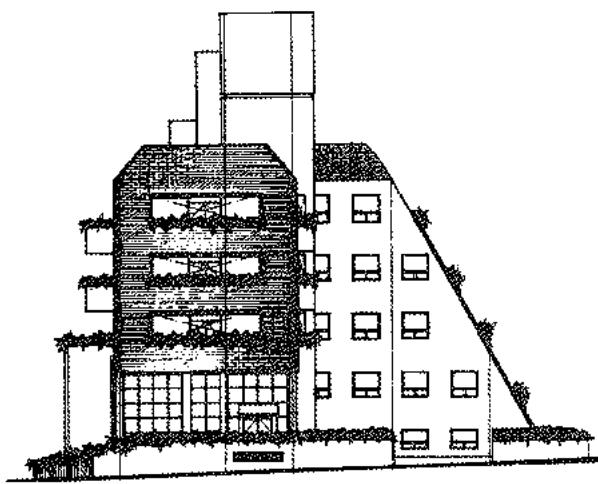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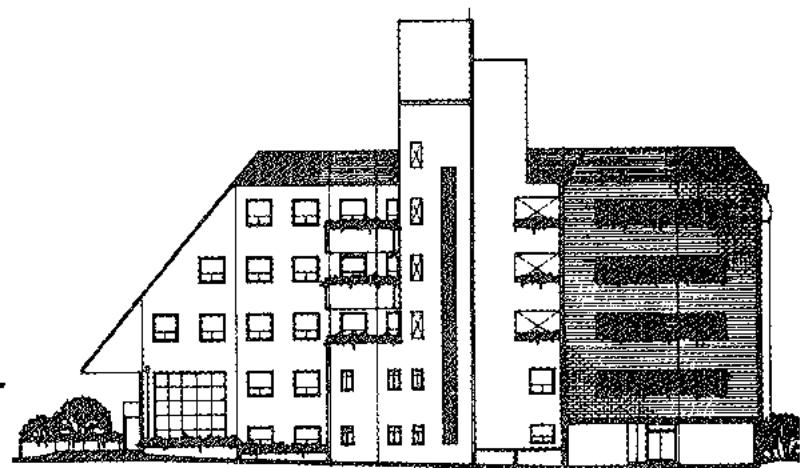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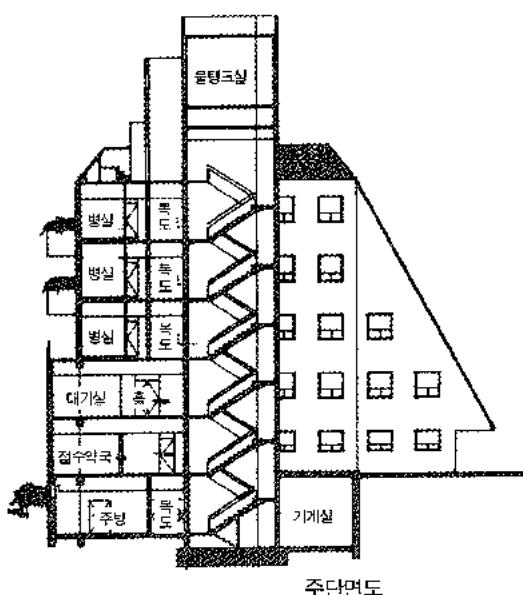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주단면도



2층 로비에서 외부를 바라봄



남동쪽 전경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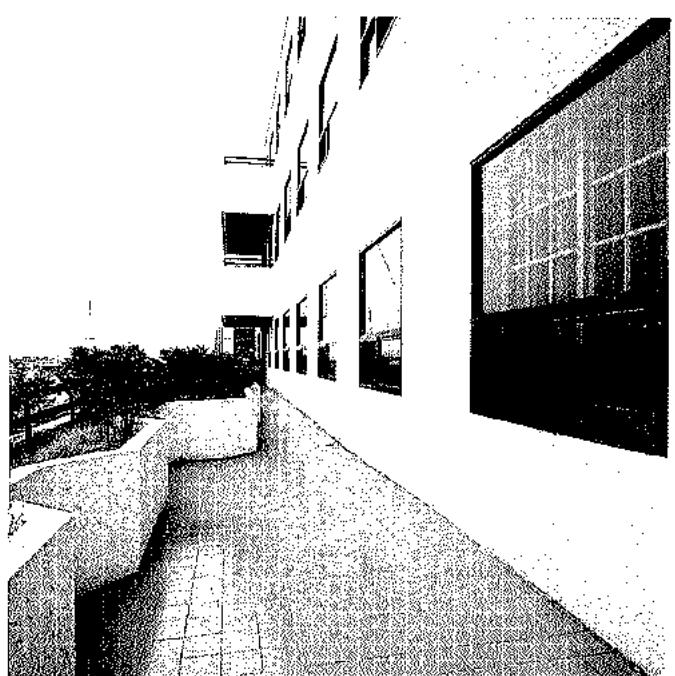
에덴병원은 이름에서 풍기듯이 산부인과 전용병원으로 기존에 개인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은 전문의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술을 펼치기 위하여 한곳에 모여 산부인과 전용 Medical Center를 개원한 곳이다.

이 부지는 동서로 길게 뻗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동에서 서로 경사진 지형이고, 남쪽과 동쪽이 8m도로에 접해있다. 좁은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과 일반주거지에 의한 일조권제한은 이 부지에는 아주 불리한 요소였으므로 배치계획에 있어 법규적 해석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동서로 뻗은 도로쪽에 주Mass를 '역그자' 형으로 앉혀 사선제한과 일조권제한을 최소화시켰고, 그래도 생길 수 밖에 없는 예각 부분들을 Balcony처리하므로서 법규적 약점을 장점으로 살리고자 하였다.

단면계획에 있어 경사진 지형을 최대로 이용하였다. 서쪽으로 갈수록 경사진 도로의 끝부분에 지하주차 출입구를 두어 반지하에 가깝게 출입할 수 있어서 Ramp길이를 줄일 수 있었고, 동쪽으로 갈수록 완전히 땅에 물러버리는 지하부분에는 Sunken Grade를 두어 식당과 휴게공간으로 처리하였다. 또 지대가 높은 동쪽에서의 주진입은 로비홀에서 자연스러운 Skip Floor에 의한 1,2층 주진료 Part로의 접근은 외래 진료환자를 쉽게 진료실과 연결시켜 주어서 매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였다.

직육면제 평면의 틀을 깨기 위하여 진료실 내벽에는 Glass Block을 도입하여 곡면처리하여, 진료실과 대기실 복도에 유동의 흐름을 갖게 하였다. 이 흐름을 로비홀의 Skip Floor가 이루어지는 계단에도 적용시켜 디자인의 통일을 꾀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느낄 수 있는 정형화되고 경직된 분위기를 굳이 장식(Decoration)적 처리없이 건축적요소만 가지고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공간으로 이끌수 있었다.

3~5층까지의 병동부에는 30Bed단위로 병상을 관리할 수 있는 Nurse Station을 두었고, 병동부 각 부분에 Balcony 및 Roof Grade를 두어 환자들이 병실에서 휴게공간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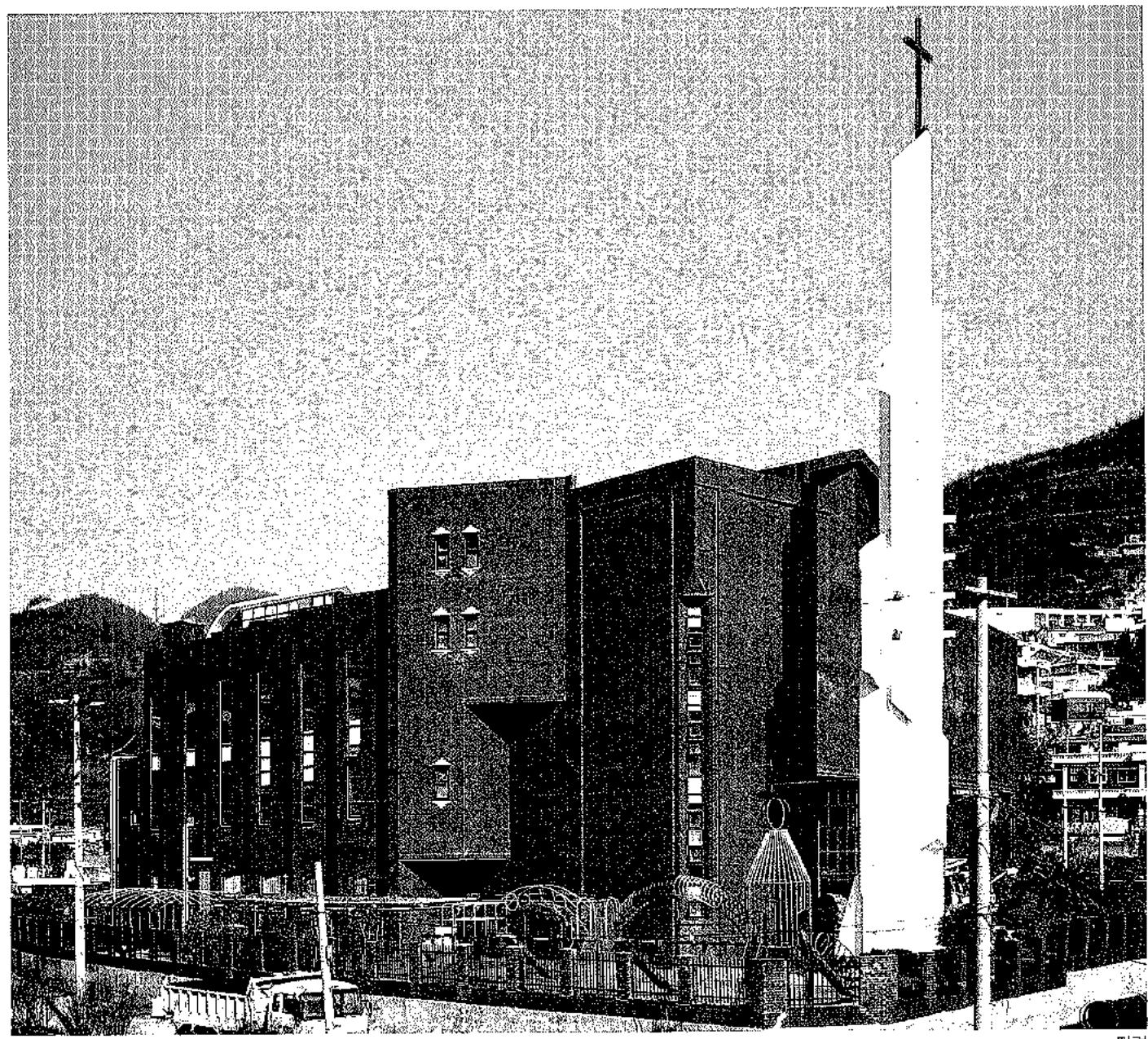


3층 육상 정원

여수성광교회

Yeosu Seongkwang Church

林級周 / 거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im Keup-Ju



전경

위치 / 전남 여수시 연등동 317-5의 5필

지역구 / 행빈주거

대지면적 / 3,036.31m²

건축면적 / 1,321.85m²

연면적 / 4,836.18m²

건폐율 / 43.53%

용적률 / 159.28%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조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외부마감 / 붉은 벽돌 치장쌓기

Location / 317-5, Yeondeung-dong, Yeosu-si, Jeollanam-do

District / House

Site Area / 3,036.31m²

Bldg. Area / 1,321.85m²

Gross Floor Area / 4,836.18m²

Bldg. Coverage Ratio / 43.53%

Gross Floor Ratio / 15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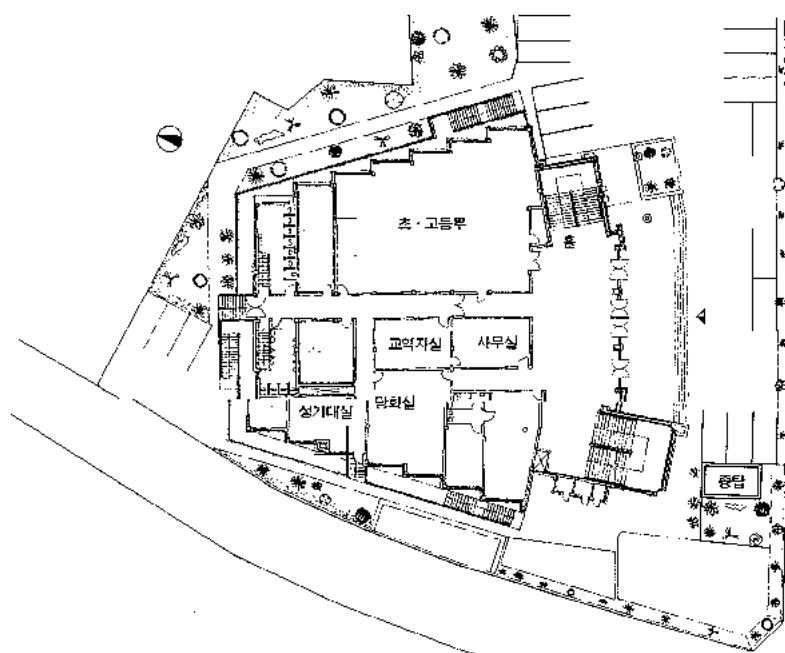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eel Truss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5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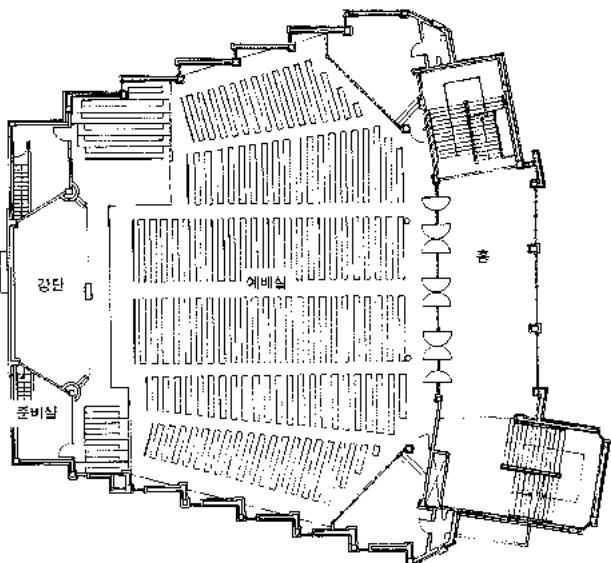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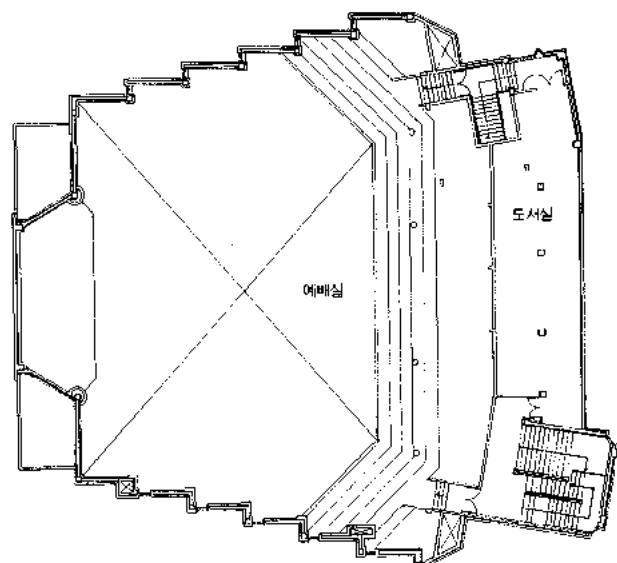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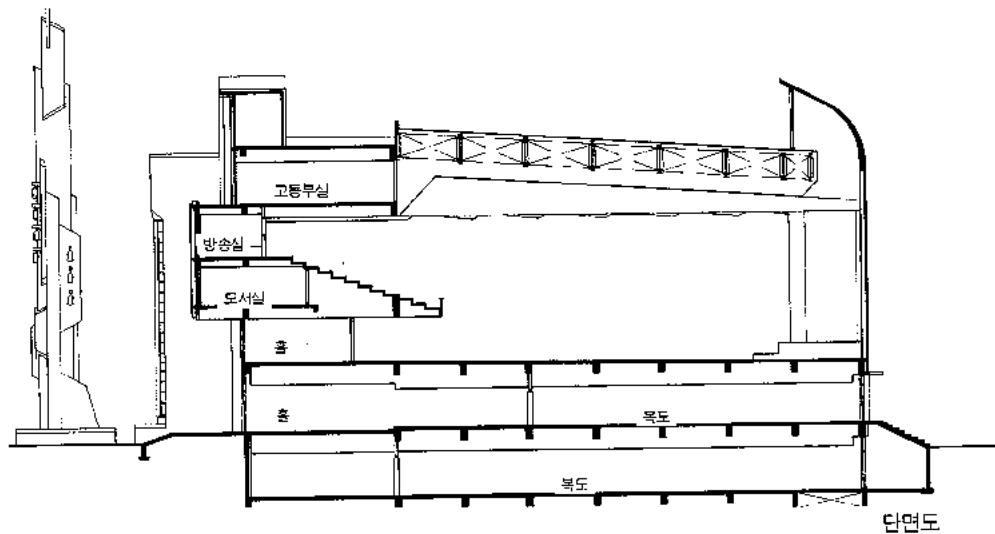
Exterior Finish / Fair-faced Red Brickwork



2층예배실에서 본 강단 전경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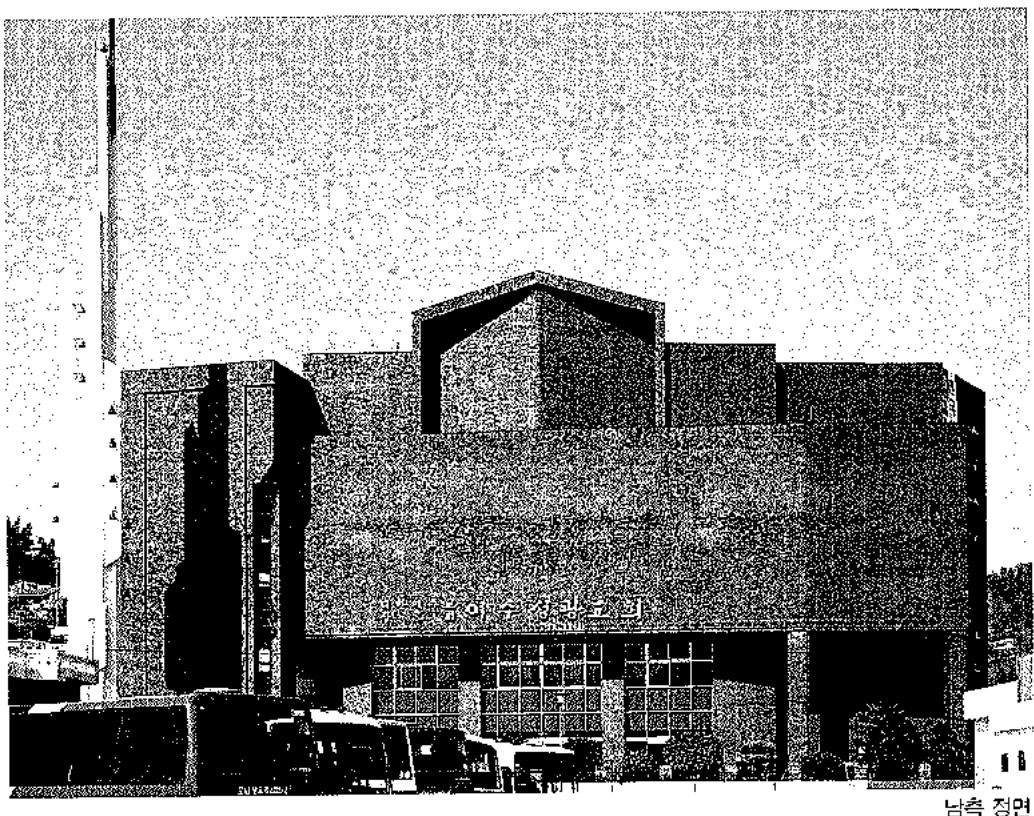
종교건물을 설계하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주변환경과 다원화된 도시에서 조화를 창출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구도시를 벗어나 신개발지인 본 대지는 35m, 8m 도로와 한쪽은 개천에 접하고 있어 주변환경과 조화, 대로에서의 주행차량의 소음에 유의하여 건축적 접근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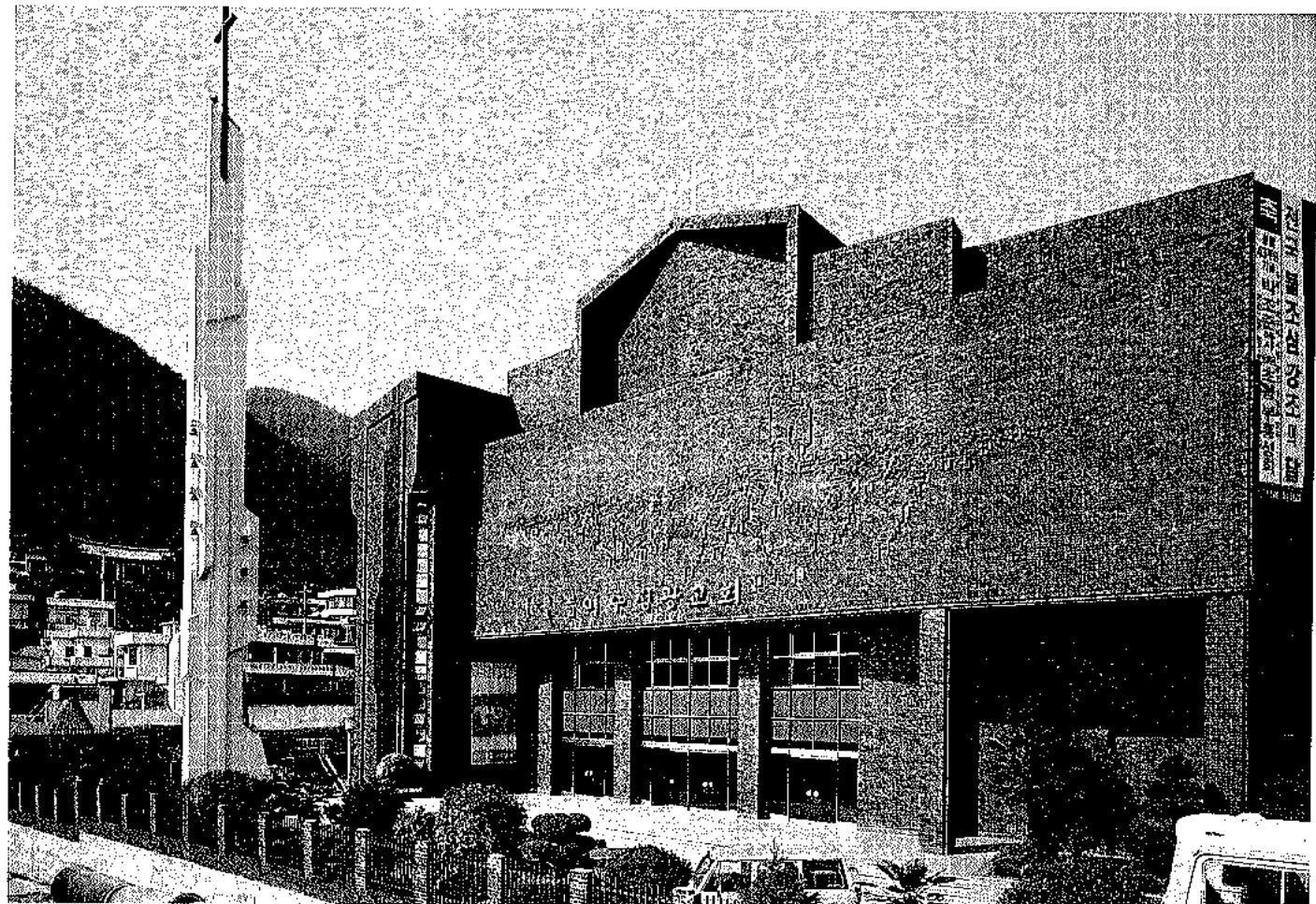
교회측 요구에 의하여 수용인원 2천명의 대예배실, 이에 수반하는 홀 공간과, 동선관계 그리고 대예배에 비례한 교육, 천교봉사, 관리 등 필요한 공간을 해결하는데 노력하였다.

교회의 외부는 붉은 벽돌을 주재로 하고 화강석을 일부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였고, 옥상 체광장을 두어 강단뒷벽에 자연 광선을 유입시켜 강단의 엄숙함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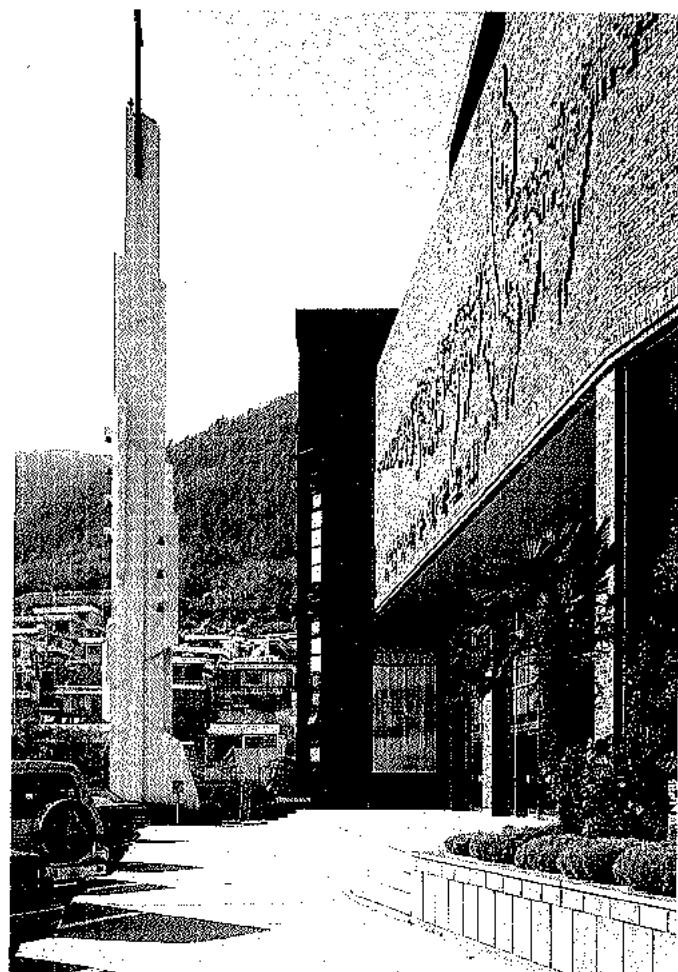
종탑은 예술성을 가진 장식탑으로 십자가 밑에 종을 달아 십자가의 구원의도가 만민에게 울려퍼지는 것을 상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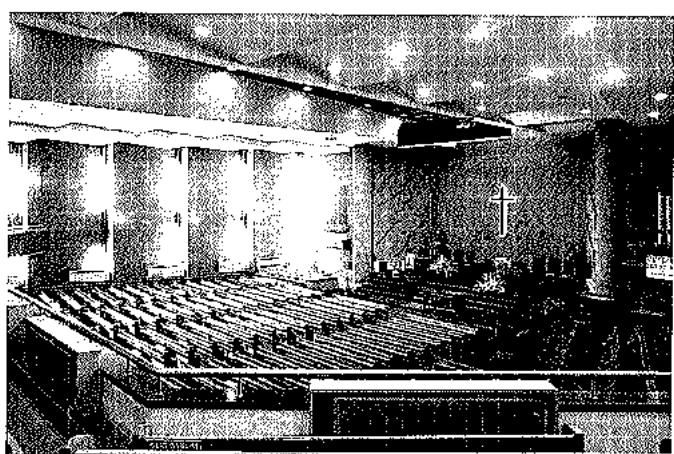
남측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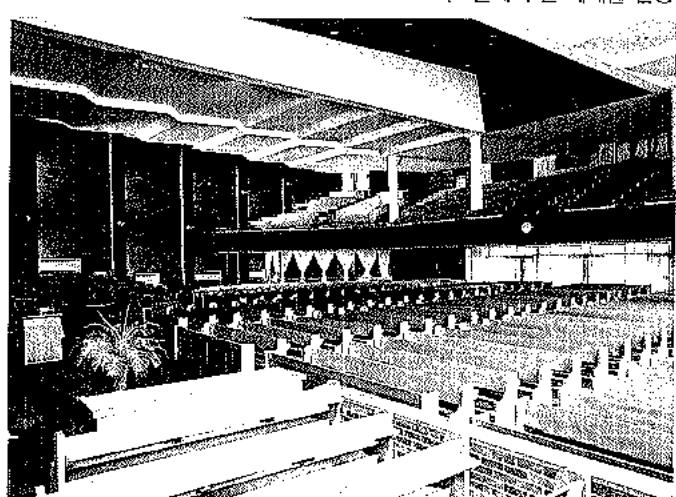
남동쪽에서 본 주출입구 전경



동측에서 본 주출입구 및 종탑



자료실에서 본 예배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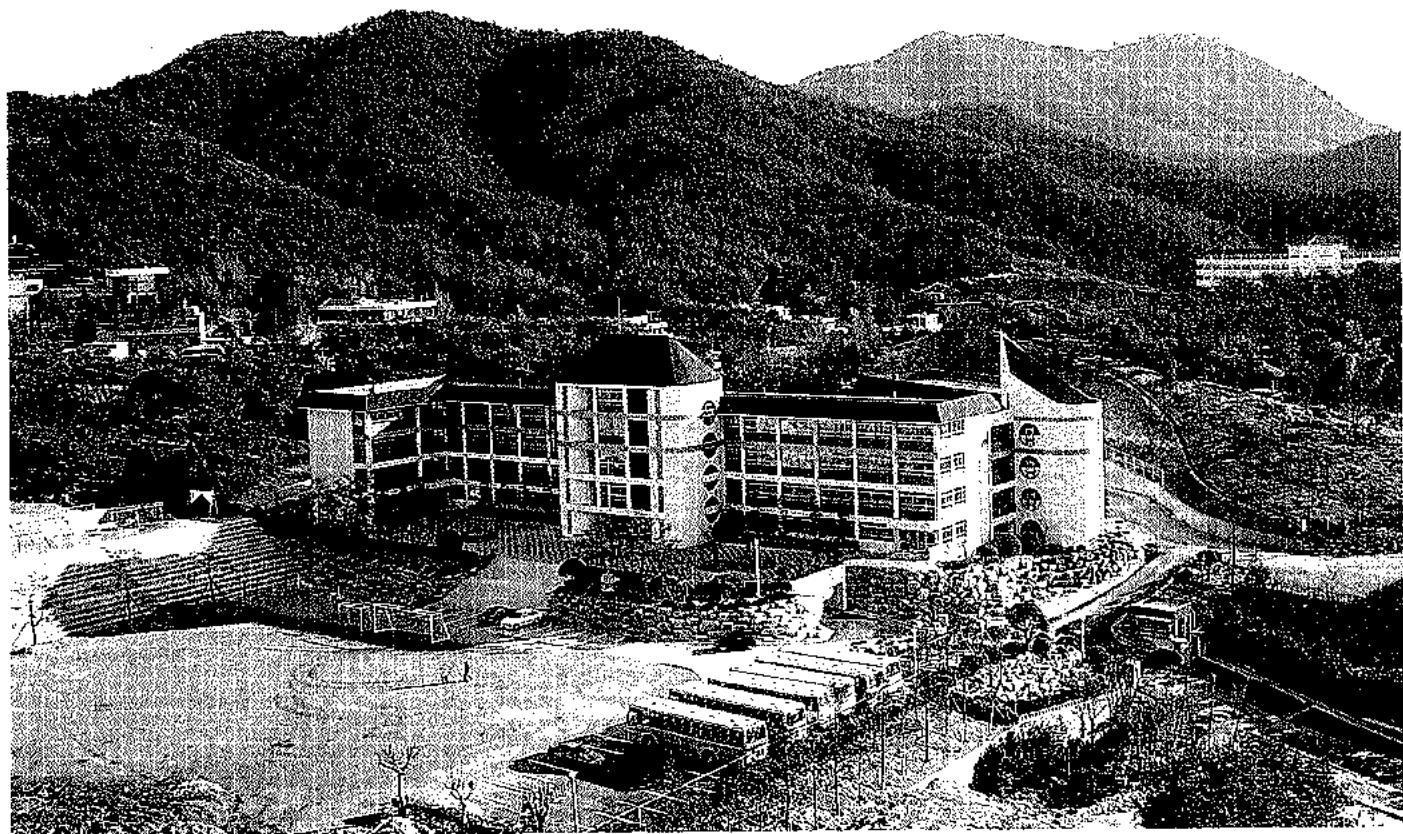
상가대에서 본 예배실 전경

동래국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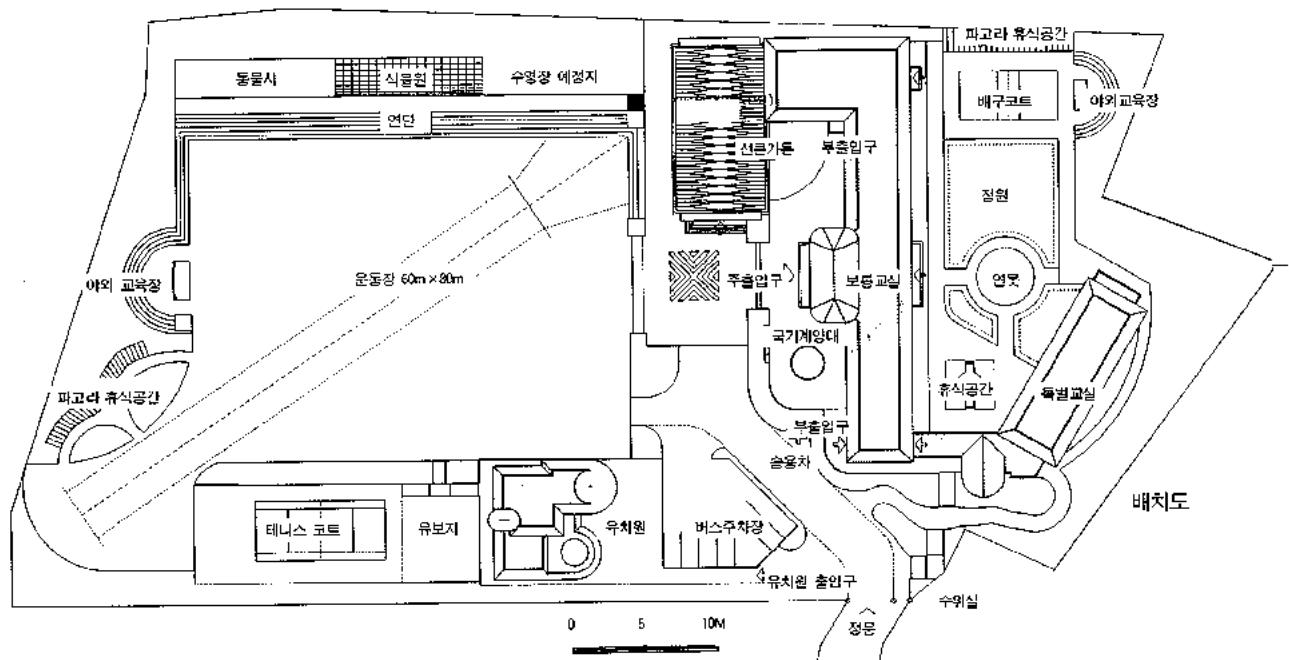
Tongrae Primary School

(주)일신설계

Designed by Ilshin Architect & Engineers



북서측 원경





서측전경



계단실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산 57-10의 3필지

대지면적 / 19,858m²

건축면적 / 1,528.28m²

연면적 / 8,002.08m²

건폐율 / 7.68%

용적률 / 30.85%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벽 - 우레탄 페인트

지붕 - 앤스풀트 싱글

Location / 57-10, Kuseo-dong, Keumjeong-gu, Pusan-shi

Site Area / 19,858m²

Bldg. Area / 1,528.28m²

Gross Floor Area / 8,002.08m²

Bldg. Coverage Ratio / 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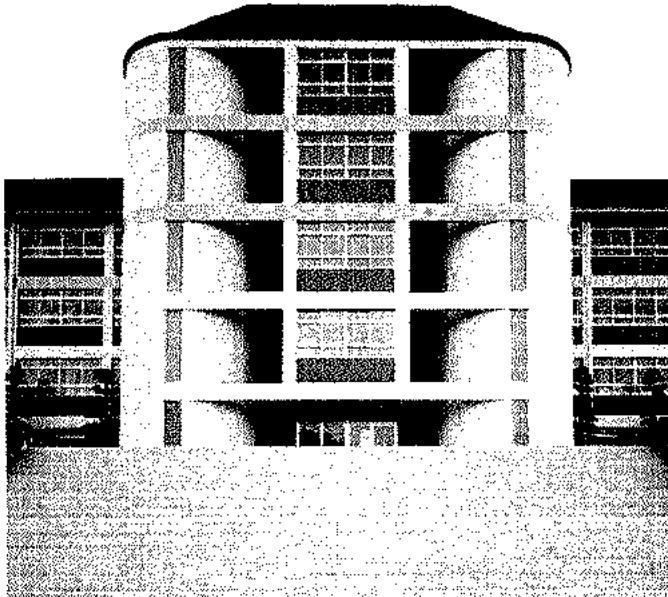
Gross Floor Ratio / 30.85%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4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Wall - Urethane Paint

Roof - Asphalt Shingle



출입구 전경



동북측 주출입구 상세



교실내부



무용실

대지분석

본 대지는 부산시 구서동 구월산의 북쪽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주거지역이, 남쪽으로는 동래학원(동래여중고, 예술고)이 인접한다. 또한 동쪽과 북쪽으로 자연녹지가 펼쳐져 비교적 양호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지형태는 남북측으로 일부 급경사(경사도 35%)를 이루고 동서축으로 경사(경사도 20%)지형을 형성하며, 서측 인접 녹지에는 장래 주거시설이 예상되어 대지로의 8m 진입로가 계획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지현황에 따른 고려사항은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고속도로로부터의 엄청난 소음에 대비하고 병풍처럼 펼쳐진 기존 동래학원 교사와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계획방향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국민학교'를 살펴 볼 때

남측에는 운동장, 후편에는 교사를 배치하여 운동장을 거쳐 교사로 진입하는 어프로치 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표준설계에 의한 평면·입면의 획일성, 그리고 변화하는 교육시스템에 부응할 수 있는 프렉시빌리티(flexibility)의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지침상의 제약과 현실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배치 블록 플랜(block plan)의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방침을 세웠다.

배치계획

마스터 플랜에서는 운동장을 고속도로 쪽의 북측에, 교사는 남측에 배치하여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사 전면에 휴게공간을 넣어 학생들의 정서공간으로 할애하였다. 또한 협소한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형을 이용하여 대

지의 낮은 부분에 테니스장·주차장을 배치하여 보차분리 및 토목계획의 합리성을 동시에 해결하였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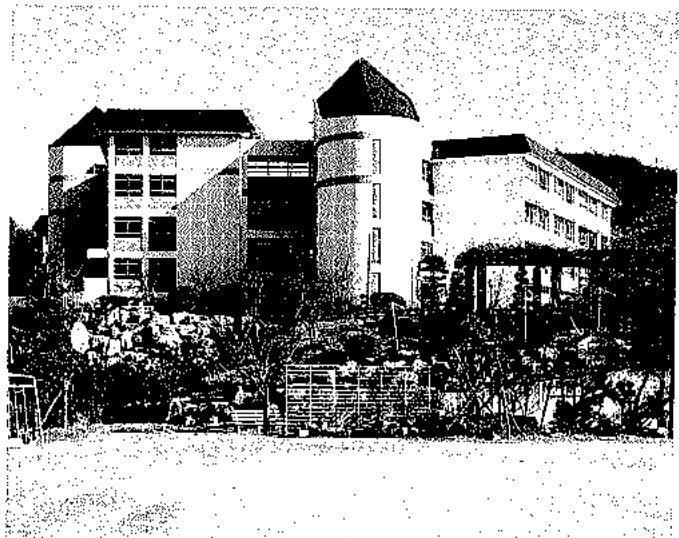
전 교실을 남향인 편복도식으로 균등하게 배치하여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였고, 보통교실동의 주매스와 특별교실동을 크러스터(cluster)형으로 연결함으로써 남측에 학생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북측에는 현관으로의 전입광장이 형성되어 교사동의 그늘이 운동장에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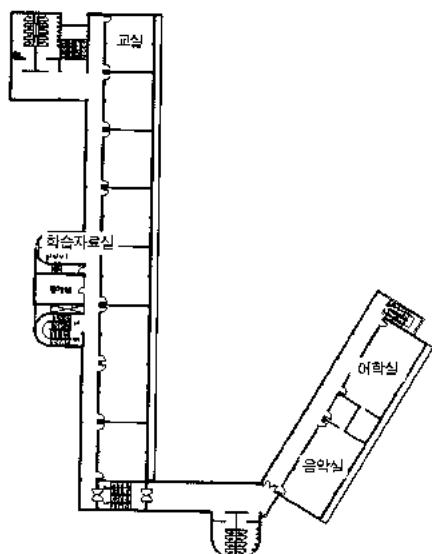
종래 획일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국민학교다운 변화성을 추구하면서 기존 동래여중고와의 형태적 이미지의 연계성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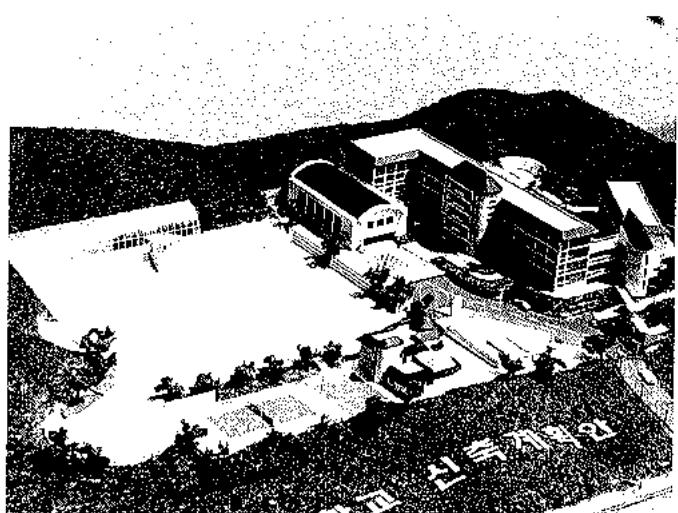
북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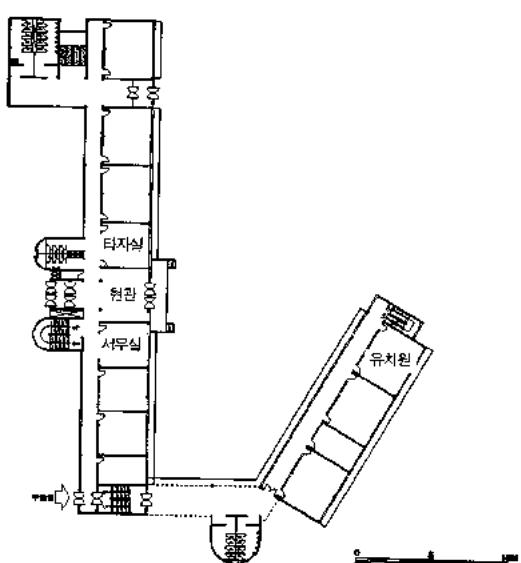
전경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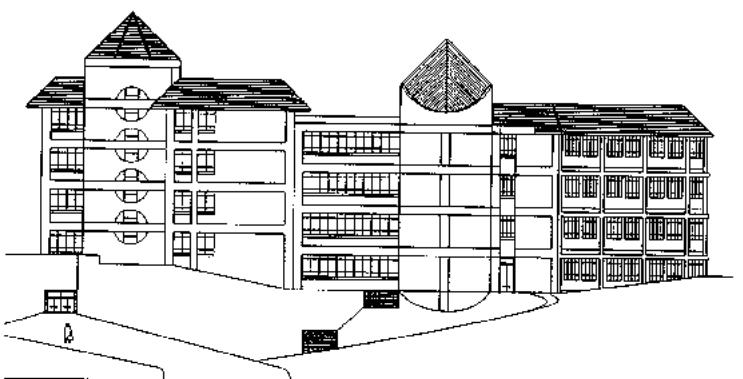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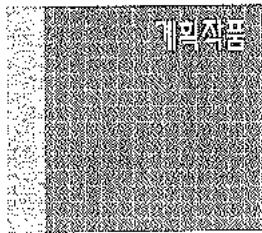
1층평면도



북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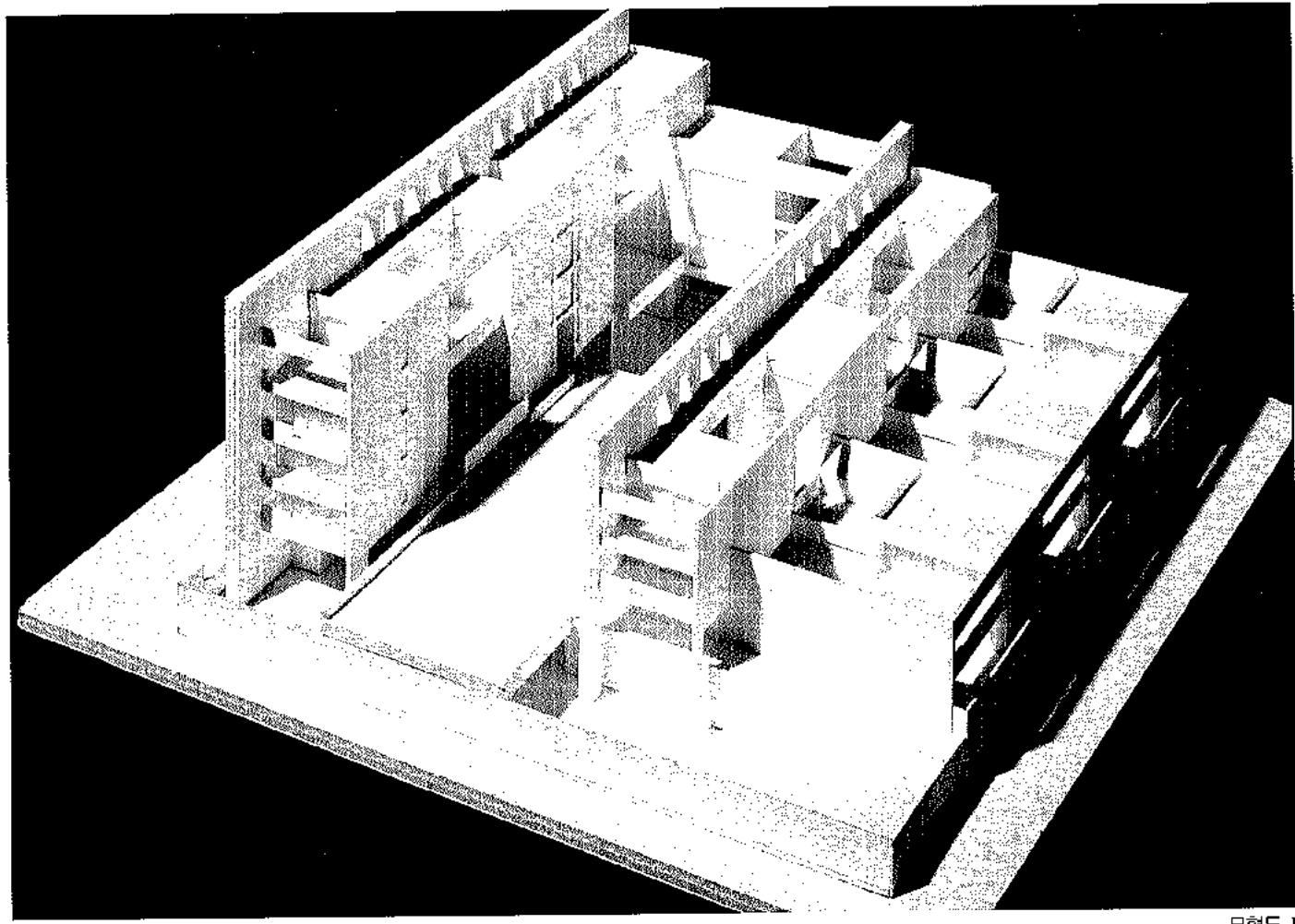
서측 입면도



마당깊은 집

A Housing with Deep Space

閔賢植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Designed by Min Hyun-Sik



모형도 1

위치 / 분당 특별설계구역(C11-4-2)

대지면적 / 2,434.00 m²

건축면적 / 1,080.06 m²

연면적 / 2,669.08 m²

건폐율 / 44.37%

용적률 / 88.51%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리에조

외장 / 외벽 : 철근콘크리트 / 드라이비트

지붕 : 이스팔트 방수 위 ①보화M+콩자갈깔기 ②목재후로링

Location / Special Design Zone, Pundang-shi

Site Area / 2,434.00 m²

Bldg. Area / 1,080.06 m²

Gross Floor Area / 2,669.08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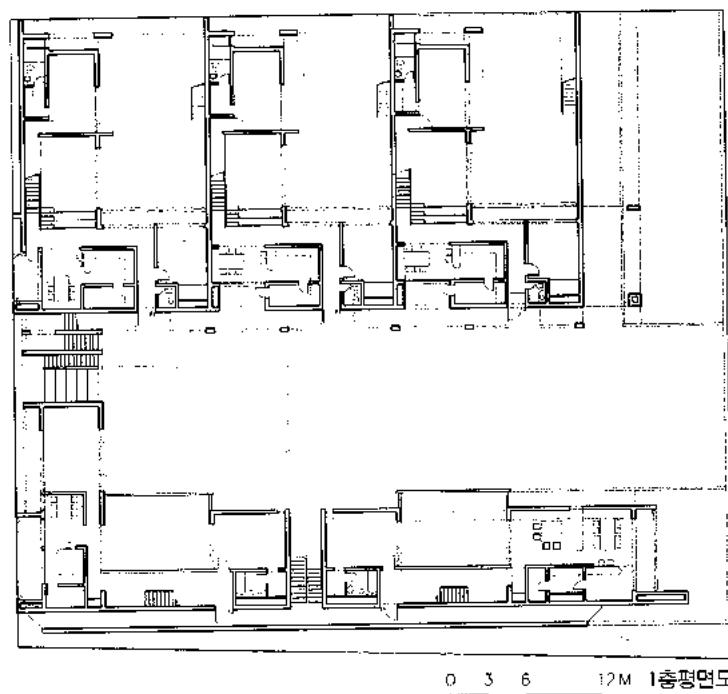
Bldg. Coverage Ratio / 4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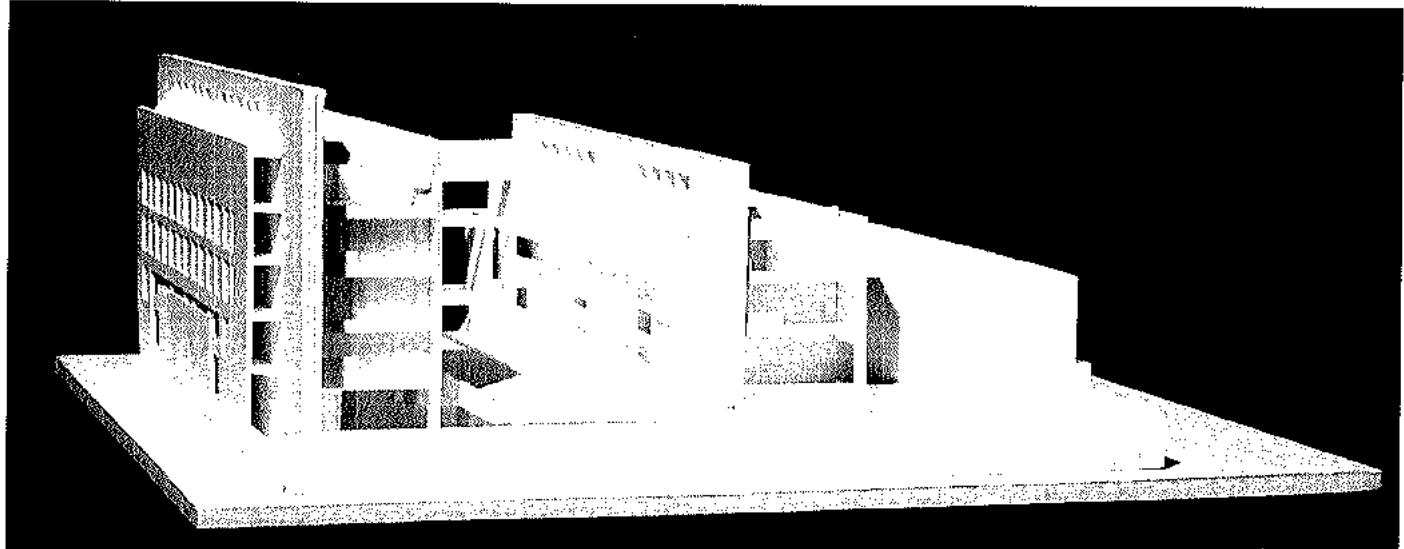
Gross Floor Ratio / 88.51%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4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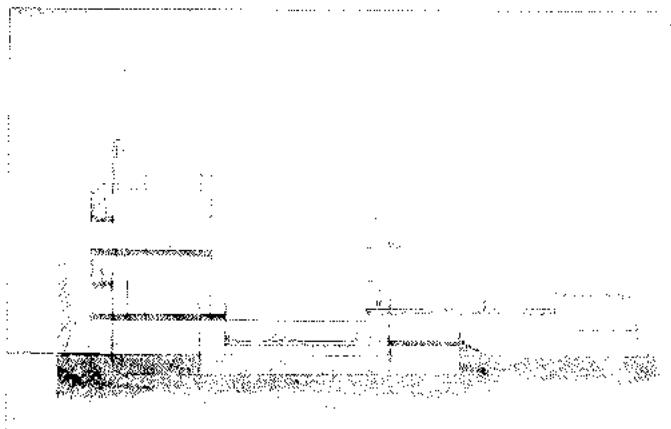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and Rigid Frame

Exterior Finish / Wall - Reinforced orncrete, Drybit Roof - Asphalt Waterpro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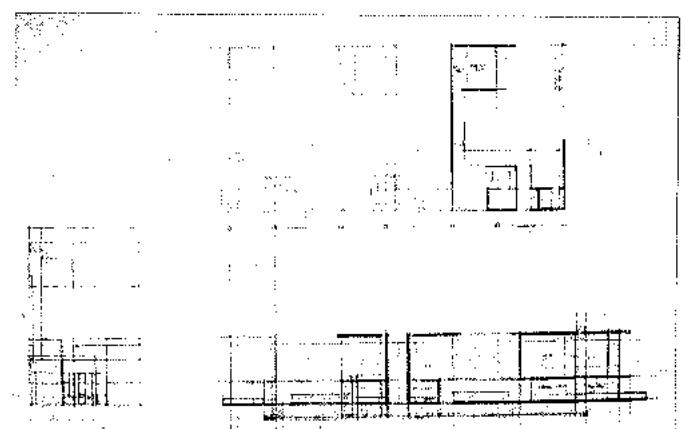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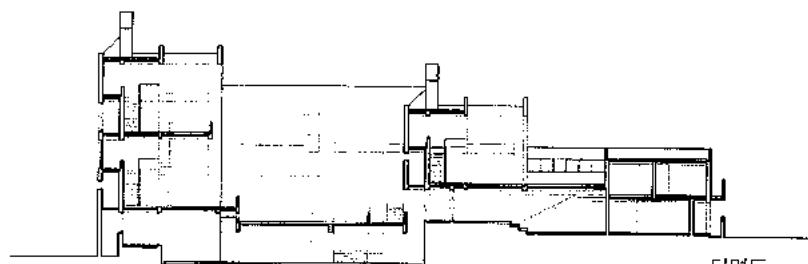
모형도 2



단면스케치



평면스케치



단면도

주거생활이 벌어지는 각각 장소들의 기능은 엄격히 하나로 정의될 풍연은 없다. 그리고 그것의 공간적 느낌 또는 감동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 만큼이나 다양하며 시사 때때로 변화할 뿐 아니라, 극적인 강렬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섬세하고 평상한 기쁨이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사무공간처럼 엄격한 틀속에 규율화되어 있지도 않고 휴양장소같이 방만하지도 않으며 종교적 공간처럼 한곳으로 밀어부치는 일의적(一意的) 감동만을 갖지도 않는다. 주거생활이 오랜 시간을 거치며 형성되어온 격(格)에 뿌리를 둔 자유이듯이 그것을 담는 주거생활의 장소 공간들은 무한한 가능성성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뜻으로 여기 마당깊은집에서 의도하는 바는 '비움'의 건축화이다. 이 집을 구성하는 모든 방과 장소들 뿐아니라 그것들을 구축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건축적 요소들이 그러하기를 바

란다. 여기서 말하는 '비어있음'은 상실, 외로움의 골이 깊은 허무, 배고픔의 고통이 아니라 고요함, 명료함, 투명성 등의 의미로 쓰고 싶다. '비어있음'은 소리없이 반향하며, 충만되고자 하는 잠재력으로 완성을 위해 열려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주거에서의 하나의 공간, 하나의 장소 또는 하나의 형태적 대상 등이 비어있음으로 해서 그것들이 어떤 특정한 내·외적 조건 아래 있게 될 때 비로소 하나의 고유한 기능과 느낌으로 매 순간 자율적으로 창출되도록 함이다.

그중에서 특히 벽, 길, 마당을 주목한다. 그것들을 하나로 고정된 의미가 있는 형태로 만든다기보다 이들이 빛과 바람과 그리고 사람과 조우하면서 엮어내는 순간순간의 상황과 느낌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다.

'벽'은 가능한 서쪽 태양빛에 맞서게 한다. 기능을 구획하거나 공간감을 형성하는 실제의 기능을 넘어서 매일매일 다른 황혼빛을 더욱 극명

히 느끼도록 한다. 따라서 이 벽들은 곡히 절제된 형상을 가지게 하여 하나의 오브제이지만 형태의 디자인이 리기 보다는 오히려 그 벽에 부딪치는 빛의 디자인이다.

이 집의 개개 공간을 관통하여 그것들을 서로 이어주는 '길'은 가능한 길게 물의 흐름과도 같이 조직한다.

시가 언어들의 연계이고 음악이 음표들의 이음이듯이 건축은 각각 다른 질(質)을 가진 공간들이 길을 따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진 것이다. 길을 걸으며 밝고 어두운, 열리고 닫힌 공간을 만나고 그 여정에서 이웃과 가족을 만나며 때때로 홀로 빛과 바람, 하늘을 만난다.

각각 조금씩 다른 공간적 성격을 가진 '마당'은 비어 있다. 조용하고 명료하여 투명한 깊은 마당은 쏟아지는 햇빛, 지나가는 바람이 적절한 스케일로 조율되어 팽팽한 긴장감을 일지 않는다.

그곳에 빛과 바람이 머물고 있음으로 해서 또 한 다른 공간에 빛과 바람, 생명력을 줄 수 있게 된다.

주택, 특히 적층으로 쌓일 수 밖에 없는 공동주거에서도, 이러한 적절한 위계를 가진 벽, 길, 마당들을 마련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사는 그리고 홀로 사색하는 의미를, 잃어가는 삶의 의미를 회복하려 함이다.

1993년 3월 중순경 내가 평소 잘 아는 Y건축 설계사무소에 계시는 국민학교 선배께서 전화를 하셨다. 회현동에 있는 교회설계 후보에 지명되었는데 자진 사퇴하고 우리 사무소를 추천했으니 아마 선택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건축 설계업계에서 흔치 않은 일이다. 자기에게 올 기회를 그렇게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는 그일이 성사되든 안되든 어쨌든 고마웠다. 사실 상황을 알아보니 국내 굴지의 설계회사 J, K 회사 그리고 선배회사 Y 이렇게 3개 회사가 추천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돌연 Y회사가 자진 사퇴하고 종교건축에 많은 경험 있다고 생각한 우리 사무소를 추천해준 것이다.

우리나라 건축주들은 큰사무실이면 안심하는 편인데, Y회사가

돌연 사퇴하고 우리 사무소를 추천했기 때문에 일이 묘하게 되었다. 웬만해서 설계를 마다할 회사가 없는데 그렇게 추천한 것을 보니 고려해보자는 의견이 앞서게 되었다. 그리고 Y회사를 강력하게 추천하시던 권사님도 우리를 강력히 추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사무실이 선택된 후 건축위원장이 하시는 이야기는 대표가 직접 설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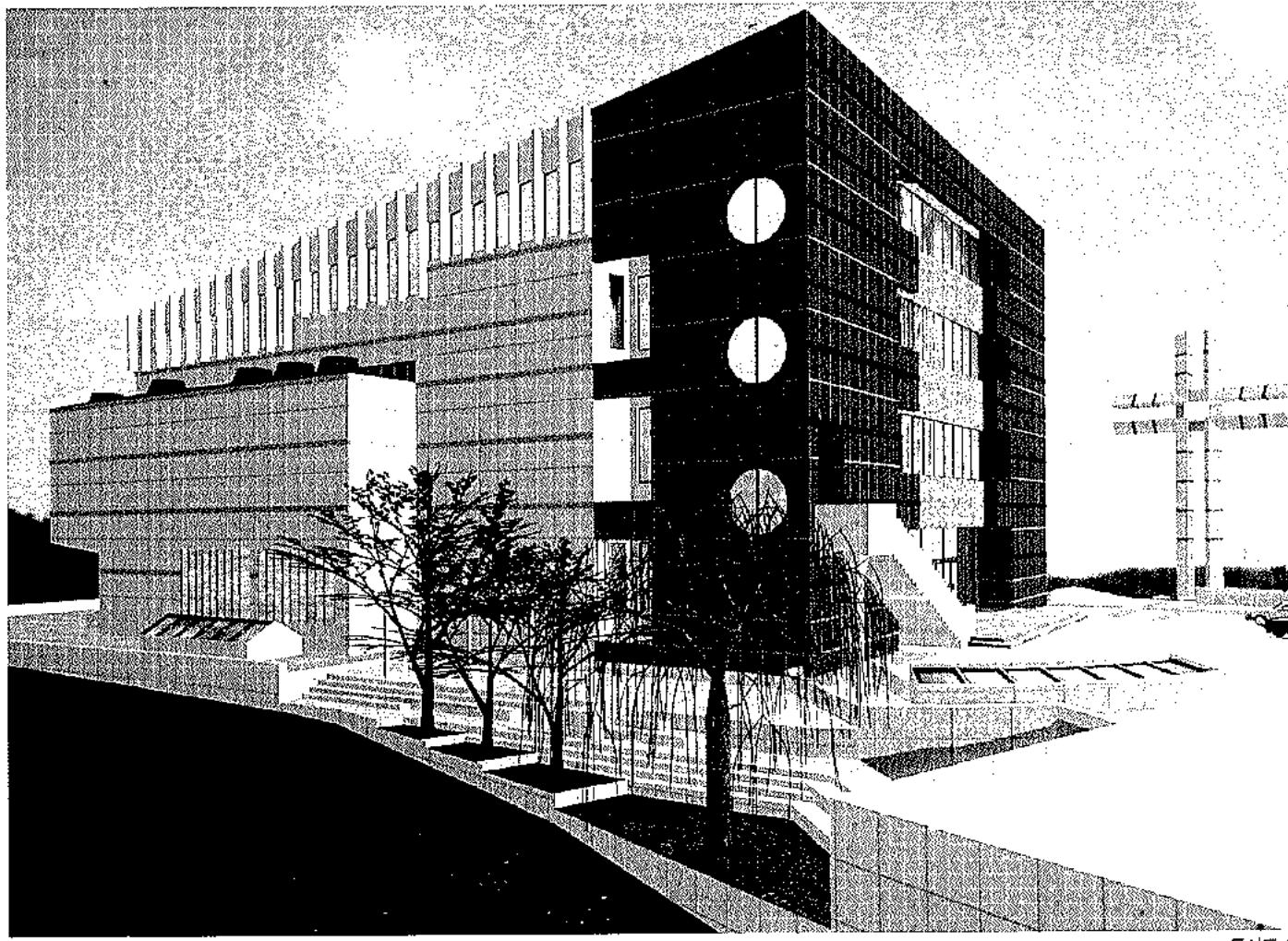
참여하느냐의 여부에 관심을 더 두었고 대표가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다. 한달후에 건축위원들이 사무실 실태조사를 찾아왔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선택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계획을 시작한 것은 6월 초순에 가서야 건축위원장과 긴밀한 대화를 갖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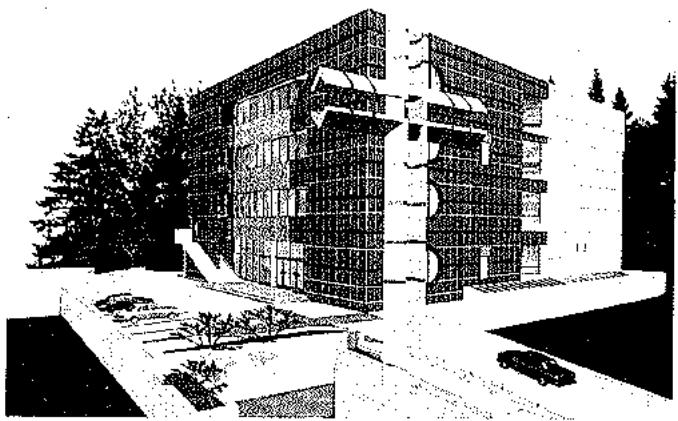
빛이 있는 공간, 성도교회

Sunny Space, Seongdo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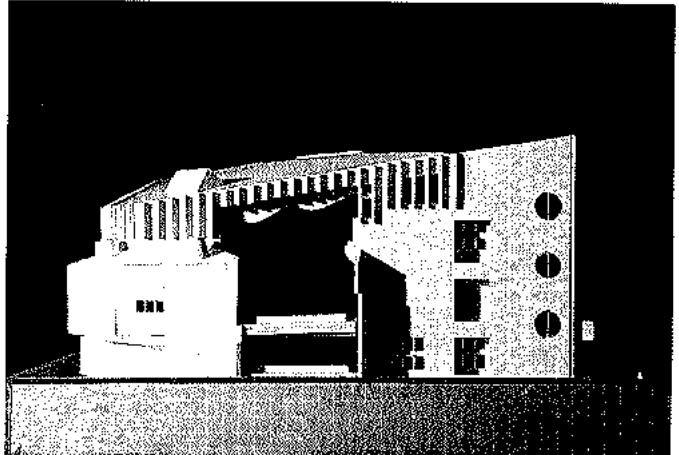
崔東奎 / 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K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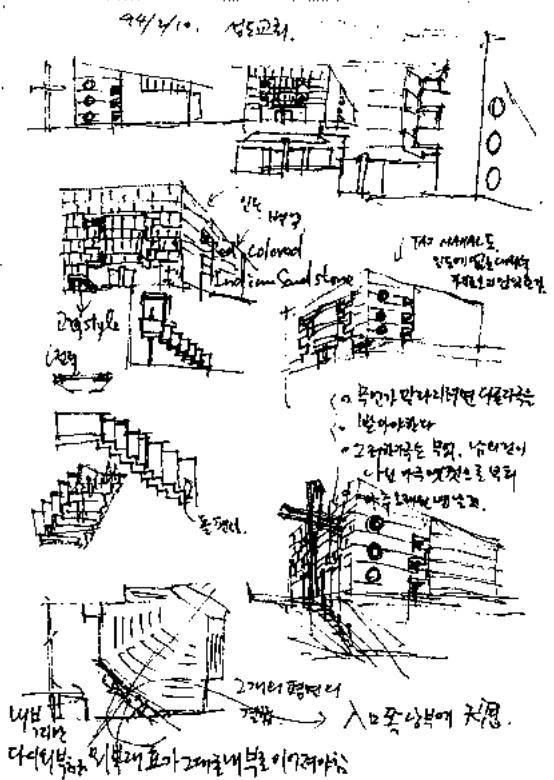
투시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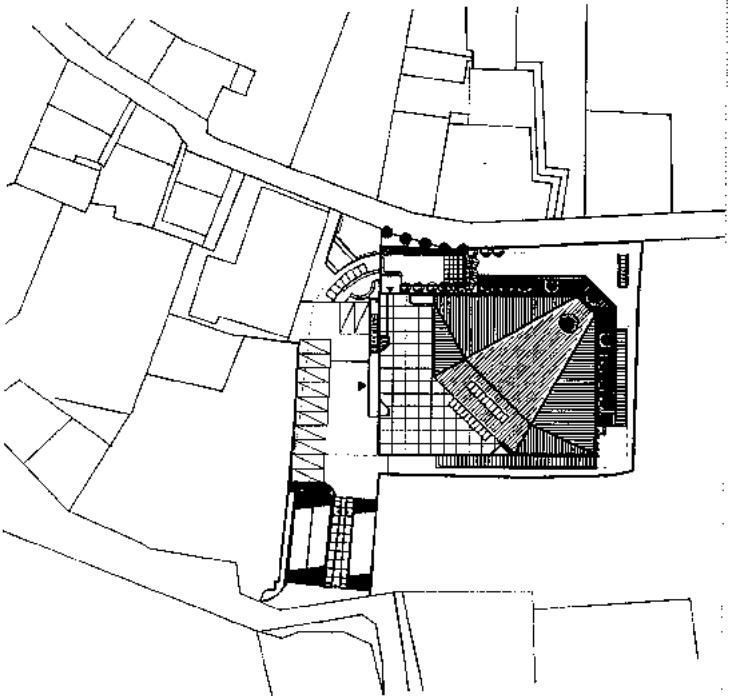
무시도 2



四庫全書



개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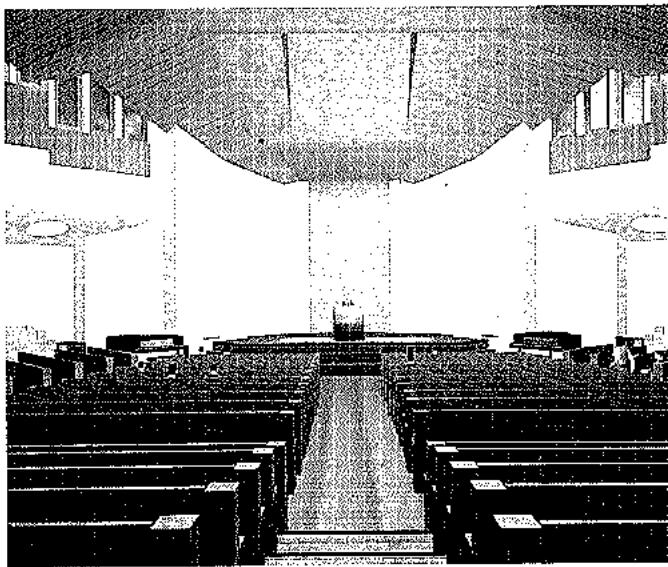
明治

되면서 기본계획안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지상 2층과 밸코니층에 본당을 두고 상부층에 교육관을 최상층에는 전망대겸 회의실을 두어 교인들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도심에 있는 교회의 형태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으로 편리한 기능적인 공간을 계획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발전시켜서 드디어 12월 초순에 계약을 하게되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12월29일 중구청에 여러사항을 알아보던중 신설된 남산경관쉼터에 의해 지상 18m 이상 높이는 불가함을 알게되었다. 나는 아주 참담한 심정이 되었고 전망대가 있는 교회건물이 내 가슴속에서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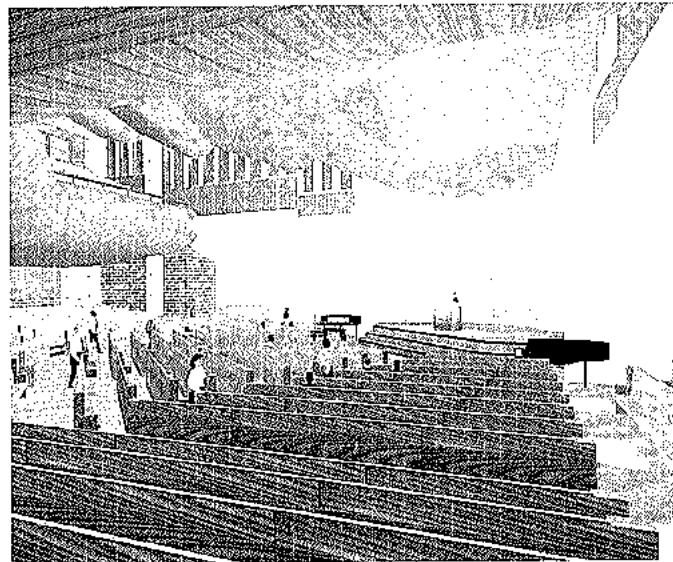
계획을 하면서 나는 우스개소리로 교회에서 복잡하고 지지부진한 안건이 있으면 최종적인 결정은 이 전망대에서 하라고까지 권했던 내 풀이 엉망이 된 것이다. 해당관할 구청에 가서 간단히 확인했으면 될일을

무려 반년간 공을 들여서 열심히 만들고는 새해를 이틀 앞두고 알게된 것이다. 잘못은 남산경관심의 규정 중에 높이에 관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바로 앞에 15층짜리 대한전선 빌딩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바로 뒷자리에 15층도 아닌 8층짜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레짐작했던 것이 실수였다. 항상 법은 한 수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서 내 뒤통수를 치곤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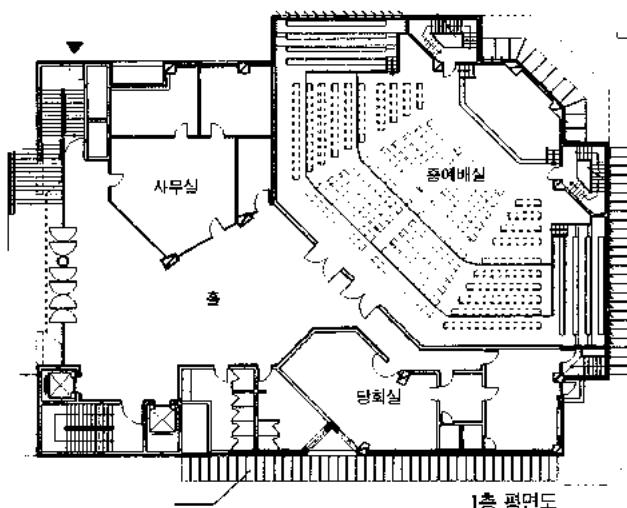
난감해진 것은 나와 설계 담당했던 이과장, 그리고 앞장서서 우리말만 믿고 추진해 왔던 건축위원장님 세 사람이었다. 더구나 굽지의 설계사무소 두 군데를 마다하고 우리를 밀어 주셨던 위원장 장로님의 체면도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장로(건축위원장)님의 권유도 있고 해서, 계약금의 80% 정도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 우리의 실수에 대한 보상을 감해보고자 했지만 연말기분은 아주 엉망이 되었음을 말 할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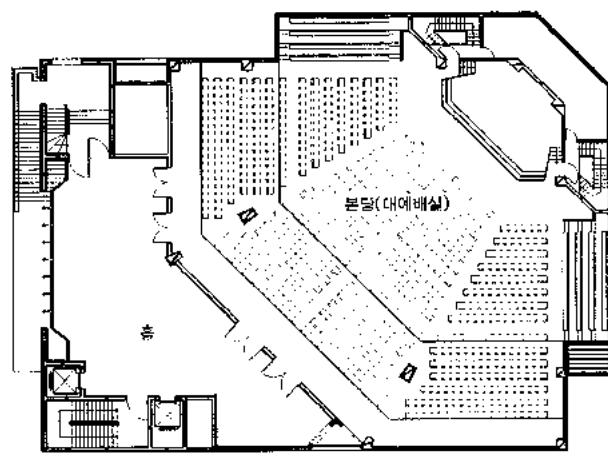
실내 모형도 1



실내 모형도 2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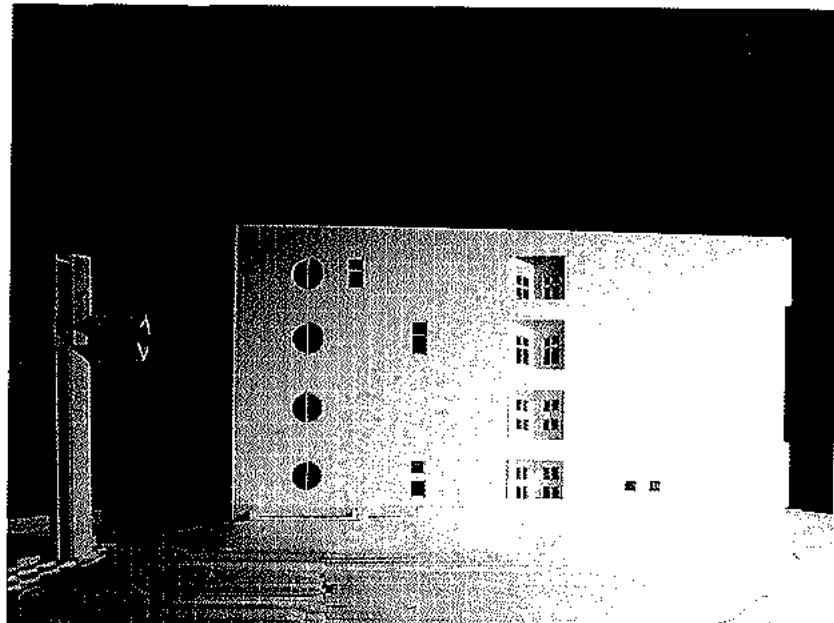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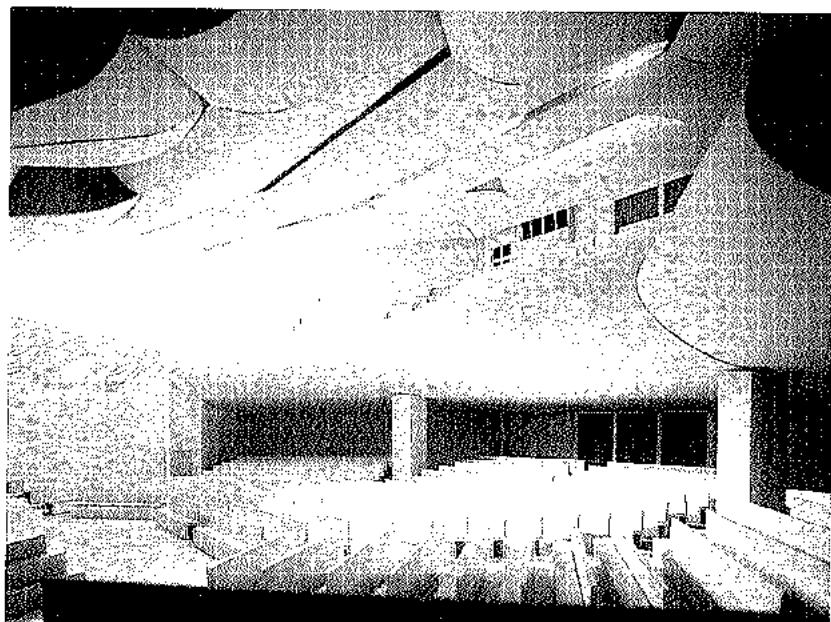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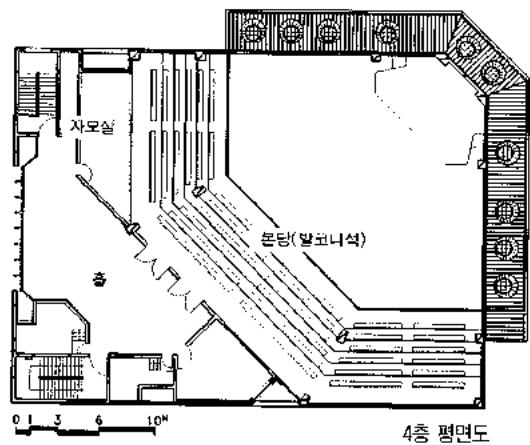
다시 새해가 되었고 교회에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 실수하지 말라고 하면서 규정에 맞추어 다시 설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높이제한은 기능의 관계를 변경해야 했고, 입면이 전부 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계는 다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다시 조정해서 계획한 안은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교육관은 면적이 부족하여 기존교육관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하로 1개층 더하여 초안보다는 적은 실들을 계획하였다. 지상 18m의 고도 제한은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지하로 깊숙히 집어 넣게 되는 물리적 필연을 냉았다. 항상 논하는 것이지만 빛이 없는 공간은 죽은 공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하 각종에 헛빛을 도달시켜 보려고 시도 하였다. 특히 중심이 되는 공간인 중, 소 예배실의 전면에는 자연광이 들어오게 배려였다. 각 규모의 예배공간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의식을 행하는 공간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

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2차안으로 새해 2월 27일 교회당회에서 브리핑한 후에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 그 후로도 십의 및 교통영향평가 등이 끝나고 허가완료가 7월27일이니 무려 착수한 날로부터 1년하고 보름이 걸린 321일짜였다. 조례나 규정을 자세히 알기위해 구청을 자주 출입하지 않고 짐작과 경험만으로 진행한 벌치고는 후독하게 치러 낸 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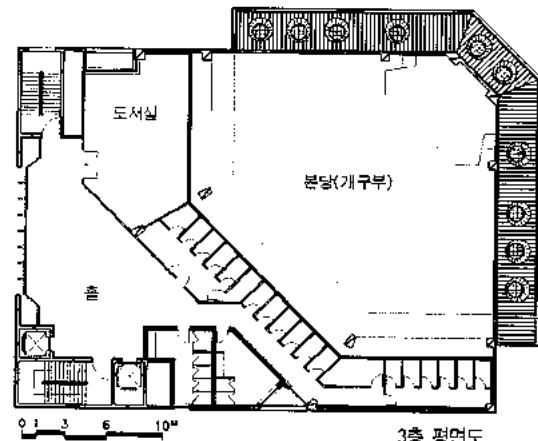
배치도에서 보면 교회가 들어설 수 있는 대지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교회측에서는 본당의 형태를 부채꼴로 하고 싶어했다. 나는 계획할 때 건축주가 원하는 바가 타당성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수용하려는 편인데 본당형태를 부채꼴로 할 경우 나머지 부속 공간과의 결합이 부조화스럽게 되는 듯 느껴졌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계획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공간에 있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떠올랐다. 아무리 복잡하고 필요한 다른 기능이 많다해도 결국 교회의 주인공은 본당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나머지 종



모형도 2



실내 모형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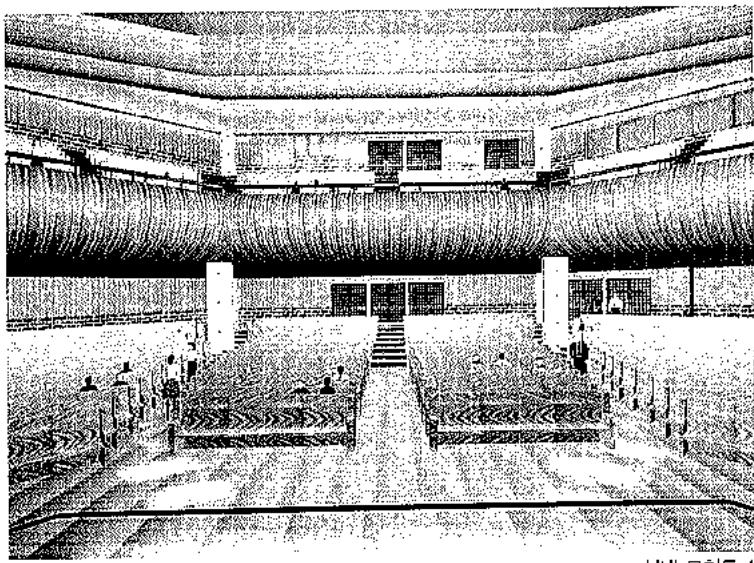


이 되는 공간은 본당을 보조하는 기능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고정된 형태에 얹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가되는 예배실을 각층에 자리잡는 것으로 계획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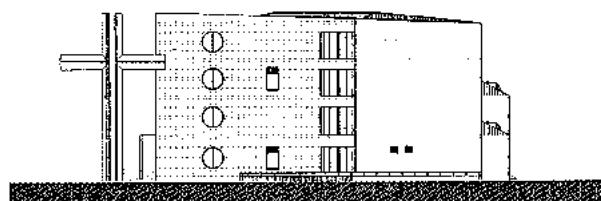
그리고 평면에서 주와 종의 명확한 분절을 입면에서도 또 재료에서도 구분하여 분절을 더욱 강조하려고 하였다. 본당, 중예배실, 소예배실의 3공간을 각층에 나누어 배치하되 형태는 본당과 닮은 형태를 하여 각 층에서도 이 세 개의 공간이 같은 축을 가짐으로서 주인공이 되게끔 배려하였다. 같은 지점에 강대를 두어 신성한 곳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배치하였다. 이것은 흡사 사과나 배를 보면 우리에게는 살이 중요하지만 살은 식욕을 위해 1회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고 씨는 더 중요한 근본이 된다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살과 씨가 혼합되어 있어도 그 기능과 역할은 바뀔 수 없는 것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나누어 주면 더욱 명료한

평면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반복적이면서도 재생산의 개념을 가진 것이므로 사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평면계획을 하니 쉽게 해결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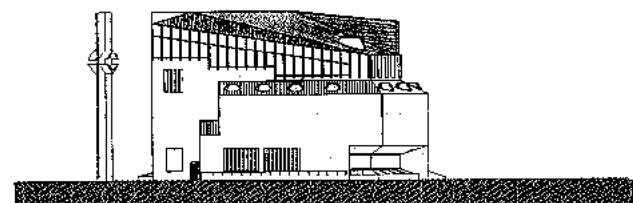
교회 계획에서 정면 계획은 일반건물과 달리 상징성이 필수이므로 항상 무거운 과제인데 꼭질을 벗기면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았다. 꼭질을 빗기면서 속에서 또 무엇인가 나오는 것을 연상해서 건축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즉, 속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속을 나타내고 전면에 톱니처럼 되어있는 부분은 꼭질을 의미한다고 가정했다. 꼭질은 속을 감싸고 있으므로 건물에서 꼭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속에 있는 부분을 보호하고, 속은 자신을 소극적으로 내보이도록 하였다. 꼭질은 측면에서 주공간과 종의 공간이 만나는 부분을 깊이 파내어 분절을 더욱 강조하였다. 해가 비치고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지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외부마감에서 주가 되는 부분은 백색 인도산 사암을 붙이고, 종이 되는 부분은 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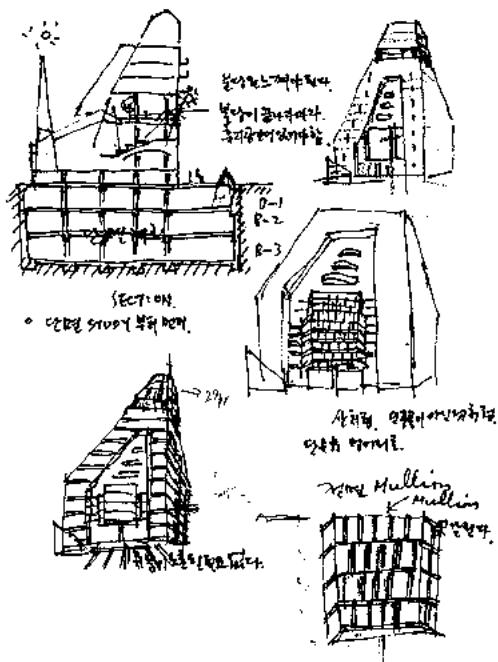
실내 모형도 4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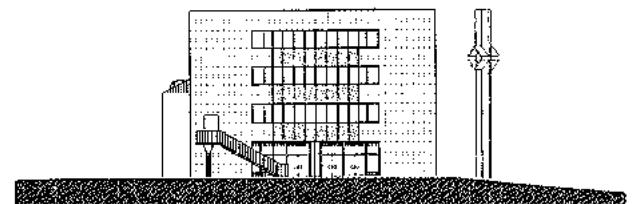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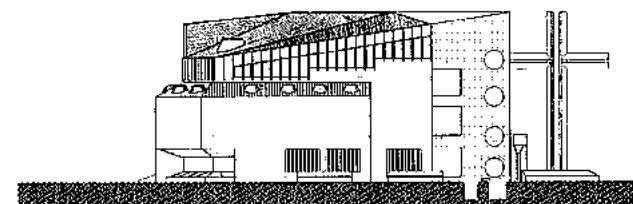
개념 스케치 2

색 인도산 사암을 붙였는데, 이것은 색으로서 또 한번 분절을 강조한 것으로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은 입면에서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도를 여행했을 때 신성하고 중요한 공간만을 색깔을 다르게 마감한 것을 보고 받은 느낌으로서, 내부에서의 공간의 분절이 입면에서 표출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색의 구분을 준 것이다.

십자가는 종탑에 붙어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종탑을 십자가 형태로 만들고 그 사이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것은 종탑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동시에 대지내의 조형물 역할을 함으로서 교인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진입하면서 의식에 대한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오면 본당으로 올라가는 외부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은 외부에서 시작해서 내부에서 끝나게 되어 있어서 본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제적 유도가 아닌 자연스럽게 출입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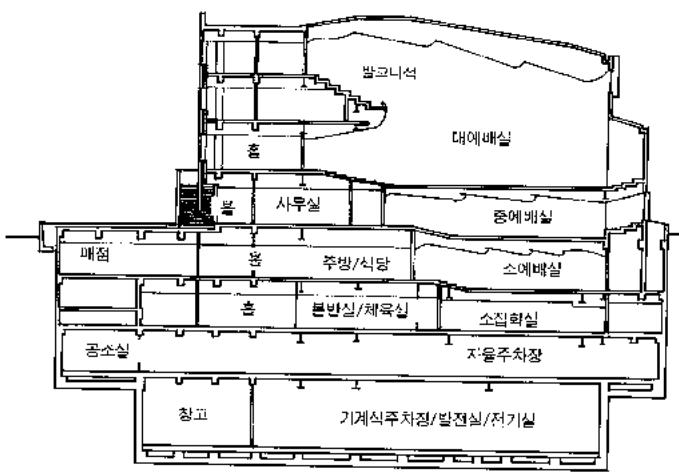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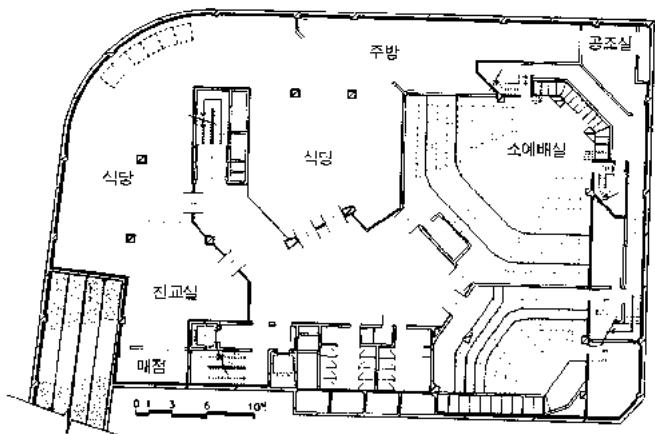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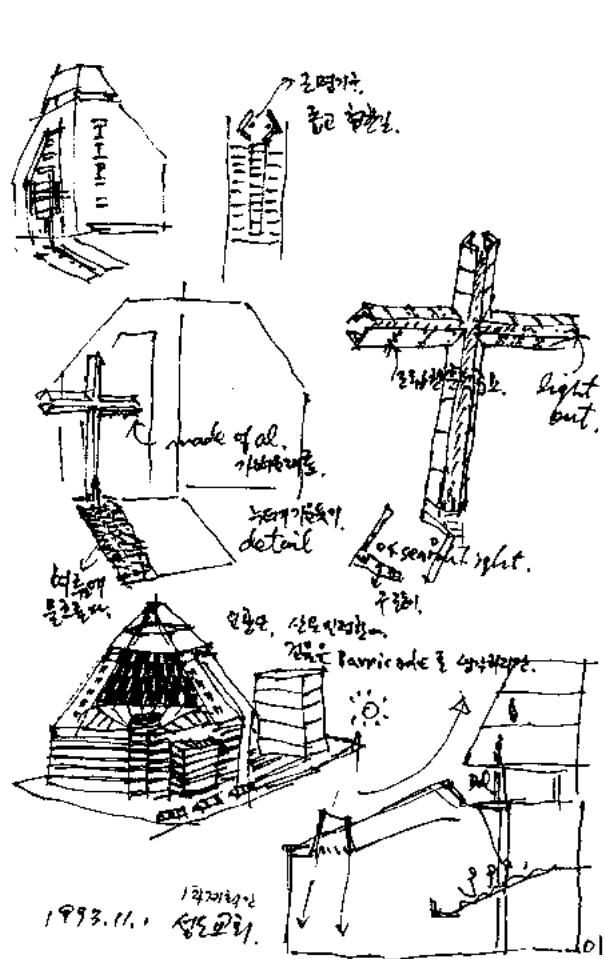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 그 뜻을 두었다. 전이 공간인 십자가와 계단을 통해 본당 훌에 들어서면 전면부가 보이고, 그것을 유리로 처리하였다. 예배전, 후에 교인들 서로간에 친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밝은 빛이 들어오는 아주 따뜻한 공간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계획단계가 마무리 될 무렵에는 컴퓨터 3D작업으로 입면과 형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이 교회 또한 외부 재료와 입면, 그리고 본당내부가 결정되고 난 후에 3D 작업을 통하여 외부의 형태감과 내부의 공간감을 스터디(study)하였다. 이 작업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 건물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건축주에게 건축을 이해시키기가 가장 쉬우므로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계획안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 어떠한 설계의 잘못이라도 있지않나하는 생각에 1/50의 모형을 제작하여 우리 스



개념 스케치 3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회현동 1가 181-8

대지면적 / 2755.00 m²

규모 / 지하 4층, 지상 4층

지역 · 지구 / 일반주거, 주차장 정비 고도제한 입안지

건축면적 / 1,245.33 m²

연면적 / 9,686.68 m²

건폐율 / 45.19%

용적율 / 131.5%

스로는 물론 교회측에서 좀 더 실제건물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두 번씩 고쳐 설계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매달렸던 이유는 처음 3개 회사가 지명되었다가 그 중에 지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각오가 새로울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했던 것은 혹시나 설계 수행중에 실수라도 생겨 "그것봐. 끝내 주었어야 하는데 작은 데 주어서 저 모양이지"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였다. 적어도 나만은 그런 우려를 낙담히 불식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강북에 더구나 사대문안에 유서깊은 교회를 설계하게 된다는 것도 큰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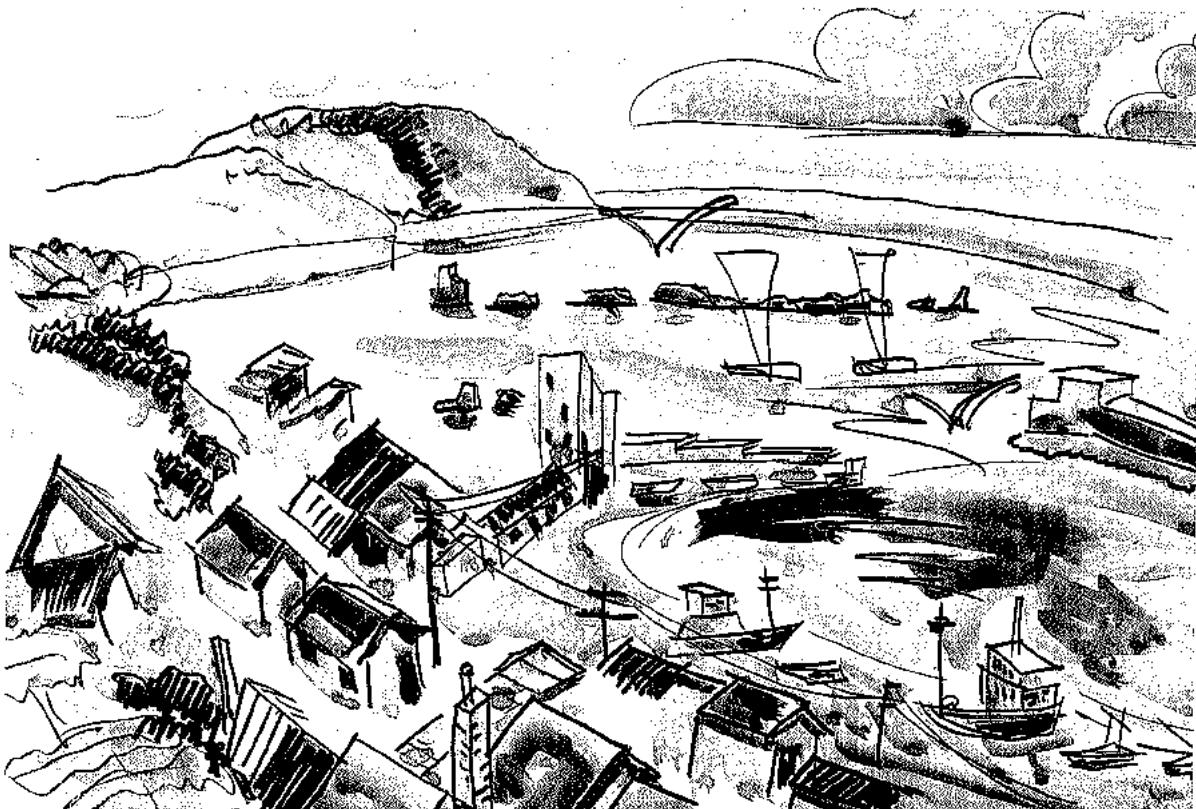
사실 신도수가 1,000명 남짓한 교회에서 2,600명이나 되는 교회를 짓는 것은 혼란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는데, 그래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 그런지 저력이

있는 것 같았다. 사실 초기에 우리가 제출한 공사비 예산은 교회의 예상을 많이 벗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건축위원장 장로님의 주도 면밀한 검토와 대비로 원래의 예산에 거의 근접하는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로 봐서는 믿을만한 시공회사가 선택된 것이 좋은 일이다. 설계를 정성들여 해놓아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설계도는 휴지와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닐까? 어쨌거나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지금은 믿음직한 시공회사가 선정되어 차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속된 19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꽃 (45×65), 한창진 / (주) 한정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만으로
다행이고 넉넉한 마음이다
스스로 쪼개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여유
손쉽게 파스텔로 이 것 저 것 그려보는 것 뿐인데
더 잘 그리고 싶은 연심이 날때는 혼자 웃는다.
거장 피카소가 그림이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거짓”
이라고 했다든가 …
끝없이 진실에 도전하기 위한 거짓 -- 거창하다



포구 1995, 안일성 / 건축사사무소 아키안

사각의 콘크리트에 갇힌 반복과 변화없는 생활의
만네리즘을 탈피코저 함이라 창밖의 콘테이너 가득실은
활기찬 무역항이 아닌 비릿한 어항과 산골풍경은
마음속의 고향을 그리워함인 것이라
여행 안내책자의 지도길을 따라 머문 곳이
기장 고갯길을 넘어 헤멘 곳,
언젠가 스쳐지난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잡하는 대로 컬러펜으로 낙서를 해 보았다.
갓잡아 온 싱싱한 횟감 한접시 옥심도 내보며
아주 편한 마음으로 그려 보았다.



일하며 생각하며

새로운 건축을 생각한다

New Architecture In Globalization

李寬植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by Lee Kwan-Jick

결국 건축의 국제화, 세계화는 건축가의 책임으로 되돌아온다. 건축가의 영역은 설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 건설, 문화, 예술로 무한히 열려져 있다. 건축은 기술적인 배경을 도와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술적 판단과 미적 토대에서 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와야 한다. 새롭지 않은 것이 역사에 남지 않아서도 아니고, 새롭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우리 건축가들이 끊임 없이 물고 늘어져야 할 화두인성이다.

우리의 건축설계능력은 미국이나 일본에 몇 년이나 뒤져 있을까. 십년, 혹은 이십년? 차라리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분야처럼 그렇게 한 이십년 열심히 따라붙으면 가능성성이 있으리라 예측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실은 어떤가? 전혀 측정할 수 없다. 세계일류도 모자라 초일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 건축은 지금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2년 동안 중국 해남에 868타워의 설계를 담당하면서 나는 요즘 흔히들 말하는 국제화나 세계화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았다. 남보다 앞서지 않는 현상유지는 곧 퇴보이자 도태라는 혹독한 현실은 건축설계분야 역시 비껴가지 않는다. 발전은 차치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국제화, 세계화는 분명 필요하고 절실하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시장개방의 파고가 전족이라고 예외될 수 없다. 우리의 건축설계시장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물론 십여년전에도 외국의 설계를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과 우리의 미숙한 수준에 올화를 삭여야 했었다. 설계수입에 대해 목소리만 높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권익보호나 자존심을

알세워 격한 어조로 반대하기도 했었다. 지금은 어떤가?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설계의 수입이라는 면에서만큼은 국제화, 세계화는 착실하게 내실을 다지고 있는 셈이다. 근래 미국 등 실계선진국들이 아시아의 시장확대에 진력하면서 그들에 의한 국내설계 수주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 건축주들도 국제적인 유명건축가를 찾아 설계를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건축주들이 요구하는 고급스럽고 개성적인 이미지, 첨단 지능을 갖춘 건물에서 우리는 선진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까지는 대형건물에 국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 추이를 짐작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우리가 현재의 열등한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설계선진국을 이루려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설계능력향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일반산업분야에서처럼 기술이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합작 등의 방법으로 해외의 국제적인 설계사무소와 공동작업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은 우리 설계인력들이 충분히 기량을 쌓고 펼칠 수 있는 국내의 건축환경조성이다.

미국 건축가 협회에서는 건축가를 위한 실무핸드북을 A4크기 4권으로 두텁게 만들어 실무를 위한 거의 모든 자료를 총망라해 놓고 있다. 이 책은 건축가의 각 단계별 용역 범위, 설계프로세스, 건축 각 주체 상호간-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시공자, 시공자와 하도급자 등등-에 쓰이는 표준 계약서 등, 계약에서 입찰, 감리까지 설계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의 주체가 감리까지 설계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의 주체가 되는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는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는 서로의 권리, 의무의 중심축이 된다. 미국건축과정의 합리성은 바로 이 계약서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건설주체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성시스템이 날날의 건물 만이 아니라, 도시와 그의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과 같은 발전된 건축시스템이 없다. 서로의 의무, 권리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 설계나 시공은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과정을 통해 작업되고 생산된다. 때문에 적당히 서로를 믿고 떠넘기는 애매한 관계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수와 부실의 위험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건축물을 짓겠다는 욕심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사협회에서 표준계약서 등을 보완하는 것을 위시해 여러 체계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 한가지, 설계와 감리의 위상 문제를 명확히 짚어야 한다. 여기서 복잡한 법적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건축사에게 감리비 몇 푼을 올려 주면서 시공회사와 건축주의 부정을 감시하는 건축경찰의 책임까지 들씌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명확히 책임회피이기 때문이다. 불법적으로 건축하려는 건축주가 있다면 다른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법에 의거, 경찰과 검찰이 적발과 처벌을 담당해야 한다. 시공회사인 경우는 어떤가? 감리에 대한 공사비의 규모가 최소한 열배, 스무배가 넘고 날이갈수록 첨단시공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 두명의 감리자가 수십, 수백명의 시공인력이 동원되는 시공현장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리다. 시공회사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시도하려했을 때 설사 완장을 두른 건축경찰이라 한들 그 적발이 가능하겠는가? 불법은 법을 어긴 당사자에게 그 죄를 물어야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해괴한 현실도 다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계약상황에서 우리식의 주먹구구식 책임떠넘기기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건축주와의 계약에서 건축가는 설계로, 시공자는 시공면에서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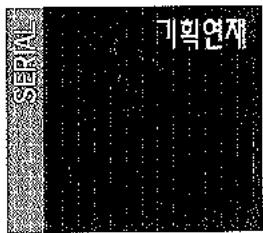
미국의 경우 CM(construction management)제도에 의해 감시, 감독된다. 건축주가 시공경험이 더 많은 회사를 고용해서 시공회사의 건축공정관리와 기성결제, 자재평가 및 결정을 해주는 제도다. 고용된 감리조직은 시공회사에 비해 소수지만 기술능력과 지원체제가 충분해서 시공회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열넷 복잡한 단계의 결정이 필요한 호텔 현장 등에서 보이는 우리나라의 건설본부조직이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건설본부의 경우, 인원이 개인적인 촉탁 등 시한부 계약조건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회사나 자재회사와 결속되기가 쉽고 기술능력과 책임범위도 CM제도와는 다르다. 또 최근 등장한 감리전문회사의 경우도 자격증 위주로 구성된 조직과 책임에 대한 비용만으로 건설회사를 기술적으로 지도하면서 건축주 입장에서 경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펼 수 있을 런지는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CM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도 하루 빨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토대 위에서 계약에 의해 책임과 권한을 엄격하게 나누는 것이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와 시공분야의 발전된 지식, 이론, 자료의 체계화도 시급하다. 건설회사별로 개별화되고 독점된 첨단시공정보나 자료는 기업 고유의 노하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되고 공동이용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건축사협회가 설계자료의 체계화와 전산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각 설계사무소에서 이용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대학과 사무소 단위로 국내외 잡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전산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나 사무소마다 반복되는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건축사협회차원에서 통합적인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시방서도 현재 자재소개와 시공법위주로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미국식으로 코드화하고 단순화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건축설계가 갈수록 기술적으로 첨단화되어가는 산업현실에서 국제경쟁력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전분야의 전략적인 제휴가 필요한 것이다. 덧붙여 분야별 엔지니어링 협회 또는 전문업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점에서 최근의 알미늄 커튼월분야 전문업체의 출현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아직도 설계단계에서의 전문기술협력업체나 협회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의 낙후된 건축상황은 바로 건축교육의 낙후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교육제도면에서 우선점을 수 있는 문제는 건축시공분야의 전문인 양성과 건축가의 양성이 같은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과 학생들이 졸업에 임해서까지 어느 분야에서 일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물론 학생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건축학과가 진행하고 있는 불투명한 건축교육도 책임이 있다. 건축가와 전문적인 시공기술자나 기술경영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커리큘럼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건축사적인 배경 하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야하는 교육과 기술습득교육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진행되는 현재의 학교교육이 초래하는 결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졸업후의 건축인력양성도 문제다. 건축가를 꿈꾸는 대부분의 대학졸업생들은 영세한 설계사무소에서 다른 분야보다 열악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실무를 익힌다. 그동안 대학에서 꿈꾸어온 대가와의 교감이나 작가로서의 꿈은 빛이 바래기 마련이고 몇년후 도면이 손에 익을만하면 조금 잘하는 제도사가 되어있기 십상이다. 사무소 입장에서 보면 비로소 쓸만해 질 때 사무소의 영세성을 견디지 못하고 더 좋은 보수를 주는 대기업스타일의 직장으로 옮기거나 아예 건설회사나 자재회사로 전직하기도 한다. 어차피 경쟁사회이니까 살아남는 자만이 성취할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냐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열악한 조건 아래에서도 꿈을 키우려 몇년을 근무하고나서 결국 진로를 수정하고 또 건축사 시험에 몇 년을 허비해야 하는 현재의 사무소 인력구조는 지나친 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사무소나 개인이 그 진로나 경영선택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연봉계약제의 확산이나 전문대학을 통한 제도인력의 양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결국 건축의 국제화, 세계화는 건축가의 책임으로 되돌아온다. 건축가의 영역은 설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 건설, 문화, 예술로 무한히 열려져 있다. 건축은 기술적인 배경을 도외시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술적 판단과 비적 토대에서 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와야 한다. 새롭지 않은 것이 역사에 남지 않아서도 아니고, 새롭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우리 건축가들이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야 할 화두인성 싶다.



한국의 건축가 - 이희태 (2)

Korean Architect, Lee Hui-Tae

이희태 건축에 나타난 건축어휘의 특징

梁勝宿 / 자유기고가
by Yang Seung-Suk

4) 명지대학교 본관(1962)

전쟁후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학교건축들은 근대건축²⁹⁾의 형식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작업은 제3세계 엘리트건축가 중후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대건축 교육의 짧은 역사의 영향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중동고등학교 본관(1952), 인천 전문여자 중고등학교 본관(1954), 계성여자 중고등학교 특별교실(1956), 서강대학교 신부관(1960), 명지대학교 부설 중고등학교(1965), 서강대학교 과학관(1968) 등 작가의 학교 건축 중 '명지대학교 본관'은 기능주의 근대건축의 토착화 과정을 보여주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앞에 설계된 서강대학교 신부관이나 계성여자 중고등학교 특별교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기둥을 입면에 드러내는 형식은 재료와 디자인형식의 차별화를 통해 만들어내고 있다.

명지대학교 본관은 불규칙한 대자에 수평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고 건물 앞에는 운동장이 놓여 있다. 주요 마감재료는 노출콘크리트와 적벽돌인데, 현재는 노출콘크리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그리고 그 위에 수성페인트 마감을 하고 있다. 입면을 구성하는 주요소는 적벽돌과 노출콘크리트가 충별로 반복됨으로써 만들어지는 수평띠로, 이 수평띠는 건물전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여, 건물을 안정되어 보이게 한다.

'출입구'는 단부의 계단실과 함께 독특한 디자인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캐노피는 노출콘크리트를 유선형으로 말아올리고 계단을 설치하고 있다. 출입구를 건물의 중심에 위치시키면서 캐노피 등을 통해 강조하는 방식은 이희태 건축의 특징 중의 하나로 (7에서



명지대학교 본관

29)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후 전 세계에 유행한 성냥갑형태의 건축물로 국제주의 양식

30) 김종수, 울산 양곡 방열창고, 미발표 건축을 찾아서, 건축가 9310

서울시가 이 건물을 철거했을 때에는 주로 양곡 보관창고였고, 70년대초부터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여 특용작물을 저장하여 왔다. 1991년 서울시의 도시계획지역 변경에 따라 이 건물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에 깨끗되었고, 터미널 측에서 리노베이션을 통해 건물 이용계획을 세워왔으나 건물을 허무는 쪽으로 결론을 보았다고 한다.

살펴볼 ‘힐 사이드아파트(1978)’나, 작품분석에서는 빠져있지만 ‘외인아파트(1978)’ 등에 잘 나타난다.) 출입구에 대한 남다른 해석을 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출입구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입면은 고전주의 수법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은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긴 건물을 자칫하면 지루하게 보일 수 있는데, 건물 양단부에 십자형의 조립식 콘크리트 문양을 반복하여 부착함으로써 지루함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양은 건물 전체에 생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곳은 또한 계단실로 다른 부분과 기능의 차별성을 보여주는데, 내부 기능을 입면형식에 표출하는 솔직한 건축형식의 추구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명지대 본관의 입면은 기능주의 형식에 의한 처리를 하면서도 재료의 배열과 구성을 통해 입면의 색채 효과를 증가시킴으로서, 기능주의 건축의 토착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역주의적 근대건축으로 이행하는 세련된 처리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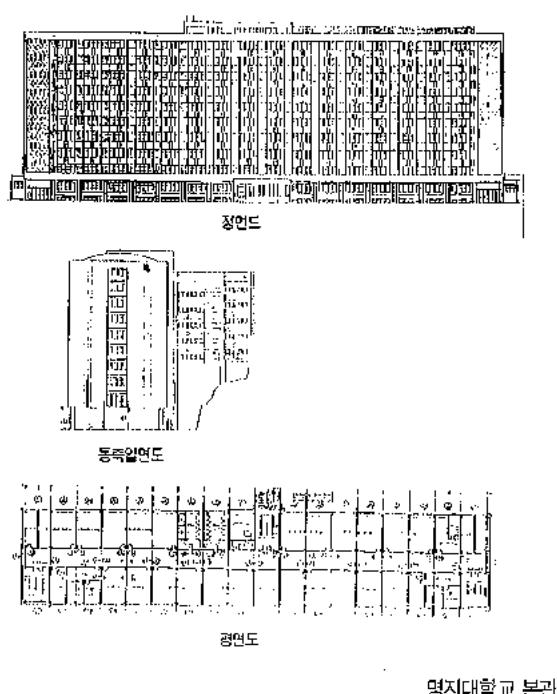
5) 용산양곡방열창고³¹⁾(1966~68)

‘용산양곡방열창고’는 낭만과 합리가 적절하게 융합된 건물로 기능으로만 인식되는 창고 건축에 디자인 요소를 끌어들여, 기능과 디자인의 융합뿐 아니라 구조적인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1966~1968년 사이에 이루어진 ‘농림부 양곡저장용 저온창고 및 방열창고 신축설계’의 일부로서, 구조적인 해결에 필요한 형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창고의 구조에 대해서 김종수는 다음과 같이 적

고 있다. “이 건물의 상부구조는 30.0m경간을 아치형의 층높이 1.5m앵글 트러스로 건물높이 12.2m를 구성하였다. 그 당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했음으로 H형 조립부재 보다는 앵글 트러스가 부재량 감소로 경제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격은 4.0m의 아치형 앵글 주트러스와 직각방향으로 3.75m간격의 보조 트러스로 구성하여 전체 44.0m × 30.0m의 대형공간을 만들었다. 이 아치형의 지붕트러스 위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를 덮어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면서 곡물창고 차열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곡물창고의 특성으로 보아 바닥에는 최소 10.05t/m²의 적재하중에 견디게 설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중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3.0m × 4.0m 철근 콘크리트 벽체에 의한 격자형 줄기초를 형성하고 그 위에 두께 180mm의 프리캐스트 부재판을 이용함으로써 작업효율을 높여서 공기를 단축했을 것이다.”³¹⁾ 김종수가 설명하고 있는 글을 살펴보면, 건물의 부재 하나하나를 해체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기능과 경험을 통한 필자의 추측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외장재료를 살펴 보면 시멘트 벽돌과 적벽돌³²⁾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그러하지만, 이 방열 창고에서도 장식을 위한 장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디테일 처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장식화 된 형상은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풀 흙통’은 지붕의 곡면사이로 모여드는 빗물 처리를 위한 기둥으로 가장 기능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서 입면 전체를 장식하는데 사용하



명지대학교 본관 출입구



용산양곡방열창고

31) 김종수, 용산 양곡 방열창고, 미발표 건축을 찾아서, 건축가 9310

32) 적벽돌이라는 재료가 주는 친근한 점은 단순하게 기능이 우선되는 창고 건축물 설계에서도 나타나는데, 기능과 디자인의 융합이라는 관계를 철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3) 정인하, 공간사옥의 형태와 공간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10권10호 동편72호, 1994.10 “한국의 시형은 산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면성을 강조할만큼 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높이에 따라 공간이 나누어 있기 때문에 단위 공간으로 분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4) 김봉렬, 교진읽기, 한국건축의 고전과 창작,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례회, 1994.5.21

여 입면에 활기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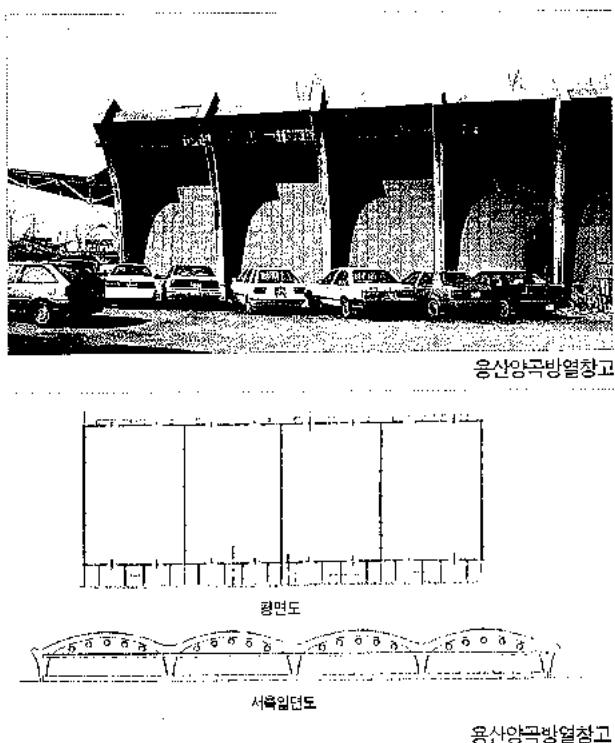
즉 ‘용산양곡방열창고’는 구조미를 보여주는 건물로 기능에도 충실하고 구조적으로도 안전하며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고 있다. 기하학적으로 처리한 지붕선의 아치와 둑근 창호는 비슷한 건축어휘를 병렬로 연결함으로서 디자인적 합치를 보여주고 있고, 아치와 원의 반복은 창고건축에 리듬을 주어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육면체를 사용해서 쉽게 해결하는 창고건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무역회관(1968)

1968~69년경의 특징중에 하나는 고층화의 경향으로, 이것은 기능상 사무소건축과 호텔 건축에 주로 해당된다. 1960년대초부터 10층내외의 RC조 건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5층의 조흥은행본점(1966)을 거쳐 2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수가 점차 증가되어 갔다. 고층화와 대형화에 수반되는 계획과 구조에 관련된 특징은 코어 시스템의 사용과 단위공간 개념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 척도조정 이론이 보급되고 응용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회태의 사무소건축(RC조 건물양식)은 제동빌딩(1960, 5층), 메트로호텔(1960, 10층), 통계국 IBM청사(설계 1958)에서 그 건축형식을 찾을 수 있는데, 무역회관(20층)은 입면구성을 격자체계로 하여-현재의 입면은 초기의 입면과 다름을 도면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전면을 커튼월로 바꿨다.- 상당수준 추상화하면서도 재료의 질감과 무게를 활용하여 형태의 의도성을 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전체 입면형식은 삼분법을 갖고 있고 정면은 출입구를 중심으로 대칭되어 있다.

평면구성을 보면 가로와 세로열의 기둥간격이 7m × 7m로 정방형을 이루고 있고, 평면형식은 직사각형에 정사각형이 옆으로 붙은 형상으로 일반사무실 기능(직사각형부분)과 주차장기능(정사각형부분)이 연속되어 있다. 4층까지는 주차장기능의 하부공간이 회의실, 전시실, 라AAP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의 혼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심코아는 사무실공간의 후면에 위치하는데, 계단실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양쪽에 엘리베이터실과 화장실이 있다. 평면에서 보이는 특징중의 하나는 후면 벽이 기둥바깥에 존재하여, 기둥으로부터 벽이 자유롭다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이미 제동빌딩에서도 시도되었던 것으로, 고르뷔제의 근대주의 4원칙중의 하나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이 건물은 기능주의 형식-기하학적이고 단순한 국제주의 양식-에 의한 처리를 하면서도 재료의 배열과 구성에 따른 입면의 변화를 통해 기능주의 건축의 토착화 과정-명지대본관에서 보여준 방식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지로 이 건물은 3면에서 보이는 입면-남산 2호터널, 한국은행 본점, 신세계 등의 각방향-이 재료의 상이함을 통해 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 즉 기능주의의 단순한 사각틀 속의 격자창을 벗어난 새로운 입면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센터

35) K.프렘론

36) 이영재, 예술작품의 의미론적 해석

‘전형(type)은 일관원칙과 같은 기호이다. 전형은 어떤 개별적인 사물이 전형의 복제로서 특정지워지기 위해 소유하여야만 하는 성질들을 발췌한다. 이러한 의미로 서의 전형이 단일 존재한다면 그의 “벌레들”(tokens)과의 관계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형을 상징해야 하는 특징적인 상황은 개별자들의 집합과 인간적 창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경우라고 말하는데, 전형은 창조된다는 사실이다.”

37) 김일연, 1960년대 한국건축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논, 1991(38) 김육성, 1945년부터 1955년까지 한국건축계 형성기 성격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논, 1991(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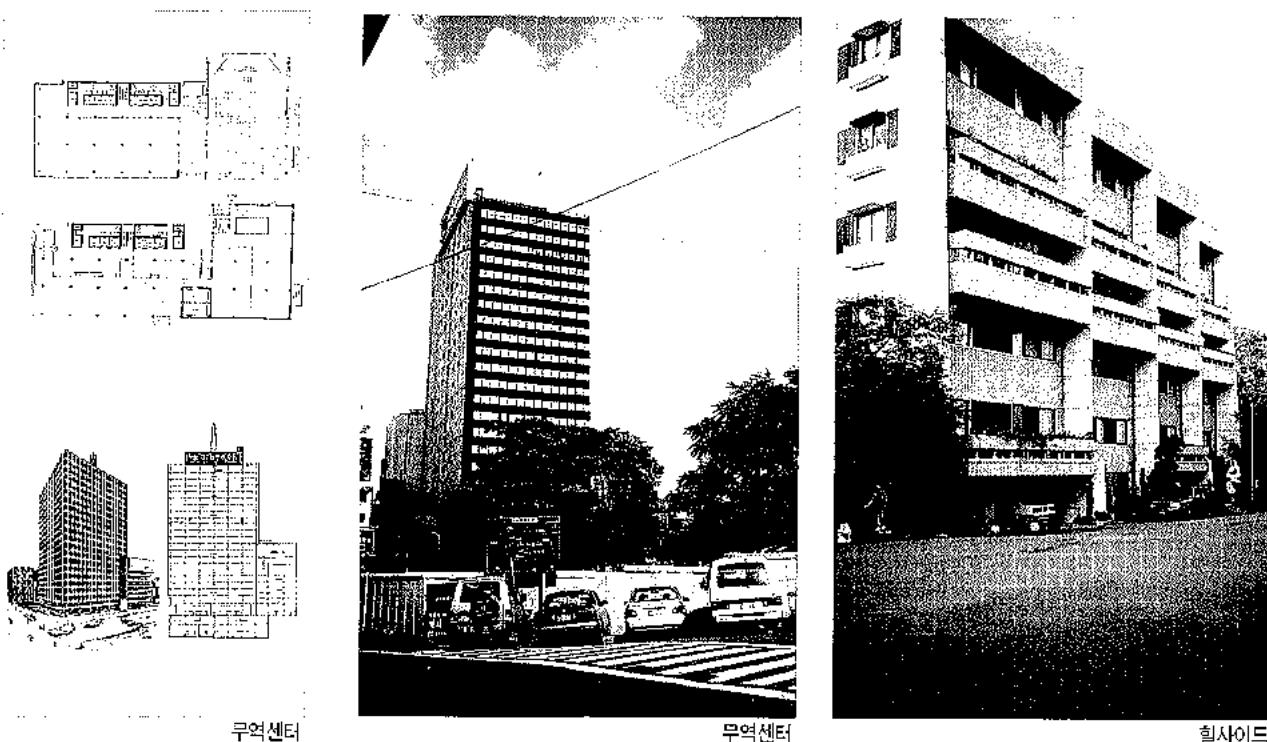
7) 힐사이드 아파트(1978)

'힐사이드 아파트'는 남산 한자락-한남동-에 자리 를 잡고 있는데,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으며, 매우 좋은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 근처에는 '남산 외인 아파트'-리버사이드호텔 맞은편에 위치-가 이희태의 설계로 남아 있다가 그중의 일부는 남산살리기의 일환으로 '전문건물 철거반'에 의해서 1994.10.20일 오후 3시에 폭파방식으로 철거되었다. 건물 모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로, 여의도, 잠실, 압구정동의 아파트군과는 다른 형식의 입면을 볼 수 있다. 동시대에 지어졌음에도 집합주거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준 예라고 볼 수 있다.

재료는 노출콘크리트와 적벽돌을 주로 사용하여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고, 단면형식은 한가구가 2개층을 사용하는 메조네트형이다. 배치는 일정한 축을 갖고 있지 않고, 대지의 경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위치한다. 이것은 한국 전통건축의 배치형식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방법³⁹⁾으로, 대지에 적절하게 적용하고 있다. 평면의 구성은 지층에 두가구의 공동주차장이 위치하고 각자의 출입계단을 따라 두가구의 동선은 분리-지층에서 대지의 경사를 이용해서, 한가구는 아래로, 한가구는 위로 올라가서 출입문이 위치한다.-된다. 단위평면은 침실기능과 그외의 기능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한층은 거실과 식당, 다용도실 등으로, 또 다른 층은 침실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형식은 정사각형으로, 중앙의 내부계단을 중심으로 대청(침실층, 평면도 참조)을 이루면서, 사각 모퉁이에 각자의 방을 위치시키고 있다. 이것은 서구의 단독주

택에 많이 나타나는 형식으로 사용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를 한 설계로 보인다.

입면은 평면의 기능이 나타나는 기능주의에 입각한 형식으로, 출입구는 배면에 위치하고, 정면은 2개층에 한개의 발코니가 설치-내부에서 거실부분이 2개층으로 열려 있음-되어 있다. 이러한 입면형식으로 내부 평면과 단면의 형식을 읽을 수 있다. 외부 마감은 노출콘크리트의 질감과 적벽돌의 색조를 잘 살리고 있으며, 가구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가벽을 세우고, 한가구씩 벽을 후퇴 시키고 있는데 운동감과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건물을 배치시면서 집합성⁴⁰⁾-여러 채의 건물이 한 집을 형성하는 규모가 큰 주거건축, 사찰건축, 궁궐건축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과 리듬감을 느끼게 했던 한국적인 감성에 대한 모색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에서는 보편문명으로 근대의 건설기술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지역의 기술적 전통의 맥락 속에 조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건축의 형식이나 내용 어느 한 쪽에 극단적으로 치중하지 않는 자세는 비판적 지역주의³⁵⁾의 한 측면인 중庸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성을 재료적 이미지로 한정시킨 결과 비판적 지역주의가 의도하는 공간과 구조 및 형식의 일관되고 통합된 경험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여기서 보여준 배치형식과 평면형식, 그리고 입면형식은 단독주택에서나 사용했던 방식으로 집합주거에 대한 작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1945년에 실시됐던 현상설계의 현상안에서도 찾을 수 있었던 공통점인데, 불특정 다



건축사협회: 초대회장에 김태식

39) 이충우, 한국의 성지, 분도출판사, 1981

순교사적지로 양화진을 끼고 한강으로 고개를 내민 봉우리의 모양을 따라 찰두봉, 용두봉, 또는 가을두라고도 하였다. 결두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1866년 병인 양요로 대원군이 "서양오랑캐로 더럽혀진 환강의 물을 서학 무리들의 뾰로 씻어야 한다."고 전국각지에 적화비를 세우는 동시에 천주교신자들을 불법으로 양화진 근처의 산봉우리에서 처형한데 연유한다.

40) 윤일주, 한국현대미술사(건축편), 현대미술관, 1978

수를 대상으로 한 집합주거에서 건축가의 사회적인 책임감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 고전으로부터의 전형³⁶⁾추구

제도적 근대화³⁷⁾는 건축가들에게 가능성도 안겨줬지만 좌절감도 안겨주었다. 특히 제3세계의 건축가들은 거장의 건축어휘에 압도되기도 하고, 기능주의의 한계에 부닥치기도 하고, 정권의 요구와 자본의 강요에 억눌려지기도 하면서, 이전의 장인이 가졌던 창작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정체성의 위기를 유발하였으며, 건축가를 전통에 집착하게 하였다. 물론 문화로서의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형태를 모방하는 것으로 재현되는 것은 아니다. 해석되고 혁신되어야 생명력을 획득하게 되고, 그것이 의도적인 모방이나 과편적인 덧붙이기를 통한 작품의 또 다른 장식화가 아닐 때 현상황을 초월하게 만드는 역할을하게 된다. 60년대는 건축가라는 직종이 자기획립을 전혀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1963년에 건축사법이 제정되고 건축사협회³⁸⁾가 결성된 것이 1965년으로 기준의 건축계는 소수의 ‘건축작가’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로서 인정받는 직업이 못 되었다. 한국 건축의 가능성으로 추구된 형식과 형태요소에 대한 이미지 연상작용의 작업은 작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70년대에는 과감한 축약과 절제로 60년대에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도상화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당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면서 전통건축을 현대화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절두산 복자기

념관(1967)에서 시도하였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었다. 그리고 건축어휘의 절제-부산 연암회관(1979)-도 그의 작품경향에서 주목할 부분으로 이 시기에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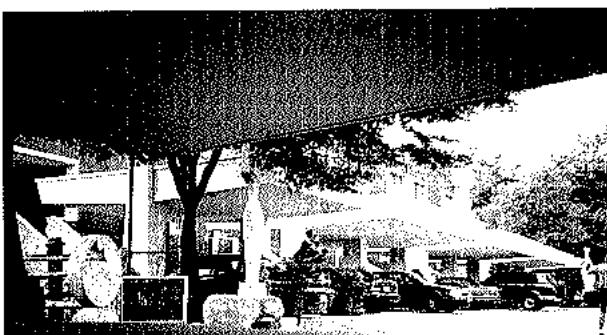
1) 순교복자기념관(1967)

‘절두산³⁹⁾순교기념관’은 순교 100주년이 되는 1967년에 건립되었는데, 기념관은 ‘한국순교복자기념성당’과 ‘한국순교기념박물관’, 그리고 병인순교복자 24위의 유해를 안치한 ‘경당’ 등 셋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념박물관에는 한국천주교의 발달을 조감할 수 있는 유물, 유품, 사료 등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앞마당은 순교자기념공원으로 꾸며 김대건 신부의 동상, 석상, 순교자상, 그리고 남종상의 동상, 사적비 등이 있다.

본 기념관은 작가의 디자인 의도가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는데, 조소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온화한 작품으로서 ‘한국적인 곡선의 융합’⁴⁰⁾을 꾀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대사관(1960, 김중업)’ 등과 같이 세부적인 요소-지붕, 난간 등-를 통해서 전통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전통 관련 건축물과 달리 ‘작가 자신의 조형언어’⁴¹⁾를 구사하여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 가능성-기단이 불국사를 연상시킨다거나 지붕의 단순화된 곡선이 추상화된 전통의 흔적을 감지하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전통적 근대주의’의 범주에 집어넣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⁴²⁾-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작가의 전 건축물을 통해 최고의 건축물⁴³⁾로서, ‘영원의 생명이 가득찬 영생의 세계에 대한 성



힐사이드



힐사이드



힐사이드

41) 김봉렬, 좌절과 성취-건축가 이희태와 절두산 순교기념관, 공간, 9110

42) 김일연, 1960년대 한국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논, 1994

43) 윤일주, 현대건축사, 아동문화사, 1970

정인국, 한국현대미술사(건축편), 현대미술관, 1978

김봉렬, 좌절과 성취-건축가 이희태와 절두산 순교기념관, 공간 9110

44) 김인철, 절두산 성당 유감, 꾸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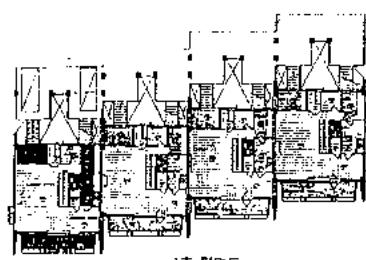
인들의 믿음’⁴⁵⁾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곳에서 표현된 건축언어는 작가의 ‘건축어휘 전형’⁴⁶⁾으로 이후 나타나는 작품-국립극장(1969), 국악양성소(1970), 경주국립박물관(1972) 등에 변형돼서 나타난다.

작은 언덕에 앉혀있는 이 건물은 포불선 형태로 된 성당과 장방형으로 된 전시관, 그리고 이 양자 사이에 있는 종탑 등 3부구성⁴⁷⁾으로 이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종탑 부분만이 확연히 인지된다. 본 기념관의 대지와 건물형태의 관계를 두고 김억중은 기념비적인 장소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지적⁴⁸⁾하고 있는데, 다른 비평가들의 해석⁴⁹⁾을 통해 그 지적이 적절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유용할 수 있는 대지면적에 기능상의 필요 면적보다 부족다는 것과 한쪽이 거의 절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건물을 배치하고 계획하는데 많은 한계성을 설정해 주었으리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안정감과 평온함을 제공하고 있다.

기념성당의 원형과 기념관의 육면체는 부조화하게 보이지만 지붕 처마부분을 완만한 곡면으로 처리하고, 가운데 우뚝솟은 종탑의 모서리 처리를 부드러운 곡면으로 처리함으로서 건물에 일관된 어휘를 보여주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깊게 드리워진 기념관의 처마는 과장되기는 했지만 전통한옥의 깊은 그늘을 느끼게 하여 시원함을 제공하며,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 기념성당의 경사진 벽면처리와 적벽돌 처리는 재료가 주는 친근감으로 건물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시켜 주



도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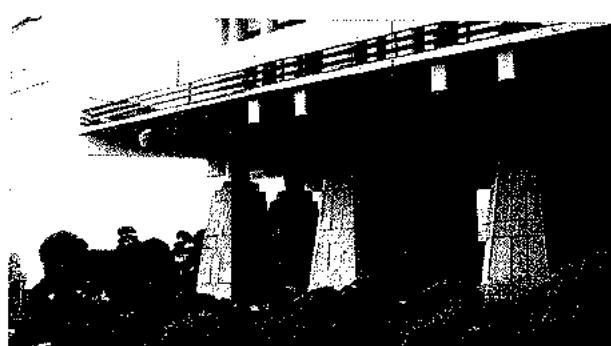
1층 평면도

힐사이드

면서, 공간적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다. 그리고 경사면 처리에서는 기단부의 주초석 표현이 과장됨으로써 전통건축의 형식을 변형하여 사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저적을 받게 되었다.

‘절두산 성당의 경우 박물관은 피로티로 풀어보려다 말았으며....즉 기단과 피로티의 형태적인 속성은 결코 우리의 지각 가능성을 자극할 만큼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기능적인 치수로 해결되어 있다. 우리는 성당 앞 마당에서 우리가 기단 위에 서 있다는 인식이 불가능하며, 박물관의 최하층 피로티 부분에서도 건물 상부와 대지와의 사이 공간을 결코 투명하고 예외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 평지에서와 경사지에서의 서로 다른 접합에 대한 단면 연구의 성과가 아쉽다.’⁵⁰⁾

그러나 여기서 이희태의 구성의도는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하부 피로티의 이용이라는 측면보다는 고건축의 정자나 누(樓)를 연상-기능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형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살펴보면 본 기념관이 들어서기 이전, 조선시대부터 대지는 한강의 절경 중의 하나로 꼽혔다. 산수도를 보면 정자가 위치했던 것을 볼 수 있다.-한 추상화 작업이 아니었을까 상상⁵¹⁾해 본다. 그러므로 김억중의 ‘피로티의 형식과 사용’은 작가에게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었으리라 추측된다. 더군다나 정자나 누 하부의 기단부는 순수 기능으로부터 제외된 곳으로 건축물이 대지와 하나 되는 고리역할-산비탈에 위치하게 되므로 바닥으로부터 받침이 구조적으로 필요했다- 이었다. 본 건물도 이러한 기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순교복자기념관 기주



순교복자 기념관

45) 김경수, 한국현대건축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논, 1987

46) 기념성당과 전시관, 그리고 종탑 등의 3부 구성이 절두산 언덕 위에 놓여 있는 자체는 영생의 세계를 향해할 것만 같은 성인들의 달움과 기상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다.

47) 김억중, 건축적 측면에서 본 절두산 순교기념관, 1990

48) 이해성, 절두산 순교복자기념관 비평, 건축사 1967.

49) 김봉렬, 좌설과 성취-건축가 이희태와 절두산 순교기념관, 공간 9110

50) 김억중, 건축적 측면에서 본 절두산순교기념관, 건축과 환경, 9001

이러한 복자기념성당은 이희태가 건축의 전통 건축 어휘 수용-실험과 추상-의 실험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한국건축의 전통이해와 계승이라는 측면을 시도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의이다. 특히 순교복자성당의 경사면 처리나 기단부의 주초석은 전통 건축의 표현요소를 자신의 건축에 사용하려는 시도로,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시작으로 자신의 건축 방법론-공간과 형태의 자율성 회복-과 풍부한 건축어휘-창기둥, 주초석, 처마처리 등-를 구현해 보이고 있다

50)

2) 남산 국립극장(1967)

국립극장은 목적 자체가 군사정부에 의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모뉴멘탈리티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입면의 3부구성, 기둥과 서까래, 그리고 공포의 변용과 같은 '직설적 복고주의'는 권위주의 강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국회의사당건립계획'을 취소하고 남산공원을 계획하면서, 남산에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주로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⁵⁰⁾. 국립극장이 남산에 위치하게 된 것은 이러한 배경으로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는 계획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산을 깎아서 만든 대지⁵¹⁾ 전립된 이 건물은 수려한 자연을 경관으로 지니고 있고, 정면으로는 자유센터와 타워호텔이, 뒷면 건너편에는 남산 텔레비전 타워TV가 보인다.

'순교복자기념성당'에서의 전통에 대한 실험은 계속해서 '국립극장'(1969 설계/1972 준공)으로 계승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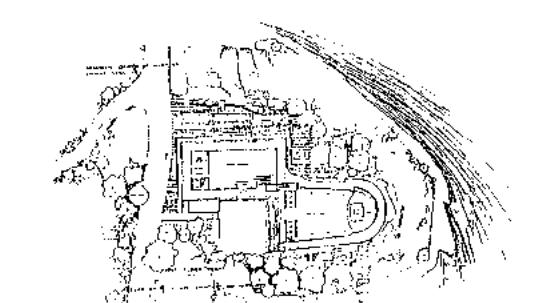
는데, 국립극장이 설계된 시기와 배경-5.16 군사 혁명의 성공과 더불어 경제부흥-은 '민족 문화 창달'이라는 과제를 건축으로 풀어야 하던 시기로, 그가 직면했던 고민은 예산규모, 국립극장의 성격, 국장의 양식, 그리고 기능이었다⁵²⁾. 다음은 작가가 설계시의 고민을 정리한 내용중의 일부이다.

먼저 적은 예산에 대한 고충으로 "본인은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좀 더 효과적인 극장건축을 설계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로 상당한 고심을 하였고, 이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지금의 국립극장을 계획하는 데 3대원칙-성격, 양식, 기능-을 세워 검토하였다⁵³⁾고 한다. 작가는 또한 예산상의 제약으로 외부를 석재로 구성하고 싶었으나 콘크리트 자체의 질감보다는 새로운 질감을 도모하여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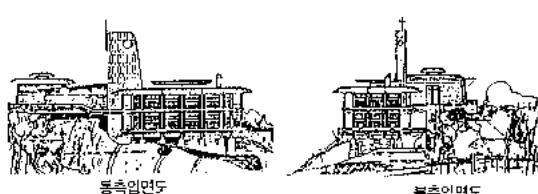
다음은 극장의 성격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무렵 미국에서는 뉴욕에 링컨센터가 완성되었고, 일본에서도 국립극장이 처음으로 완성되던 때였다. "외국의 극장들은 거의가 단일목적의 용도(성격)이다. 즉 연극전용이나, 아니면 오페라극장으로서의 성격만을 지니고 있고 운영되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극장이 순수연극만을 위주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 외에도 오페라, 발레, 교향악 등을 공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다목적극장을 요망하는 것이다⁵⁴⁾. 작가는 그래서 대극장, 소극장으로 나누어 대극장에서는 연극, 오페라, 발레, 교향악 등을 공연할 수 있게 하였고, 소극장에서는 국악연주를 주로 하는 한국고전과 소음악을 하는 성격으로 규정지었다고



국립극장 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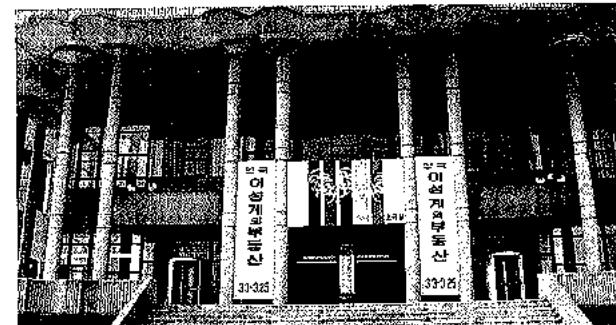


배치도



동측입면도

북측입면도



국립극장

순교복자기념관

50) 건축미학, 보서 스크리톤, 김경수 역, 서광사,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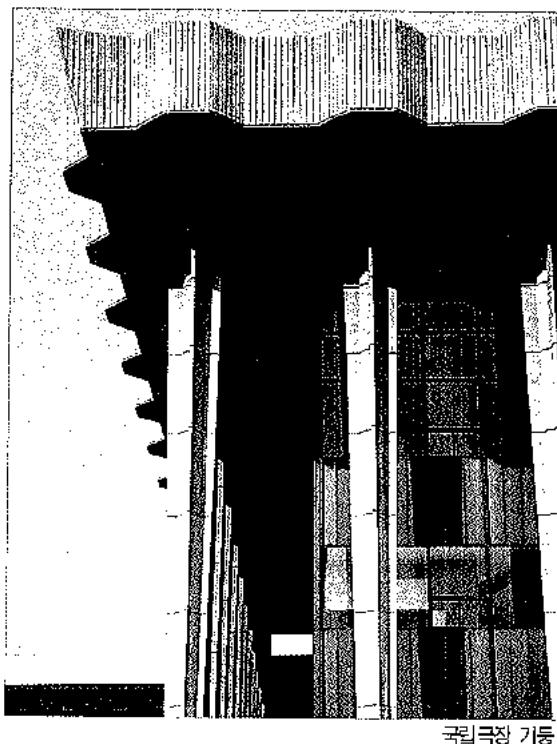
51) 김원:우리시대의 거울

당대의 비평으로, 고유의 미와 지방적인 표현을 보편적인 것으로 승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명쾌하게 사례를 들어가며 반박하고 있는 내용으로 김원의 글이다. "이 건물에는 서구적인 디자인 샌스의 산물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수 많은 요소들이 원자무늬의 분위기와 혼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굴뚝의 형태나 물방이 흔들, 종인을 연상케 하는 고체소의 작은 창, 성당 내부 바닥 가끼이까지 낚개 뜯린 창틀이라든가, 이들은 유럽의 어느 성당에서 보이는 요소들이다. ... 그것은 말하자면 한국적 절충주의이지 '고유한 것이' 분명권에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승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도 논란이 많이 되는 양식과 전통에 대한 부분인데, 작가는 전통양식을 현대화하는 데 많은 고심과 노력을 했음을 다음 글에서 밝히고 있다. "...양식 역시 전기 극장의 성격이나 기능 못지않게 시각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 건축이 한국민족문화의 전당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극장이 지니는 양식문제의 비중은 매우 크다. 극장의 양식은 외형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다. 우리나라로 근대화 됨에 따라 많은 현대건축들이 계속 서나가고 있으나 본인은 건축가의 한사람으로서 이 국립극장의 준공과 함께 한국의 현대건축이 우리의 것으로 토착화해야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이 국립극장의 설계에 임해 왔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전통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현대화해서 국립극장 건축양식으로서 구현시키느냐가 외형구성의 주안점이었다."⁵²⁾

그리고 작가는 국립극장에 전통표현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본인은 우리의 전통을 국립극장 건축양식에 구현하는데 외형적인 모방이나 확대가 아닌 어디까지나 내재적인 전통의 표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지금의 극장형태를 나타내었고 이것으로서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즉 전통적인 기주(基柱), 주랑(柱廊)의 아름다움의 현대화가 바로 그런 것의 하나인 것이다.⁵³⁾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작가는 우선 외형적인 모방이나 확대가 아닌 방식으로 내재적인 전통을 표



국립극장 기둥

52) 서울시 남산의 종합미화계획안 발표, 동아일보, 1961.12.19

대지선정문제로 고심한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상당한 고비를 겪어야 했었다고 한다.

도심지에서는 이 용장한 새 극장이 들어설 대사는 도저히 구할 수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환경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장소를 물색한 끝에 지금의 남산 동측 기슭으로 결정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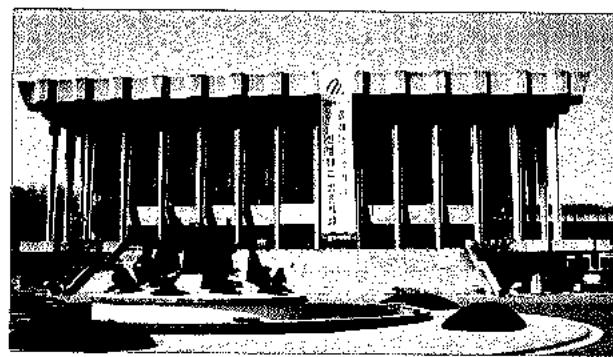
54) 이희태, 국립극장 계획설계에서 준공까지, 건축사 7004

55) 이희태, 국립극장 계획설계에서 준공까지, 건축사 7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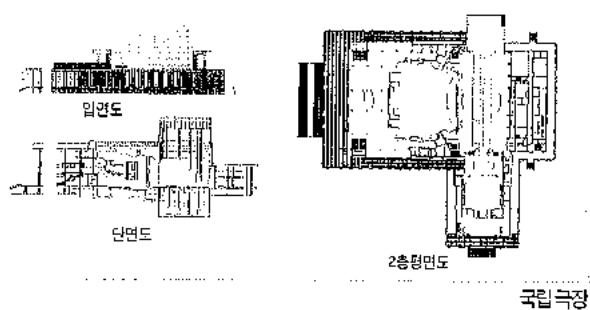
현하려고 생각했고, 그것이 지금의 극장형태가 되었다고 한다. 그 예가 기주, 주랑의 현대화라고 한다. 여기서 입면에 사용된 지붕, 기둥, 처마, 기단, 기주, 주랑 등의 디테일이 어느만큼 현대화에 근접되었는지는 평가하기 힘들다. 그러나 차용이나 직접묘사가 아님은 볼 수 있다. 작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있게 의사 를 밝히고 있지만, 당시의 건축인들은 찬반 논란이 많았던 것 같다. 그것은 다음에 소개되는 비평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에 대한 해결인데, 1500명을 수용하는 대극장으로 400평무대에는 20m경의 회전무대를 중심으로 이동무대, 승강무대, 100명수용의 오케스트라 팟트, 싸이클로막, 영사실, 반사판 등의 시설이 되어 있었고, 다목적공연에 대비한 11.5m × 24m의 큰 프로세니엄아치(Proscenium Arch)로서 객석을 맞이하고 있다.

"1500명을 수용하는 객석의 제요소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평면은 객석의 길이보다 폭을 넓혀 가시거리를 좁히고 1층에 객석, 2층에 로열박스와 귀빈석, 3층에 역시 일반객석을 배치하여 극장의 단면적인 처리로서 유향과 가시 문제를 아울러 해결하였다. 무대의 배면에 있는 관리동에는 이 극장에 출연하는 모든 예술인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분장실이 A.B.C급으로 나누어 시설되어 있고, 특히 주연급이 사용할 A급 분장실에는 욕실, 화장실, 분장실 외에 면회실까지 완비되어 문자 그대로 예술인의 전당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연습실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⁵⁴⁾

여기서 건축물의 입면을 살펴보면, 3부구성-머리



국립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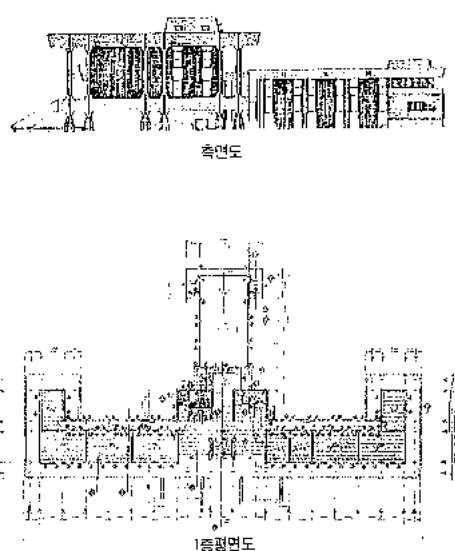
국립극장

(지붕), 몸체(기둥 및 벽면), 다리(계단 및 기둥하부의 주초석)-으로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이런 방식은 서양의 고전주의 수법에서 많이 사용한 방법으로서 서양과 우리나라의 고전양식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기둥을 살펴보면 아래에서 위로 향하면서 넓어지는데⁵⁶⁾, 단일 기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가늘어졌다며 거대한 지붕과 대비되어 기둥이 빈약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둥은 건축물이 대지와 분리된 듯한 인상을 주는 동시에 건축물 전체가 위를 향하는 심리적인 상승효과를 연출⁵⁷⁾한다. 기둥에는 또한 굴곡이 있는데, 이것은 지붕처마의 디테일과 연결되면서 처마에 요철을 만들고 있다. 이 요소는 평면적으로 처리되었을 때보다 볼륨감과 입체감을 느끼게 하고 디테일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계단은 외부에서 국장으로 진입하는 정면 중앙에 위치하는데, 건물은 이 계단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건축가는 건물의 비례를 고려하기도 했겠지만, 이것은 고전적인 권위주의를 느끼게 한다.

다음은 건물이 지어진 당대의 비평인데, 김원은 “솔직히 말해 나는 국립극장의 건축적 해결과 그 가치에 관해서 흥미가 없다. 단지 기기서 시도된 한국의 전통적 디테일의 모더나이즈라는 한 작가의 방법론이 소위 전통논쟁을 위한 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져 쉽게 답습 될 위험을 말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나쁜 의미에서의 한국적 디테일의 디자인이다. 차라리 그것은 영민관의 우직성보다도 낮은 차원의 유희이며, 고전의 오해이

며, 고전적 정신에의 모독이다”⁵⁸⁾라고 국립극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다음은 또한 당대의 또 다른 비평으로 윤일주의 작품해석이다. “..작가 또한 전통이란 것을 마음 부겁게 의식한 것 같다. 1967년도에 이미 작가는 복자기념성당에서 전통의 문제를 고민한 바 있다. 국립극장도 그와 같은 바탕에서 발상된 것으로 짐작된다. 전반적으로 누마루를 들리고 그 위에 옆주를 세우고, 처마 끝에 치켜올리는 등 한국적인 감각의 표현을 시도하고 있다. 구석구석에는 동양적 디테일의 현대화가 낚김없이 스미도록 하였고, 외관의 중요부분은 구슬자갈 콘크리트 쪽아내기를 하여 부드러운 화강암의 질감을 내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아무튼 이렇게 정교한 디테일에도 불구하고 전통건축이 가지는 안정감과 무게보다는 슬렌더한 느낌이 더욱 강하다. 그것은 각 세부요소가 가지는 취약성이 그 건물의 볼륨을 시각적으로 감당치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인듯 하다. 그러나 슬렌더하다는 것이 한 건축의 단점일 수는 없다. 이 국립극장에서 느끼는 것은 깊은 감동이라기보다 경이로운 감각이요, 감미로운 감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⁵⁹⁾

두 사람의 비평은 당시 건축계에 만연되어 있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전통요소의 사용에 대한 입장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윤일주의 작품해석은 단지 형태만에 치우치지 않고, 재료의 사용방법까지 살피는 꼼꼼함을 보여주는데, 전통건축의 현대화과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여진다. 재료사용법에 대해서는 이희태도 시도한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 있는 국립극장은 재료



국악사양성소



국악사양성소

56) 이희태, 국립극장 계획설계에서 준공까지, 건축사 7004

57) 이희태, 국립극장 계획설계에서 준공까지, 건축사 7004

58) 이희태, 국립극장 계획설계에서 준공까지, 건축사 7004

59) 이희태, 국립극장 계획설계에서 준공까지, 건축사 7004

60) 국립극장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기둥에 가늘다하여 뒤늦게 기둥에 십자형 날개를 덧붙였다는 일화가 있다.

61) 김일연, 1960년대 한국건축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논, 1991

상의 표현법을 많이 끌고 있다.

3) 국악사양성소(1967)

국립극장과 함께 장충동에 위치한 '국악사양성소'는 국립극장과 같은 시기에 설계되어 지어진 건물로 양식적으로는 '국립극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입면에 보이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미 초기 성당건축에서부터 나타나는 '쌍기둥'을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찾아 볼 수 있고, 단하부의 주초석과 곡면으로 처리된 지붕, 그리고 노출콘크리트라는 재료, 출입구의 형태가 공통요소로 나타난다. 디자인 요소를 좀더 살펴보면, 자유센터에서처럼 크지는 않지만 기둥과 건물벽사이의 화랑(복도)에 둑근 천장을 볼 수 있는데, 기능적인 측면은 크게 유추되지 않지만 공간에 활기-꼬르뷔제의 '라뚜레뜨 수도원'의 '빛우물'을 모방하였다고 보여진다. 꼬르뷔제 건축어휘의 모방은 '복자기념성당'의 성당부의 창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를 부여해 주고 있다.

국악사양성소 건물은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비례가 훌륭한데, 그것은 건물을 안정되게 한다. 그리고 안정감을 바탕으로 입면효과와 디테일은 건물을 풍부하

게 하고 있다. 규모는 2층이나 단층구성으로 수평으로 긴 입면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건축의 '고전'이라고 평가되는 '종묘'의 강한 수평적 요소를 느끼게 하기도 하고, 쌍곡사의 긴 담장을 유추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이 건물로부터 고전성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당당(presence)' 함과 '담담(emptiness)' 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재료에서 노출콘크리트 질감을 통해 소박하면서도 거칠고 두터운 맛⁶²⁾을 내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태극미학⁶³⁾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재료를 이용한 입면효과-지붕, 기둥, 난간 등의 조화-와 부재들 간의 비례, 그리고 건물 전체의 비례감-마당의 넓이와 건물의 높이-때문으로, 특히 풀한포기 없이 비어 있는 건물 앞의 이 공간은 운동장의 기능보다는 관조의 대상-높지 않은 계단을 올라가서 바라보는 이 공간의 이미지는 사랑마루에서 바깥쪽을 바라보는 것과 유사하다-인 듯 하다. 그리고 규모나 크기로 압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건물이 갖고 있는 이러한 건축요소들은 하나 하나가 독립된 모습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속에서 조화를 이룸으로서 고전요소의 현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악사양성소



국악사양성소 천장

62) 김원, 우리시대의 거울, 도서출판 광장, 1988
63) 윤일주, 한국현대미술사-자주시대의 전개(1945-78)

64) 민족건축론, 김홍식, 한길사, 1987

65) 김홍식, 구례 화엄사 가람배치의 미학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이광노교수 퇴임기념 논문집, 서울대학교, 1993



중남미 문화 기행(1)

Cultural Travels of the Central South America
그 하나-푸른 그림자, 마야

金仁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
by Kim In-Cheol

- 〈1회〉 마야 푸른 그림자
- 〈2회〉 아즈텍·하얀 국선
- 〈3회〉 잉카·인디오의 중절모
- 〈4회〉 멕시코 정복하는 정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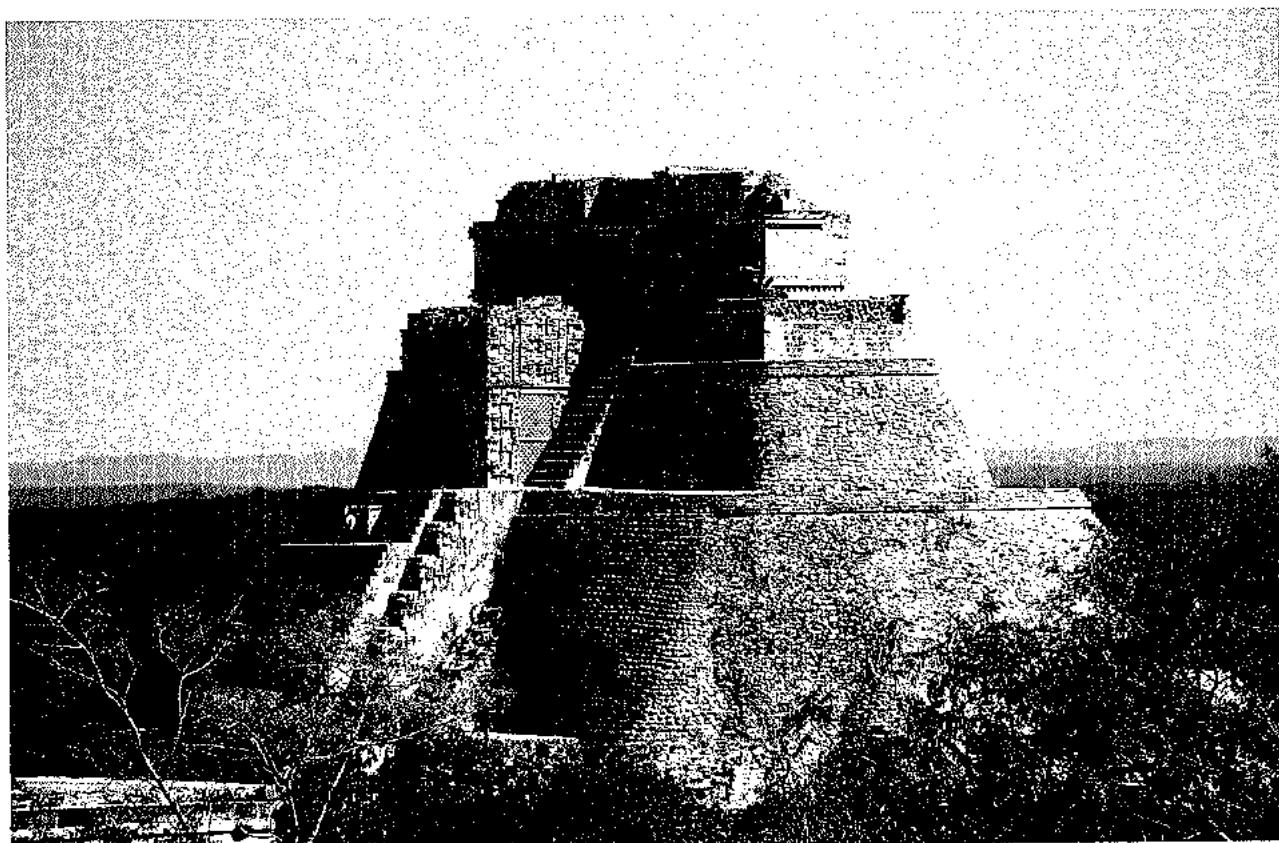
설날연휴가 중간에 친 열하루동안 여행을 다녀왔다. 43그룹이 매년 해오는 건축기행이다.

일본과 유럽쪽으로만 가울어 있던 관심이 작년의 인도여행 이후로는 문화의 근원에 관한 것으로 바뀌었다. 찬디갈과 다카에서 만난 대가의 언어보다 길언저리에 드러나 있는 삶의 표정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눈코 뜰새없는 바쁜 일정으로 집구경을 해야 하는 지금까지의 여행보다 사람구경, 땅구경하며 느긋하게 이동하는 동안 이것 저것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근근히 생활한다는 의미로 균생건축가의 모임이라고 자초하는 43그룹이 남보기애 사치스러울지 모르는 여행을 강행해 오고 있는 이유는 더

생각하고 더 자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다. 일상의 번거로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몰두할 수 있는 즐거움은 여행이 아니고는 누리지 못한다.

이번의 주제는 『지역의 미학과 근대의 융합』으로 멕시코 바라간과 리고레타에 초점을 맞추되 남미문화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지금에 이르는 맥락을 살피는 것이었다. 여행의 기획과 진행은 멤버들이 돌아가며 맡고 있어서 이번에는 메타건축의 김병윤 소장이 담당하였다. 경성대의

강혁 교수가 남미문화에 관한 길잡이로 초청되었고, 서울대의 김광현 교수는 멕시코의 현대건축에 대한 소개 역할을 맡았다. 떠나기 전의 공부는 월례모임을 통한 세미나와 서로 수집된 정보를 교환하며 준비하였다. 그곳의 풍토와 역사를 익히고 현재를 살피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여행일정이 정리되었다. 여러가지의 대안들이 검토되었으나 기간, 경비, 목적의 근사치에 접근하기 힘들었다. 결국 중미지역인 멕시코와 남미지역 페루의 잉카문명을 축으로 하여 바라간과 리고레타를 연결하는 여행계획이 만들어졌다. 각 지점간을 연결하는 이동거리와 시간이 엄청났고 현지의 비행스케줄에 유통성이 없어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았지만 항상 그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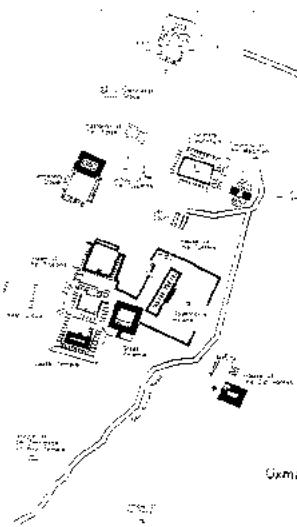


우슈말-마법사의 피리メント 정상에 신전이 있다.

듯이 강행군을 전제로 하는 빠른 진행계획이 맞추어졌다.

여행이 시작되었다. 김포에서 L.A로, 바꿔서 멕시코 시티로, 국내선으로 옮겨 유카탄반도의 메리다(Merrida)에 내려서 호텔에 도착한 시간이 현지시간으로 밤 열한시경이었다. 서울을 떠난 것이 오후 세

시였으므로 여덟시간 정도의 이동이었지만 일부 변경선과 시차를 대입시키면 하루종일을 비행기에서 지낸셈이다. 덕분에 시차에 대한 감각이 엉망이 되어 오히려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앉으면 자는 것이고 걸으면 보는 것이되어 전천후 여행이 가능하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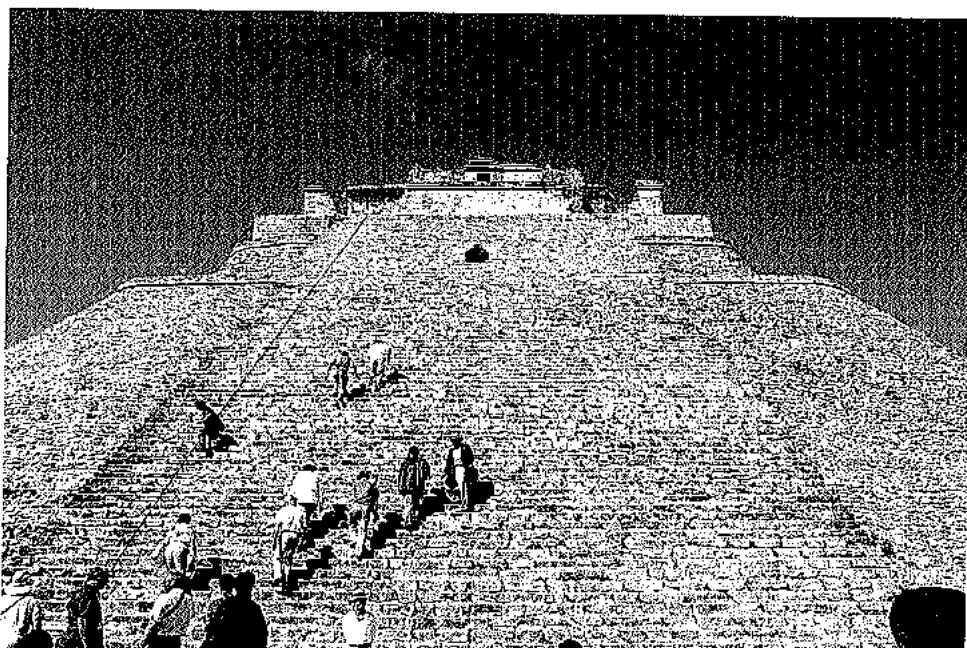


우슈말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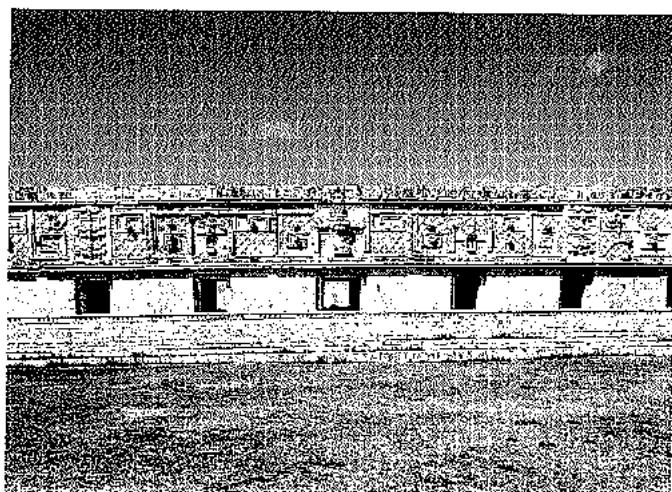
것이다.

멕시코만과 카리브해를 가르며 동북쪽으로 비스듬히 빼져나와 있는 유카탄반도는 숲으로 덮힌 평원지대이다. 사막이나 초원처럼 땅이 보이는 평지가 아니라 길이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정글로 뒤덮힌 막막한 평원의 모습이다. 마치 두꺼운 담요가 씌워진 것 같은 풍경속에서 우리와 조상이 같다는 원주민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있다. 콜럼버스의 착각때문에 인디오라는 보통명사로 불리우고 있는 마야(Maya)는 숲과 공존하는 그들만의 역사를 고유명사로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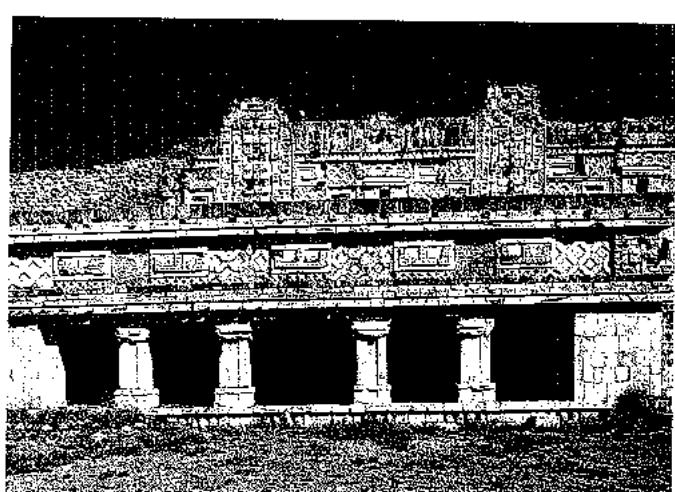
식민도시풍의 메리다로부터 숲길을 시간반정도 들어가면 마야의 후기시대에 속하는 유적지 우슈말(Uxmal)에 이른다. 눈높이에서는 숲밖에 보이지 않는 녹색의 터널을 지나오다가 느닷없이 모습을 나타내는 거대한 유적의 시루엣에 이방인들은 압도당한다. 제정일치사회의 중심지였을것으로 추측되는 석조의 도시는 수직의 피라밋과 수평의 전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를 보지말고 무조건 기어올라야 하는「마법사의 피라밋」정상에 오르면 한없이 펼쳐진 녹색의



우슈말-마법사의 피라밋을 오르는 계단 45°의 가파름을 기어오른다.



우슈말-여승원의 서쪽벽은 매우 장식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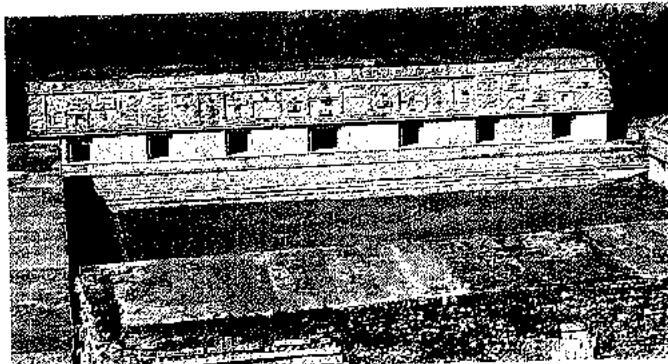
우슈말-여승원의 북쪽은 가장 높은 위계를 갖는다.

지평선과 함께 옛도시의 흔적들이 한눈에 보인다. 파리미트의 뒤로 돌아가면 「여승원」이라고 불리는 마당을 가운데에 둔 거물군이 내려다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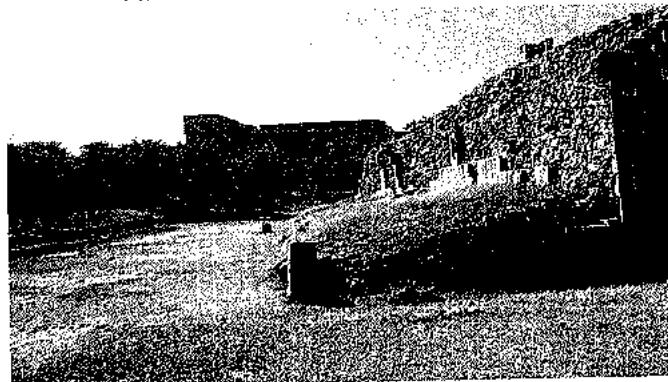
남쪽인 원편으로는 「총독의 궁전」과 「대 파라미트」이 솟아있고 그 주위로 사원의 폐허가 숲에 가려져 있다. 숲의 여기저기에 솟아있는 또다른 석조물들이 눈에 띄지만 그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건물에 새겨진 기기묘묘한 조각들의 형상을 구분하는 것 만큼이나 힘들다. 삼백여년의 시간을 거치며 다섯개의 사원이 포개어진 마법사의 파리미트를 아슬아슬하게 내려온다. 유카탄의 푸크(Puuc) 지역에 있는 마야유적이 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안뜰을 중심으로한 네체의 에워싼 건물군을 「사변형(QUADRANGLE)」이라 하는데 이곳을 발견한 스페인 사람들이 자기네의 수녀원과 닮았다고해서 여승원이라 이름붙여 놓았다.

1502년 콜럼버스의 네번째 항해에서 유카탄의 마야인들과 스페인 정복자들의 첫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낯선자를 만난 원주민은 자신들을 "마이암(Majam)"이라고 말했고 나라이름을 묻자 시우탄(-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라는 뜻)이라고 대답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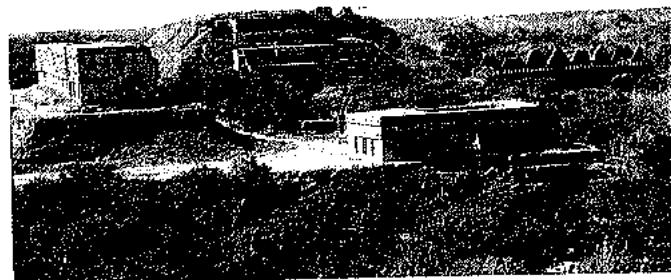
이후 이곳은 마야 그리고 유카탄으로 불리우게 된다. 이미 서인도제도의 쿠바에 식민지를 건설한 스페인은 황금을 찾기위하여 첨없이 여기저기를 정찰하고 있었는데 또다른 섬인줄 알았던 유카탄을 찾아내고 난뒤 에야 대륙의 존재를 알게된다. 그리고 그 어딘가에 황금의 땅-엘도라도가 있다는 것을... 1517년 에르난데스 데 코르도바의 원정대가 유카탄에 상륙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정복의 시대가 시작된다. 1519년 베라쿠르스에 상륙한 에르난 코르테스에 의하여 고원지대의 아즈텍(Aztec) 제국이 일년만에 멸망한것과는 달리 마야정복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8세기까지의 전성기 동안 마야문명은 현재의 멕시코내 치아파스주와 과테말라의 페텐지방, 온두라스 서부와 엘발바도르의 북부지역인 유카탄 반도의 전역에 확대되어 있었다. 그러나 9세기의 고전기에 이르러 문명이 몰락하기 시작하자 마야인들은 열대림지역으로 들어가 산발적으로 모여 살기 시작한다. 그로부터 몇세기 동안 마야의 옛도시들은 밀림에 묻혀서 잊혀진다. 마야를 정복하여 식민지를 확대하고 황금을 찾는 일에 모든 스페인인들이 열정적으로 참여 하였으나 마야와 그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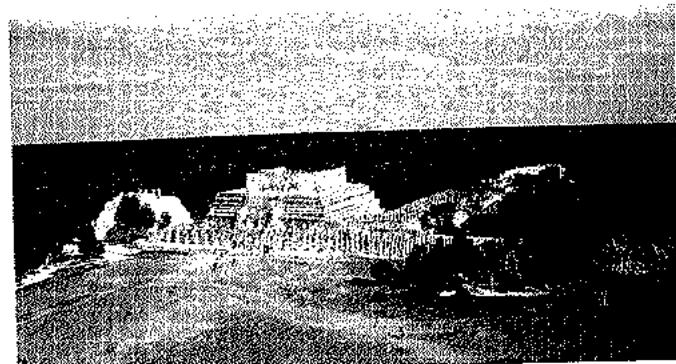
우슈말-여승원의 마당은 네개의 건물이 높이를 달리하여 에워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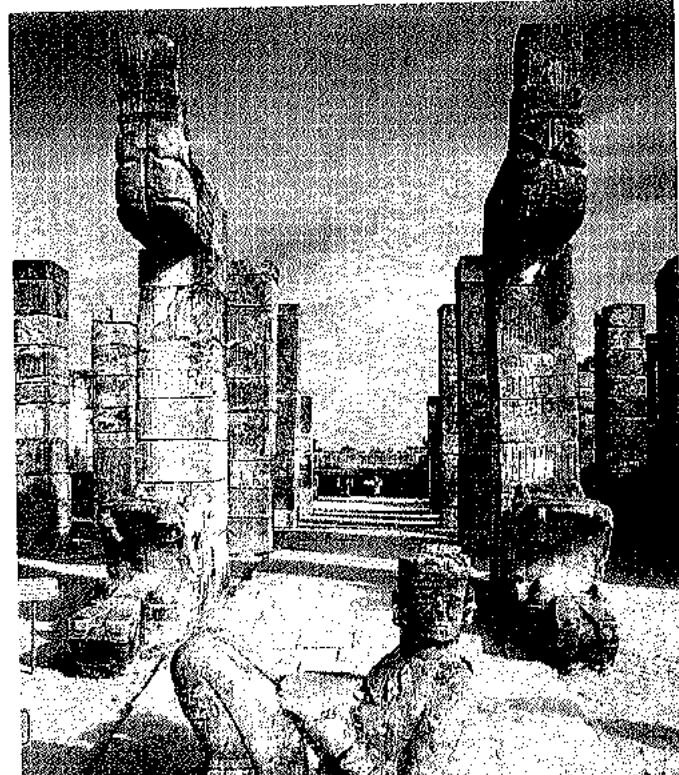
우슈말-구기장에는 뱀장식의 고리가 벽면에 돌출되어 있다.



우슈말-거북의 집, 총독의 궁전 대파라미트, 비둘기의 사원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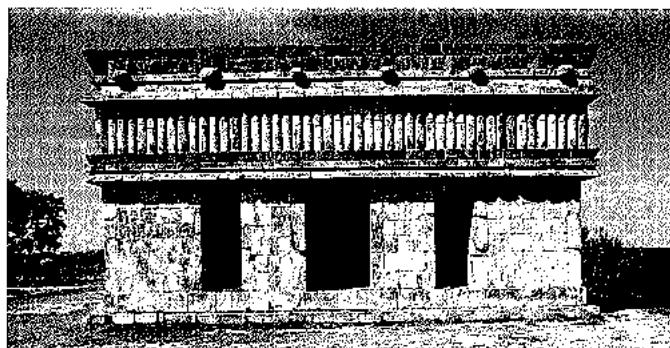
치첸잇사-용사의 사원은 천개의 기둥으로 공간이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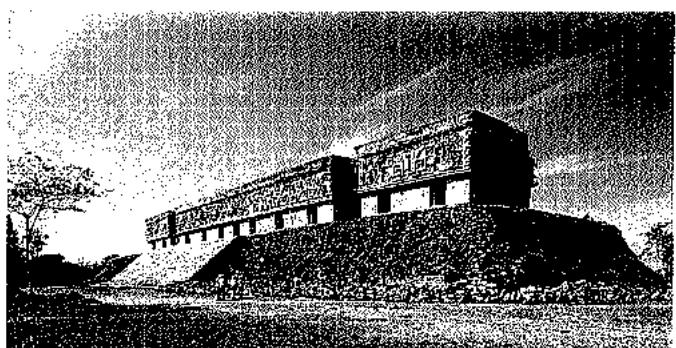
치첸잇사-케찰코아틀의 머리를 갖고 있는 기둥과 차크을은 톨тек 문명의 상징이다.

명에 관심을 보인 것은 역설적으로 사제들이었다.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이 제물로 바쳐지는 악마가 지배하는 땅에 기독교의 햇불을 들고 무기를 앞세워 들어온 그들은 원주민의 우상과 신전을 파괴하고 노래와 춤 그리고 예술적 행위(그림, 조각, 문자)마저 금지시켰지만 그들을 야만인으로 보지 않고 문명의 창조자로 인정하여 연구하는 사제가 나타난다. 유카탄지역의 대주교였던 디에고 데 란다가 쓴 「유카탄지역 문물들의 제관계」라는 책은 16세기에 쓰여진 마야에 관한 가장 훌륭한 책이다. 폐허가 된 마야의 도시를 둘러보며 란다는 “지금도 이 나라는 아름답다. 그러나 저 위대한 건축이 세워졌던 시대보다는 못하리라”라고 감동한다. 그러나 새로이 발견된 문명의 가치는 몇 세기를 거친뒤에야 겨우 인정된다. 전투, 파괴, 약탈, 등 등으로 이루어진 길고도 혐난한 정복과정은 정복자로 하여금 이 문명의 과거흔적이나 의미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코르테스의 원정대가 위대한 유적의 결을 스쳐갔지만 그것이 그곳에 있는지조차 몰랐으며 사제들에 의한 티칼유적이나 악스 칠란의 발견도 원주민을 개종시키기 위한 행보중에

일어난 우연의 결과일 뿐이었다. 콜럼버스의 발견이 후 두세기가 지나서야 정복의 시대가 마무리된다. 마야문명이 남긴 유적의 대부분은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발굴되고 복원되지만 18세기 이후의 탐험과 연구의 축적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새로운 문명에 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탐험가, 예술가, 학자들의 계속된 도전으로 미지의 문명이 베일을 벗게된다. 그들의 관습, 예술, 건축, 문자, 달력, 종교 등에 관한 학술적인 접근의 성취에 따라 구석기시대에 아시아대륙으로부터 건너온 한무리의 인간집단이 구세계와는 철저히 유리된 채 만들어낸 또 하나의 문명이 역사에 보태지게 된 것이다. 예술원의 마당가운데에 서서 그들의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환각을 느낀다. 인간과 뱀과 재규어의 모습이 뒤섞인 그로테스크한 형상때문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의 적막함 때문이다. 엉덩이로 공을 받아 넘기는 친률티크 시합을 벌인 구기장은 승자가 인신공양의 제물이 되는 패러디의 현장이다. ‘이긴자가 죽는다’는 것을 ‘죽은자가 이긴것이다’로 말을 바꾼다면 지금 걷고 있는 죽은도시와 죽은역사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우슈말-거북의 집은 벽면 구성에는 목조의 양식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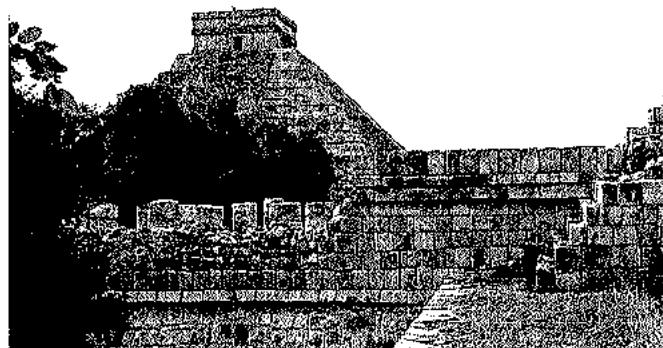
우슈말-총독의 궁전에는 매우 단순하지만 공간의 구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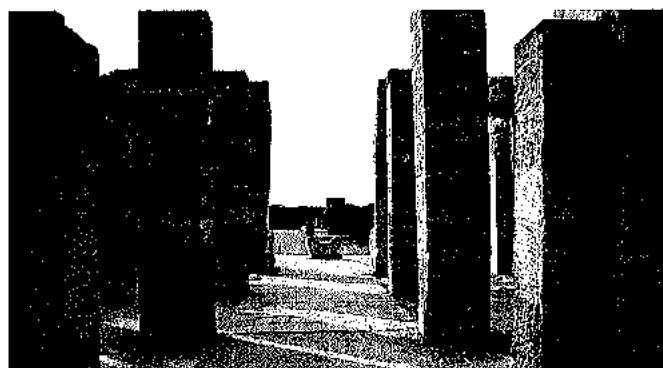
치첸잇사-주피리밋인 카스티요에는 365개의 계단으로 올라간다.

대피라밋의 중간쯤에서 다시한번 내려다 본 우슈말은 지금은 없어진 주변의 도시규모까지 상상해보게 한다. 그러나 끝없이 펼쳐진 숲의 장관으로 한계를 설정하지 못한다. 금을 헤치고 솟아 올라야만 하였던 이유를 그곳이 숲이었기 때문이라는것 말고는 찾을 수가 없다. 또 하나의 유적지 치첸잇사로 떠나기 위한 시간에 맞추느라 「총독의 관저」를 눈어림으로 살펴며 버스에 오른다. 미처 들리지 못한 나머지 유적들에 대한 미련은 빨리 버리는게 이런 여행에서는 철칙이다. 이동하는 도중에 자료를 찾아보며 되색임하는 구실도 된다. 몇장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들 깊은 잠에 빠진다. 시차와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린 피곤함에는 따로 상사가 없다. 중간에 점심을 하고 동쪽으로 끝없이 뻗은 금길을 네시간여를 달려 마야의 마지막 도시 치첸잇사(Chicken-Itza)에 내린다. 우슈말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10세기말의 거대도시 치첸잇사는 원주민인 마야족의 도시에 「깃털 달린 뱀-케찰코아틀」의 전설에 의해 이끌어지는 중앙고원의 톨텍(Toltec)족이 이주하여 이루어졌다. 멕시코시티 북쪽의 툴라(Tula)로부터 경쟁자에 밀려난 톨텍족은 평원지대로 내려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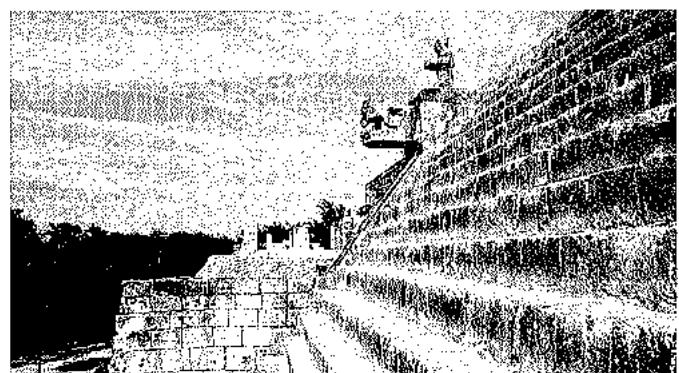
뒤에도 고원지대의 전통인 인신공양의 의식을 계속한다. 뱀을 테마로하는 조각과 건축의 디테일은 피라밋의 각면과 기둥, 계단 등에 새겨져있다. 스페인인에 의하여 카스티요(성채)라고 불리우는 피라밋은 20세기에 들어서야 복원된 것이다. 우슈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전의 피라밋에 덧씌워진 것이 발견된다. 피라밋 정상의 신전아래에 전혀 손상되지 않은 신전이 드러났을때 수백년전의 마지막 의식의 흔적이 차크-몰(Chac-Mool)과 붉은 재규어의 왕좌에 남아 있었다. 살아있는 인간의 사지를 불잡고 예리한 돌칼로 찢은 가슴에서 꺼낸 고동치는 심장을 놓았던 차크-몰의 둘레는 피빛으로 붉게 물들이 있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차크-몰이 「용사의 신전」 위에서 피라밋을 지긋이 쳐다보고 있다. 캐찰코아틀의 기둥을 배경으로 심장이 놓이는 쟁반을 가슴에 안고 눕지도 않지도 못한 어중간한 자세로 먼곳을 쳐다보고 있는 차크몰의 표정은 무어라 꼬집어 표현할 수가 없다. 인간들이 벌리는 피의 제전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우는것 같기도하고 웃는것 같기도 한 표정은 갈길 바쁜 여행자를 그자리에 한참이나



치첸잇사-피라밋은 역사의 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치첸잇사-기둥과 벽의 폐허



치첸잇사-희생자가 오르는 계단은 천지의 조화에 대한 인간의 도전을 의미한다.



치첸잇사-시장의 중심을 이루는 패티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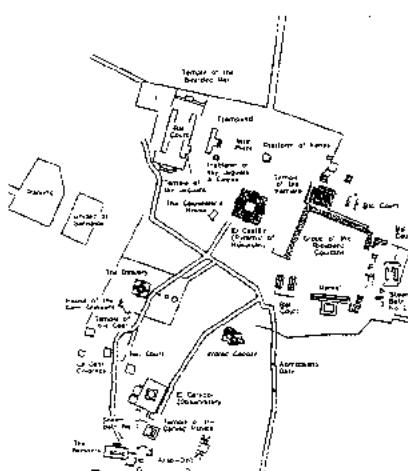
치첸잇사-용사의 사원을 에워싼 쿨로네이드

서 있게 한다. 생사람을 던져 넣었다는 성스러운 우물과 함께 태양과 비를 비롯한 하늘의 조화를 인간의 회생으로 감당하려 하였던 인간의 열망을 이곳에서 본다. 「천개의 기둥」으로 불리우는 열주의 행렬은 신전을 옆으로 하여 끝없이 이어지며 광장과 건조물들을 연결하고 있다. 채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유적들의 폐허를 지나면 회생자들을 셧킨 목욕탕이 있고 가운데에 폐티오를 둔 시장터가 있다. 허물어져 내린 지붕의 혼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와자지껄 하였을 장터의 풍경과 제단으로 향하는 영광스런 회생자의 행렬이 오버랩된다. 발길에 채이는 돌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 유적의 데미를 되돌아 나온다. 깊은 숲속의 푸른 그림자속에 잠자고 있는 옛 도시의 모습이 마치 신기루처럼 어른거린다. 우슈말에서 보다는 오르기 쉬운 피라밋의 정상에서 보았던 천체관측소와 구기장이 있는 곳까지 가보기에는 이미 늦어 해가 지고 있다. 땅거미가 드리우고 있는 마야의 옛 도시를 뒤로 한다. 온두라스의 코판, 과테말라의 티칸, 타バス코의 팔렌케 등과 함께 마야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 두곳을 둘러보는 것으로 마야기행은 마무리된다. 잠

자리로 예약된 칸쿤으로 가는 버스속에서 오늘의 경험을 되새김하여 보지만 얇은 지식으로 전체를 이해하기란 역부족임을 느낀다. 중남미지역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미야의 상형문자와 장식과 조각의 상징성, 건축의 특질을 읽어낸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이미 자신의 언어로 불리우지 않고 다른 세계에서 온 정복자의 언어로 고유명사가 대체된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한 느낌만 가슴속에 가득하다. 태평양 연안의 아카풀코를 능가한다는 카리브해안의 휴양지 칸쿤의 현란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메스티조가 주는 홀라벵고의 박자가 들려오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여행은 단락을 마무리한다.

“그들은 여느 때처럼 고함을 지르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들이 쏘는 활, 창, 돌에 맞고 우리 중 다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평지에서는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길을 택한다면 마야인을 혼내주지 못하게 됨으로써 연약하게 보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샤를 5세에게 보낸 에르난코르테스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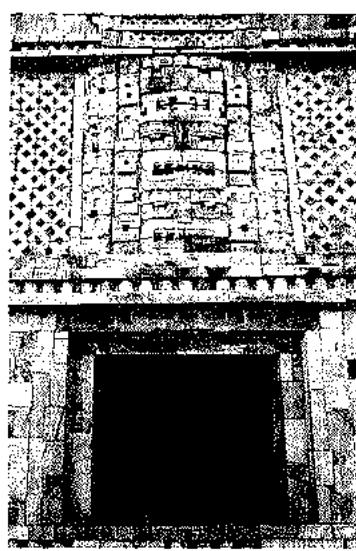
치첸잇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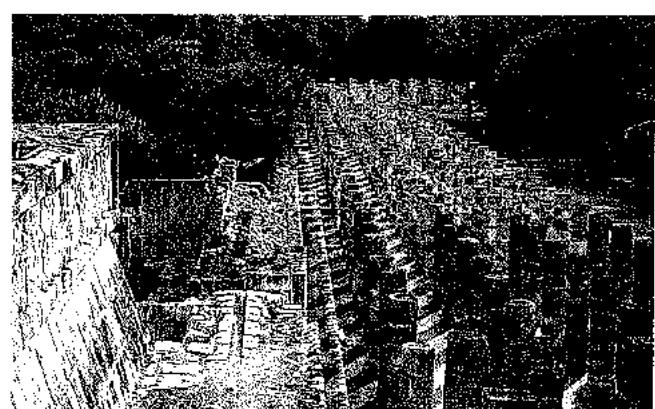
치첸잇사-천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공간의 연계성은 놀랍게도 매우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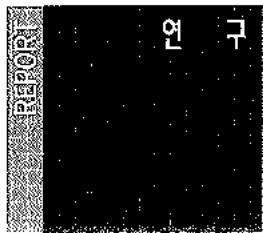
우슈말-벽체 파낸 듯이 보이는 마야 아침



우슈말-동쪽 건물의 문은 상징적이다.



치첸잇사-용사의 사원으로부터 클로네이드는 도시공간으로 확장된다.



도시환경과 건축문화(4)

Urban Environment & Architectural Culture

21세기를 대비한 한국도시의 발전방향

黃鏞周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교수
by Hwang Yong-Ju

5. 건축가의 직능

5.1 직업상의 윤리

건축은 사회의 여러 분야의 관련자들이 모여 협력체계, 때로는 경쟁체제를 이루며 실행하는 일이다. 이를 통하여 질과 코스트의 합수관계가 생기고 설계자, 건설기술자, 제조업자, 판매관계자간에 무수한 경로의 업무가 복잡하게 얹히며 진행되는 프로세스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가는 다른 분야 뿐 아니라 같은 건축가 동료와도 경쟁상태에 서게 된다. 어느 직업이고 마찬가지이겠지만, 건축가 모두가 완전무결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공정(公正)을 전제로 일정한 규칙을 만들고 모든 회원에 의하여 숭인을 받아 실시하게 된다. 대한건축사협회도 '윤리규약'을 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주(설계업무 위탁자)에 대한 책임과 임무 준수
- 업무상의 비밀 준수
- 부당한 경쟁행위와 덤팡 방지
- 건축주와 도급업자 등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판정
- 동업 건축사 간의 업무상 관계
- 부당한 광고와 허위선전 금지
- 개업 건축사의 경직금지(일반회사, 국가기관, 대학교육 등)
- 피고용자에 대한 기술 향상 등의 편의 제공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은 건축가가 실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부분의 문제일 뿐이어서 바람직한 건축가의 위상을 유지하는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건축가는 전통적 문화가치를 이해하며 우리의 어두운 현실에 의하여 왜곡되고 단절된 인간환경을 창조하는 소명감으로 공공의 이익, 건축주와 시공자, 건축산업, 예술성과 기술성(과학적) 획득을 위하여 창조적 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윤리 강령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 공공에 대한 책임으로서 법과 공공의 안전,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노력,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시민과의 관계와 봉사, 인권존중에 대하여 전문성과 성실성을 지켜야 한다.
- 전문직능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는 책임으로서 자격면허에 관련된 사항과 자신의 작품과 경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허위행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동료에 대한 책임으로 동료 건축가, 협동자, 고용건축가를 위하여 적합한 자연환경, 공정한 보수,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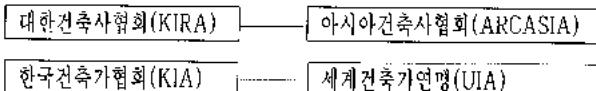
5.2 건축가의 직능단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가 문화부산하의 한국예술인총연합회(예총)의 분과단체로 가입하여 주로 건축을 문화예술로서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것에 반하여 후자는 건설부로부터 '건축사'의 자격을 획득한 건축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등록을 마친 건축사들로 결성된 단체이다.

이 제도는 영국의 왕립건축가협회(RIBA), 미국의 건축가협회(AIA)처럼 하나의 통합된 직능단체로 독립되어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르며,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닮고 있다. 각 단체는 국제기구에도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제도와 거의 같은 일본의 경우는 80년대 후반부터

신일본건축가협회(JIA)가 UIA와 ARCSIA에 모두 국가대표로 참가하고 있다.



가. 대한건축사 협회

건축사는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건축사법 2조)를 말하며, 건축사가 개업하고자 할 경우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다.(대한건축) 사협회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1965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난 30년 동안 격변하는 사회상황속에서 도시의 근대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건축사협회는 현재 본부와 15개 지부의 지역건축사회를 두고 있고, 본부는 비상근조직과 상근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지로 「건축사」를 월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건축사의 교류와 화합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건축사대회」는 크게 내실이 없으며, 건설부등과 연대하여 시행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학생부/신인부/준공건축물부)도 심사방법이나 심사기준의 애매함으로 아직은 협회의 위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협회는 「건축사의 권익과 위상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단체임에도 소극적이며 타성적인 운영으로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나.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가」라는 명칭은 건축에 관한 창작활동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작가를 의미함으로, 면허를 받아 설계·감리업무를 행하는 「건축사」보다 그 직능에서 포괄적 의미를 가진다. 1957년 「한국건축작가협회」의 이름으로 창립된(한국건축)가협회(1959년 개칭)는 「건축가의 자질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제건축가연맹의 가맹기구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제교류를 통하여 건축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2년 문공부(현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 예술단체총연합회(예총)」에 가입하였고, 1963년 세계건축가연맹 회원국으로 국제교류를 시작하였다.

가협회가 실시하는 중요한 행사는 「건축대전(학생과 신인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공모전과 기성건축가를 위한 초대작가전으로 구성된다)」, 「협회상」 시상 등을 포함하는 「건축가 축제」이다. 그외에도 건축문화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테마로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며 기관지로 「건축가」지를 월간으로 발행한다. 그러나 문예진흥원 보조금과 회원의 회비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단체이므로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그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문화활동으로서의 장기 정책을 수립하기에 역부족이다.

UIA 회원국이지만 국제교류 활동이 미미하여 선진국의 건축가협회에 비하여 위상이 크게 약하며, 「건축대전」의 전시회 역시 타성적인 운영방법때문에 실효

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건축가 축제」의 「협회상」도 크게 권위가 없어 전체 건축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설정이다.

다. 조직과 역할의 중복

두단체는 상당히 많은 수의 회원이 서로 중복되어 있고, 〈표 3-1〉, 전국적으로 지부가 결성되어 있으며 유사한 연구분과기능이 겹쳐 있으므로 〈표 3-2〉 역할이 분명치 않고, 서로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전문인력을 낭비하여 실제업무와 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표 3-1〉 건축 3단체의 회원수와 지회

구분	사협회	가협회	학회
회원수	4,000명	800명	5,400명
지회	15	8	8

〈표 3-2〉 설계관련 두 단체의 연구분과위원회 구성

후 분	사협회	가협회
연구분야	설계·감리	건축설계
	도시설계	도시환경
	환경디자인	실내설계
	구조·시공	구조설계
	전통건축	건축역사
	에너지설비	건축평론
기관지	건축사(월간)	건축가(월간)

라. 건축전람회와 건축상제도

건축가 단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건축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것 뿐 아니라 사회에 건축가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이해를 돋는 노력에 있다. 도시의 수많은 건축은 흔하게 시민대중에게 노출되어 이용되고 있지만 건축은 사회의 여러가지 문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를 통하여 정확하게 건축을 이해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혹은 특별히 기획하여 여는 전축전람회, 건축가전람회는 건축활동(issue)과 가치(value)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건축전람회는 그 속성상 미술전람회와도 다르고 홍보전시회와도 크게 다르다. 물론 전시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건축전람회는 그 시대의 건축가들의 전시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건축전람회는 그 시대의 건축가들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복돋우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기획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 비쳐진 건축이야말로 그 시대에 엄청난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릇 질 높은 전람회가 그러하듯이 그 속에 담겨질 내용이 사회적 이슈를 담거나 미적, 예술적 관점에서 관심을 끌거나, 혹은 건축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이념을 표출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상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상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겠지만 실은 그 상의 가치가 충분치 못하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해(害)가 된다. 상은 그 상을 받는자가 명예스럽게 여겨야 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할 만큼 권위와 명예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수상목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수상대상이 선정되어야 한다.

때로는 건축가의 업적에 대하여, 혹은 특정한 작품에 수여하는 건축상을 가능한 한 비슷한 것끼리 통합하여 최고의 영예와 권위가 서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 국내 건축상 현황

- 건축가협회상(한국건축가협회)
- 한국건축문화 대상(건설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
- 김수근 문화상(공간사)
- 서울시 건축상(서울특별시)
- 건축가협회특별상·조평건축상, 아천건축상, 양풍학생건축상, 엄덕문건축상(한국건축가협회)
- 강구조작품상(대한강구조학회, 포함제철)
- 국외 건축상 현황
- 프리커상(Pritzker Prize)
- AIA 골드메달상(AIA Gold Medal Award)
- 알바 알토상(Alvar Aalto Award)
- 일본건축학회

마. 새롭게 변하여야 할 건축가 단체

두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협회와 가협회가 그 설립 목적과 기능에 따라 분리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각각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인식하고 극대화하여, 서로 협력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하며, 언젠가는 다른 나라처럼 하나의 건축사(가)협회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 대회」, 「한국건축문화대상」과 같은 외형적인 실적보다 건축사의 업무에 관련하여 절 높은 실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 건축사 실무에 대한 연구, 개발
- 불합리한 각종 법령, 행정제도의 검토와 개선 제안
- 설계도서의 체계화, 표준화 작업
- 협회의 방만한 조직과 사업에 따르는 문제점 제거(합리적인 기구로 재편성하여)와 같은 실질적 작업에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을 문화적 차원에서 인식하면서 건축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에 건축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획일적이며 실적 위주인 「건축대전」운영은 전면 재검토, 개선하여야 한다.
-「건축가 축제」를 시민과 사회에 건축문화의 건축가의 역할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기획하여야 한다.
-세계 속의 한국건축을 지향하며 상호 교류를 통하여 우리의 건축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단체가 앞으로 추구하여야 할 목적은 무엇보다도 직업상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에 대하여 건축사(가)의 서비스를 한층 향상시키는데 있다. 다수의 건축사(가)는 자격을 인정받고 윤리의 규정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면서 회원이 된다. 단순히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거나 명예단체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회원의 권리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명실상부한 조직을 구성

〈자료 1〉 외국 건축가단체의 조직과 기능

□ 미국건축가협회(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창립 1857
본부 워싱턴 D.C
회원 5,200명(1993년 현재)
(우리나라와 달리 등록건축가 모두가 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과 기능

- ①건축가를 돋는 기능
 - .출판·월간지 ARCHITECTURE, AIA 뉴스레터 MEMO
 - .전문적 개발·세미나, 워크숍, 오디오테이프 프로그램, 경영/운영기법 개발
 - AIA 크레디트-이름에 AIA 이니셜 사용
 - .동료 건축가와 교류 모임
 - .건축교육·대학, 학생, 인턴쉽의 교육 연계
 - .위원회 활동
 - AIA 작품상, Gold Medal상, AIA Fellow-ship 프로그램
 - .AIA 서점
 - .보험
 - AIA 카드 서비스
- ②건축가 사무실을 돋는 기능
 - .건축가 사무소간의 회의
 - .자매사무소 소개
 - .운영, 재무, 경영에 관련된 상담 및 진단
 - .보상, 책임에 대한 보증
 - .성공적인 실무를 위한 정보, 가이드 제공
 - .Architect's Handbook 발행 (1920년 초판 발행)
 - .다양한 표준계약서(contract document)제정 (1993년 제정, 현재 12종)
 - .원활한 수주활동을 위한 자료 MASTER SYSTEM'S REP 발행
- ③직능을 돋는 기능
 - .건축가의 공공적 위상을 높이는 사업
 - .건축주를 교육시키는 노력
 -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업
 - .현재와 미래의 건축가의 직능에 대한 리서치, 건물과 건설사업에 대한 분석(정보, 경향, 예측, 신상품, 고용기회)
 - .직종의 윤리규정 제시, 실시
- ④예비건축가를 돋는 기능
 - .예비건축가에 대한 준회원 제도
 - .AIA/NCARB Intern-Architect Development Program(IDP)이 제정한 기준과 프로그램
 - .건축가 서함에 필요한 handbook 출판
 - .AIA 활동에 참여기회 제공
 - .실무개발을 돋기위한 Audio-cassette 프로그램 개발

□ 영국 와일드건축가협회(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창립 1834년
본부 런던, UK
회원 28,500명(1990년 현재), 개인 52%, 공공 24%, 외국 17%, 학생 7%

- 지회 11지회, 80분회
기능 RIBA에 의하여 운영되는 부설 법인 설립(1968-1970)
- ①RIBA Service Ltd (RIBAS)
 - .계약 사무국, 컴퓨터 서비스, 실무 워크숍
 - .RIBA 인테리어 디자인 Selector
 - .RIBA Office Library 서비스
 - .RIBA 기술정보 마이크로화일(RIBAti)
 - .RIBA 제품 Selector
 - .현장 안내판
 - .RIBA 제품 DATA
 - ②National Building Specification Ltd(NBS)
 - .NBS
 - .Standard Method of Measurement(SMM7)
 - .바인더, 워드프로세스켓 'Specification Manager' 발간
 - ③RIBA Publications Ltd
 - .건축, 시공에 관련된 도서 및 실무자료 양식 출판
 - .66개 전통 서점 운영
 - ④RIBA Magazines Ltd
 - .월간 RIBA Journal, RIBA Interiors 발간
 - .Product Information Card(제품정보카드 발간)
 - ⑤RIBA Insurance Agency Ltd
 - ⑥RIBA Indemnity Research Ltd(RIBAIR)
 - ⑦The Architects Benevolent Society
 - ⑧기타특별기구
 - .Architects in Agriculture
 - .Architects in Industry and Surveyors Association(EASA)
 - .Ecclesiastical Architects and Surveyors Association(EASA)
 - .Society of Chief Architects of Local Authorities(SCALA)
 - .Association of Consultant Architects(ACA)
 - .Salaried Architects Group
 - .Women Architects Group
 - .Community Architecture Group

하고 활동하여야 하며, 그 기능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전문직에 관련하여 회원의 활동과 사무실의 운영을 도와주는 기능(계약, 운영, 재무에 관련된 실무 편람 발간 등)
-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기술정보, 각종자료, 세미나개최 등)
- 건축관련 각종 법제도의 연구개발 기능(법령, 심의 제도 개선과 제안 등)
- 미래의 회원(학생과 예비건축가)의 활동을 후원하는 기능(전시회, 세미나개설 등)

물론 단체가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기 위하여서는 상당수의 유능한 건축사(가)를 포함하는 전문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회원 모두가 적당한 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협회활동을 통하여 개인자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다고 생각되면 회비의 정수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5.3 시험과 인력양성

가. 건축가의 신분과 증명

건축가는 직업은 그 속성상 개인적, 독립적 성격이 강한것이 사실이다.

architect란 칭호를 사용하는 미국에서는 건축의 실무를 규제하는 규정이 주마다 달리 정해져 있으며 법률로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목적은 공중의 보호, 특히 시민의 건강,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건축설계 실무를 행하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변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으며, 설계감리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 기능과 판단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나. 건축사 시험

19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된 이래 법제정상의 모순과 운용상의 오류로 인하여 사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건축사를 적절히 배출하지 못하였다. 제정 당시의 경과조치법으로, 1,500여명의 건축사가 서류전형 만으로 일시에 배출되었고, 1980년 까지는 2급 건축사를 포함하여 연평균 100여명, 1980년 이후에는 특별전형제도로 2급 건축사가 1급 건축사로 전환되었다. 1982년 이후에는 건축관계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공무원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였다.

1984년 이후 응시자 수가 매년 적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의 약 5%에 불과한 약 200여명의 합격자만이 배출되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건축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한 불균형 상태와 사회경제 규모의 확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건축설계 공급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의 개념 정립이 되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표 3-3〉 연도별 건축사 배출현황

계	'65~'88	'89	'90	'91	'92	'93
6,073명	4,157	277	316	300	258	765

건축사 자격시험이란 실무를 수행하는 데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기본지식과 그 수행에 필수적인 설계능

력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건축사 수는 현재 5,490명으로서 이중 4,007명이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으며 총 건축사 수로 보더라도 인구 12,000명 당 1인의 건축사로서 이는 일본의 인구 2,000명당 1인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현재 건축사사무소 1개소당 연간 평균 30~40여건의 설계업무를 해결해야 한다는 통계수치를 보여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설계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에는 무리이다.

이러한 자격의 희소가치 때문에 건축설계를 하지 않고 단지 자격의 소유 만으로 경제적인 보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변질된 인식을 확산시켜 자격의 의미가 전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무경력 5~10년으로서의 실무의 종추를 이루는 건축사보 10,000여명이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매년 3~5개월간 휴직함으로써 좁게는 건축사사무소, 넓게는 국가 전체에 막대한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건축사 시험은 다른 시험제도와는 달리 1, 2차 시험중 1차 시험의 합격률을 당해년도 밖에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손실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축행위에 관한 자격시험에 관해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예처럼 학교 졸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와 프랑스, 독일 등의 예처럼 학교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부여하고 바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프랑스),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 후 활동이 허용되는 경우(독일)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처럼 건축학교의 교육이 곧 설계 분야로의 진출을 충분히 대비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교육을 받은 졸업생 중 설계분야로의 의지를 가진 자가 일정기간의 실무경력 후 시험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건축사 면허 자격시험은 설계 실무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제도가 되어야 하고,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기시험의 영구합격을 인정하며, 기본적 지식에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는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여 시험자체가 그 목적이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설계조직에서 건축설계의 실무를 실제로 경험한 수험자가 건축사시험에 다수 합격하는 원칙이 성립되어야 한다.

다. 건축가의 양성

건축가로서 설계실무를 시작하는 준비는 전문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유능한 건축가의 지도하에 일정기간의 수업경험(intern-ship)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드물 일이지만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건축설계조직에서 설계와 감리 업무를 포함한 업무의 실무경험을 쌓게 되는데 입소초기에는 드레프트 맨(draftman)으로 시작하여 차츰 업무를 익히면서 디자이너, 혹은 엔지니어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건축가로 독립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들은 구조나 설비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의 엔지니어로 장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업기간은 대체로 26세전후에 시작하여 대개 3~5년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실무경험은 건축사시험준비와도 관련이 있다.

- 기본설계도의 작성 및 모형제작
- 실시설계도의 작성(구조, 설비포함)
- 시방서의 작성
- 상세도의 작성
- 현장 공시감리

기본설계도와 모형제작은 대학교육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실시설계도의 작성은 비로소 설계사무소의 실무를 통하여야만 익힐 수 있는 부분이며 이 일을 해 내기 위하여서는 건축재료와 시공방법, 설비와 구조에 대한 공부가 병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방서를 작성한다든지, 현장에서 건축이 완성되는 과정을 감리업무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데 물론 이러한 경험을 쌓는 기회는 사무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므로 건축가 단체에서 예비건축가의 양성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장차의 인력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건축설계조직

건축설계 조직은 흔히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 대규모와 중·소규모, 혹은 개인조직과 협동조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개 건축가와 직원(디자이너, 엔지니어, 일반업무스텝)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2 혹은 그이상의 사무소가 협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획, 구조, 설비, 조경 등의 전문조직과 협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재의 건축사법에서는 등록된 건축사의 숫자에 따라 종합/단독사무소로 나누어 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건축사 자격에 구분이 없는 한 이 제도는 잘 못된 경우이며, 사무소의 규모에 따라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일은 비합리적이고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환경을 부응하는 설계조직은 오히려 전문성이 강하고,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전문조직이 협동하는 방법이다.

건축사사무소제도는 그 구성원과 업무 범위에 따라

〈표 3-4〉 외국의 건축사시험 제도와 등록제도 / 대한 건축사협회 자료

국가	건축사시험제도	등록제도	외국의 건축사시험 제도와 등록제도 / 대한 건축사협회 자료			
			국가	시험	등록	국내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 각 주별로 제도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예비시험 (구조, 시공 등)과 본시험 계획 등으로 나뉨 -응시: 대학졸업후 3~4년 -자격: 실무경력 필요 -시험기관: NCAAB(National Committee of Architect Registration Board) 	주정부에 건축가로 등록				
독일	<p>별도의 자격시험은 없으며, 대학과정(6년~10년) 후 2년간 실무수습을 받은 후 시험을 치른 후 건축가협회에 신청 하면 협회에서 건축기사로서의 자격증을</p>	건축기협회에 등록				
프랑스	<p>별도의 자격시험은 없으며, 5년간의 까다로운 대학(직업 교육 성적)과정을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DPLA(공인건축가 자격증)을 받게된다.</p>	건축기협회에 등록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 1. 2차 시험(학교교육내용)을 통과하면 2년 실무를 거쳐 3차시험(직업적 소양이, 관한 논술 및 구두 시험)에 응시 -시험기관: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대영왕립건축기협회에 등록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는 1급, 2급 및 특종건축사로 나뉨 -시험: 각급별로 다르나,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대하여 실시 -응시자격: 각급별로 다르나 1급의 경우 대학 졸업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 필요 -시험기관: 건설성 또는 도도부현지정 시험기관 	도도부현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				

「단독/종합건축사사무소」로 구분되어 있다. 〈표 3-5 참조〉

단독건축사사무소는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대다수가 10인 내외의 건축사보조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사무소이다. 한편 24%의 종합건축사사무소(3인 이상의 건축사로 구성)도 일부 50~100인의 직원이 있는 대형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소속 건축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무소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당초의 구분의도와는 다른 실정이다.

건축사법 제정(1963) 당시 면허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당시 건축행정서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 면허를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건축사법 3차 개정(1982)을 통하여 건축식 공무원에게 특별전형 시험제도를 실시한 반면에, 설계사부소 출신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험제도로 인하여 지난 30년간 설계경력이 있는 건축사가 많이 배출되지 못하였다.

〈표3-6〉, 〈표3-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건축사와 사무소 수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량이 많아 대국민 서비스에 충실히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4,200만명으로 볼 때 건축사는 5,490명으로 인구 100만명당 건축사수는 130명으로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적다.

6.1 업무활동

미국의 일반적 건축조직은 크게 영업부문과 비영업부문으로 나누어 진다.²⁾

비영업 부문은 투자관리, 재무관리, 법률관계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영업부문의 업무활동을 다시 (1) 개척사업, (2)설계사업, (3)공사감리업무의 세분야로 나눈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업무와 공사감리업무인데 설계업무는 기획업무,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방서작성 등이고, 공사감리업무는 공사계약, 견사, 시공도 검토, 변경사항의 처리, 승인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문별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업무(administration)분야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아직은 비영업 분야중 법률관계나 기술적인 자료에 의한 실시설계, 시방서작성과 감리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미약하게 보이므로 국제개방에 대비하여 착실한 준비가

〈표 3-5〉 건축사/건축사사무소 현황(1994.1.현재)/대한건축사협회 자료

구 분	인 원	사무소수	회 원
단독사무소	1	2,039	2,039
	2	90	180
	3	11	35
	소 계	2,140	2,254
	3	483	1,389
	4	138	540
	5	54	270
	6	10	60
	7	4	28
종합사무소	8	1	8
	9	2	18
	소 계	692	2,313
용역사무소	소 계	14	17
	합 계	2,846	4,584

획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무소 직원의 숫자와 기구의 규모에 따라 다소 업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건축설계업무는 다른 기술관련용역 조직과는 달리 개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10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은 전체 동록사무소수의 몇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단순한 계량적 기준에 의하여 '영세'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로 외국의 통계에서 보더라도 대규모 설계조직은 이른바 도시설계나 플랜트사업과 같은 대규모 특수사업에 참여하여, 도시에 건설되는 건축의 대부분은 중·소규모의 설계조직에 의하여 설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커지면 조직의 대표적인 건축가가 직접 설계에 관여한다는 일은 불가능 한 것이고 대부분 조직의 운영에만 전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가의 의지와 아이디어가 프로젝트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6.2 규모와 특성

가. 소규모 사무실

외국의 경우에는 조수도 없이 건축가 혼자서 개업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흔하다. 물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으나 개인 사무실의 경우 직원수와 사무실 확보 규정을 강요하는 현재의 제도는 잘못된 경우이다.

대개 3~5인의 직원과 건축가가 주택, 균린생활시설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설계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이며 팀으로 작업하기보다는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일관된 과정을 경험할 수 있고, 대표인 건축가도 충분히 일에 몰두할 수 있으므로 의외로 좋은 건축을 생산하기에 알맞은 조직이다. 다만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전문기술자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외부의 전문기

<표 3-6> 한국과 일본의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비교표
(일본의 전체 건축사 중 1급 건축사의 비율은 17%)

구분	면허소지자	사무소개설자	사무소수	비고
한국	5,490명	4,584명	2,846개소	94년초 현재
일본	725,000명	127,516명	68,066개소	89년말 현재

<표 3-7> 1993년 현재 국가별 건축사/인구비례표
(Progressive Architecture 9309)

인구백만인당 건축사수				
나라	인구(백만)	건축사수	인구백만인당 건축사수	
네덜란드	Netherlands	14.7	2,000	136
우크라이나	Ukraine	53.0	9,000	170
에스토니아	Estonia	1.6	350	219
리투아니아	Lithuania	3.8	900	236
라트비아	Latvia	2.8	800	285
포르투갈	Portugal	10.1	3,000	297
일본	Japan	123.0	740,000	166
미국	U.S.A.	250.0	85,000	340
아일랜드	Ireland	3.5	1,200	343
스페인	Spain	39.0	16,000	410
프랑스	France	55.6	24,200	435
룩셈부르크	Luxembourg	0.4	200	500
영국	U.K.	55.0	27,600	502
벨기에	Belgium	9.9	6,300	636
이탈리아	Italy	57.3	38,000	663
덴마크	Denmark	5.1	5,000	980
독일	Germany	62.0	67,000	1,080
그리스	Greece	9.9	11,700	1,182

술조직과 협동하여야 한다.

직원의 수가 5~9인 정도가 되는 사무실이면 소장격의 건축가가 2명 혹은 그 이상 있을 수 있으며 (partnership) 그 중 경험이 많은 건축가(디자이너)가 비영업관계의 업무와 개척업무나 기본설계, 이와 관련된 각종 회의, 통신, 출장을 담당하고 다른 파트너는 구조, 설비, 실시설계의 작성, 시방서작성, 공사감리 등의 책임을 맡아 분업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하게 되는 데 소장격의 디자이너, 엔지니어와 원만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자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공도의 검토까지 맡는다. 이 정도의 조직이라면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기본설계 까지만 수행한 후, 실시설계를 맡아서 제작할 별도의 조직과 협동도 가능하다.

나. 중규모 사무소

직원의 수가 10~30인 정도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책임건축가가 적당하며, 디자이너와 실시설계를 맡을 드래프트맨도 상급, 중급, 수련급의 3단계로 나누고 가능하면 일반도, 상세도, 구조도 등 전문분야별로 분화할 필요도 생긴다.

이런 시스템은 생산적인 관점에서는 효율적이므로 중간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무실에 적합하지만, 직원 모두가 의욕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관리상의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다. 대규모 사무소

30인 이상의 사무소가 되면 전문기술자의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대표급인 건축가들은 주로 경영에 주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건축가로서 교육, 경험을 가진 사람보다는 경영자로서의 교육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다른 전문경영인이 이 일을 맡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협력자와 일을 한다 하여도 건축가라는 직업인으로서 개인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무소의 파트너들은 프로젝트별로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데 각 담당 별로 기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일반업무 등 여러 명으로 한 팀을 이루고 시방서, 견적, 구조, 설비기술자 등과는 필요에 따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소장격의 파트너는 구조나 설계, 감리업무와 같은 전문분야를 맡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중규모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실시설계 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시방서 작성 전문가도 필요하다.

40인 이상의 규모가 되면 성격에 따라 횡적(horizontal), 종적(vertical) 조직이 필요하게 되는데 횡적인 방식에서는 기획, 설계, 구조, 설비, 실시설계, 시공감리 등이 부문에 따라 동시에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하여 종적방식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 담당자를 주축으로 그룹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어 독립된 사무실이 여럿 집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조권과 건축

Right to Sunshine and Architecture

朱命錄 / (주)인천건축사사무소
by Chu Myeong-Rok

아웃 일본의 각계 저명인사들이 사는 저택의 대다수가 목조건물로서 교외에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장수에는 세계의 선두에 서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각인각색의 취향 또는 직업의 특수성과 교육, 교통 등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사정이 허용된다면 복잡한 대도시에서 무리하게 일조권확보에 혈안이 될게 아니라 가급적 교외의 거주지역에서 충분한 일조공간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서 항상 건강하고 활달유쾌한 생활을 즐기며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옛날부터 우리민족은 햇님 숭양정신이 뿌리깊게 몸에 배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북반구에서도 눈에 띄게 일조시간이 긴 나라에 속하며,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들은 입을 모아 푸르고 높으며 아름다운 가을하늘을 찬양한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조건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햇님 숭양에는 좀 고루한 데가 있어서 주택을 매매할 때의 분위기를 보고 있노라면 일반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향집을 많이 선택하는데, 햇볕이 잘 들어오는 집은 즉 행복과 선과 부를 상징하며 햇볕이 잘 안드는 집은 불행과 악과 빈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또 햇볕이 좀 가려지느니 일부가 그늘이 지느니 하고 큰 일이나 날것같이 기피하는 것을 보아도 햇빛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뿌리깊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말이 표제에서 좀 이탈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젊었을 때는 흥가란 말을 종종 들을 수가 있었다.

이런 집에서는 웬일인지 원인도 모르게 시름시름 않다 죽는 사람, 정신질환을 앓다 죽는 사람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죽는 등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아 그로인해 신음하다 폐가상태가 된다고 하며, 제아무리 햇볕이 잘 들고 잘 지어진 집이라해도 팔리지가 않고 흥가란 낙인이 찍힌 채 방치된다.

흥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끊이겨서 기본적이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단층 목조 와가로서 일반주택과 조금도 다른 데가 없고 또 주위환경 역시 일반 주택가와 전혀 다른 데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흥가의 낙인이 찍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무척 노력도 해 보았으나 그 주변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끝내 알 수가 없었다.

그후 항시 반신반의 궁금한 상태에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 외서에서 흥가 등에 대한 해명을 볼 수가 있었다.

그 책에 따르면 그런 흥가의 지하에는 반드시 수맥이 관통하고 있다며 이 수맥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맥을 끊어 버리거나 그 수맥을 피해서 옮겨 지으면 흥가의 오명을 씻을 수가 있다고도 했다.

또한 사찰 등의 큰 목조 건물에서 자다가 심야에 느닷없이 바닥에서 물건이 구르는 소리 또는 메로 어딘가를 내리치는 소리 등으로 깜짝 놀라서 도깨비가 나왔느니 귀신의 장난이니 하며 소동이 벌어지는 이 괴음현상은 큰 목재 부재의 이음 맞춤 등의 접촉부위에서 수축 또는 팽창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으며, 조용한 심야에 더욱더 크게 들리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태양광선에는 살균작용이 있다고 한다. 그것을 알고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우리네 아낙네들은 옛날부터 세탁물을 남의 눈에 띄건 말건 햇볕이 잘 쪼이는 곳이면 어디에나 펼쳐 말리는 습성이 있었으

며, 지금도 아주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나 수년전만해도 이런 광경이 많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남의 눈에 띄는 곳에서 세탁물을 말리면 주위의 주민이나 경찰관의 호된 주의를 받게 된다고 하며 그 지방의 시 조례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한다.

각설하고 요즘 신문을 보면 일조권 등의 건축과 관련한 분쟁기사가 간간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편해짐에 따라서 건강과 장수에 관심이 많아지고 각자 자기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다보니 인구는 많고 국토는 좁다 좁으니 어쩔 수 없이 일조권이나 경계선 분쟁 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제3자의 입장인 사람이 여기에 월가월부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다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대도시 빌딩가에서는 일조권의 실효를 거두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물론 거기에 적절한 법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해당초의 입법취지 그대로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어도 대도시의 경우만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지금의 실정인 것 같다.

현행법대로 일조권을 확보했다고해도 매연과 분진에 오염되고 탁해진 공기층을 통과해야 하며, 대소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태양광선의 행로에 많은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어 그로 인하여 광선의 차단이 많아지는 등 인체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도시의 실정이 아닌가 싶다.

거듭 말하지만 위법없이 설계시공 되었다해도 대도시에서는 시간때에 따라서는 높은 구조물 때문에 이디에선가 태양광선이 차단되어 일조의 실효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게 된데가 여기저기에 있다.

그러나 일조권의 혜택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구라파인 들처럼 나체가 되어 자주 일광욕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광욕을 자주하는 사람들의 거주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맑은 하늘과 긴 일조시간의 천혜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문불출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한 건강에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오염되고 탁한 공기층과 콘크리트의 숲 때문에 대도시 주민은 태양의 혜택이 감소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콘크리트 건물의 벽은 인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자외

선의 투과를 차단해 버린다.

목조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면 자주 외출을 하지 않아도 자외선이 투과되니까 얼굴색도 별로 변하지 않고 건강이 유지되나 콘크리트 건물에 거주하면서 자주 외출을 하지 않으면 희멀건한 얼굴색으로 벼하고 감기나 천식 등에 걸리기 쉬운 약체로 변할 염려가 많다.

대도시 주민이나 지하실 종업원 등에서 이런 예를 흔히 볼 수가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비단 자외선 뿐만이 아니라 원자폭탄 폭발시 발생하는 무서운 죽음의 감마선도 벽두께 40cm면 투과를 저지할 수 있으며, X선도 납판으로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두께 40cm 콘크리트 막으로 차단이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약간 막연한 감이 없지 않으나 대개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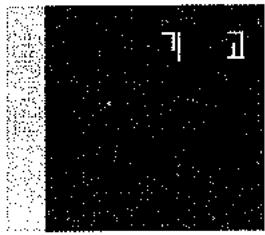
이웃과의 경계선 분쟁의 일례인데 지적도와 측량에 의거하여 담장 시공이 시작될 단계에서 옆집의 강력한 향의에 부딪쳐서 할 수 없이 시공을 중단하고 옆집에서 했다는 측량말목 위치와 대조해 보니 이쪽 A측량사무소에서 한 것과 옆집에서 신청한 B측량사무소에서 한 것間に 오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이상히 여겨져서 이번에는 C측량사무소에 신청해서 3차 측량을 한 결과가 1.2차 때와는 또 약간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정신이 어지러울 때가 있다.

이럴때 까다로운 이웃끼리 만나면 2,3년 또는 그 이상 길게 가는 장기분쟁으로 번질 염려가 있다.

그런데 약간의 측량의 오차는 공식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니 측량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미세한 오차 같은 것을 묵인하고 사는 것이 혁명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이 된다.

이웃 일본의 각계 저명인사들이 사는 저택의 대다수가 목조건물로서 교외에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장수에는 세계의 선두에 서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각인각색의 취향 또는 직업의 특수성과 교육, 교통 등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사정이 허용된다면 복잡한 대도시에서 무리하게 일조권확보에 혈안이 될게 아니라 가급적 교외의 거주지역에서 충분한 일조공간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서 항상 건강하고 활달유쾌한 생활을 즐기며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1. 남산아파트 사업배경과 규모

(1) 사업배경

서울정도 600년을 맞아 그동안 훼손되었던 남산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전시민의 당위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대표적인 훼손 시설로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던 남산아파트(2개동)를 손상된 자존심 회복과 애향심을 갖는 계기로 삼고 건축물 발파해체 공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래식 공법을 탈피, 발파해체 공법을 택하였다.

(2) 건물개요

구조물 발파해체공법

Building Blasting Demolition System

-남산아파트 발파해체를 중심으로-

全泰秀 /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

by Chon Tae-Su

구분 동	총 수	세대 수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1동	16	210	1,761.5	29,216
2동	17	217	1,760.0	30,382
계		427	3,521.5	59,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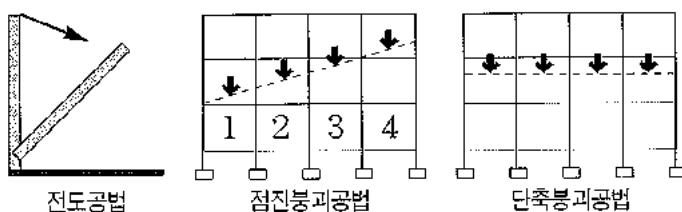
- 평형 : 28~40평
- 건물구조
 - 기둥: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중앙부: 전단 코아벽 구조
 - 기초: 철근콘크리트 독립기초
- 건립년도 : 1972. 1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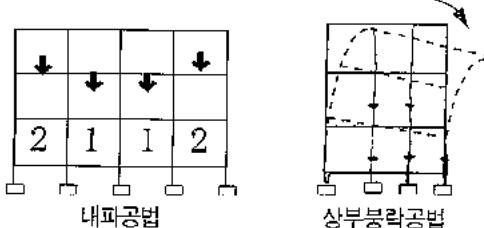
2. 공법 개요

건물해체공법에는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상층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공법인 기계식공법과 미국에서 1940년대 개발된 발파해체공법이 있다. 기계식해체공법은 분진, 소음이 장기화되고 일정규모(5층) 이상은 비경제적인 단점이 있으나 발파해체공법은 구조물에 시차를 두어 기둥, 보, 전단벽 등을 화약으로 절단하여 불균형(Unbalance) 상태로 만든 후 자체 중력에 의하여 붕락되게 하는 공법으로 기계식해체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발파해체공법에는 빌파층의 빌파순서에 따라 윗층에서 아래층으로 빌파(Top→Down)하는 방식과 아래층에서 윗층으로 (Down→Top) 빌파하는 방식이 있으며 현장여건, 빌파순서를 여하히 택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종류로 대별된다.

- 전도공법(Felling) : 일정한 방향으로 구조물 전체를 한꺼번에 전도시키는 공법
- 단축붕괴공법(Telescoping) : 빌파층 전체를 일정하게 수직으로 붕괴시키는 공법
- 내파공법(Implosion) : 한쪽에서 바깥쪽으로 붕괴시키는 공법
- 점진붕괴공법(Progressive Collapse) :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차례대로 붕괴시키는 공법
- 상부붕락공법(Topping) : 전도공법과 단축공법을 혼합한 공법





남산아파트의 경우는 높이보다 길이가 길고 고층이었으므로 단축붕괴공법과 점진붕괴공법을 혼용하였으며 아울러 아파트 앞쪽으로 호텔 및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남산 기슭으로 약간 경사를 주어 붕괴를 유도하였다.

3. 수행절차

발파해체 공사는 모든 공정이 발파해체 결과의 성 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사전파쇄를 과도하게 했을 경우 뜻하지 않은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부족하게 했을 경우에도 붕괴거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천공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상 부재의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장재 철거부터 발파까지 어느 한 공정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발파해체공사의 주요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발파대상 건물구조와 주변현황 조사
- (2) 붕괴공법의 선정
- (3) 주변시설물의 안전성 검토 및 기준설정
- (4) 발파해체 설계
- (5) 각종 인허가 및 주민 홍보
- (6) 내장재 철거
- (7) 사전 철거 실시
- (8) 천공
- (9) 사용 폭약 선정, 시험발파용 방호막 설치
- (10) 시험발파
- (11) 화약량 선정
- (12) 장약 전색
- (13) 방호막 설치
- (14) 결선 및 최종점검
- (15) 주민대피 및 교통차단
- (16) 발파
- (17) 불발 및 잔류화약조사
- (18) 주변시설물 이상유무조사
- (19) 주변 청소
- (20) 계측 확인 및 봉락형태 분석
- (21) 파쇄물 처리 및 2차 파쇄
- (22) 재활용 자재분리 반출
- (23) 공사 완료

4. 주요 검토사항

(1) 안전성 및 환경공해

가. 진동

발파해체시 발생하는 진동에는 발파에 의한 진동과

파괴된 구조물의 낙하에 의해 생기는 진동이 있다. 아래 표 1은 서울지하철 공사시 적용되었던 진동허용치이다. 이 표를 기준으로 할 때 주변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통 0.5cm/s내로 진동을 제어해야 하며 남산아파트 공사에서도 0.5cm/s로 진동 허용치를 설정하였다.

나. 소음

표 1. 서울지하철 공사 발파진동 허용치

구 분	I	II	III	IV
건물분류	문화재, 컴퓨터	주택,아파트	상가	R.C 건물 및 공장
건물기초의 허용치 (cm/s)	0.2	0.5	1.0	1.0-4.0

기계식 해체시는 비교적 큰 소음이 장기간 발생하지만 발파시 발생하는 소음은 비교적 작으면서도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발파해체에서는 지발낭 장약량 및 부재간 시차조절을 통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1, 2차 방호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발파소음의 유출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타자 소음은 60dB, 도로교통소음 80dB, 착암기 소음 100dB 그리고 지하철 소음은 108dB정도이다. 그리고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소음수준이 140dB정도이므로 발파소음을 140dB이하로 제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남산아파트의 경우는 설계기준을 150dB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계측결과 139dB로 기록되었다.

다. 폭풍압

표 2. 기계식해체와 발파해체의 소음비교

기계식 해체	발파해체
브레이커 : 91dB(15m)	장비소음(소합사) : 91dB
암쇄기 : 78dB(15m)	발파소음 : 130dB

발파해체공법은 폭풍압이 발생되므로 발파시 주변 건물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약 100-130dB정도가 바람직하다.

라. 비석

표 3. 폭풍압의 정도에 따른 구조물의 영향

폭풍압	구 조 물	
	kg/cm ²	dB
0.06	169	창유리가 파손된다.
0.08-0.1	171-174	창유리가 거의 파손된다.
0.15-0.2	177-180	창틀 및 건축부착물의 파손시작
0.25-0.3	182-183	창틀 및 건축부착물 파손
0.40-0.5	186-183	기왓장이 파손
0.60-0.7	189-190	지붕발침, 기둥 등이 파손
1.50	197	약 16평 정도의 기록파괴

발파해체시 발생하는 비석은 폭약의 폭발력에 의한 것과 파쇄구조물의 낙하시 서로의 충격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비석을 제어하기 위하여 장약부위에 철망 및 부직포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방호를 실시하고 발파충의 청문과 같은 개구부에도 역시 철망 및 부직포를 이용하여 2차 방호를 실시하게 된다.

남산아파트의 경우 22m 이격된 3층짜리 개인주택의 유리창 하나도 전혀 손상이 없었을 정도로 완벽한 비석제어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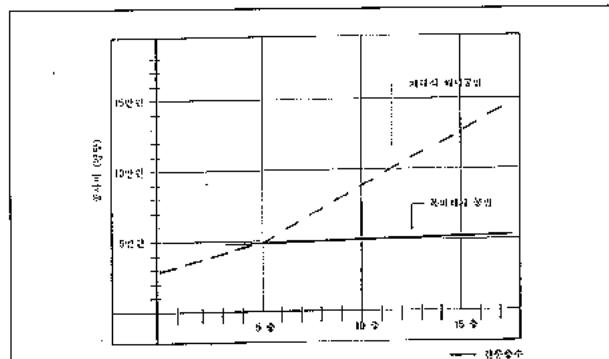
마. 분진

기계식 해체 작업시에는 비교적 소량이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진이 계속 발생하나 발파해체시에는 대량의 분진이 발파후 2-3분동안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발파해체시에는 사전에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사하여 분진 비산 예상지역 주민들에게 세탁물 및 음식물 등의 관리에 협조를 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발파후 발생하는 분진의 제어를 위하여 발파 직후 살수차를 투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주변 지역에 대한 신속한 청소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경제성

다음의 그림 1은 각 발파해체 공사현장에서 적용되었던 공사비를 기준하여 비교 산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5층이하는 기계식 해체공법이 경제적이고 고층 건물일수록 발파해체공법이 경제적이나 주위여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1] 기계식 해체와 발파해체의 공사비 비교

(3) 공기

발파해체에서 비록 구조물의 해체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전체 공사를 완공시키기까지는 적지 않은 공종과 공기가 필요하다. 즉 구조물의 사전조사부터, 사전파쇄, 방호작업, 천공, 장악 및 결선 등의 발파전 공기와 발파후 2차파쇄 및 파쇄물의 재활용작업 그리고 그것의 반출과 같은 발파후 공기가 있다. 특히 재활용 반출시기와 반출장소와의 여건이 제대로 맞아야 경비가 절약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2차 파쇄물을 타장소로 옮길때는 운반비 등을 감안한 매립지 또는 반출장소가 선정되어야 한다.

한편 남산아파트의 경우 공사착공시부터 발파까지 순수 공사기간은 약 40일, 2차파쇄 및 재활용자재생산 반출까지는 총 130일 소요되었다.

5. 주요 설계사항

(1) 내장재 제거

내장재 철거란 각종 배관재 및 창호재, 수장재, 천정

재, 아스타일, 철재류, 알루미늄 세시, 석면, 유리섬유, 생활쓰레기 등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폐자재를 미리 제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회수, 발파후 인체에 해로운 부유성 자재의 제거 등 원활한 붕괴거동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이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대상은 유리섬유, 석면 등의 부유성 내장재로써 제거하지 않을 경우 발파후 오랫동안 공기중에 잔존하게 되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사전파쇄

정확한 붕괴 및 전도를 위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전에 구조물을 절단, 내벽을 제거하는 작업을 사전파쇄라고 한다. 이것은 주로 발파충내 폭약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일부 부위 및 비내력벽에 대해 실시하게 되는 바 붕괴패턴에 영향을 주는 장성이 큰 굴뚝, 계단 및 수직배관 등은 사전에 절단하여 붕괴거동에 지장이 없게 하는 파쇄와 붕괴패턴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사전취약화(Pre-Weakening) 작업이 있다.(그림 1-1. 사전파쇄)



[그림 1-1] 사전 파쇄

(3) 발파충 선정

구조물의 붕괴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발파충의 선정이다. 최소의 발파충 및 발파부위를 선정하여 구조물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붕괴시킴과 동시에 파쇄물이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낙하하게 만들어 지반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 또한 발파해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중에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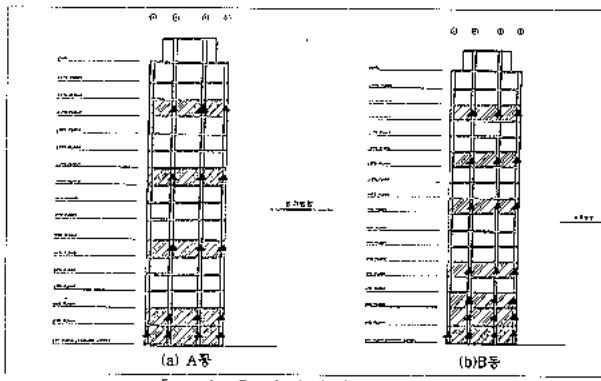
한편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는 기둥 및 일부 내력벽체에 대해서만 발파를 실시하며 붕괴방향에 따라 내부 기둥에만 발파를 하는 경우와 내부 및 외부 전체 기둥에 발파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발파충수는 아

표 4. 건물높이에 따른 장악층의 선정

건물층수	장악층
5층	1,2층
8층	1,2,5층
10층	1,2,5,8층
12층	1,2,6,9층
16층	1,2,6,10,14층
25층	1,2,6,10,14,18,22층

래 표 4와 같으나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산아파트에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그리고 효율적인 봉괴거동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16층인 A동에는 1,2,6,10,14층 등 5개층을, 17층인 B동에는 1,2,3층 일부 5,9,12,15층 등 모두 7개층을 발파층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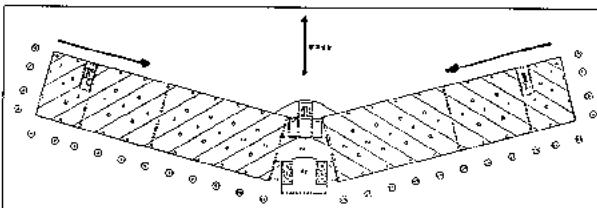


[그림 2] 남산아파트 발파층

(4) 발파시자

발파해체에서는 층별, 위치별로 발파부위마다 상당히 미소한 시간차이를 두고 발파를 실시하게 된다. 이것은 원하는 방향으로 붕괴를 시키기 위해서 뿐 아니라 건물을 몇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낙하시키므로써 먼저 낙하된 파쇄물로 인한 완충 효과때문에 지반에 전달되는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고 비석 및 폭풍압을 저감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 0.5초 정도의 시차가 가장 적당하며 시차선택이 발파해체공법의 가장 핵심기술 중의 하나이다.

한편 남산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날개부 끝에서 중앙 코어부쪽으로 #0번부터 #13번까지의 0.5초 전기식 지발뇌관(HSD)을 대각선모양으로 배열하여 사용하여 점진붕괴와 단축붕괴가 일어나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3] 남산아파트 발파시자 배열

(5) 천공

천공은 구조부재에 폭약을 장전하기 위해 착암기를 사용하여 발파층의 기둥 및 일부 내력 구조부재에 실시하게 된다.(그림 4) 천공은 직경 41mm-30mm(폭약경이 통상 28mm-25mm)로 부재의 형상에 따라 4공 내지 1공씩 수평으로 실시하는데 수평천공을 하는 이유는 천공과 방호, 장약 작업이 경사천공보다 훨씬 용이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천공간격은 부재의 폭과 길이 그리고 천공수에 따라서 결정한다.

남산아파트에서는 1층 기둥에 4공씩, 상부층 기둥에 1-2공씩 그리고 내력벽에 2-3개씩 모두 2,261공을 천공하였다.

(6) 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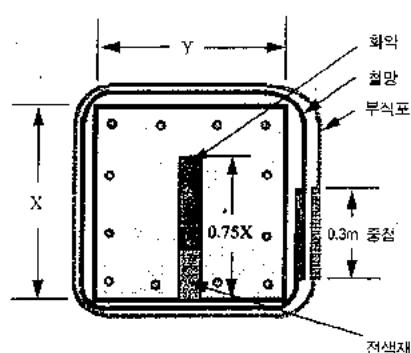


[그림 4] 천공

방호는 1차방호와 2차 방호로 구별된다. 1차 방호막은 폭약이 폭발시 순간적인 발파에 의한 비산과 폭풍압에 대한 1차 차단벽 역할을 하게 된다. 천공이 완료된 부재에 대해서는 철망과 부직포를 사용하여 순서대로 방호를 실시하며 비석발생이 특히 우려가 되는 부재는 2겹으로 방호를 실시한다. 이때 천공부위의 철망은 절단기로 끊어놓고 부직포는 칼로 구멍입구를 끊어놓아 장약시 지장이 없도록 한다.(그림 5.6)



[그림 5] 방호



[그림 6] 방호상세도

2차 방호막은 구조물 봉괴시 파쇄된 구조부재의 파편 등이 봉괴 유도지역 외부로 비산 혹은 낙하하는

것을 차단하고 폭풍압에 대한 최종 차단역할을 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이 모두 철거된 최저층 외부에만 설치하는데 2차 방호 자재역시 철망과 부직포를 사용하며 상부층 기둥이나 돌출부위에 철사를 이용하여 묶어놓는다.

(7) 시험발파

시험발파는 본 발파에 앞서 장약의 성능과 장약량의 적정설계, 방호시설의 상태 그리고 비석의 비산거리, 진동 및 소음의 계층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당초 설계된 장약량 및 방호시설의 정도를 조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남산 아파트의 경우 기둥 8개와 용벽 2곳을 시험 발파하였다. 공당 300g~400g을 사용한 결과 과다한 것으로 판단, B동의 2차시험 발파를 거쳐 공당 135g 내외의 다이너마이트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8) 장약

천공구멍에 폭약 및 뉘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그림 7) 폭약의 발파효율과 발파대상 부재에 따라 장약량을 결정하지만 과장약시에는 소음, 진동 및 비석 발생이 우려되고 약장약시에는 부재가 불안전하게 파쇄되어 원하지 않는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성이 있다.

미국 CDI사가 남산아파트 발파해체 공사에서 적용한 계량적인 적정 장약량은 다음 표와 같으며 전체 장약량은 357Kg이었다.

표 5. 기둥두께에 따른 적정장약량

기둥 두께(cm)	장약량(g)	비 고
40	70-90	
50	90-140	다이너마이트(Himite 5000)
60	140-200	기준 공당장약량
70	200-250	



[그림 7] 장약

(9) 전색(Tamping)

폭발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약후 장전 공을 밀폐시키는 작업을 전색이라 하며 모래, 점토, 석고 등을 사용한다. 남산아파트의 경우는 비닐주머니에 모래를 넣은 것을 사용하였는데 석고와 같이 비교적 소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는 발파시 발생하는 압력에 의해 튀어나가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한다.

(10) 계측

계측은 발파후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의 실측치와 설계 허용치를 비교 분석하여 발파해체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발파해체 공사의 정밀시공 및 안전시공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산아파트 발파해체 공사에서는 발파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의 신뢰성 있는 계측을 위하여 자원연구소 등과 공동계측을 실시하였는 바 그 결과 대상건물에서 22m 이격되어 있는 개인주택에서 진동은 0.41cm/s, 소음은 139dB로서 외국 기준치는 물론 국내에서 흔히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 0.5cm/s, 169dB보다 상당히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것은 본 공사가 해체 그 자체뿐 아니라 발파에도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치명	거리(m)	Serial#	Trigger Level(cm/s)	소음 (DBL)	진동 (cm/s)	기타
주택지하	22	BM-3512	0.05	100	0.211	B:CON'C
주택1층	22	BM-1947	0.13	134	0.210	A:CON'C
					0.159	B:CON'C
주택2층	22	BM-1483	0.15	*	*	CON'C
주택외부	22	BM-1950	0.13	*	0.405	B:지반
Apt. 전면	30	M.S.	0.05	139	0.15	A:CON'C
					137	B:CON'C
Apt. 좌측	50	BM-3513	0.125	138	0.176	A:지반
					141	B:지반
환기구	63	M4210	0.05	*	*	CON'C
Gallery Luxe	65	BM-3511	0.1	*	*	지반
옹벽	70	M4208	0.05	137	0.304	A:지반
					129	B:지반
Apt. 전면	80	SSU2370	0.05	112	0.099	B:지반
Apt. 좌측	100	BM-3514	0.05	133.8	0.065	A:지반
					131.4	B:지반
터널	120	B&K8318	0.1	124.7	*	라이닝
정수장	125	SSU	0.05	*	*	지반
다리	130	M4309	0.05	133	0.113	A:CON'C
					133	B:CON'C
터널	135	B&K4321	0.1	124.7	*	지반
남산예술원	146	SSU	0.07	137	0.17	A:지반
Apt. 좌측	150	BM-3290	0.1	*	*	지반
남산맨션	167	BM-3495	0.05	132.3	0.052	A:CON'C
Hyatt잔디밭	200	SSU	0.05	*	*	지반
주택	214	BM-3291	0.13	*	*	지반
주택가	220	S-6	0.0075	131	0.045	B:CON'C
주택가	230	S-6	0.0075	125	0.019	B:CON'C
Hyatt 지하	232	BM-3429	0.1	*	*	CON'C
Hyatt 옥상	232	BM-2096	0.1	*	*	CON'C

(*) 측정 LEVEL 이하로 측정이 안됨. (A,B)-A,B동 발파시 측정값

* 측정 결과

이번 남산 외인아파트 발파공사에 따른 발파 소음, 진동치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 발파에서 A동 및 B동이 각각 2분의 시차를 두고 발파됨으로 건물에 대한 거리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제 각측점에서 발파의 영향을 주는 최소 거리는 동일하다.

6. 기타 사항

발파해체는 폭약을 사용해 공사를 수행한다는 점 때문에 기계식 해체와는 달리 사전에 주변 시설물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사후 공사로 인한 피해 및 민원발생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도심지의 경우 주변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및 진동에 대한 취약부위 및 장비조사는 물론이고 발파후 주변 지역에 대한 신속한 분진 청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남산아파트 발파해체공사 수행시 실시되었던 주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사항, 각종 인허가사항, 통제 계획 및 청소대책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인허가 사항

발파해체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전공정 중 반드시 득하여야 할 인허가 사항은 상당히 다양하다. 이중 순수 발파해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주변시설물 조사

가. 주변상황

건물 좌측에는 남산 1호터널, 환기소, 남산맨숀이 위치하고 있고, 전면 소월길에는 상수도관이 통과하고 있었으며 건물앞쪽에는 단독주택, 보광동 정수사업소, 하얏트호텔이 위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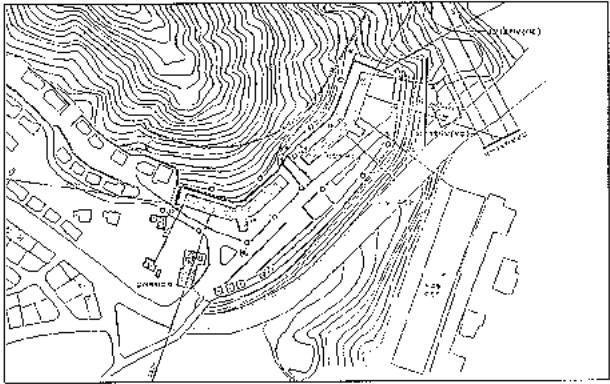
표 6. 주변 주요 시설물 현황

구분 시설물명칭	최단거리 (m)	발파여출점처 진동 (cm/s ²)	발파시 축정치 진동 (cm/s)	발파시 축정치 소음 (dB)	비고
단독주택	22	0.007	102	0.211	1000하
남산1호터널 남쪽환기소	63	0.025	1000이하	-	Trigger Level(cm/s) 0.05
보광동 수원지	125	0.006	1000이하	-	Trigger Level(cm/s) 0.05
남산쾌선	167	0.006	87	0.052	132.3
하얏트(육상)	232	-	-	-	Trigger Level(cm/s) 0.1

나. 사전조사

주변건물 및 주요 시설물을 모두 조사 균열, 경사 등을 미리 확인 및 계측하였고, 특히 21개의 소음진동 기를 동원 사전에 초기치를 측정하였다.

구 분	신청, 신고	제 출 처	제 출 시 기	비 고	법 규
공 해	특정공사 사전 신고	시, 도지사	공사개시 7일전	소음, 분진, 진동등 각종 공해 가 유발되는 공사	소음진동 규제법 제 23조 시행규칙 33조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 청장	시행전 10일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철거공사 (연간평3,000㎥이상)	대기환경 보전법 제 28조, 시행령 제 21조, 시행규칙 제 49조
	일반폐기물 다량배 출자 발생 신고	시장, 군수, 구청장	배출하는 날로부터 1월 이내	1일 평균300kg이상 배출 일반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 제 24조, 시행령 제 26조, 규칙 제8조
	특정폐기물	지방 환경청장	사용개시 1월 이내	특정폐기물	폐기물 관리법 제 24조, 시행령 제 26조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신청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공사용 화약의 반입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21조
화 약 류	화약류의 사용 허가신청	사용지 관할 경찰 서장		미진동파쇄기 150개/일 이상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18조, 시행령 제 15조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신청	지방경찰청장 또는경찰서 장(3급 저장소 및 간이저 장소는 경찰서장)		저장방법 및 저장량에 의함(저 장장소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25조, 시행령 제 34조
	화약류의 운반신고	발송지 관할경찰 서장		대상화약류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26조
	화약류	주거지역 시도지사	사용개시 7일전	1일 200kg이상일 때 주거지역, 특수지역 특수폭약의 종류	소음진동 규제법 제 27조 시행규칙 35조
건 물	건물의 멀실 신고	허가	1개월 이내	건물해체로 인한 건물의 멀실	부동산등기법 제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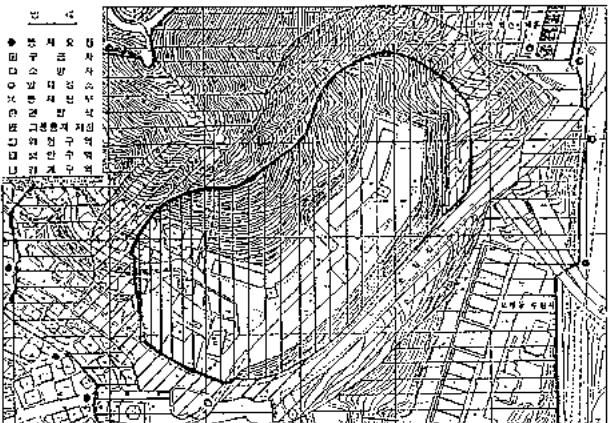
[그림 8] 남산아파트 주변시설물

(3) 주민 및 교통통제

가. 주민통제

아파트 단지내로 위험구역(약 80m이내)을 설정 발파 2시간전부터 통제하였고, 보안구역(약 130m이내)은 발파 1시간전 그리고 경계구역(약 200m)은 발파 15분전부터 통제하였다.(그림 9)

주변이 남산, 보광동정수사업소, 하얏트 호텔 그리고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실제 통제선은 지형 상황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특히 경계구역내의 남산 맨손 주민은 외부로 대피시키지 않고 집안으로 대피 유도하였다.



[그림 9] 주민 통제 계획도

나. 교통통제

남산 1호터널은 안전점검을 위해 발파후 15분까지, 소월길은 수도관의 안전점검 및 도로청소를 위해 발파후 30분까지 교통을 통제하였다.

- 하얏트 호텔입구~한남동 고가도로 : 발파전 30분~후 30분
- 용산 2가 동사무소 입구~하얏트 호텔입구 : 발파전 15분~후 30분
- 남산 1호터널 : 발파전 30분~후 15분(교통상황에 따라 조정)

(4) 안전점검 및 주변청소

가. 안전점검

발파직후 15분동안 남산 1호터널 및 주변 상수도 및 전기의 이상유무점검을 위해 4인1조로 총 10개조의

점검반이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다.

나. 주변청소

소방차 18대와 진공청소차 2대 및 관계자들이 신속히 도로청소 및 살수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인근 보광동 수원지 침전지 12칸은 미리 비닐막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6. 재활용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폐자재의 대부분이 매립되거나 불법투기되어 자원의 낭비와 심각한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공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철거서 발생하는 자재의 대부분을 재활용하여 환경공해를 줄임은 물론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 재활용 시책에 부응할 수 있었다.

• 재활용 현황

종 류	총발생량	재활용량	재활용률
페콘크리트 및 벽돌	34,900m ³	25,000m ³	72%
철재류 (철근 및 배관재)	2,960ton	2,960ton	100%
비철금속류 (알루미늄, 논스릴 등)	162ton	112ton	74%
폐전선, 변압기 등 전기관련 폐자재	68ton	65ton	96%

7. 향후전망

이번 남산아파트 발파해체공사에는 자격을 갖춘 4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당초 현장설명시에는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들이 모두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발파해체공법은 가폭방법, 발파부위선정, 발파시차 등 업체마다 공법이 다양하여 일정 공법을 선정할 수가 없었으므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시행하여 코오롱건설이 선정되었다.

발파해체공법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환경 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독자적인 공사수행능력을 배양하므로써 우리의 해체시장을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며 더나아가 동남아 등 해외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이번 공사를 총괄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적어보면

첫째, 발파해체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는 사전 파쇄 작업과 천공작업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사전파쇄작업은 기계작업을 주로 하지만, 작업위치에 따라 수작업을 고려한 공기와 발파후 2차 파쇄와 재활용 자재 생산 반출을 고려한 충분한 공기가 필요하다.

둘째, 안전성 검토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인근 주민 및 교통통제의 통제범위와 통제시간을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어려웠으며, 결국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특히 교통통제, 주민통제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며 소방서 협조 역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필수적인 협조부서이다. 참고적으로 미국에서는 소관관서에서 발파인허가 및 통제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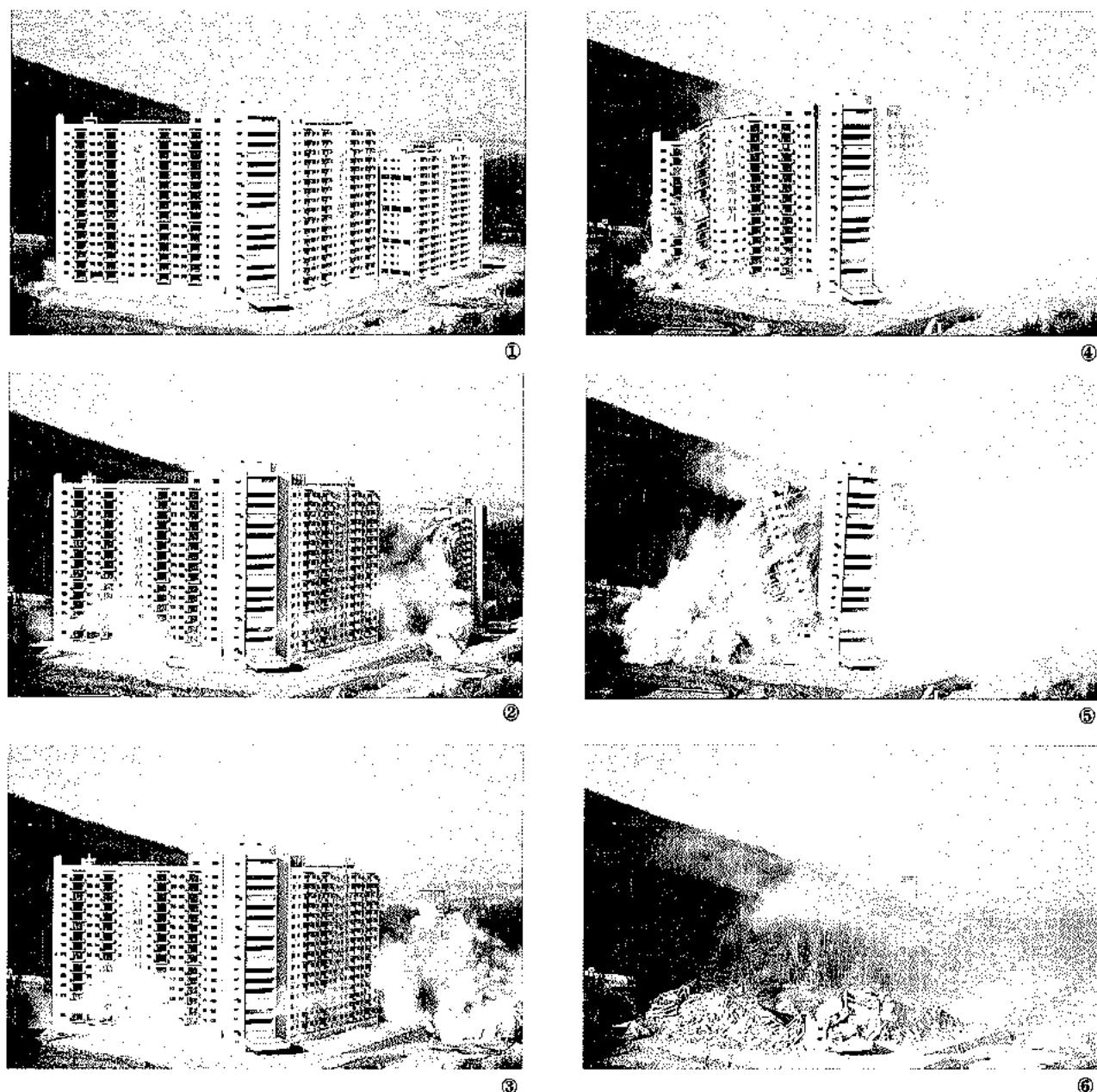
셋째, 입찰방법 및 입찰안내서 작성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적정한 규정이 미비하여 자문화의를 거쳐 결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특히, 진동, 소음, 분진의 설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었다. 발파해체공법의 활성화를 위해 이 분야에 대해 조속한 건설업법 보완

및 설계기준(진동, 소음, 분진)제정이 요구된다.

넷째, 발파해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진방지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유해물질이 함유된 재료와 배관보온재 등을 미리 제거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구조물 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재는 자원절약과 환경보존차원에서 재활용되어야 하고 재생자재는 건설공사에 일정량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적 재생골재 생산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국민들의 따뜻한 이해와 성원이 뒷받침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국내 발파해체기술이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림 10] 남산 외인아파트 붕괴 모습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2)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

Conques의 L'Abbatiale Sainte-Foy 성당

朴孝洵/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on

1. 개요 및 역사

훌륭한 로마네스크식 건축의 정수 가운데 하나인 콩끄(Canques)의 쟁뜨 푸아(Sainte-Foy) 수도원을 방문한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수도원은 거의 프랑스의 남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파리에서 가려고 하면 거의 하루를 다 보내야 하며, 남쪽 Narbonne에서 가려면 중앙산악지대인 le Massif Central를 거쳐 호테즈(Rodez)라는 조그만 시를 지나야 하나 역시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야 한다. 옛날 일반인들의 발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 산 속에 짓다 보니 가는길이 그리 순탄치 않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약간 밑으로 절감이

좋은 옛주택과 부속건물들이 대형 화폭에 담겨있는 양 아름답게 펼쳐지며 아득하고 포근함이 이 곳까지 오는 데에 있었던 페곤함을 완전히 가시게 한다. 사실 소개하는 쟁뜨 푸아 수도원은 툴루즈(Toulouse)의 쟁세르냉(Saint-Serin) 성당과 꽁뽀스 텔(Compostelle:스페인에 속하며 중세기의 순례지) 쟁자끄(Saint-Jacques) 대성당과 함께 11세기와 12세기 전유럽에서 추구하였던 기교가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성당군에 속한다. 매우 기능적인 이 건축물은 콩끄로 운집하

는 순례자들을 수용하고,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수도회에는 하루에 일곱번의 미사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고 수도자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에서 건립되었다. 이와 같이 쟁뜨 푸아 수도원은 순례지의 성당이면서 동시에 수도원이 되도록 건립되었던 것이다. 주민들을 위해서 켄터베리의 토마스(Thomas) 성인에게 바치는 별도의 본당 건물을 세웠으나 현재는 이 본당건물의 벽면 속에 박혀 있던 몇몇의 부벽만이 쉬락(Chirac)광장에 남아 있을 뿐이다.



성당원경

2. 수도원의 역사 및 구조

2-1 수도원의 역사

1031년 오돌리(Odolric) 수도위장은 10세기의 바실리크 성당 부지에 현재의 로마네스크식 수도원의 건축을 시작하였으며 첫번째 공사는 후진과 후진들레 제단의 기초부분을 건축하는 것으로 1065년에 마무리되었다. 이 기초부분의 벽은 두르두(Dourdou)골짜기에 있는 꼽브레(Combret) 채석장에서 캐낸 불그스름한 색의 사암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그 후 건물 서쪽 공사를 맡아 하던 에티엔느(Etienne)2세 때부터는 이 재료가 부스러지기 쉽다고 판단되어 사용하지 않게 된 대신에 르넬(Lunel)고원에서 나온 노란색의 아름다운 석회암이 보급되었다. 벽돌 공사를 할 때 굳이 건축 석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그 지방의 회색 편암을 사용했는데 노란색의 따뜻한 색조는 회색과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홀륭한 석재이다. 수도원 초기부터 20년(1087~1107)에 걸쳐 수도원장 베공(Begon)3세가 건축에 주력하므로써 성당내의 특별석의 모든 층과 수도원 경내 회랑을 올리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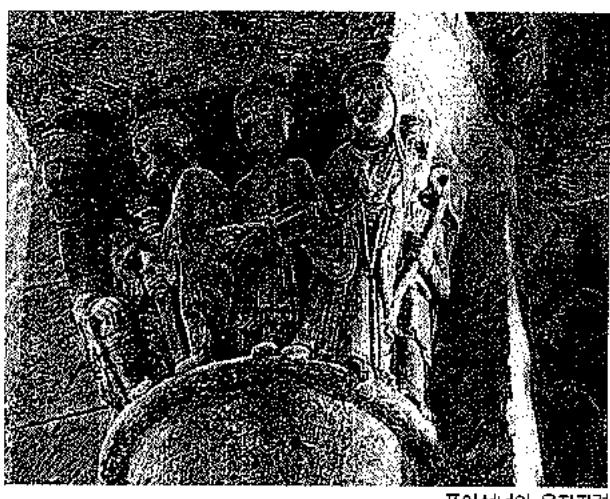
다음으로 베공의 후임자였던 보니파스(Boniface)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 언급해 놓은 참고 자료는 없으나 수도원의 궁륭과 서쪽 정면의 건축은 그가 맡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알 수가 없다. 수도원 성당 좌우 익랑의 교차점 위쪽으로 매우 대담하게 세웠던 꼭대기 채광탑의 로마네스크식 둑근 지붕은 무너졌지만 그 날짜 역시 확실히 알 수 없다. 역사적 건물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곳의 보강공사를 하면서 꼭대기 채광탑 부분과 건물의 변천과 성쇠를 더 잘 알게 되었다. 둑근지붕은 14세기 말인 1460년에서 1490년사이 고딕 건축술을 이용하여 다시 건립되었다. 한 세기 뒤, 정확히 1568년 프로테스탄트(신교도)들이 자른 불로 수도원은 붕괴될뻔 하였지만 위기를 모면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화재로 인해 내진의 큰

기둥들이 갈라져서 쇠로 테를 두르고 기둥주위를 벽돌로 쌓아 올렸다. 반면 정면의 탑들과 중앙종루는 무너져 평평해졌다. 그래서 중앙종루는 한층을 더 올린후 골조가 튼튼한 뾰족탑을 올려서 현재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 버려진 상태로 방치하고 있던 수도원의 복원사업은 1837년에 역사적 건축물의 검사관인 프로스페르 메리메(Prosper Merimee)에 의하여 복구되기 시작하였다. 그가 상관에게 보낸 장문의 청원서로 인해 쟁또 푸아 수도원은 본격적으로 정부의 1급 보조금을 지원받으므로써 복원의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 복원 공사는 도의 건축가인 부아소나드(Boissonade)가 맡아 우선 순위를 정하여 가장 긴급을 요하는 공사부터 시작을 하였으며 1873년 예술부 장관은 건축가 포르미제(Formige)에게 수도원 본래의 모습대로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완전한 설계를 요청했다. 이렇게 하여 설계에 따라 내진의 열주가 복원되었고 궁륭이 재건축되었다. 1881년부터는 무거운 돌 피라미드를 제자리에 놓으면서 정면 두 탑의 중축공사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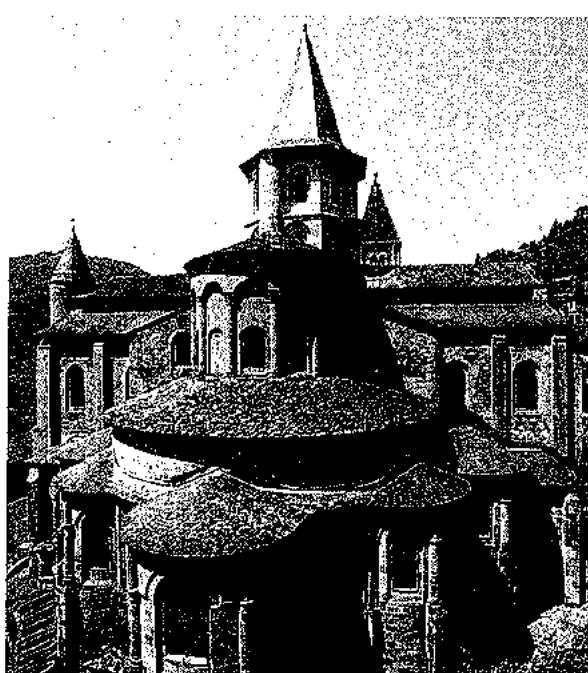
2-2 수도원 설계와 구조

수도원의 기능상의 구조는 방문하는 순례객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중앙회중석을 둘러싸고 있는 축랑은 후진 주위의 회랑으로 순례객들을 유도하며 반원형으로 된 회랑은 푸아 성인의 입상과 여러 성유골이 있는 내진을 싸고 있다.

중앙회중석과 넓은 좌우 익랑은 수백 명의 신자들을 수용할 수 있고 둑근 지붕 아래 수직교차점에 세운 주 제단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행하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별히 순례자가 많을 경우 겹홍예문으로 가두리 장식을 한 넓은 특별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후진 주위 회랑과 좌우 익랑을 향해 트여 있는 7개의 작은 제단에서는 수사신부들이 동시에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방



푸아성녀의 유죄판결



피라미드식으로 건립한 성당의 후진

사상의 작은 제단들이 있는 십자형의 설계도는 툴루즈(Toulouse)의 생 세르냉(saint Sernin) 성당처럼 이론 바 “순례 여정에 들어 있는 성당들”의 형태다. 생뜨푸아 수도원은 이 그룹의 성당들에 속하지만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 독특한 특징들은 십장들이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만 하는 자연적 조건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만일 다동(Dadon)이 본래 선택한 부지가 외딴 곳이었더라면 그 뒤에 수도원을 건립하고 중요한 성당을 건립하는 데 무척 어렵게 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쪽에는 사태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쪽에는 현재의 수도원 경내 회랑의 누도록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축대를 만들어야만 했다. 그 결과 수도원은 계곡 위쪽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원 안뜰을 웅장한 건물 전체로 압도하고 있는데 반하여 쉬락(Chirac)광장에서의 전경은 수도원이 깊은 구덩이 속에 폭 파묻힌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광장 밑에 있는 플로(Pllo)의 샘과 지하 저수지로 인해 이쪽 방향으로는 성당이 확장되지 못하였다.

매우 간결한 설계도와 관례적으로 작은 제단이 5인데 반하여 이곳의 후진은 작은 제단이 셋 뿐인점, 매우 넓은 좌우 익랑(35m)에 비하여 매우 짧은 중앙회중석(20.70m)은 꽁꽁가 위치한 지형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면의 면적이 적은 것을 상쇄하듯 건축물은 높이 지어졌는데 수도원의 독창성은 바로 이것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약진하는 듯 곧게 뻗은 모습은 다색들의 원화창으로 꾸민 높은 정면에서도 볼 수 있다. 측면은 부벽들이 지붕까지 수직으로 이어져 있다. 건물의 주위를 돌아보면 피라미드 모양으로 아름답게 건립한 후진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매우 아름답게 규모를 조절하여 3층으로 올린 후진을 보면 건물내부의 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3. 외부

로마네스크식의 이 훌륭한 건축물은 11세기 중반에 건립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은 12세기에 완성되었다. 19세기에 다시 제작한 정면의 두 탑이 있고 좌우 익랑의 교차점위에는 8각형의 꼭대기 채광탑이 있다. 특히 서쪽 정문의 합각벽은 12세기의 로마네스크 양식 조각의 걸작품으로 마지막 심판이 테마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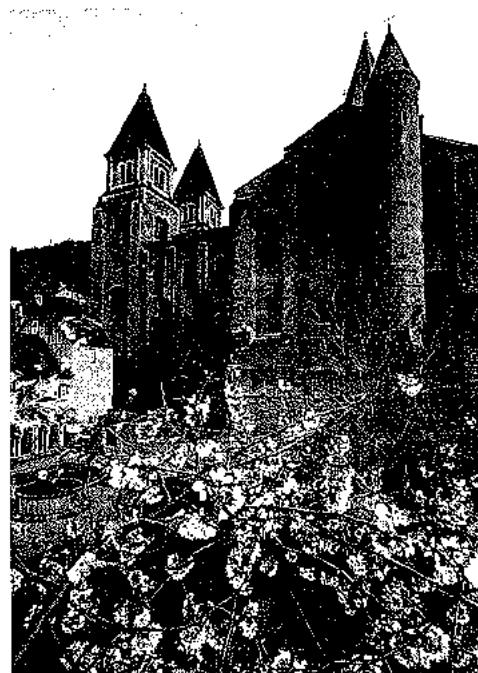
3-1 마지막 심판의 합각벽

서쪽 정문에는 반원형으로 된 정문 상부의 아치 깊숙히 예술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독창성과 규모에서 중요한 로마네스크식 작품중의 하나인 마지막 심판이 있는 합각벽이 있다. 폭 67m, 높이 36m의 이 작품은 놀라우리만치 완전하게 원형이 보존된 것으로 124명의 인물이 있다. 건물 앞뜰에 서면 지상 35m 높이에 있는 합각벽의 수 많은 인물들과 다양한 장면을 다 볼 수 있다.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은 정돈되어 있으며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이 머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의 위쪽에 “낙원의 부정적인 모습과 같은 지옥”이 있고 오른쪽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의 모습으로 모든 인물들은 질서정연하게 평화롭고 명상적이며 사랑이 감돈다. 반면 그리스도의 왼쪽의 인물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극심한 공포속에서 불안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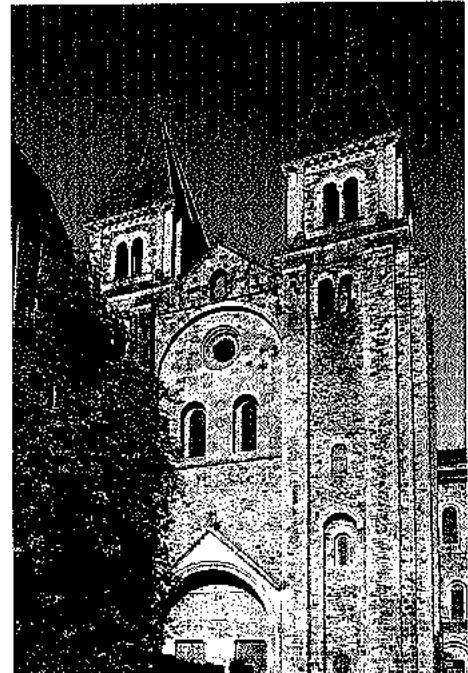
전반적인 구성은 매우 간단하다. 넓은 반원형 합각벽은 가로띠 모티브가 나란히 셋 있고 가로띠 모티브 사이에는 글이 새겨진 띠가 있어 가로띠 모티브를 구분 짓고 있다. 이 가로띠 모티브를 만들기 위해 예술가는 가로띠 모티브를 약 스무개로 나누어 노란색 석회암을 땅에서 조각을 한 후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이었다. 식별하기 쉽게 석회암을 절단해서 제



좌우익랑의 교차점



남쪽전경



서쪽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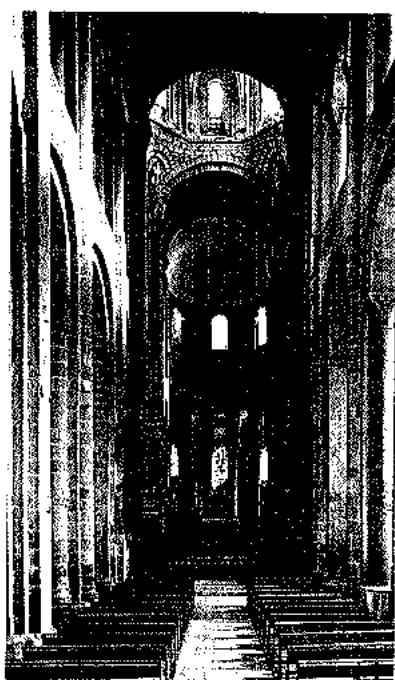
작한 이 작품은 매우 정교하여 인물 한 사람이나 한 장면이라도 다시 절단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제작했다.

마지막 심판의 영감을 받은 것은 마태복음에 의해서였다. 예술가는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 양쪽에 있는 두 천사가 펼치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 위에 새겨진 말을 하는 그 극적인 순간을 돌속에 고정시키고 싶어 했다. “그는 그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여, 와서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왕국을 차지하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속에 들어가라.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선택된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첫번째 문장은 그들을 맞이들이기 위해 오른팔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강조했다. 악인들에게 지옥을 가리키기 위해 왼쪽 손을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판결을 내리는 심판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매우 대조적인 이 두 몸짓으로 예수는 800여년전 부터 수도원 앞뜰 위쪽에서 행해지고 있는 장대한 광경을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도는 다섯 줄의 작은 꽃장식으로 묘사한 구름 가운데 별이 점점이 있는 편도 모양의 영광 속에서 왕좌에 앉아 있다. 최고 심판자의 근엄함을 표현한 긴 얼굴은 옆보습보다는 활선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낙낙한 옷과 망토는 창에 찔린 상처-원래 칠한 색상이 남아 있다-가 보이도록 허리위를 V자가 모양으로 도려내 었다. 그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의 왼쪽에는 매우 정교하게 다듬은 향로 저울과 활짝 편 일생의 책이 있다. 검과 창으로 무장한 두 기사 천사는 지옥의 경계지역에서 악마와 천벌을 받은 사람들로 들끓는 군중을 저지하는 임무를 받았다. 구름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발치에는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을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두 천사가 햇불을 들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신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다. 맨 위쪽에 있는 가로띠 모티브의 세모꼴 귀돌 두 개는 이 천사들로 장식을 했다. 그리스도의 위쪽에 한 천사는 뜻을, 다른 천사는 창의 끝을 잡고 있다. 이 두 천사가 동시에 잡고 있는 거대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상기시킨다. 선택된 사람들은 성모마리아의 인도로 그리스도의 오른쪽을 향해 가고 있다. 성모마리아의 뒤를 천국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따르고 있다. 그들의 뒤에 나머지 사람들은 후광이 없다. 그들은 성인이 아니다. 합각벽을 제작한 장인은 이 승리의 행렬에 꽁꽁 수도원의 역사적 인물들을 대담하게 삽입했다. 즉 은자이며 창립자인 다동(Dodon), 주교의 지팡이를 휜 신부 베공(Begon), 수도원의 전설적인 후원자 샤를대제 등이다. 그러나 샤를대제 역시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이면화를 든 수도사와 성유골을 쌓 천을 들고 있는 수도사가 샤를대제 뒤를 따르고 있으며 이들은 번호를 하기 위한 증거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쟁또 푸아의 보물에 대한 황제의 아량의 증거들이다. 그리스도 아래에는 영혼의 무게를 재는 장면으로 대천사 미카엘과 그에 대항하는 조소적인 표정의 악마가 저울의 양끝을 서로 의심하는 광경이다. 저울 접시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악마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고려하여 계량되고 있다. 왼쪽에는 무덤속에서 부활하는 장면으로 뚜껑을 열어 주러 온 천사들의 도움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씩 그들의 석관 밖으로 나온다. 대칭 삼각형에서 왼쪽에는 푸아 성녀의 보호에 의해 석방된 죄수들이 관습에 의해 감사의 봉납물로 바친 족쇄가 궁륭에 걸려 있는 작은 홍예문은 꽁꽁의 성당을 연상시킨다. 오른쪽에는 푸아 성녀가 죽은 사람을 중재하기 위해 하느님의 손앞에 엎드려 있다. 맨아래



중앙회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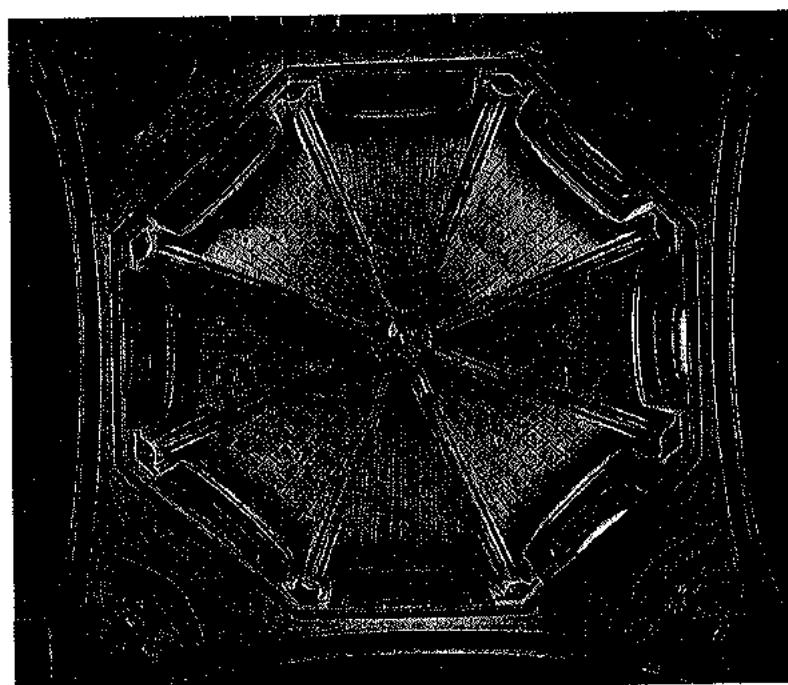
건축가인 수도사들

가로띠 모티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왼쪽에는 크레노(성벽 꼭대기의 오목 모양으로 된 부분)가 있는 탑과 기둥, 그리고 홍예문으로 묘사한 천상의 예루살렘을 건축적인 형태하에서 천국으로 구상했다. 한가운데 아브라함이 헤롯왕에게 학살당한 아기들을 안고 앉아있다. 그는 각 홍예문 아래에서 둘씩 짹을 지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들은 등불을 든 현명한 처녀들, 종려나무 가지를 든 순교자들, 양피지 두루마리를 든 예언자들, 책을 든 사도들이다. 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거의 천편 일률적인 일렬로 늘어선 모양은 천국에 존재하는 질서와 평화를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문앞에서 한 천사가 선택받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간막이의 다른 쪽에서는 곤봉으로 무장을 한 머리가 텁수록한 악마가 죄인들을 지옥의 괴물 입으로 밀어넣고 있다. 조각가는 천상의 평화에 대해 지옥의 극심한 혼란과 혼동을 대조시켰다. 아브라함과 짹을 이루는 것으로 오른쪽 상인방의 중심에 있는 사탄은 불속에 누워 있는 죄인의 배 위에 발을 얹고 환각적인 벌을 주관한다. 그 양 옆으로는 추악한 모습의 악마들이 대죄를 범한 사람들을 벌주기에 바쁘다. 물론 그들은 매우 즐거워 보인다. 쇠사슬 갑옷을 입은 기사의 모습으로 표현된 첫번째 죄인인 교만한 자를 쇠스랑으로 쳐서 말아래로 떨어뜨리고 있다. 가슴을 완전히 드러낸 간음한 여인과 그의 정부는 서로 목이 붙어 있는 채 사탄의 무시무시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색한 사람은 목에 돈지갑을 걸고 높은 곳에 매달려 있고 그의 발밑에는 두꺼비가 있다. 그 다음에는 한 악마가 앓아 있는 작은 사람의 혀를 잡아 빼고 있다. 앓아 있는 작은 사람은 중상 모략한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지옥의 입구 왼쪽 윗부분인 삼각형의 작은 공간속에 성질내는 사람이 있다. 한 악마가 목속에 칼을 꽂고 자살한 사람의 골을 계걸스럽게 먹고 있다. 그 옆에는 등에 혹이난 악마가 갈퀴로 혀를 잡아뗀 죄인의 하프를 빼앗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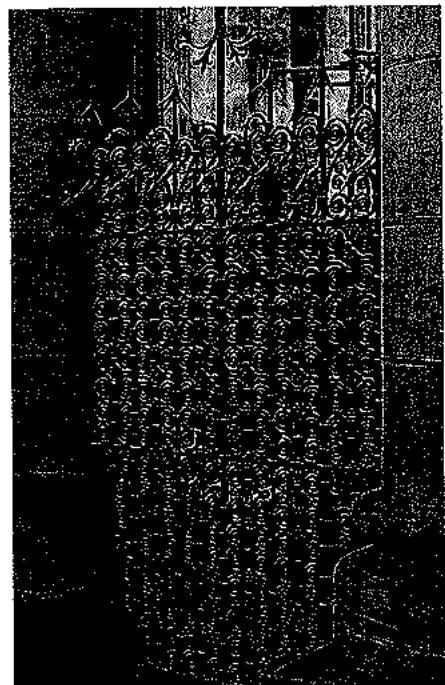
다. 음악가와 가수, 농담꾼, 어릿광대를 묘사한 이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 쾌락이 혼된 것을 상징하고 있다. 맞은 편에 있는 오른쪽 삼각형은 놀라운 장면으로 매우 풍자적이다. 불꽃의 위쪽에 두 악마가 한 사람을 쇠꼬챙이에 빼어서 불에 굽고 있다. 한 악마는 산토끼의 머리를 하고 있다. 밀렵꾼이 밭을 벌을 나타낸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서는 이 세상과는 반대로 사냥꾼이 그의 사냥감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상인방 위쪽 가로띠 모티브의 중간 부분에 지옥이 더 묘사되어 있다. 이곳에는 조각가가 분명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지 않으나 그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쳤다. 몸과 머리가 표현하기 어렵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흉악무도하고 초췌한 괴조물, 이를 드러내어 놓고 비웃는 추악한 얼굴을 한 악마는 죄인을 벌 주는 것을 마음껏 즐기고 경쟁을 하고 있다.

왼쪽에는 한 악마가 조통하기 위해 완전히 벌거벗긴 왕의 왕관을 이로 물어뜯고 있다. 나쁜 왕은 그의 원통함을 표현하는 것 같이 선택받은 사람들과 샤를 대제의 행렬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 위에서 흉악한 얼굴을 한 악마들이 도끼, 철퇴, 강철 활과 특별히 12세기 초에 나왔던 무기를 훈들고 있다. 이 무기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설명하기 위해 표현했을 것이다. 오른쪽에는 끔찍한 형벌을 묘사했다. 악독한 악마 손아귀에 떨어져 앓아 있는 죄인은 박파를 당하고 있고 나른 악마는 그의 갑질을 맛있게 먹고 있다. 그 옆에는 발이 묶여 거꾸로 매달린 술주정뱅이가 그의 일생동안 마신 포도주를 토하고 있다. 1940년 프랑스의 유물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꽁꽁의 합각벽의 조각복제품을 만들 때 술주정뱅이의 위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 속에 있는 것이 위폐 주조자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의 연장때문에 식별할 수 있었다. 즉 모두, 돈이 가득든 그릇과 특히 그의 손에 꽉 쥐고 있는 튜브종류의 화폐 주형이 그것이다. 가



고덕양식의 둥근지붕



내진의 철제 그릴

장 놀라운 것은 조각가가 이 미소한 도구인 주형에 끌이 cunei라는 글자를 정성들여 새겼다는 것이다. 불꽃 속에 앉아 있는 이 위폐 주조자가 받은 별은 악마가 붓는 녹은 금속을 얹기로 마시는 것이다. 그 왼쪽 옆에는 나쁜 왕들과 마찬가지로 나쁜 수도자들이 자리잡고 있다. 한 신부가 그의 지팡이와 함께 땅에 넘어져 있다. 배가 불룩하고 등에 혹이 난 한 악마가 낚시 그물속에 세 수도사들을 사로 잡았다. 세 수도사 중 한 신부는 지팡이를 거꾸로 쥐고 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입하기 위해 이 지옥 속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표현했다. 상인방의 아래쪽에 이러한 말이 새겨져 있다. “죄인들이여, 만일 당신들의 품행을 고치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아시오” 더 강한 인상을 주기위해 강렬한 색깔을 사용했으며 낙원은 푸른색, 지옥은 붉은 색으로 조각을 더 뚜렷하게 했던 중요한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은 처음에 부조로 된 벽화처럼 구상을 했기 때문이다. 초상학적 화려함과 교훈적이고 서술적인 표현법으로 쟁뜨 푸아의 마지막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성당 앞뜰에서 한 장면 한 장면을 알아보고 이해하는데 열중한 순례객들을 상상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당예술은 명상할 수 있는 이미지만을 소개해 왔다. 꽁꼬의 예술은 아마도 토루즈(Toulouse)나 무아싹(Moissac)의 그것처럼 중요하지 않겠지만 반대로, 대중이 영혼에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합각벽은 보니파스(Boniface)가 수도원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인 1107년에서 1125년 사이 꽁뽀스텔(Compostelle)의 생 자크(Saint-Jacques) 대성당에서 이미 일을 했었던 조각가에 의해 제작되었다. 그 이후 중앙 회중석의 궁륭에 있는 마지막 기둥머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조각의 쇠퇴기가 빨리 왔다. 그러나 수도원의 내부에 있는 성모영보의 고부조들은 “합각벽의 장인”이 지난

강한 개성을 증거하고 있다.

2) 합각벽의 번호별 의미

합각벽에 나타난 조각들에 대해 번호에 따라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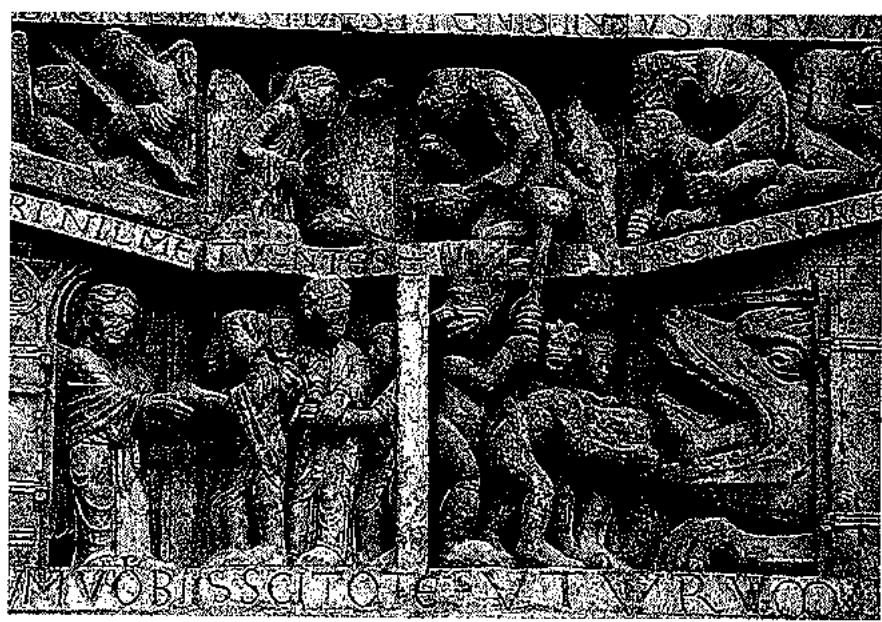
- (1)십자가의 그늘에서 영광 속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가 오른손으로는 선택된 사람들을 축복하고 악인들에게 그들이 받을 시련을 가르쳐주기 위해 원손을 내리고 있다.
- (2)약간 열린 하늘로 부터 천상의 군대가 그리스도 수난의 도구를 들고 죽은 이들을 깨우는 나팔을 불면서 내려오고 있다.
- (3)구세주의 왼쪽에 성모마리아, 베드로 성인과 신부들과 샤를 대제를 상징하는 후원자의 행렬이 있다.
- (4)구세주의 오른쪽에는 천사들의 뒤쪽에 지옥의 모습이 보인다.
- (5)엎드린 푸아 성녀가 신의 축복을 받고 있다.
- (6)죽은 이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있다.
- (7)미카엘 성인이 영혼의 무게를 재고 있고 악마는 저울이 자기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시도하고 있다.
- (8)아브라함이 천국의 예루살렘 홍예문 아래서 선택받은 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 (9)악마들이 죄인들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다.
- (10)악마들의 가운데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사탄이 죄인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악마들은 죄인들에게 여러가지 벌을 받게 하고 있다.

4. 내부

조금 압도적인 낮은 궁륭으로 된 정문안의 현관을 들어서면 좁은 느낌이 두드러진 내부를 볼 수 있다. 기도하기에 알맞은 이 구조를 분석해보면 건물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지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아치는 반원형으로, 지주는 수직으로 기둥머리를



서쪽정문



마지막 심판 일부: 윗부분중앙-영혼의 무게달기, 아래왼쪽-천국의 문에서 천사가 선택된 사람들을 맞아들임, 아래오른쪽-지옥의 대기실 악인들이 괴물의 입속으로 넣어짐

제외하고는 엄격하고도 치밀한 감을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장식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좌우 익랑의 교차점에는 4개의 기둥을 세워 둥근 지붕의 팔각형 원주를 받치고 있는 아치와 연결시켰다. 후진 둘레에는 단조된 철을 사용하여 소용돌이 장식으로 제작하였고 끝부분은 매우 날카롭게 마무리를 한 3m에 달하는 아름다운 로마네스크 그릴이 성유골을 보호하고 있다. 그릴 뒤에는 순례객들이 쉴 수 있는 들의자가 후진 주위의 회랑에 있다. 후진 주위의 회랑의 기둥 사이의 간격이 일곱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내진의 흥예문과 작은 계단에서 보았던 7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는 수도원의 둥근 부분을 특징짓고 있는 것 같다. 특별석은 실용적이라기 보다는 건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특별석으로 인해 건물 전체가 안정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측랑의 위쪽에 있는 특별석의 궁륭에서 중앙회중석과 좌우익랑, 각면의 반원형 궁륭이 시작된다. 특별석 궁륭은 고딕식 벽날개(고딕 건축에서 두 벽 사이에 아치 모양으로 걸쳐서 궁륭의 압력을 막는다)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연속적인 방법으로 전체 길이를 받치고 있다. 꽁끄(Conques)와 뚫루즈(Toulouse)의 생 세르냉(Saint-Sernin), 꽁쁘스뗄(Compostell)의 생 자끄(Saint-Jacques)에서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중앙회중석을 높게 하여 가운데 부분이 없는 측벽의 건축을 용이하게 한다. 특별석은 중력을 덜어주는 아치 속에 쌓으로 내접한 트인 공간으로 인해 활짝 개방되어 있다.

4-1 성모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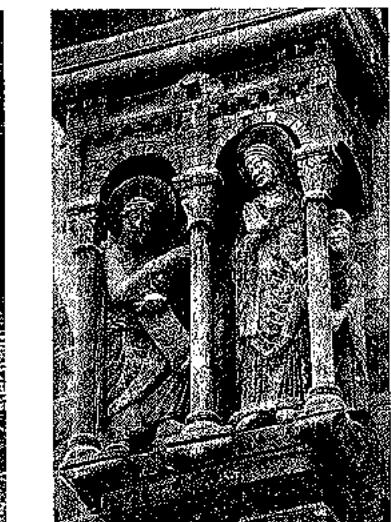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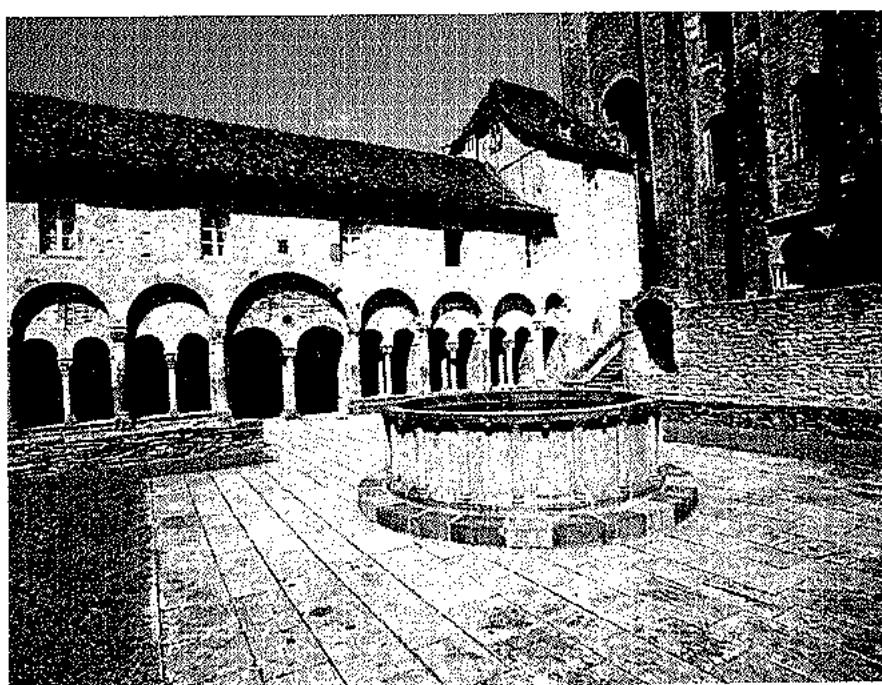
이 조각 전체는 약 8m에 달하는 북쪽 익랑 안쪽의 벽 위 높은 곳에 있다. 중앙 벽기둥(벽면에서 불쑥 나오게 만든 장식용 기둥)을 장식하고 있는 성모영보의 직사각형 판은 이 익랑의 동쪽과 서쪽 특별석 사이에서 통로를 받치고 있다. 흥예문 모양 장식의 흥예 밑에 같은 높이로 왼쪽에는 이사야, 오른쪽에는 세

례자 요한의 입상이 있다. 이런 장소는 매우 놀랍다. 왜냐하면 이런 장소에서는 인물들이 전혀 돋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추방을 당한 것처럼, 실물크기에도 불구하고 역광을 받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여러 고고학자들이 표명한 견해를 인정한다면, 이 조각들은 서쪽 대형 정문에 놓기로 구상했을 것이다. 꽁끄 조각에서는 완전히 예외적인 긴 신체로 보아 샤르트르(Chartres) 성당의 정문이나 이곳에서 가까운 뚫루즈(Toulouse)의 쟁페띠엔느 성당의 입상기둥들을 상기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사야는 왼쪽 손에 제세(Jesse)의 나무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끝에 일사귀와 둥글고 작은 열매 세다말이 달린 막대기를 왼손에 들고 있다. 다른 손에는 성모영보의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한 가지가 제세의 가문에서 나오리라”

중세기 예술에서 여러번 반복되는 성서에 관한 전통은 다윗의 아버지 제세(Jesse)의 꿈을 이야기 한다. 그는 꿈 속에 그의 배에서 죽보 나무의 줄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고 나무의 마디 마디는 구세주의 선조들이었다. 맛은 편에는 낙타의 털로 된 제의를 입고 오른쪽 뺨은 하늘을 향해 들고 있는 예언자 세례자 요한이 “요한이 말하길 여기에 하느님의 어린양이 있다”는 문구가 적힌 책을 펼쳐들고 있다.

복음서에 의하면 신의 초대를 전하는 전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모영보는 내부의 장면이다. 마리아의 집은 크레노가 있는 탑과 박공, 저붕 배내기의 조각된 코린트 양식의 처마 까치 박공으로 궁궐처럼 표현했다.

이중 흥예문 모양의 장식 속에 두 사람이 들어있다. 왼쪽은 두루마리 위에 새긴 말로 신원이 밝혀진 천사 가브리엘이 경의를 표하는 자세로 약간 몸을 숙이고 마리아에게 말을 걸고 있다. 성모 마리아는 실을 갖고 있는 중이며, 그녀는 서둘러서 그녀의 뒤에서 손에 실뭉치를 들고 있는 젊은 하녀에게 실듯대를



성모영보의 조각작품

사문석으로 된 저수조가 있는 안뜰

맡기고 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활짝 편 오른손을 가슴에 얹은 채 그녀는 신의 뜻에 동의라 할까 아니면 순종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스처나 자세로 표출하고 있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볼 수 있다. 각각의 인물들은 활기가 있다.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의 장면의 엄숙함이 실뭉치와 방추를 든 하녀의 평범한 등장으로 인해 많이 완화되었다. 실을 뽑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이러한 묘사는 예술가가 경외 복음서중의 하나인 자끄(Jacques)의 경외서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조각은 매우 수준이 높다. 강한 부조로 표현한 이사야의 얼굴과 고정된 시선은 보는 이들을 있음직한 내세로 인도하고 있는 반면 성모 마리아의 얼굴에서 발산하는 강렬한 영성은 거의 장난기 어린 하녀의 얼굴표정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4-2 기둥머리

꽁꼬의 쟁또 푸아에서 내부 구조는 기둥머리의 수를 증가시켰다. 기둥머리는 홍예문에 연결되어 건물을 받쳐주는 건축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코린트식 기둥머리나 원기둥의 머리판 위에서 내부를 장식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수도원 내부에는 250점 이상의 기둥머리가 있다. 외부는 간결한 느낌을 주며 약 30점 정도의 기둥머리가 문의 아치 밑이나 성당의 후진에 있다.

1) 엉음장식의 기둥머리

11세기 후반 수도원장 오돌릭(Odolric)과 에티엔느(Etienne)2세 치하때 제작한 엉음 장식의 기둥머리는 카탈로니아(스페인의 동북부 지방)에 있는 로드(Rode)의 생피에르(Saint-Pierre)의 기둥머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엉음 장식 기둥머리로 알려져 있다. 분

홍색 사암을 조각한 것으로 좌우익랑과 후진둘레의 제단 그리고 북쪽 정문에 약 30점 정도가 있다. 엉음 장식은 리본으로 만든 독창적인 모티브로 가장 흔하게는 세가닥의 리본이 광주리를 엮는 방법으로 리본이 한번 지나간 위에 교대로 다른 리본이 지나가면서 서로 십자형이 되도록 교차하거나 얹혀 끝은 종려잎 모양의 장식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북쪽 익랑 정문에 있는 4점의 엉음 장식과 종려잎 모양 장식의 기둥머리는 화려함으로는 로마네스크 시대에 제작된 장식 조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에 속한다. 이곳에서는 매우 자유롭게 표현되었으나 그 후에 이 양식은 고전적 코린트식 기둥머리가 나오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가장 자주 쓰이는 초안은 잎사귀들을 비스듬하게 겹치고 끝은 꽃바구니 장식을 한 것이다. 이 잎사귀들은 마치 미완성인 기둥머리인 것처럼 매끈하고 흠이 없다.

2) 삽화장식의 기둥머리

후진 주위 회랑에 제작되어 있는 엉음장식의 바탕 위에 인간의 얼굴을 표현한 것은 삽화장식 기둥머리 즉 “로마네스크 양식 조각의 절정”의 도래를 준비한 것이었다. 남쪽 익랑에는 “베드로 성인의 서사시”인 베드로의 체포, 구출 그리고 머리를 아래로 한 채 십자가에서의 베드로의 수난이 세 기둥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내진의 오른쪽 기둥 사이의 두 공간을 나누고 있는 기둥 위에 “이삭의 회생”이 있다. “이삭의 회생”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회생을 예고하는 장소 즉 주제단 부근에 있는 것이 관례이다. 중앙회중석 북쪽의 네번째 기둥위에 있는 연대적으로 가장 나중인 기둥머리 중의 하나는 디오클레티안(Diocletien)황제의 박해의 희생자였던 푸아(Foy) 성녀의 유죄 판결에 할애했다. 꽃바구니 장식의 둘레에 여섯명의 인물들이 발을 쇠시리에 얹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일렬로 서 있다.



베네딕트 수사들의 옛날 식당



푸아성녀: 성유골 입상이 황좌 위에 앉아있다.
(9세기~19세기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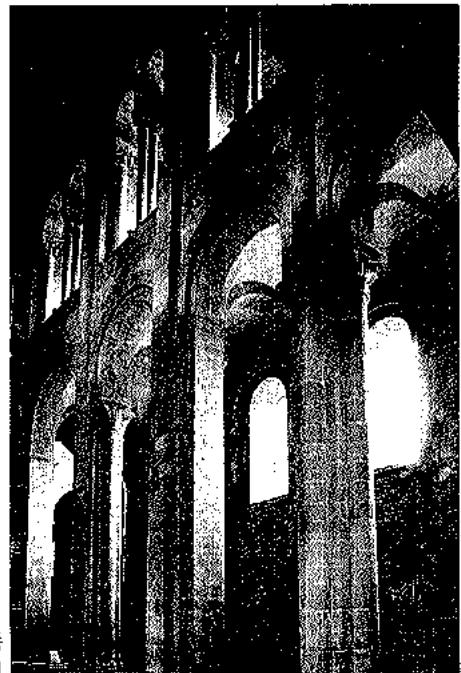
오른쪽에는 십자가를 휘한 천사가 앞에 서 있는 푸와성녀에게 시련속에서 용기를 주려는 듯 성녀의 이개위에 손을 얹고 있다. 성녀의 팔을 잡은 남자는 로마의 지방총독인 다시앙(Dacien)앞에 출두하기 위해 완력으로 성녀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다. 반대편 모퉁이에 다시앙은 왕좌에 앉아 참수를 하는데 사용하는 장검을 사형집행인에게 맡기고 있다. 꽃바구니 장식의 원쪽에는 다시앙의 수호신인 악마가 있다. 두 손에 뱀을 든 흥취한 악마의 얼굴로 묘사되어 있다. 작품의 처리솜씨가 뛰어난 것으로 표현이 풍부한 이 장면은 마지막 심판의 합각벽을 이미 알리고 있다. 꽁꼬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머리는 12세기초에 제작한 중앙회중석의 특별석에서 볼 수 있다. 꽃바구니 장식과 원기둥의 머리판위에 전개된 동물 모티브나 인간의 얼굴을 보면 조각가들의 열정과 상상력을 무궁무진한 것 같다.

성모영보를 제외하고 모든 삼화장식의 기둥머리는 비종교적인 주제이며 그 중 몇몇 삼화장식은 롤랑(Rolan)의 노래처럼 서사적인 이야기를 따온 것 같다. 그러나 서사시의 정확한 에피소드를 연결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의혹은 남아 있다. 서사적인 것은 중앙회중석의 북쪽 특별석에 있는 기둥머리로 아름다운 종려잎 장식을 중심으로 대칭되게 서 있는 뺨나팔을 든 두 사람의 나팔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술가의 타고난 관찰력은 나팔수가 도끼 위에 한손을 얹은 모습에서 잘 나타나며 요즘도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 때는 이러한 자세로 분다. 맞은편에 있는 남쪽 특별석의 기둥머리에서는 무장을 한 두 사람의 결투 장면을 볼 수 있다. 방패로 막으면서 한 사람은 길이가 짧은 칼로, 다른 한 사람은 창으로 무장을 하고 싸우고 있다. 후자의 창이 상대방의 가슴 높이에서 전자의 방패를 관통한 것으로 보아 후자가 승리한 것이 틀림없다. 모든 군사 장비를 매우 세밀하게 조각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쪽에 말을 탄 두 명의 기사가 맹렬한

결투를 하고 있다.

4-3 경내회랑

수도원 성당은 중요한 베네딕트 수도회가 있는 수도원으로 인해 남쪽과 동쪽을 차지하고 있다. 베공(Begon)3세가 건립한 경내회랑은 남쪽 익랑의 아래쪽에 있으며 남부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내회랑에 속했으나 보존 유지의 부실로 인해 19세기 초에 대부분이 사라졌고 채석장에서 가져왔던 건축 자재들은 주민들이 사용을 했다. 프로스페르 메리메(Prosper Mérimée)가 경내회랑을 보존하기 위해 이곳에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늙었다.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동쪽에 있는 것으로 구 교회 참사회의실 쪽으로 향해 있는 작은 홍예문들과 맞은편에 있는 것으로 경내회랑의 서쪽 회랑과 수도사들의 식당을 연결했던 6개의 쌍으로 트인 공간 뿐이었다. Les Monuments Historiques(주:예술부의 한 부분으로 보존해야 할 예술품을 선별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예술품의 소장인이라 하더라도 Les Monuments Historiques의 감독하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보존 유지를 할 수 있다. 물론 공사비용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가 최근에 시행한 공사로 경내 회랑의 부지는 복구되었다. 두꺼운 저층 속에 있던 포장 도로의 단편과 내부의 열주를 지탱하고 있던 낮은 담의 토대를 찾아내므로써 네 개의 회랑 중 세 개의 회랑을 복구할 수 있었다. 마지막 회랑에는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현대식 건물이 있다. 현재는 포장도로를 다시하고 낮은 담을 다시 옮겨 쌓아 로마네스크식 경내회랑의 설계대로 완전하게 재현했다. 무아싹(39m×37m)의 경내회랑과 비교했을 때 28m×26m로 작지만 건축가들은 공간이 좁은 데서 오는 어려움을 고려했음이 틀림없다. 구식당과 보물실의 입구 보물실의 지하에 있는 세공보석 박물관 속에는 약 30점의 기둥머리가 있다. 이것은 없어진 작은 홍예문에 있었던 것들이다. 코스



(Causse)에서 가져온 밝은 회색 석회암의 사용으로 모든 것은 일체를 이루고 있고 이와같은 재료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다. 꽃바구니 장식과 원기 등의 머리판 위와 동물과 천사모티브 옆에 있는 천사들과 수도사, 곡예사와 원숭이를 부리는 사람등 모든 것은 보는 이들에게 12세기초의 사회를 회상시킨다. 수도원의 대형 저수조는 경내회랑이 파괴되었을 때 분해된 재료를 가지고 복원했다. 불행하게도 중앙의 수반인 이 없는 이 저수조는 조각 장식과 질서 정연하게 배치한데서 오는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사용했던 돌에서 나오는 독특함과 사문석의 짙은 녹색 빛깔로 인해 모든 수도원 예술에서 비할데 없는 유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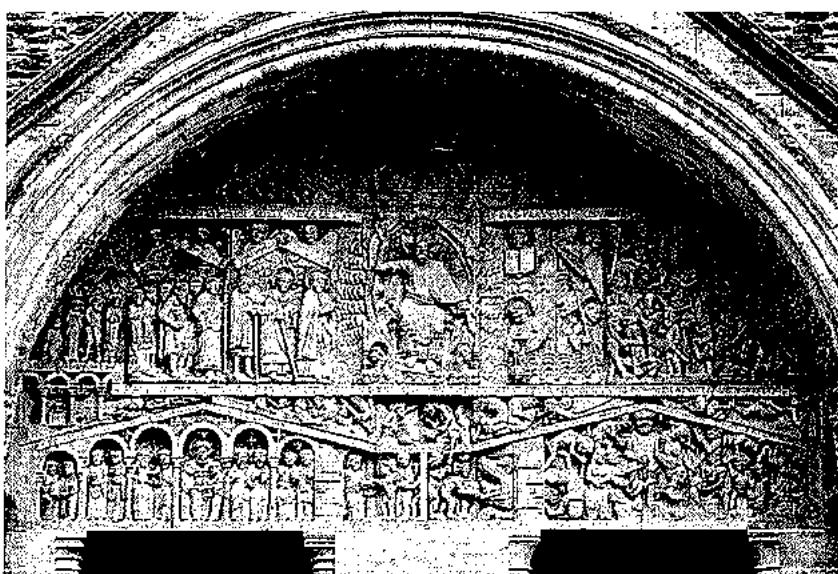
4-4 왕관을 쓴 성녀 상

1) 성녀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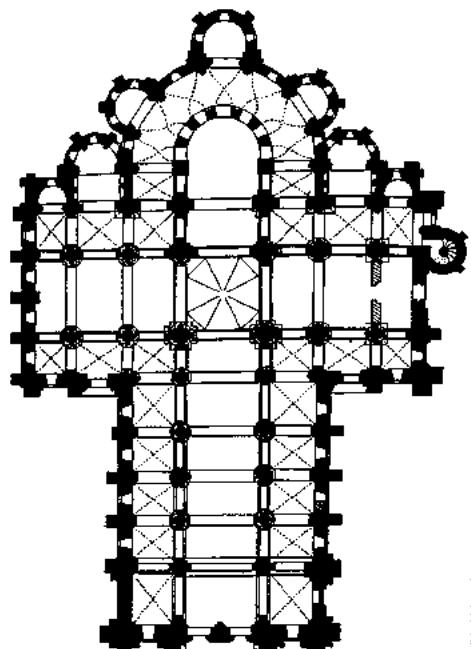
만일 사전에 푸아 성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면 푸아 성녀의 유물상을 쳐다보면서 매우 가슴이 아플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어떠한 서술적인 묘사나 실제 삶의 흔적은 전혀 볼 수 없다. 성이나 나이, 신분, 전기적 특성, 형벌 등 어떠한 것도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의 얼굴은 실제의 인간의 모습이나 이것은 완전히 변형되었다. 순교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일치를 이루었던 그녀는 천국에서 그의 영광에 동참했다. 왕좌에 앉은 자세에서 처음부터 “왕관을 쓴”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왕좌에 앉은 자세와 왕관 아래 무감각한 얼굴속에 크게 뜬 두눈, 빛나는 장식으로 수를 놓아 무릎까지 내려오게 만든 귀한 옷에 싸인 곧은 신체 등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마치지 못했던 다른 삶 즉 금처럼 변함 없고 보석의 색깔처럼 열렬한 또다른 세로운 삶을 표현하고 있다. 입상의 제작을 지휘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입상은 제작때 부터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으로 구상이 되었다. 푸아 성녀의 입상처럼 왕관을

쓴 여러 입상들은 모두 프랑스의 중앙산악지대(Le Massif Central)에 있다. 꽁꼬의 수도원장이면서 동시에 주교였던 에띠엔느(Etienne)2세가 946년 대성당을 위해 제작하게 했던 클레르몽(Clermont)과 호데즈(Rodez) 대성당의 왕관을 쓴 성모마리아 입상이 있으며 942년 제작한 리모즈(Limoges)의 마르티알(Martial) 성인과 오리악(Aurillac)의 제로(Geraud) 성인, 바브레스(Vabres)의 마리(Mary) 성인, 호데즈(Rodez)의 아망(Amans) 성인의 입상을 처럼 교구나 수도원의 수호성인들과 복음사가들의 왕관 쓴 입상이 그것이다. 종교적 책임자 즉 주교나 수도원장들의 제의로 나부를 조각하여 번쩍이는 옷을 입힌 형태는 지적엘리트인 성직자들의 눈에 우상이나 다크이 없었다. 문학자였고 앙제(Angers)의 주교학교의 교사였으며 푸아 성녀에 대한 공경심과 거의 전유권에서 들고 있던 기적에 대한 회의주의 사이에 있던 베르나르(Beranrd)는 1013년경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기위해 꽁꼬로 여행을 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입상을 제작하는 낡은 방법을 확인하는 순간 “이 관습은 미신처럼 지식인들이 추구했다. 즉 이러한 관습은 신들이라 기보다는 오히려 악마에게 바치던 예배의 나머지 처럼 보인다. 성인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색칠한 벽위에 그들의 이미지를 재현한 그림이나 진실한 기록으로 죽하다. 단순한 사람들 사이에서 만성이 되어 고칠 수 없는 관습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성인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상술을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라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베르나르는 말도 하지 못하며 지능도 없는 어떤 물건에 애원을 하는 다수의 인간들이 매우 비이성적이며 무모하다고 생각하며 이 입상을 비너스나 디아나(달의 여신)라고 이름짓고 비웃었다. 그러나 얼마안가 순례객들의 신앙심과 사람들의 상세하게 이야기하던 입상에서 생긴 기적들로 인해 베르나르는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그 후 베르나르는 자기가 다



합각벽:마지막 십판



배치도

른 사람들 보다 훨씬 박식하다고 생각하여 성인들의 초상에 예배하기를 거부하던 사람들과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모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베르나르는 “푸아 성녀의 입상은 괴괴하거나 비난할 물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교적 관습은 넓은 오류속으로 사람들을 빼지게 하거나 종교에 어떠한 피해를 주지도 않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지었다.

2) 성녀상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금으로 머리를 둘을무늬 압착세공을 하였으며 9세기 말 금판을 입힌 몸과 의자를 둘을무늬 압착세공을 하였다. 금도금을 한 온판, 동그스름하게 갈았거나 조각을 한 보석(돈을 새김을 한 옥석 카메오와 음각한 보석)과 선조세공을 한 금판은 870년경 제작했으며 10세기 말 에나멜 눈과 금 귀걸이를 완성했다. 1878년 발밀의 사다리판을 다시 제작하고 보석을 고정시키고 전체를 닦아내었다. 1955년 입상을 분해하여 부분적으로 유골을 제거하고 다시 복원을 했다. 이 성유골 입상의 높이는 0.85m이다.

3) 성녀상의 내력 및 복원

훌륭한 이 작품은 거의 일년동안 확실한 연대를 정하기 주저하는 석학들 사이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푸아 성녀의 성유골이 꽁꽁에 도착하였을 때 제작된 본래의 입상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10세기 말에서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시기를 정했다. 모든 사람들은 넓적하고 남자 같은 얼굴을 한 머리의 기이함과 몸에 비해 너무 큰 불륨, 그리고 뒤로 제낀 이상한 자세에 대해 얘기를 했다. 특수 금은 세공사인 툴루즈(Toulouse)의 루시앙(Lucien)과 장 클로드(Jean Claude)가 1955년 입상을 분해했을 때 Les Monuments Historiques의 검사관인 장 타라롱

(Jean Taralon)에게 입상의 정확한 나이를 알려주고 여러가지 다른 내력을 재구성 할 수 있게 했다.

두 조각의 주목을 대충 각아서 만들었으며 접합부는 입상의 엉덩이 가운데에 있다. 상반신은 좁고 소매의 늘어진 부분이 돌보인다. 겨우 윤곽이 드러난 다리는 매우 입체적이며 어깨 위쪽에 투박하게 자른 목 부분은 속이 빈 금으로 된 머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닿아서 장식한 머리로 동로마 제국(4세기 ~5세기)의 연대를 알 수 있다. 이마에 있는 구멍은 본래 월계관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나무 입상은 머리를 맞추어 붙여 금으로 씌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남아 있는 초기의 옷(상반신 부분과 치마)에서 9세기 말의 둘을무늬 압착세공을 한 작은 꽃장식을 볼 수 있다.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녀가 앉아 있는 의자는 현재 왕좌인 금속의자를 맞추기 위해 후면을 다시 각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많은 장식을 하여 약 천년경의 승리의 순교자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칼라, 옷의 아랫부분, 소매의 가장자리, 받침대의 다리 팔걸이와 왕좌의 등판, 왕관을 장식한 보석과 선조세공이 여기에 속하며 귀걸이와 짙은 청색 에나멜 눈도 순교자의 이미지를 바꾼 장식에 속한다. 왕좌의 형태, 왕관, 금은 세공품의 양식, 많은 보석 성유골을 찬 자주색 천 등 이 모든 것은 황제가 기증한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이 귀한 선물들이 꽁꽁에 오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모른다.

그 후 고딕양식의 시기에 몇 가지가 첨가되었다. 가슴 한가운데 있는 천사로 장식한 온판에는 네개의 꽃무늬 장식이 있는 문이 있어 이 문을 열면 성유골을 볼 수 있다. 허리띠, 무릎위에 있는 목걸이, 어깨위에 있는 보석과 에나멜과 칼라 끝에 있는 수정, 샤파이어, 붉은색 에나멜과 초록색 에나멜로 된 브로우치가 고딕시대에 첨가된 것이다. 왕좌의 다리위에 있는 4개의 공은 수정으로 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19세기



북쪽정문의 엉음장식의 기둥머리



특별석의 아름다운 기둥머리 장식

에 복원되었다. 금도금을 한 은으로 제작한 손과 손목은 16세기에 완전히 다시 제작을 했고 금도금을 한 청동 신발은 19세기에 복원되었다.

4) 푸아 성녀

젊은 기독교인으로 303년경 Agen에서 순교를 했으며 그녀의 성유골은 이곳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다. 전설에 의하면 9세기에 성유골을 매우 숭배하고 있던 꽁끄의 한 수도사가 이것을 가로챈 결심을 했다. 그는 Agen으로 가서 순례객으로 자처하며 쟁뜨 푸아 수도회에 들어가 10년을 보낸다. 신임을 얻는데 성공한 그는 성유골을 훔쳐 꽁끄로 가져오는데 이용했다. 성녀는 기적을 일으켰고 그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푸아 성녀의 장난”이라고 불렀다.

5. 맷음말

쟁뜨 푸아 수도원은 로마네스크식의 빼놓을 수 없는 건축물로서 11세기 중반에 건립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은 12세기에 완성되었다.

이 수도원의 건축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정면의 두 탑이 있고 좌우익랑의 교차점 위에는 8각형의 꼬대기 채광탑이 있어 신비스럽게 빛이 투사되게 하였다.
- 2) 수도원의 기능상의 설계에서는 방문하는 순례객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중앙회중석을 둘러싸고 있는 측랑은 후진 주위의 회랑으로 순례객들을 유도한 점이 돋보였다.
- 3) 쟁뜨 푸아 수도원은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성당의 작은 제단이 관례상 5개인데 반하여 이곳의 후진은 작은 제단이 셋 뿐인 점, 그리고 매우 넓은 좌우익랑(35m)에 비하여 매우 짧은 중앙회중석(20.70m)은 꽁끄가 위치한 지형적인 문제를 자연조건에 부합되게 하여 설계하였으며

반면에 짧은 중앙회중석을 상쇄하듯 건축물은 높이 지어졌는데 수도원의 독창성은 바로 이것에서 기인되었다 볼 수 있다.

4) 특히 서쪽 정문의 합각격은 12세기의 로마네스크 양식 조각의 걸작품으로 마지막 심판이 테마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새겨진 아름다운 조각들은 다른 성당이나 수도원의 합격벽 조각들을 압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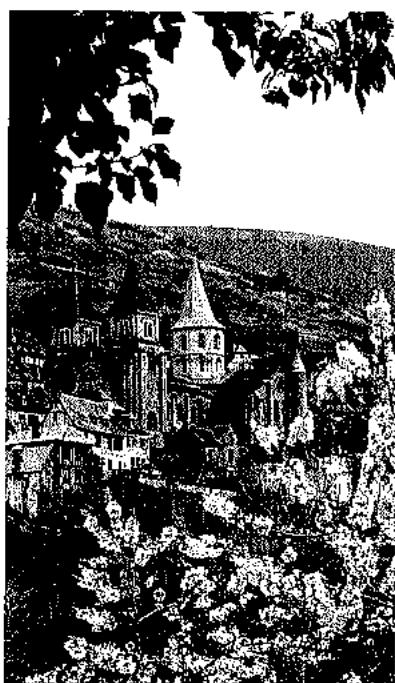
5) 수도원 내부의 아치는 반원형으로, 지주는 수직으로 기둥머리를 제외하고는 업격하고도 치밀한 감을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장식도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6) 후진 주위의 회랑은 기둥 사이의 간격이 일곱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내진의 홍예문과 작은 제단에서 보았던 7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는 수도원의 둑근 부분을 특징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특별석은 실용적이라기 보다는 건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특별석으로 인해 건물 전체가 안정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8) 특별석의 궁륭은 고딕식 벽날개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연속적인 방법으로 전체길이를 받치고 있는데 꽁끄(Conques)와 툴루즈(Toulouse)의 쟁세르냉(Saint-Sernin), 꽁뽀스델(Compostell)의 쟁자끄(Saint-Jacques)에서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중앙회중석을 높게하여 가운데 부분이 없는 측벽의 건축을 용이하게 한다.

쟁뜨 푸아 수도원의 주위환경은 너무도 독특한 자연스러운 지형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을 전체가 산과 나무와 건물이 너무나 아름다운 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거기다가 역사가 오래된 로마네스크양식의 독특한 수도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희귀한 보물들이 산재해 있어 성당이나 수도원 건축에 또는 신앙에 관심있는 분에게는 많은 참고는 물론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수도원의 전경



특별석



현상설계경기



1차 선택안

4·19 기념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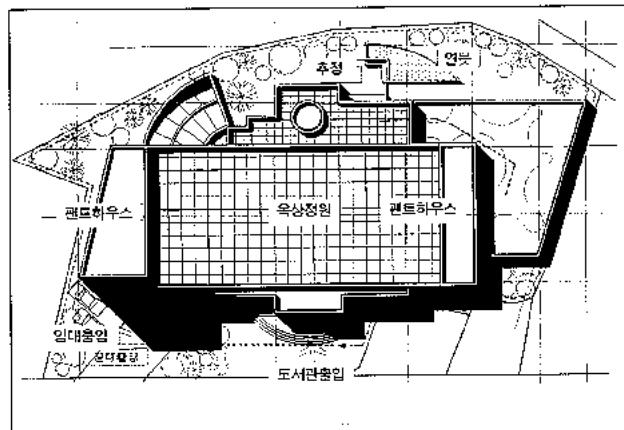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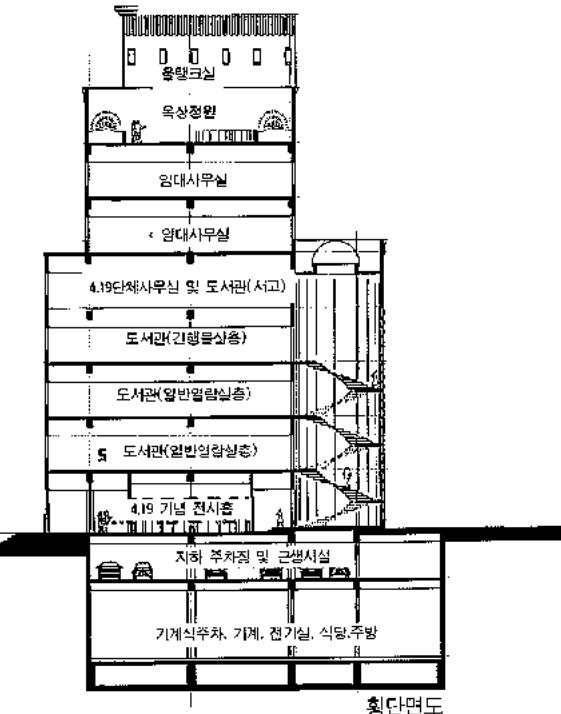
Memorial Library of The 4·19

보훈처에서는 4·19 정신을 기념하고 후세에 길이 남기기 위해 4·19 기념도서관 재건립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3월 3일 (주)아도무건축(장석웅)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현상설계경기는 지난 2월25일 15개 사무소의 작품을 마감하여 심사한 결과 당선작 없이 3작품을 선정, 2차 지명설계를 실시하여 최종 발표했다. 우수작으로는 이상건축(강철희)안이, 기작으로는 피아건축(김후식)안이 각각 선정됐다.

당선작

(주)아도무종합건축(장석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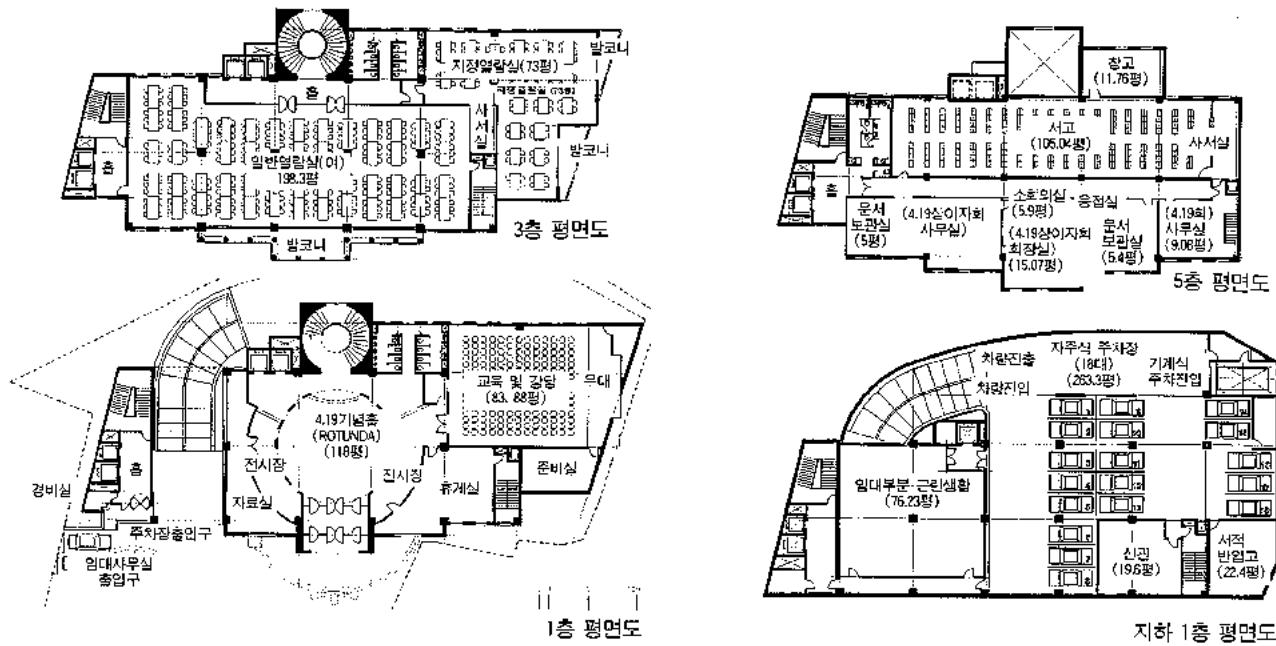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평동 166
대지면적 / 1,944.2m²
건축면적 / 7,249.6m²
건폐율 / 49.64%
용적률 / 264.75%
규모 / 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주요외장 / 흙강석, 색복층유리



배치도



최종안



4.19 기념도서관을 설계하면 서… 대학시절을 마무리 짓 무렵, 4·19 혁명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의 하야와 하와이 망명 등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격변하는 시절에 제8회에 이어 제9회 국전에서 4·19 학생기념회관의 설계 안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되어, 4·19는

나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하였고, 그후 30여년의 세월이 흐른뒤 4.19 기념도서관 재건립 현상설계는 나에게 또다시 남다른 감회와 짊을의 열기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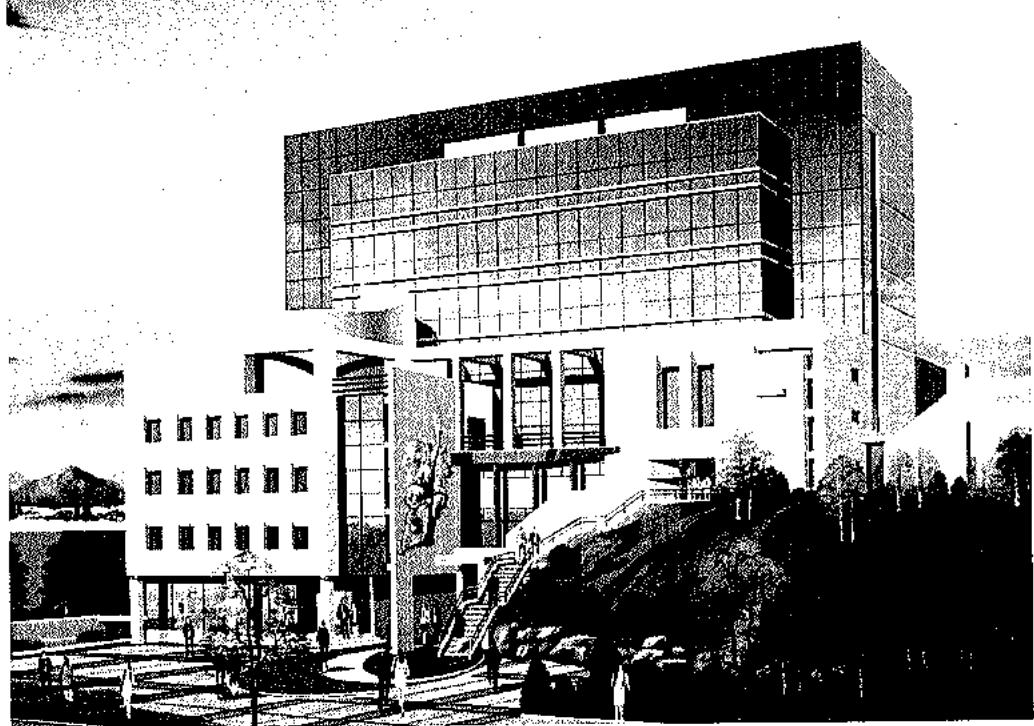
일반적인 사회단체들이 그러하듯 본 4·19회에서도 의미있는 도서관을 건립하지만 그 운영과 관리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여, 저층부에 임대사무실을 두어 수익

성을 배가시키고, 상층에 도서관 기능을 두어 독립성을 유지하였으며,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승화한 의미에서 저층부를 화강석의 육중한 중량감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표현하였다. 상층부의 경쾌한 커튼월로 밝고 친취적이 리는 건축언어를 구사하였으나, 주최측의 강한 반대에 의하여 당선작 없는 가작 3점을 선택하였고, 재차 응모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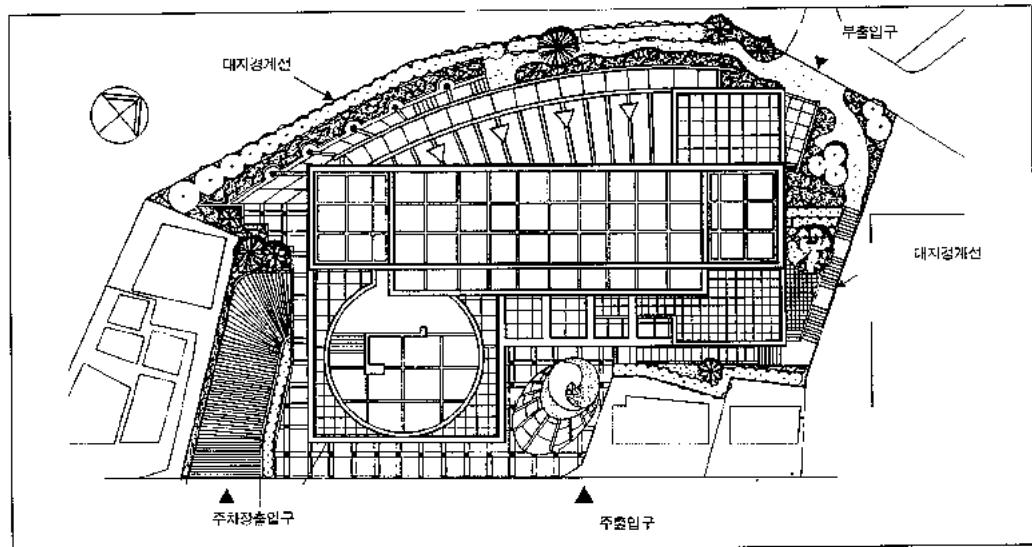
여 최종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4·19 희생의 강한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석조건축의 디테일을 구사하였고, 1층에 Rotunda를 두어 4·19의 기념성을 기리는 공간을 제시하게 되었다.

주어진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1차 선택안



배치도

우수작

(주)이상건축 (강철희) +
이상호(홍익대 건축과 교수)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평동 160
대지면적 / 1,994.2m²
건축면적 / 1,036.4m²
연면적 / 7,349.9m²
건폐율 / 51.0%
용적률 / 282.5%
규모 / 지하2층, 지상8층
외장마감 / 회강식+커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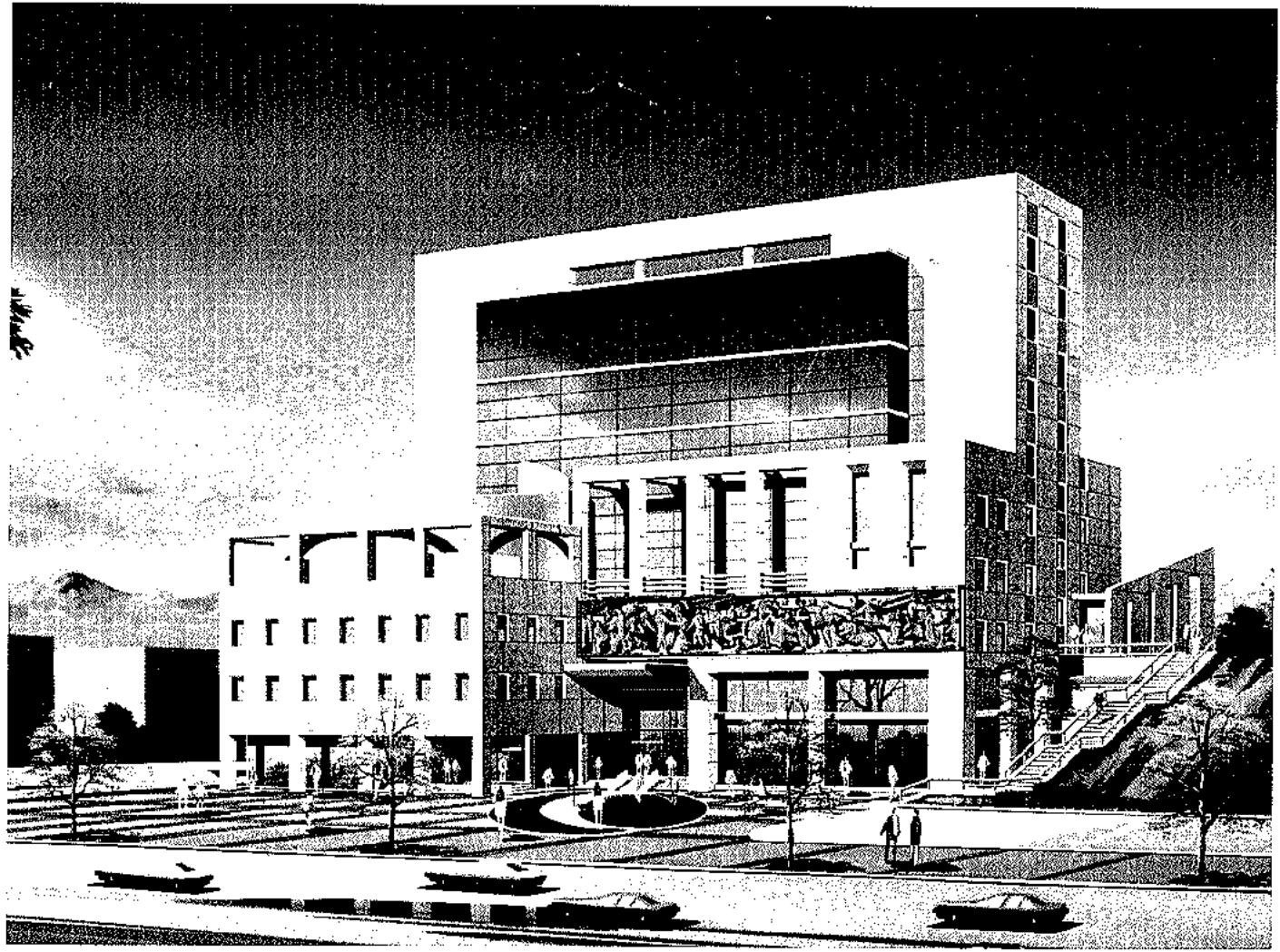
책장에 넣을 책들을 찾으며…

현상설계를 두번하였다. 2단계 현상설계도 아니었다. 그 이유야 어찌되었던 설계능력 미숙함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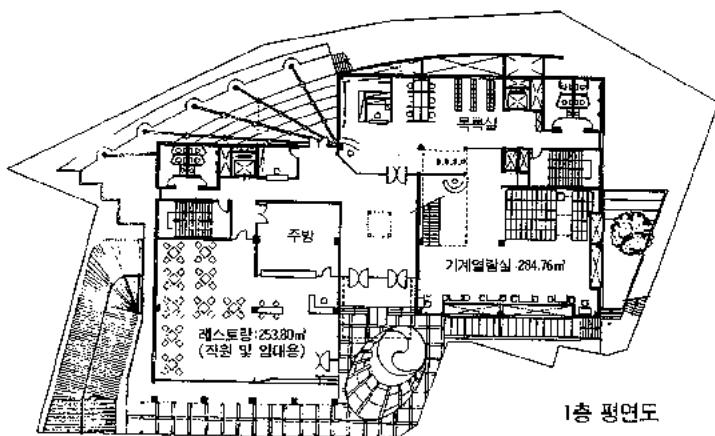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대지의 해석이 주된 접근방식이었다. 지형도 바쁜 형태가 아니고, 지세도 레벨차이가 많이 나며, 도로변에는 3·4층 건물이 전면 일부를 막아서고, 지하철 환기구가 가로 막을 예정이며, 주변의 고층화해기는 건축물과의 조화, 또 그 건축물로부터의 시각도 인식해야 하는 다양한 주변인자들을 지난 대지였다. 이러한기에 도서관 자체기능에 대한 축소된듯한 프로그램도 이것들속에 물려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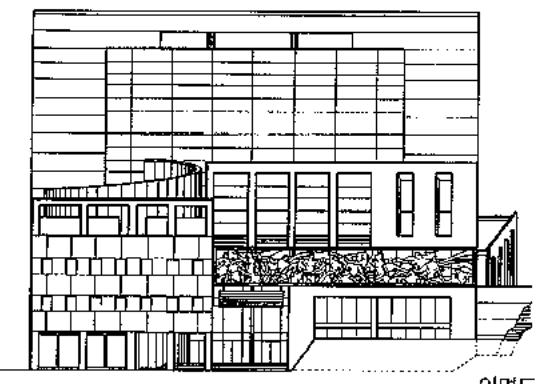
대지현황분석과 프로그램상의 다양성(도서관, 독서실, 일반임대 공간의 혼합용도)에 따라 건축계획의 대인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4.19의 정신적 상징성과 이 지역의 물리적 상징성을 구현화가 주된 디자인크리테리아였다. 상징성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해서 각 공간에 의미부여를 하고, 상징적 디자인요소를 사용하여 그 공간의미를 실제로 연출해 가는 방법을 채택 하였다. 아울러, 의미의 상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독특한 기능을 추가시켰다. 시대의 추세에 맞춰 개인연구실임대, A-V코너, 시청각 목록실 등을 고려하였다. 기능의 복합, 사용시간대 상이 등에 따라 구조와 실비체계를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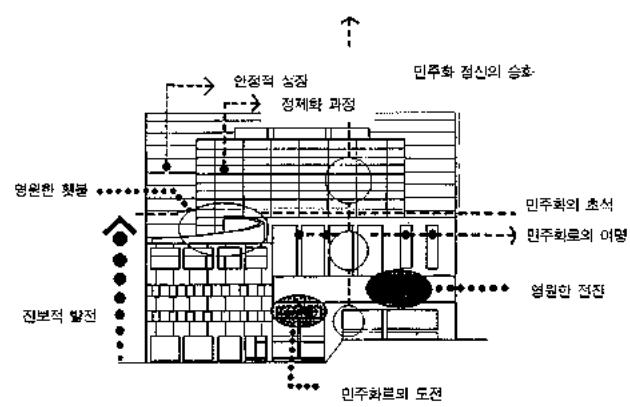
최종안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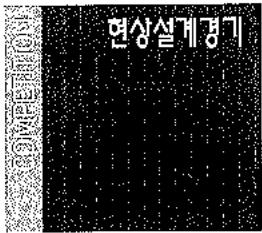
일면도



디자인 개념



단면도



최종안

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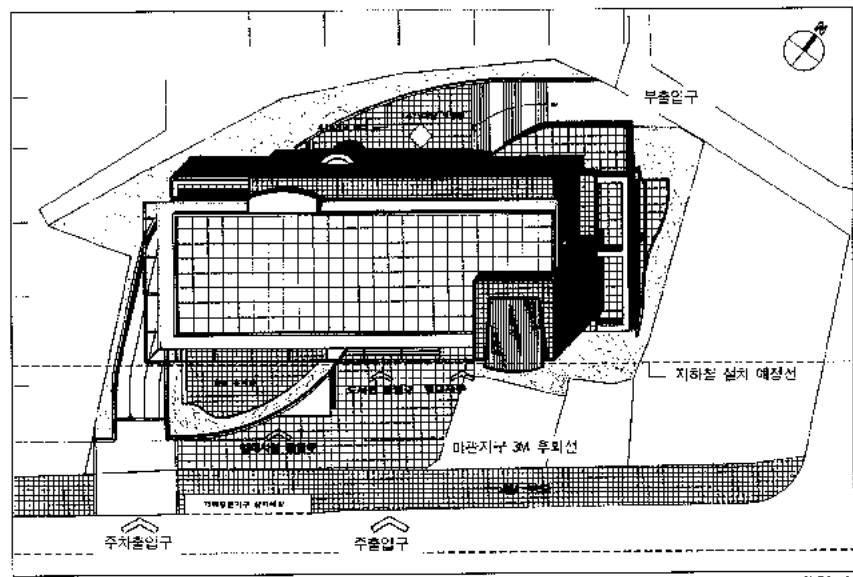
(주)피아건축
(김후석+오경은+민경로+박경삼)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평동 166의 4필지
대지면적 / 1,928.3m²
건축면적 / 963.4m²
연면적 / 7,317.6m²
건폐율 / 50.0%
용적률 / 285.6%
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구조 / R·C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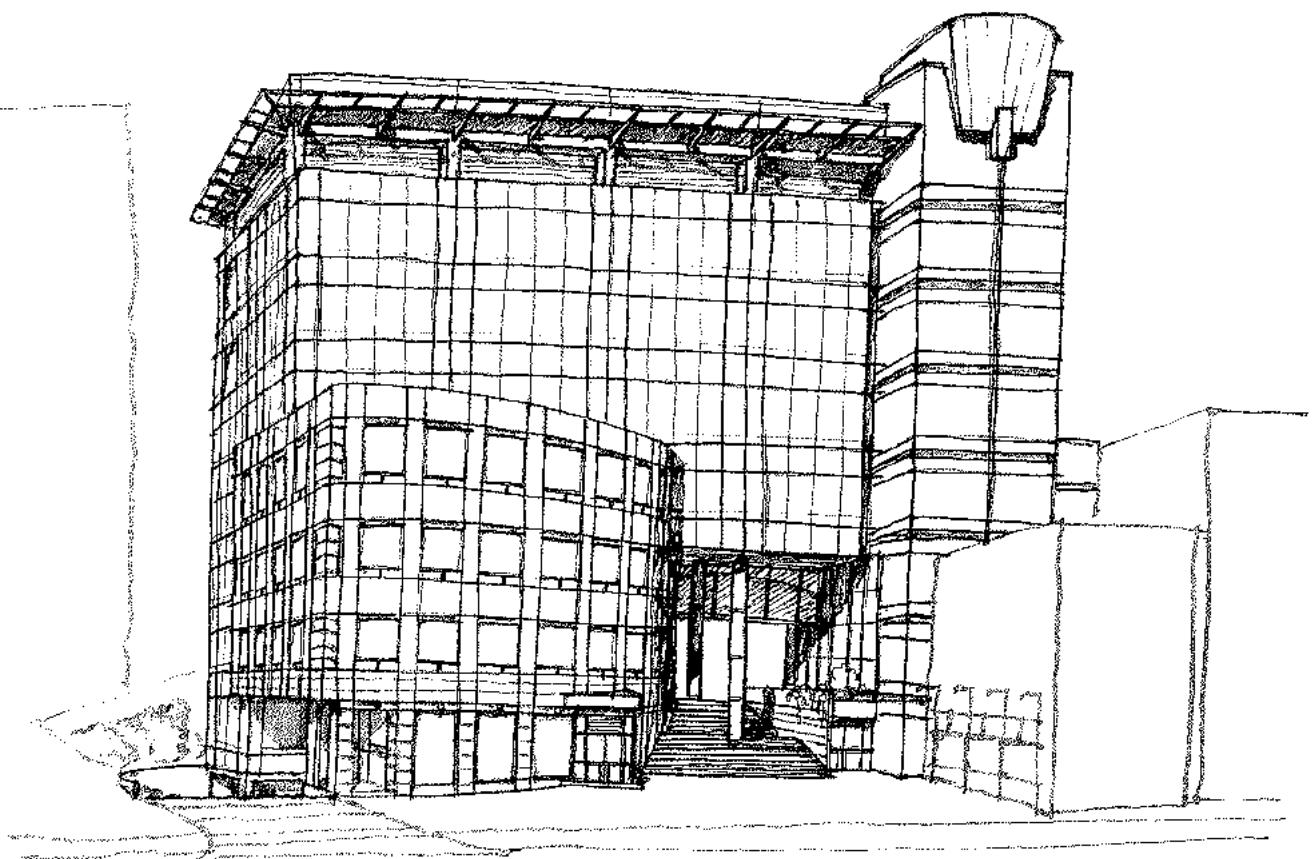
이 계획은 다양한 기능이 혼재되어 있기에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복합 건물에 가깝다. 결국 동선을 어떻게 분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지가 본래 갖고 있는 Level 차를 이용하여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소광장을 도입했다. 이 광장은 4.19 정신을 기념·계

승하고 도서관의 주 진입구로,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근린 공원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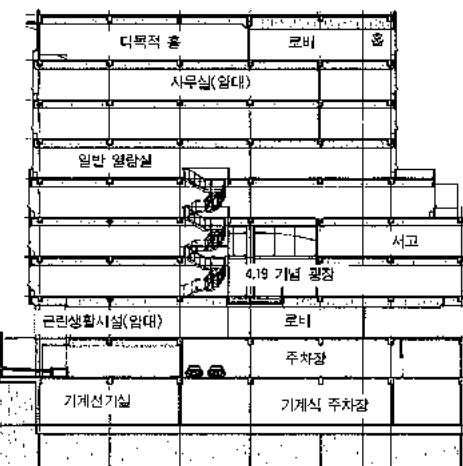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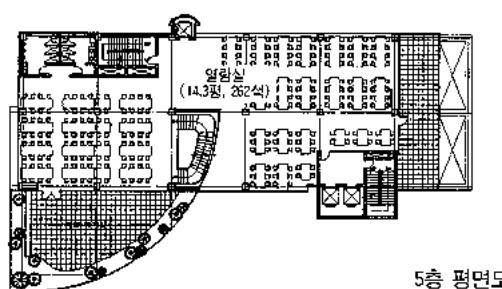
전체적인 Image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인 건물이고, Open Space를 과감하게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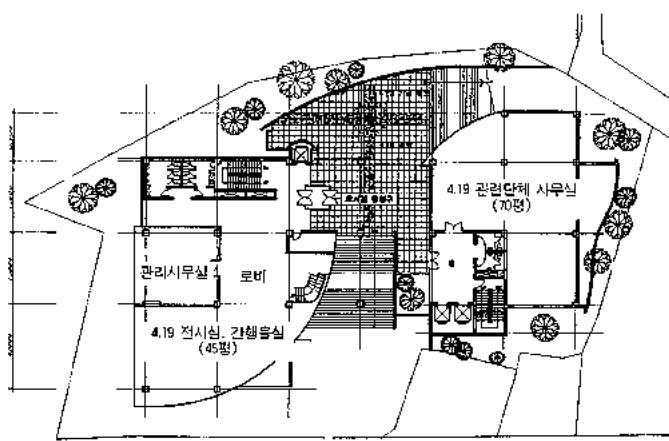
배치도



스케치



횡단면도



1995년도 2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2월분 2천1백3십3만2천9백77m²보다 61.4% (1천3백1십만4천8백16m²) 감소한 8백2십2만8천1백61m²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단위/m ²)	
구 분		1994년도	1995년도	증 감	비 율
증가지역	인 천	595,097	783,370	188,273	31.6%
	강 원	368,397	473,477	105,080	28.5%
감소지역	서 울	2,538,647	1,321,271	(1,217,376)	-48.0%
	부 산	606,175	406,395	(199,780)	-33.0%
	대 구	856,383	386,058	(470,325)	-54.9%
	광 주	516,921	318,155	(198,766)	-38.5%
	대 전	738,041	184,443	(553,598)	-75.0%
	경 기	3,870,114	1,653,507	(2,216,607)	-57.3%
	충 북	1,127,217	201,897	(925,320)	-82.1%
	충 남	5,694,608	378,885	(5,315,723)	-93.3%
	전 북	1,153,351	339,613	(813,738)	-70.6%
	전 남	311,782	208,899	(102,883)	-33.0%
	경 북	1,323,823	715,973	(607,850)	-45.9%
	경 남	1,433,268	807,016	(626,252)	-43.7%
제 주		199,153	49,202	(149,951)	-75.3%
합 계		21,332,977	8,228,161	(13,104,816)	-61.4%

전년도 2월 누계 2천7백7십만1백54m²보다 45.7% (1천2백6십6만5천5백61m²) 감소한 1천5백3만4천5백93m²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1월분 7백7만1천4백54m²보다 16.4% (1백1십5만6천7백7m²) 증가한 8백2십2만8천1백61m²의 실적을 보임.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단위/m ²)	
구 분		1월분	2월분
단 독 주 택	622,269	1,028,000	405,731
다 세 대 주 택	225,563	412,415	186,852
연 립 주 택	94,232	142,824	48,592
아 파 트	2,605,538	2,268,909	(336,629)
근린생활시설	1,185,617	1,522,233	336,616
종 교 시 설	65,660	74,994	9,334
의 료 시 설	86,115	21,511	(64,604)
교육연구시설	204,370	294,567	90,197
업 무 시 설	139,059	374,465	235,406
숙 박 시 설	133,044	160,220	27,176
공 장	968,881	1,264,147	295,266
기 타	741,106	663,876	(77,230)
계	7,071,454	8,228,161	1,156,707
			16.4%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2월분)

구 분	1994년			1995년			대 비			연 면 적 비 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5,653	5,751	1,482,969	3,898	3,930	1,028,000	(1,755)	(1,821)	(454,969)	-30.7%	
다 세 대 주 택	1,036	1,146	555,083	692	736	412,415	(344)	(410)	(142,668)	-25.7%	
연 립 주 택	117	160	211,348	94	107	142,824	(23)	(53)	(68,524)	-32.4%	
아 파 트	247	1,065	6,389,893	134	425	2,268,909	(113)	(640)	(3,120,984)	-57.9%	
근 린 생 활 지 역	6,557	6,734	3,630,564	3,321	3,379	1,522,233	(3,236)	(3,355)	(2,108,331)	-58.1%	
종 교 시 설	210	247	229,424	86	98	74,994	(124)	(149)	(154,430)	-67.3%	
의 료 시 설	24	26	51,284	9	11	21,511	(15)	(15)	(29,773)	-58.1%	
교 육 연 구 시 설	133	161	496,739	88	94	294,567	(45)	(67)	(202,172)	-40.7%	
업 무 시 설	137	143	494,414	88	86	374,465	(49)	(57)	(119,949)	-24.3%	
숙 박 시 설	257	278	469,438	101	108	160,220	(156)	(170)	(309,218)	-65.9%	
공 장	1,493	2,283	2,128,459	733	1,082	1,264,147	(760)	(1,201)	(864,312)	-40.6%	
기 타	1,538	1,992	6,193,362	810	1,067	663,876	(728)	(925)	(5,529,486)	-89.3%	
합 계	17,402	19,986	21,332,977	10,054	11,123	8,228,161	(7,348)	(8,863)	(13,104,816)	-61.4%	0=마이너스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2월분)

구분 용도별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8,939	9,075	2,249,260	6,304	6,391	1,649,850	(2,635)	(2,684)	(599,410)	-26.6%	
다세대주택	1,557	1,712	802,176	1,202	1,275	638,263	(355)	(437)	(163,913)	-20.4%	
연립주택	175	236	304,841	168	189	235,594	(7)	(47)	(69,247)	-22.7%	
아파트	340	1,335	6,706,761	249	824	4,681,947	(91)	(511)	(2,024,814)	-30.2%	
근린생활시설	9,474	9,722	4,883,869	5,593	5,748	2,694,907	(3,881)	(3,974)	(2,193,962)	-44.9%	
종교시설	303	359	328,664	153	179	140,080	(150)	(180)	(188,584)	-57.4%	
의료시설	42	49	137,678	29	31	107,626	(13)	(18)	(30,052)	-21.8%	
교육연구시설	215	267	678,222	170	186	499,080	(45)	(81)	(179,142)	-26.4%	
업무시설	205	225	667,185	148	147	510,864	(57)	(78)	(156,321)	-23.4%	
숙박시설	367	390	569,031	215	229	276,646	(152)	(161)	(292,385)	-51.4%	
공장	2,096	3,200	2,928,682	1,363	2,038	2,198,092	(733)	(1,162)	(730,590)	-24.9%	
기타	2,550	3,387	7,438,785	1,580	2,000	1,401,644	(970)	(1,387)	(6,037,141)	-81.2%	
합계	26,263	29,957	27,700,154	17,174	19,237	15,034,593	(9,089)	(10,720)	(12,665,561)	-45.7%	(=미너스)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2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2,049	2,565	2,538,647	1,725	1,738	1,321,271	(684)	(872)	(1,217,376)	-48.0%	
부산	754	790	606,175	749	828	406,395	(5)	38	(199,780)	-33.0%	
대구	1,281	1,468	856,383	1,102	1,144	386,058	(179)	(324)	(470,325)	-54.9%	
인천	738	745	595,097	331	382	783,370	(407)	(363)	188,273	31.6%	
광주	417	529	516,921	352	425	318,155	(65)	(104)	(198,766)	-38.5%	
대전	1,258	1,324	738,041	258	266	184,443	(1,000)	(1,058)	(553,598)	-75.0%	
경기	3,756	4,433	3,870,114	2,068	2,313	1,653,507	(1,688)	(2,120)	(2,216,607)	-57.3%	
강원	556	619	368,397	452	601	473,477	(104)	(18)	105,080	28.5%	
충북	1,189	1,483	1,127,217	332	366	201,897	(857)	(1,117)	(925,320)	-82.1%	
충남	962	991	5,694,608	349	391	378,885	(613)	(600)	(5,315,723)	-93.3%	
전북	738	891	1,153,351	152	96	339,613	(586)	(795)	(813,738)	-70.6%	
전남	422	510	311,782	349	413	208,899	(73)	(97)	(102,883)	-33.0%	
경북	1,110	1,508	1,323,823	571	766	715,973	(539)	(742)	(607,850)	-45.9%	
경남	1,480	1,776	1,433,268	1,105	1,230	807,016	(375)	(546)	(626,252)	-43.7%	
제주	332	354	199,153	159	164	49,202	(173)	(190)	(149,951)	-75.3%	
합계	17,402	19,986	21,332,977	10,054	11,123	8,228,161	(7,348)	(8,863)	(13,104,816)	-61.4%	(=미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2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3,588	3,769	3,148,191	2,704	2,728	2,246,004	(884)	(1,041)	(902,187)	-28.7%	
부산	1,479	1,539	1,520,616	1,432	1,580	835,137	(47)	41	(685,479)	-45.1%	
대구	2,289	2,601	1,321,049	1,928	1,986	647,063	(361)	(615)	(673,986)	-51.0%	
인천	1,031	1,045	777,569	584	646	1,253,109	(447)	(399)	475,540	61.2%	
광주	661	811	696,225	555	740	872,300	(106)	(71)	176,075	25.3%	
대전	1,535	1,613	874,561	397	434	424,163	(1,138)	(1,179)	(450,398)	-51.5%	
경기	5,336	6,238	5,261,565	3,411	3,855	3,188,385	(1,926)	(2,383)	(2,073,180)	-39.4%	
강원	1,005	1,127	578,980	791	960	619,086	(214)	(167)	40,106	6.9%	
충북	1,715	2,088	1,355,330	744	876	522,801	(971)	(1,212)	(832,529)	-61.4%	
충남	1,307	1,372	5,943,385	575	655	644,550	(732)	(717)	(5,298,835)	-89.2%	
전북	1,000	1,198	1,464,067	207	163	540,193	(793)	(1,035)	(923,874)	-63.1%	
전남	811	1,007	492,728	578	687	361,737	(233)	(320)	(130,991)	-26.6%	
경북	1,635	2,222	1,800,544	1,195	1,614	1,307,362	(440)	(608)	(493,182)	-27.4%	
경남	2,362	2,791	2,200,886	1,795	2,027	1,486,904	(567)	(764)	(713,982)	-32.4%	
제주	509	536	264,458	278	286	85,799	(231)	(250)	(178,659)	-67.6%	
합계	26,263	29,957	27,700,154	17,174	19,237	15,034,593	(9,089)	(10,720)	(12,665,561)	-45.7%	(=미너스)

건설업계, 설계업 참여허용 또다시 정부에 요구

건설업계가 또다시 설계업 참여 허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사항은 이미 지난 94년 2월 한국건설업체 연합회가 행정체신위원회에 국민제안으로 상정하여 94년 10월 14일 개최된 제60차 본위원회에서 「제안자 원안 부결」로 의결되었던 것으로 이번에는 대한 건설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대한건설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건설관련 법령제도개선」건의서 내용에 따르면 시공업체의 건축 설계업 참여허용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전축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를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각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을 모색하고자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온 일련의 건축개혁 노력에 대하여 전심으로 환영과 찬사를 보내는 바」라며, 오늘 이자리를 계기로 건축계의 개혁과 변화의 열기가 더 높아지고, 오늘날 우리가 지은 건축물이 민속문화유산으로 길이 남게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또한 건축문화적 특성을 살려나가는데 더욱 전력하여, 민족사에 빛나는 새로운 건축문화가 창출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회순에 따라 제29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유인물로 대체하여 승인하고, 추대 회원 추대보고, 주요업무보고, 간사보고에 이어 부의안건 상정에 들어가 제1호의 안에서 제9호의 안까지 상정하여 심의에 들어갔다. 의안별 설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 안 :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 안 : '94회계년도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 안 : '94회계년도 신문발간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4호의 안 : '94회계년도 특별비상대책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5호의 안 : '94회계년도 건축사시험 및 연수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6호의 안 : '94회계년도 건축사연금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7호의 안 : 건축개혁 추진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8호의 안 : 건축사연금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9호의 안 : 건축사연금규정 효력의 일시정지 및 특별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특별위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

부의안건 심의에 이어 기타사항에 들어가 여러 대의원의 의견 및 건의를 들은 후 이 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됐다.

건축개혁 발표회 개최

우리 협회 95년도 제1회 임시총회가 지난 3월 29일(화) 오전 10시부터 협회 대강당에서 재적대의원 497명 중 36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김규태 회장의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김영석감사의 진축사 현장 낭독순으로 진행된 이날 임시총회에서 김규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 건축계는 밖으로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선진 여러 나라들과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고, 안으로는 또다시 세계화를 빙자한 건설업체들의 설계업 진출기도의 거센바람을 막아야 하며, 더욱이 도서신고제도 개편 등 국내, 외적으로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며, 「우리 모두 협회와 함께 한국건축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새로이 시작하여, 한국건축의 세계화로 향한 새역사를 창조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오명 진설교통부 장관을 대신한 유상열 건설교통부 차관은 차관에서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가 김규태 회장을 중심으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지향적인 발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1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김규태 회장, 이종관 홍보위원장, 김태웅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정상 개혁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언론사 기자 30여명을 초청하여 「건축개혁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에 발표된 건축개혁안은 급변하는 국



총회 광경



발표회 광경

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건축계에 만연된 내,외적 모순을 진단, 제거하여 세계화를 향한 재도약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지난 3개월동안 각계각층을 대표한 개혁추진위원회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안)으로서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개혁내용에는 건축설계 및 감리, 행정제도 및 법규, 대국민 서비스체계 등 건축계 전반에 대한 협황과 문제점, 이에 대한 개혁추진의 기본방향 등이 공식 발표되었고, 특히 이번 개혁의 주요골자라 할 수 있는 건축설계 저작권도입, 회원자격 확대, 대민건축 봉사시스템 구축, R&D사업 전개, 건축관련법규 통폐합, 건축사사무소의 자격제도 및 업종별 대형화와 전문화, 해외 진출확대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되었다.

이사회 개최



회의광경

우리 협회의 주요당면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제3회 이사회가 김규태 회장 주재로 지난 3월 7일(화)에 개최되어, 협회 업무보고에 이어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개혁(안)심의 승인의 건
 - 건축개혁(안)을 축조식으로 심의후 부분수정키로 하고 승인함.
- 95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의제결정 승인의 건
 - 95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의제로
 - 제1호의 안: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제2호의 안: '94회계년도 특별회계 수

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의 안: '94회계년도 신문발간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4호의 안: '94회계년도 특별비상대책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5호의 안: '94회계년도 건축사 시험 및 연수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6호의 안: '94회계년도 건축사연금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7호의 안: 건축개혁(안) 승인의 건 등 7개의 안을 상정하기로 결의함.

• 지역건축사회 명칭변경 승인의 건

-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소속 도봉구건축사회를 강북구 건축사회로, 성동구건축사회를 광진구 건축사회로 명칭변경 하는것을 원안대로 승인함.

• 노후불량주택 진단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협의

- 진단구성원의 업무수행대가는 총진단료의 50%를 지금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협의함.

• 건축시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

- 부회장 및 법제위원장이 검토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토록 위임함.

• 성남지역건축사회 설계도서 신고업무 거부에 대한 대책 협의

- 회장에게 일임함.

• 공로회원 표창에 대한 협의

- 최영식 회원은 공적을 좀 더 상세하게 조사해서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영일회원은 30주년 기념행사에서 표창하며, 아울러, 시.도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표창 상신하므로서 협회의 위상을 높일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고 시.도에 이를 통보키로 협의함.

• 부동산 컨설팅업체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부동산 컨설팅업체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임인혁 설계감리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협의함.

95년도 정기감사 실시

우리 협회는 95년도 임시총회 대비를 위한 전년도 결산감사는 물론 당면 주요 현안에 대한 처리결과 및 협회 자체내에서 추진 중인 제도 개선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하면서 협회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본부 및 시.도건축사회를 대상으로 95년

도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다.

우리협회 오인준, 김영식 감사에 의해 실시된 이번 정기감사에는 94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사업실적, 94년도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건축사 연금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도서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정부사책 관련업무 추진사항, 각종 문서수발 및 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 출장확인 및 지도감사로 진행되었다.

서울건축사회, 제1회 임시총회 개최



회의광경

서울건축사회(회장 이의구)는 지난 2월 24일 성원미달로 연기되었던 제1회 임시총회를 3월 22일(수) 오전10시부터 세직회원 2,265명중 579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강당에서 개최했다.

부의사항별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 안 : 94년도 일반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 안 : 94년도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 안 : 95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원안대로 승인함.(단 총예산액 1,154,000,000원중 6월말까지는 운영회비로 하고 7월 1일부터는 월정회비로 하되, 6월말까지 총세입액을 분석하여 나머지 부족된 세입액을 회원수로 나눠서 월정회비 정수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되 금액은 간사회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결의함.)
- 제4호의 안 : 부회장 선출의 건
 - 김기철 회원이 피선됨
- 제5호의 안 : 대의원 보선의 건
 - 회장에 위임하여 선출토록 함

서울건축사회, 신입회원 간담회 개최

서울건축사회(회장 이의구)는 지난 3월



17일(금) 오후 6시 서울 르네상스호텔(4층) 토파즈룸에서 신입회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94년 10월부터 95년 3월까지 입회한 신입회원 60여명을 대상으로 거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에 대한 소개와 개업에 따른 고충사항 견의 등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교실 개설

광주광역시 건축사회(회장 정재경)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건축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증진과 소양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1기 "건축 문화 교실"을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하는 "건축문화 교실"은 시민, 학생, 공무원, 건축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건축사회가 후원하고 있다.

강사 및 강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름다운 집 행복한 가정

- 3월 23일 : 건축, 도시 그리고 광주
김광우 교수(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 3월 30일 : 도시건축의 최근 경향과 새로운 방향
조용준 교수(조선대학교 건축과)
- 4월 6일 : 도시, 건축법의 이해와 개정방향
노경수 교수(광주대학교 도시공학과)
- 4월 13일 : 도시속의 소품디자인과 경관연출
양상숙 교수(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 4월 20일 : 도시속의 건축외부공간과 공원꾸미기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 4월 27일 : 도시교통문제와 도시 - 건축계획
윤관 박사(광주시 교통정책실)
- 5월 4일 :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조경

이규완 박사(광주시 시정연구단)

- 5월 11일 : 우리의 미래와 광주의 도시 - 건축
류영국 박사(광주시 시정연구단)
- 5월 18일 : 광주건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송전(대호건축 대표 건축사)
- 5월 25일 : 건축과 사회
류연창(류가람건축 대표 건축사)
- 6월 1일 : 광주의 건축역사와 도시
천득염 교수(전남대학교 건축과)

제13회 서울시건축상 수상작 발표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 이를 세계한 건축사와 건축주 및 시공자를 포상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 「서울시 건축상」이 지난 3월 9일 발표되었다. 올해로 열세번째를 맞는 서울시 건축상 금상에는 총 19점이 응모한 가운데, 용산구에 소재한 전쟁기념관을 공동 설계한(주)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성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전원의 광복길 회원이 영예의 금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은상2점, 동상3점, 장려상 3점이 각각 발표되었다. 이번에 금상으로 선정된 전쟁기념관은 전시관으로서 전통적인 평면구성과 옥외광장 및 농지공간 등을 조화되도록 배치하여 공원속의 박물관으로서 대시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내부 중앙홀 및 주제의 장, 자연광의 아트리움에 면한 복도를 중심으로 각 전시실과 연결공간 및 기능적 처리가 잘되고 교육적, 사회적 기여도가 돋보여 수상되었다고 한다. 한편 서울시는 수상작품들에 대해 지난 3월 21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마치고 시청역 전시실에서 3월 31일까지 전시하였다.

수상작품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금상: 전쟁기념관((주)한울건축 이성관, (주)건원건축 광복길)
○ 은상: SBS등촌동 공개홀(일간건축 최관영, 정동명)
○ 양천신경외과동(인제건축 김인철)
○ 동상: 예닮교회(정림건축 김정철)
○ 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삼정디자인, 김기웅)
○ 자명당(단우, 모암건축, 김홍수)
○ 장려상: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옥(범한건축, 최광수)
○ 영동제일병원(이로재, 승호상)
○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정일엔지니어링, 송기덕)

제2회 건축학회 학생건축상 수상작 발표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회장 이명호)는 도시, 집합, 한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건축학회 학생건축상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총 103점이 출품된 1단계 심사에서 29점이 입선되고, 패널 및 모형심사인 2단계 심사에서 우수상 2점, 장려상 4점을 발표하였다. 한편 이번 입선된 작품은 지난 3월 8일부터 12일까지 현대주택문화센터 홍보관 1층에서 전시되었으며, 시상식은 3월 11일 사당동 건축회관에서 시행되어 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2백만원과 상패, 장려상 4명에게는 50만원 및 상패가 각각 수여되었다. 최종 수상작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우수상: 도시 집합 '한옥' 홍승모(서울대)

Block, Identity 김태우, 최우연(인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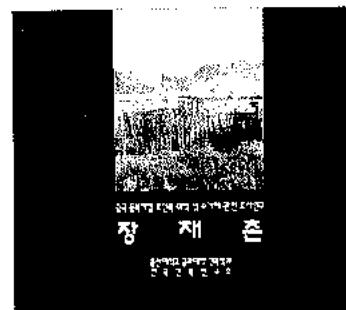
○ 장려상: 도시, 집합 '한옥' 고영남외 2인(서울대)

도시집, 작은숲, 나 최윤봉외 2인(한남대)

Tree System(길+담) 전유창(인하대)

도시, 집합, 한옥 이현우, 정귀원(성균관대학원)

건축역사학회, 중국 연변지방 조선족 취락 및 주거에 관한 월례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건축역사학회는 지난 3월 4일(토)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중국 연변지방 조선족 취락 및 주거에 관한 조사연구란 제목으로 월례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도시건축연구소가 지난 2년간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 취락 및 주거에 관한 현장조사를 기초로 (장재촌)이라는 연구자료 출판기념회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날 주제 발표에는 강영환 울산대학교의 연구개요와 김봉렬 울산대학교의 연변 조선족의 마을과 주거 개관, 신재억 울산대학교의 장재촌마을의 구성과 주거

건축 발표에 이어 김일진(영남대 교수), 이황기(목원대 교수), 이희봉(중앙대 교수)의 토론 및 총평이 있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택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발표회 개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재명)은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초구 우면동 소재 교총회관에서 주택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성과 중간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설계의 표준화와 건축 주요 자재의 규격화 그리고 KS규격의 정비를 위하여 건설기술연구원과 대한건축학회,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택설계의 표준화 기준설정 및 설계 지침서 작성에 관한 연구”의 중간 연구성과 발표회로 표준화 개념 및 이론의 통일, KS표준화 관련 규격의 정비방향 제시, 표준화 우선 대상자재의 규격제안,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지침서 개발 등이 주요 발표된 내용이었다.

한편 이날 발표자로는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실장과 이문섭 인하대 교수, 박준영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하였다.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개원 축하 행사 개최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설계 교육전문기관인 건축대학원의 개원축하 행사가 지난 3월 25일 오후5시 경기대 서대문캠퍼스에서 거행됐다. 야외극장에서 많은 건축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별이진 이날 축하행사는 1부 빛이여 오라, 2부 공간속의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침착한 모든 이에게는 건축인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1부 프로그램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하나, 둘, 셋… 그녀며: 터辨别
2. 원쪽에서 오른쪽: 부정놀이
3. 넓고, 좁고, 깊고, 알게: 제석출
4. 조감도土오감도: 건축대학원 개원에 대한 현대무용

건축가 미술동호회, 회원모집

건축가 미술동호회(회장 한창진)는 오는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숭동 예총회관 1층 전시실에서 제4회 건축가미술전을 개최한다. 올해부터는 회원전 성격을 가지게 됨

에 따라 회원가입자의 작품에 한해 전시가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을 바란다. 강남구 논현동 57-38(원영빌딩3층) 한라종합건축 T:02)545-9767~8

은 95년 6월 8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최우수작 1점에는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우수 및 가작 각 1점에는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총무국 사회진흥과 T:72-8201~9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 부동산 컨설팅업 협회 창립

REED Exhibition Companies는 오는 5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싱가폴 월드 트레이드센터에서 국제 건축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건축전시회의 제목은 SIBEX '95(남동아시아의 국제적인 빌딩 및 건축전시회), SIBS '95(국제 빌딩서비스전), AIHEX '95(국제 Hardware 전시회)로 국가들간의 정보교류와 선진기술 교환 및 태평양 지역에서의 거대한 건설사업 참여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94년도에는 39개국 12,766명이 참여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BLI종합센터 T:563-8223~4 F:564-9288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체육공원 기본계획 및 축구장 기본설계 현상 공모

부동산 시장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국내 부동산 컨설팅업의 전전한 발전과 제도개선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한국 부동산 컨설팅업 협회’가 지난 3월 31일 한국감정원 등 22개 업체가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식 출범했다.

이번 협회 창립을 계기로 그동안 전문직 업분야로 정착되지 못한 부동산 컨설팅업이 제도화되고, 부동산에 관련한 제반문제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 등이 나오리라 기대된다.

한편 이날 초대회장에는 한국 감정원 원장인 손창규씨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건축사법시행령증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건축사법의 개정(95년 1월 15일, 법률 제 4,918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3월 24일 건축사법시행령증개정령(안)을 입법예고(공고 제 1995-74호)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사시험을 건축사예비시험과 건축사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시험과목을 건축사예비시험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 3개과목으로, 건축사자격시험은 건축법규, 건축설계 2개과목으로 조정하며, 설계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건축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설기)과목의 배점율을 상향조정(100점→200점)함.

- 현재 건축사협회 회원은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건축허가신청전에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허가신청후 7일이내에 신고하도록 완화함.

경기대학교, 건축특별 강연회 개최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는 95년도 1학기에 수원 및 서울캠퍼스에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의 내용 및 일정은 아래와 같다.

강 사	제 목	수원캠퍼스	서울캠퍼스
이강현 (백제예전교수, 건축가)	반복 대음변화	4월 1일(화) 오후 5:00	4월 21일(금) 오후 4:15
김영섭 (건축문화, 건축가)	충남디 문화와 건축	4월 11일(화) 오후 5:00	4월 14일(금) 오후 4:15
김현타(삼우설계)	:Untitled	4월 25일(화) 오후 5:00	4월 26일(금) 오후 4:15
서해림 (서해립건축연구소, 건축가)	Passages of Exile		
공 철(건축가)	제3세대 건축가	5월 30일(화) 오후 5:00	6월 2일(금) 오후 4:15

- 단독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건축사사무 소별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를 폐지함.
- 건축사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축사시험관리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함.
- 위반건축사 등에 대한 과태료금액이 상 향조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을 조정함.

96년, 건축사시험제도 변경

지난해 12월 16일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건축사법이 개정되어 오는 96년 1월 1일부 터 건축사시험제도가 변경된다.

이는 종전의 1, 2차시험을 건축사예비시험과 건축사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건축사예 비시험 합격자는 그 자격을 영구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은

-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하거나 교육법에 의하여 이 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 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 무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은
-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1급 자격취득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 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취득자
-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건축분야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
-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경력자에 대한 경과 조치는 2 천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대당하는 자는 응시자격기준에 불구하고 건축 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 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 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 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로서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 무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나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건축에 관하여 14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한편 올해의 건축사시험은 종전의 제도에 의해 실시하며(단, 건축설계과제 예시 제는 폐지), 종전의 건축사보는 신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간주하고 앞으로 건축 사보는 건축 등 일정분야의 기술계 기술 자격 취득자와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로 한정한다.

그리고 기사1급자격이 없는 자는 5년이 상 건축사보로 근무하더라도 반드시 건 축사예비시험을 거쳐야 하며, 실무경력에는 연구경력이 포함되고 국가·지방자 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 무하고 있는 자에 대한 일부시험면제제 도는 폐지되며,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며, 시행시행일부터 3 년간 시험응시자격을 박탈한다.

시험과목 및 경력의 인정기준은 95년 상 반기 중으로 확정할 예정인 시행령과 시 행규칙에서 정한다.

95년도 건축사자격(면허)시험 시행 예고 공고

1995. 3. 7

대한건축사협회장

시 험 행 고	원 교 부 교 접 수	시 험 시 행 시 일	시 험 과 목		합 격 자 결 정 기 준	최 종 합 격 자 발 표	비 고	
			1차	2차				
'95. 5	'95. 5	'95. 7	'95. 9	○시험과목 - 건축구조 - 건축시공 - 건축법규 - 건축사 ○시험방법 - 객관식	○시험과목 - 건축계획 - 건축설계 ○시험방법 - 건축계획 - 주·객관식 - 혼용 - 건축설계 - 실기	매과목 100 점을 만점으 로 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평균 성적 6할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함.	'95. 11	- 기타사항은 건축사법을 참고 바람. - 건축설계 과제명은 사전 예시하지 않고 당일 출제함.

•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자격관리과) 또는 건설교통부(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자격관리과) : 581-5711~4, 건설교통부(건축과) : 504-9139